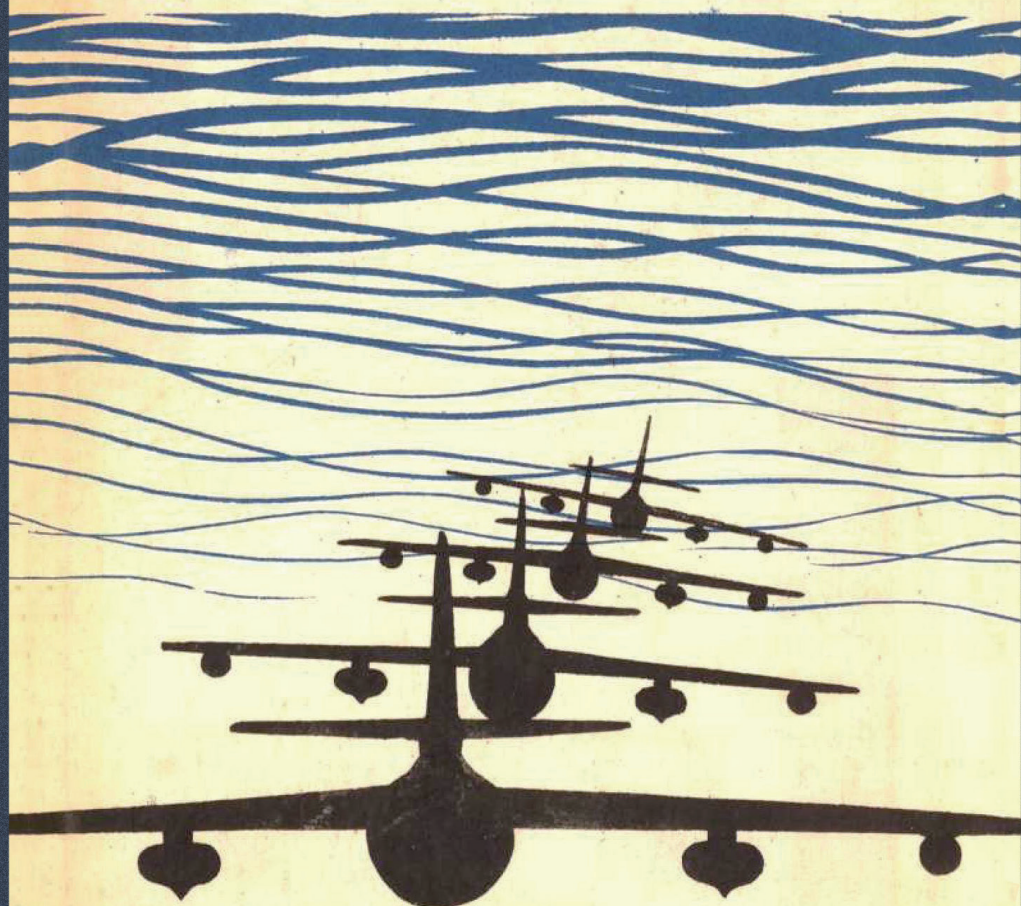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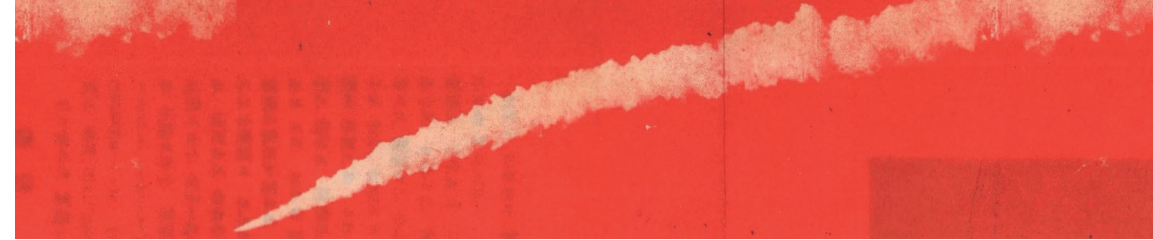


THE COMET

코메트



第 8 號



일러두기

1. 한자로 된 지명과 인명은 한자 병기를 원칙으로 함(한국, 중국, 일본).

◆ 한국 지명과 인명은 한문 직역으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한자 병기함.

大邱 → 대구(大邱)

安東 → 안동(安東)

李承晩 → 이승만(李承晩)

金貞烈 → 김정렬(金貞烈)

崔用德 → 최용덕(崔用德)

金日成 → 김일성(金日成)

등등

◆ 중국 지명과 인명은 중국 발음에 따른 현재 표기법으로 함.

臺灣 → 대만(臺灣)[타이완] 또는 타이완

北京 → 북경(北京)[베이징] 이하 같음.

上海 → 상해(上海)[상하이]

香港 → 향항(香港)[홍콩]

金門島 → 진먼다오(金門島)

安東 → 안동(安東)

瀋陽 → 선양(瀋陽)

延安 → 옌안(延安)

蔣介石 → 장제스(蔣介石)

毛澤東 → 마오쩌둥(毛澤東)

등등

◆ 일본 인명과 지명은 일본어로 표기

羽田 → 하네다(羽田)

東京 → 도쿄(東京)

茨城 → 이바라키(茨城)
橫須賀 → 요코스카(橫須賀)
久里濱 → 구리하마(久里濱)
立川 → 다치카와(立川)
土浦 → 쓰치우라(土浦)
相模原 → 사가미하라(相模原)
目黒 → 메구로(目黒)
昭和 → 소와(昭和)
등등

2. 한자로 된 나라이름과 지명은 옛 이름을 현재 명칭으로 수정 처리함(한국, 중국, 일본 제외).

◆ 나라이름

丁抹 → 정말(丁抹)[덴마크] 또는 덴마크
瑞西 → 서서(瑞西)[스위스] 이하 같음.
越南 → 월남(越南)[베트남]
和蘭 → 화란(和蘭)[네덜란드]
瑞典 → 서전(瑞典)[스웨덴]
波蘭 → 파란(波蘭)[폴란드]
등등

◆ 지명

華府 → 워싱턴
壽府 → 제네바
등등

3. 자주 나오는 한자는 이해하기 쉽게 의역하여 사용하였음.

其(後, 一) → 그 (후, 1)
然이나 → 그러나
此(에) → 이(에)
등등

4. 숫자 표기는 천 단위로 나눠 표기함

3000명 → 3,000명
등등

5. 한글 표기법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은 수정 처리함.

◆ 인명, 나라이름, 지명은 현재 사용법에 따라 수정 처리함.

나포레옹 → 나폴레옹
나폴레온 → 나폴레옹
에밀·솔라 → 에밀·줄라
트루만 → 트루먼
스타—린 → 스탈린
처어칠 → 처칠
피아테 → 피테

펜실바니아 → 펜실베이니아
모스코바 → 모스크바
베르링 → 베를린

치리 → 칠레
로오마 → 로마
로시아 → 러시아
란든 → 런던

루우마니아 → 루마니아

필랜드 → 핀란드

헝가리이 → 헝가리

불가리아 → 불가리아

토이기 → 터키

포올랜드 → 폴란드

등등

◆ 한글 맞춤법 표기법에 따라 수정 처리함.

(받았)읍니다. → (받았)습니다. (왔)읍니다 → (왔)습니다

이루워질 → 이루어질

(없었)드(라면) → (없었)더(라면)

할려면 → 하려면

키로 → 킬로

메터어 → 미터

가(요) → 까(요)

문직이 → 문지기

부쩍힌다 → 붙잡힌다

(사나이)았어 → (사나이)였어

알다싶이 → 알다시피

더부러 → 더불어

날으는 → 나는

(남)어, 었 → (남)아, 았

반짝어리는 → 반짝거리는

죄그만 → 조그만

별서 → 별씨

올 꺼야 → 올 거야

씨운 → 씩운

오랭캐 → 오랑캐

왔오 → 왔소

마조 → 마주

발르고 → 바르고

무우 → 무

나헌테 → 나한테

여니때 → 여느 때

미룰려 → 미루려

하루밤 → 하룻밤

서둘를 → 서두를

즐거히 → 즐기

고(코)저 → 고자

등등

◆ 정확한 외래어 사용법에 따라 수정 처리함.

젯트 → 제트

파이로트 → 파일럿

파이롯트 → 파일럿

레셋손 → 리셉션

포오카아 → 포카

부릿지 → 브리지

카바레 → 카바레

삼펜 → 샴페인

인터어뷰 → 인터뷰

댄스파아티아 → 댄스파티

코—쓰 → 코스

스케줄 → 스케줄

퍼어센트 → 퍼센트

테이블 → 테이블

쏘피아 → 소파

데리케이트 → 텔리케이트

쿠우·데타아 → 쿠데타

써어클 → 써클

에피쏘오트 → 에피소드

뉴앙쓰 → 뉘앙스

등등

6. 본문에서 사용한 부호는 현재 사용법에 따라 수정 처리함.

원문에서 대화일 경우 「대화 내용」— 대화내용」인 경우 → “내용”로 표시함.

원문에서 사용한 「」, 『』가 책, 논문일 경우 → 「」로 표시함.

원문에서 지명이나 인명에 「」로 표기한 경우 → 「」삭제함.

원문에서 … 혹은 ……… 로 점의 숫자가 다른 경우 → ………로 통일함.

7. 본문에서 대화내용은 그 맛을 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표시법과 상이할 수 있음.

8. 본문에서 안보이거나 누락된 글자가 있을 경우에는 □로 표시함.

9. 이해되기 어려운 단어 등에 대해서는 그 바로 옆에 []을 넣어 용어에 대한 영어 표현이나 아주 간단한 설명 또는 완벽한 용어로 이해에 도움을 주기위해 첨가하였음

10. 원문에 오류 등에 대해서는 주석이 필요한 경우 주석을 달았음. 아울러 본문에서 어려운 한자의 의미가 필요한 경우 주석을 달았음.

코메트 제8호 목차(目次)

☆ 무희(舞姬) 〈명화감상(名畫鑑賞)〉(세계미술전집(世界美術全集) 제29권에서)

코메트 화보(畫報)

★ 미 제5공군 후방사령관 스튜어드 P 라이트 준장에 이(李) 대통령 각하로부터 금성을 지무공훈장을 수여

★ 미 제5공군사령관으로부터 Z기의 설명을 듣고 계시는 이 대통령 각하 부처와 최(崔) 공군총참모장 각하

★ 1월 20일의 '반공포로'의 석방

★ UN군 총사령부 작전참모부장 어네스트 무어 공군 소장, 우리 공군분부를 방문

★ 전투비행단 기지 접수 1주년 기념식

〈권두언(卷頭言)〉 어심(魚心)·인심(人心) 서임수(徐壬壽) 1

근대(近代)의 민주주의적(民主主義的)

민족주의(民族主義)의 원형(原型) 고대교수(高大教授) 최문환(崔文煥) 4

★ UN본부(本部) 견학기(見學記) 외지(外誌)에서 134

제트 원자폭격기(原子爆擊機)의 출동(出動) 〈최초(最初)의 보고(報告)〉

푸란시스 드릭 12

▶ 이루어져야 할 태평양방공체제(太平洋防空體制) 김기점(金基漸) 39

특집(特集)

제(第)○○전투비행단편(戰鬪飛行團篇)

▶ 명예(名譽)와 전통(傳統)을 계승(繼承)하라 〈취임사(就任辭)〉 공군대령(空軍大領) 장지량(張志良) 24

▶ 문화오락시설(文化娛樂施設) 〈유토피아 ○○기지(○○基地)〉 공군대위(空軍大尉) 김응한(金應漢) 25

▶ 무스탕의 어머니 〈정비기(整備記)〉 공군소위(空軍少尉) 이정보(李禎甫) 28

▶ 마음의 유대(紐帶) 〈조종사(操縱士)와 정비사(整備士)〉 공군소위(空軍少尉) 백상기(白相基) 32

▶ 답답한 이야기 <조종사(操縱士)와 예보자(豫報者)>	공군대위(空軍大尉) 김영일(金英一)	33
▶ 강릉(江陵)의 사적(史蹟)	공군대위(空軍大尉) 심장섭(沈樟燮)	35
제(第)○○훈련비행단편(訓練飛行團篇)		
▶ 단장(團長)과의 6분간(分間) 대담(對談) <인터뷰>	이영일(李英一) 기(記)	54
▶ 일면훈련(一面訓練), 일면건설(一面建設) <기지(基地)의 이모저모>	공군소위(空軍少尉) 김찬구(金燦九)	56
▶ 은익(銀翼)의 노래 <훈련(訓練)의 하루>	CCY	60
▶ 항공(航空)과 의무(醫務) <제○○의무전대(醫務戰隊) 안내(案內)>	공군대령(空軍大領) 박천규(朴天圭)	63
▶ 기지계외(基地界限)의 풍속(風俗) <르포>	이서림(李舒林)	66
★ 구식(舊式)이 된 MIG	외지(外誌)에서	45
★ 제공권(制空權)	외지(外誌)에서	42
☆ 고(故) 안창남(安昌男) 씨(氏)의 분묘(墳墓)	유문수(柳文樹)	51
전쟁(戰爭)과 기상(氣象)과 항공(航空)	송태용(宋泰鏞)	72
제트기(機) 다음에 올 것	앤셀 E 탈버트	48
☆ 미국(美國)은 과연(果然) 소(蘇) 수폭공격(水爆攻撃)을 저지(阻止)할 수 있을까?	외지(外誌)에서	104
자유(自由)의 전사(戰士)		
반공포로(反共捕虜)의 석방(釋放)	타임 지(誌)에서	78
현대인(現代人)의 지적(知的) 딜레마	이활(李活)	129
<미술(美術)> 현대(現代)의 거장(巨匠)	C 월슨	88
<음악(音樂)> 세기(世紀)의 악성(樂聖)	밀튼 케이팅스	90
<종교(宗教)> 성서적(聖書的) 인류관(人類觀)	최성근(崔聖權)	92
<독서(讀書)> 수양(修養)과 독서(讀書)	조상원(趙相元)	93
<무용(舞踊)> 무용발달(舞踊發達)의 50년사(年史)	M 로이드	96
<사진(寫眞)> 이오지마(硫黃島)의 용사(勇士)	계문두(桂文杜)	95
<영화(映畵)> 줄리어스 시저	외지(外誌)에서	99

돌, 성좌(星座), 보리수(菩提樹)	박목월(朴木月)	84
★ 시(詩) ★		
눈	김요섭	112
축도(縮圖)	이화(李華)	114
종합(綜合)의 미(美)		
새로운 지성(知性)을 대표(代表)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김영수(金英壽)	108
수필(隨筆)		
잊지 못할 사람들	최정희(崔貞熙)	125
공상비행(空想飛行)	방기환(方基煥)	127
화우일기(花雨日記)	박용덕(朴容德)	121
직장(職場)과 행복(幸福)	김규동(金奎東)	118
전쟁문학명작선(戰爭文學名作選)		
기수(旗手)	알폰스 도우데	136
<소설(小說)>		
휴가병(休暇兵)	김장수(金長壽)	140

무희(舞姬)

여기 소개한 무희는 불란서의 화가 드가(Hilaire Germain Edgar De Gas 1834~1917)가 곤잘 주제로 하는 무용의 한 장면으로서 스타가 무대의 전면(前面)에서 춤을 추며 나타나는 구도로 되어 있다. 무대의 측면 하부에서 상부으로 치며 비치는 조명광선이 강하게 반사되어 무희를 조각처럼 우뚝 드러나게 한다. 배경에는 3, 4인의 무희들이 들락날락하는데 또 하나의 무희는 무대의 중앙에 나타나 춤을 하고 있다.

드가는 이와 같은 무희와 무대에 많은 흥미를 가지고 여러 번 붓을 들었다. 그는 “오페라 국립음악원은 한 개의 산 사회(社會)”라고 말하였으며 그의 작품에는 대개 이러한 방면이 주제가 되어 있다. 카뮈모크는 간결한 용어로서 그의 예술을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즉 “드가는 그 회화적 특질(特質)에 의하여 심각히 미의 영역을 개척하고 심리학적 관찰에 의하여 진실의 극(極)을 구명(究明)하였다.”라고.

드가는 처음 Lamothe에 사사(師事)하고 1856년에 이태리(伊太利)에 가서 르네상스 대가(大家) 및 산을 연구하였는데 1861년의 「세미라미쓰의 도시 건설」과 1865년, 사론 출품의 「오두레안시(市)의 재액(災厄)」 등에 그 성과가 나타났었다. 1867년경부터 오페라 좌(座)의 무대에 흥미를 가지고 거기서 특색 있는 주제를 잡았다. 1870년, 인상파에 합류하여 역사적인 제재(題材)를 버리고 현대생활을 그리게 되었다. 특히 「동적(動的)」인 진행에 흥미를 느끼고 경마나 무희를 몇 번이고 묘사하였던 것이다. 「욕실의 나녀(裸女)」, 「세탁소의 여인」 등은 그의 특독(特獨)한 작품들이다.

그는 1886년까지 인상파와 행동을 같이 하였는데 비교적 밝은 색조나 세부 생략 등으로 인상주의에 공통되는 특질(特質)을 보이고 있으나 고전적인 소양이며 덧쌍의 강조에 있어서 다른 인상파 화가와와는 판이한 특색을 보였다.

그리고 그의 대표작은 「소녀의 반신상」(1862년 작), 「세탁부」, 「경마장에서」, 「꽃다발을 가진 무희」 등인데 「어린 무희」라는 조각(彫刻)을 시도한 일도 있었던 것이다. 그는 파리에서 출생하여 파리에서 서거하였는데 여기 게재(掲載)된 무희는 그의 많은 ‘무희와 무대’의 작품 중의 하나이다.

(세계미술전집 제29권에서)





작년 6월 1일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투 또는 한국 공군 증강을 위하여 수공(樹功)한 미 제5공군 후방사령관 스튜어드 P 라이트 준장에 지난 2월 12일 대통령 각하로부터 금성유지무공훈장이 수여되었다.

(상)은 동 훈장 수여를 위하여 오산비행장에 비래(飛來)하신 이(李) 대통령 각하와 한미군(韓美軍) 수뇌

(하) 미 제5공군사령관 앤더슨 중장으로부터 Z기에 관한 설명을 듣고 계시는 이 대통령 각하 부처(夫妻)와 최(崔) 공군총참모장 각하

반공애국청년들은 1월 23일 그들의 식방과 함께 자유의 수호로서 정의의 승리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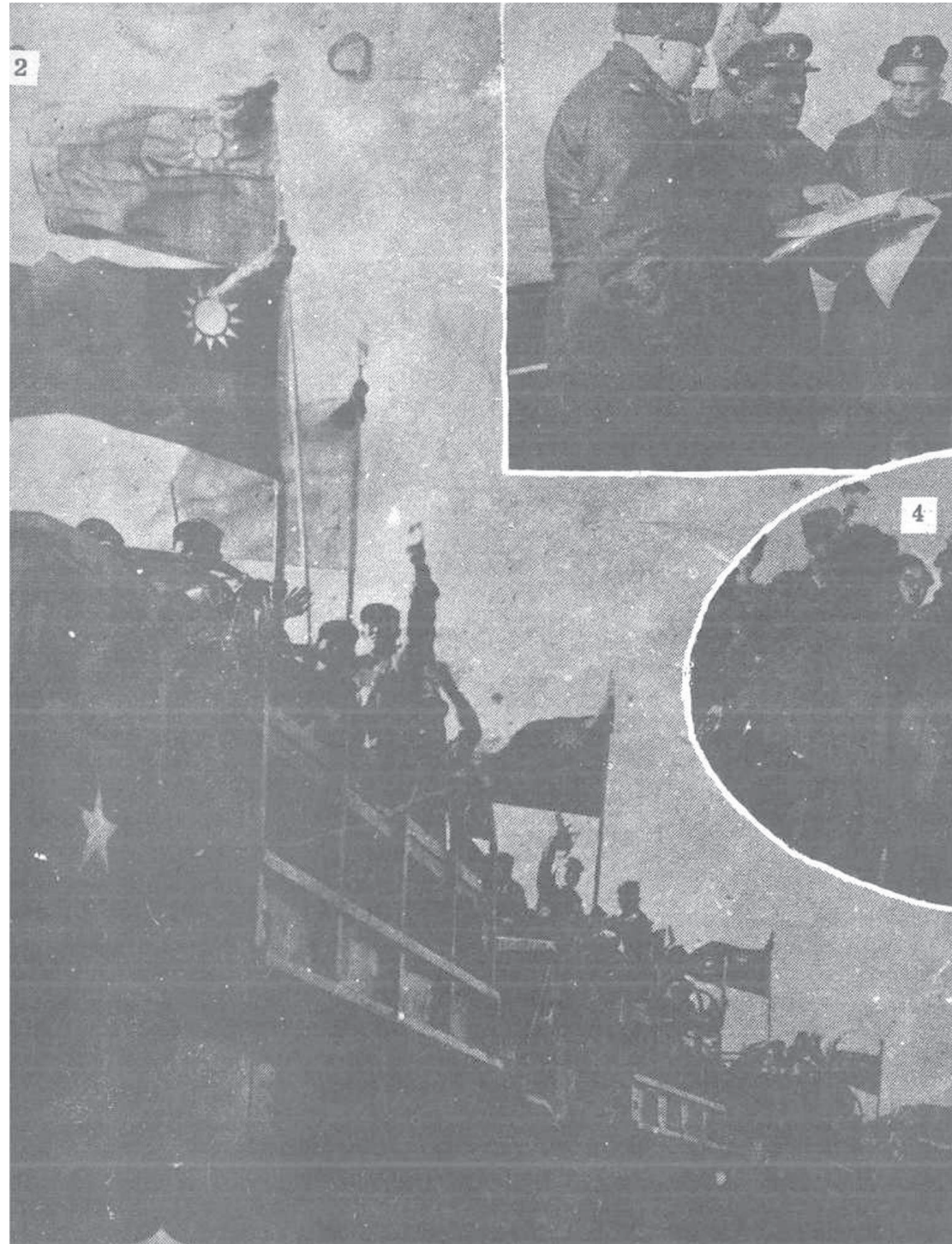
① 자유를 얻으려는 일념과 조국을 지키려는 일편단심으로 싸워온 반공 애국포로들이 1월 20일 인도관리군(印度管理軍)에 인도되어 자유 대항으로 돌아오는 광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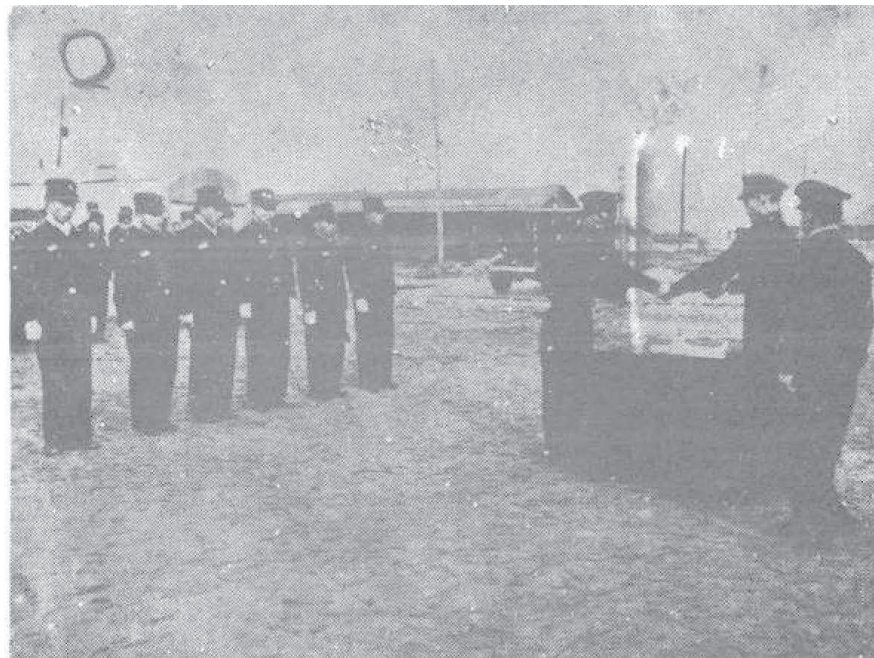
② 자유중국으로 향하는 반공중국포로들

③ 인수에 관한 협의를 하고 있는 UN 측 인수 책임관과 인도관리군

④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기자들

⑤ 문산(文山) 북방 자유(自由)역에서 반공애국포로들을 기다리고 있는 자유(自由)열차





권두언(卷頭言)

어심(魚心)·인심(人心)

정훈감(政訓監) 서임수(徐壬壽)

어느 맑은 봄날이었다. 물결이 청렬(淸冽)한 강가를 노자(老子) 선생이 제자(弟子)와 함께 문답(問答)을 하며 거닐고 있었다.

노자: “여보게 저 물속을 보게. 물고기들이 얼마나 유쾌하게 놀고 있는가!”

제자: “선생님은 물고기가 아니면서 어떻게 물고기가 유쾌한지 불(不)유쾌한지를 잘 아십니까?”

노자: “너는 내가 아니면서 어떻게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아느냐.”

비약(飛躍)하는 궤변(詭辯)이 묘(妙)하고 재미있다. 소 눈에는 사람이 3배로 보인다는 말이 있다. 그래서 사람 말을 듣는다는 것이다. 엄밀히 생각해보면 사람끼리도 마음속을 아는 것은 물고기 마음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렵다. 우리는 일상생활에는 무의식적으로 남도 자기와 꼭 같은 식으로 의식하고 생각하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어떤 때는 자기 이외의 사람들은 완전히 자기와 격리된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지 않는가하는 상념(想念)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 그럴 때 우리는 공통적인 계기와 기반의 단절(斷切)에서 오는 짙은 고독과 적막(寂寞)과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인간(개인)이 만물의 척도이다.”

“하물(何物)도 존재하지 않는다. 설사 존재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다.

또 알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을 타인에게 전할 수 없다.”

이는 희랍 계몽기에 한 소피스트들의 말이거니와 이와 같은 주관주의, 상대

주의 내지 회의론은 어떤 사회제도가 모순을 노정(露呈)하기 시작하여 그 기반이 동요하게 되면 언제나 주기적으로 나타났다. 어떤 개인의 우연적인 사고(思考)가 아니라 지배적인 시대사조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기반사회가 동요하게 되면 그 속에서 생활하는 각 개인의 생활은 당연히 심한 불안정속에 놓이는데다가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윤리 도덕 내지 사상마저 가치의 전도(顛倒)를 초래하게 된다. 당연하고 자명한 것으로 통용되던 원리들이 눈앞에서 무너지고 가치 있다고 생각되어 온 것이 무가치한 것이 되고 가치 없던 것이 가치 있는 것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경우에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자기중심으로 생각하고 개인중심으로 처리하여 보편적인 것 절대적인 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은 피치 못할 경향이다. 이와 같은 파괴적인 경향이 끝나고 사회체제가 안정되면 그에 따르는 새로운 통일적인 관념체계가 서서히 수립되어 가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놓여 있는 사태가 이에 흡사한 것은 주의해야 할 일이다. 자본주의체제의 동요는 사회 내에 많은 혼란과 불안을 야기 시켰고 두 번의 대전(大戰)과 점고(漸高)하는 3차전의 위험은 그 전율할 무기의 발달과 더불어 파시즘 공산주의 등의 광적인 전체주의, 독재주의를 양성하는 반면에 일방으로는 사회연대를 무수한 원자적 개체로 해소해 버리려는 경향을 조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일부에서 선전되고 있는 실존주의 철학도 크게 보아서 이러한 경향의 한 계열(系列)에는 틀림없는 것 같다. 물론 그것도 키에르케고르, 하이디가, 야스퍼스, 사르트르로 발전해가면서 그 중점이 종교적 윤리적 예술적으로 추이하는 변천을 겪었고 그 동안에 적극 소극의 뉘앙스의 차이도 있었다. 또 그것이 철학체계 내에서 인간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실천적 성격을 강조하는데 많은 의의를 남긴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불안, 퇴폐(頹廢), 절망, 결단(決斷) 또는 '죽음에의 존재', '무(無)의 심연에 다다른 존재' 등의 특징적인 표현으로써 나타나는 그들의 실존이 인간구조의 파악에 있어서 그 사회연대성(社會連帶性)을 견고히 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 인대(韌帶)를 이완(弛緩)시키고 단절시키는데 주로 작용한 것도 부정 못할 일이겠다. 이 점에 있어서 그것도 고래(古來)의 주관주의, 상대주의와 궤도를 달리하지는 않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는 20세기 후반의 광란노도(狂瀾怒濤)의 혼란 속에서 정치적 민주

주의와 경제적 사회주의를 같이 달성하지 않으면 안 될 임무를 지니고 있다. 일방에 있어서는 개인을 전체 속에 말살하려는 공산주의 파시즘과 투쟁하고 타방으로는 전체적 입장을 전연 무시하려는 무정부주의적 노선을 배격함으로써 정치적 민주주의의 이념과 제도를 견지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본주의의 폐해를 제거하여 인간평등의 이상을 구현할 경제적 사회주의를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에 근본적으로 전체주의적 입장에 항거하여 개개인의 존엄성과 자유를 고수해야 함은 물론이지만 개개인의 배후에서 개개인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재를 보장하는 사회적 연대적 입장을 망각하지 않을 심적(心的) 용의가 보다 더 필요한 것같이 느껴진다. 민주주의의 내부에 있어서 각개인의 관계를 마치 사람과 물고기 사이와 같이 해체하고 단절하려는 경향을 우리는 독재주의보다도 더 경계해야 할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자유진영 속에서도 가장 처참하고 난처한 위치에 놓여 있다. 이럴 때 사람들은 극단(極端)한 방향을 취하기 쉬운데 우리들의 짧은 민주주의의 역사와 전통은 더욱이나 이러한 경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의 과거는 우리의 지나친 개인주의 이기주의에 많은 경고를 내리고 있다. 이와 같은 조건하에서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속에 아름다운 장미꽃을 기다리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라고까지 어떤 나라의 신문은 말하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악의적인 비판을 가하는 나라가 장차 우리들과 같은 곤경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신에게 기도하는 동시에 민주주의에 대한전체 한국국민의 불타는 용기와 불퇴전(不退轉)의 연대적 투쟁이 자유세계의 희망과 활력의 근원이 되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현재 우리 눈에는 강 속의 물고기도 전체적 입장에 충실하게 놓고 있는 것같이 보인다.

근대(近代)의 민주주의적(民主主義的) 민족주의(民族主義)의 원형(原型)

장 자크 루소의 민족사상(民族思想)

최문환(崔文煥)

★고대(高大) 교수(教授)

루소가 호홉한 18세기 중엽 이후의 불란서 사회는 구제도(舊制度)의 허다한 모순과 불안을 내포하면서 서서히 불란서 대혁명으로 스스로 묘혈(墓穴)을 파는 위기의 시대였다. 이 위기는 사회경제면에서만 보일 뿐 아니라 사상계(思想界)도 우후(雨後)의 죽순(竹筍)과 같이 제사상(諸思想)이 총출(叢出) 난립되어 귀일(歸一)할 바를 몰랐다. 새로운 자연과학 정신과 합리주의에 의거하여 백과사전이 계몽 사상가들에 의하여 6판(版)이나 발간 발표되어 일반 민심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1772년에는 봉건제를 철저히 공격한 방대한 월간잡지(L'esprit des journaux français et étrangers)(내용이 400~450페이지나 된다)가 발간되어 사회문제를 주로 다루며 민중을 계몽시키고자 한다. 계몽 사상가들은 인간의 선천적인 자유와 평등의 인권 권리를 창도하여 기존 교육과 절대왕조에 반항하면서 구제도를 동요 침식하였다. 개인의 자유 감성의 분방한 발산을 대담 과감하게 주장하여 개인의 자유 소유 행복을 위로 하는 사회로 개조하려는 그들의 이론은 기존 사회질서에 혼란 동요를 촉진시켰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사회개혁론자의 공격에 대비하여 계몽사상을 반대하고 종교의 필요를 변호하는 보호진영이 출현하였다. 1770년에는 르페브르 드 보브레(Lefevre de Beauvray)에 의한 「사회애국사전(社會愛國辭典)(dictionnaire social et patriotique)이 출간되었다. 그들 보수진영은 개인의 자유는 방종이며 평등은 교만이라고 하여 신사상(新思想)을 배제하고 종래의 전통적 군주제를 옹호한다. 진보와 보수, 자유와 권위의 이론적 대립, 난립이 더욱 더 불란서 사회를 무질서의 잔향(殘巷)으로 만들었다. 록크의 이론을 계승한 백과사전의 이론가들은 개인의 자유, 소유, 행복의 자연권(自然權)을 주장하여 개인을 해방시키나 사회가 견고히 의거한 기초를 주지 않는다. 개인의 자유로운 행동과 행복을 추구하는 자유 분방한 감성의 발산은 공동사회의 질서를 해체시킬 위험성이 많다. 이와 반대로 절대 왕조의 추종자는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억압하여 자유로운 인간을 노예로 만들고자 하므로 그곳에는 인간의 집합이 있을 뿐이지 진정한 국가 정치단체는 없다. 그리하여 루소가 당면한 사유(思惟) 과제는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통합권위를 종합하여 민족적 결대(結帶)를 견고케



하는 진정한 정부의 자연, 본질(Nature de gouvernement)을 밝히려는 문제인 동시에 사상가로서는 록크와 흄스의 국가이론 간에 상화 배제되는 요소를 지양(止揚) 중합시키는데 있다.

루소는 “우리는 위기의 상태에 그리고 혁명의 세기에 접근하고 있다.”고 예민히 시대의 위기를 통찰한다. 이러한 국가사회의 위기에 종래의 절대주의 전형적인 이론인 흄스의 국가관이 이에 대응할 수 있을까? 루소에 의하면 흄스가 구상한 국가는 자연적 사실인 강력을 기조로 한 전제국가(專制國家)에 불과하다. 이러한 국가에는 다만 강력에 의하여 예측된 노예가 ‘집합’(agrégation)할 뿐 진정한 ‘단결’(association)은 없다. 따라서 그 곳에는 ‘공익’(公益)도 없고 ‘정치체’(Corps politique)도 없다고 비판한다. 설사 그곳에 자연적인 강력한 일개인이 세계의 태반을 자기 지배한다 하더라도 그는 다만 한 사인(私人)에 불과하며 그가 추구하는 것은 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그의 강력자인 지배자가 죽으면 민중을 공동적으로 연락시키는 공익이 없으므로 아무리 거대한 제국도 마치 불에 타는 괴목(怪木)과 같이 한줌의 재(灰)로 되어 분산해 버린다.

이러한 전제적 국가가 아니고 참된 국가는 국민의 자발적인 사회계약에 의하여 비로소 성립된다고 한다. 그에 의하면 사회계약의 이념은 “모든 공동의 힘에 의하여 각 성원의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며 그리고 각 성원을 전체에 결합시키면서 자기 자신 이외에 복종하지 않고 또 결합 후에서도 이전과 같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는 한 사회 형식을 발견하는데 있다.”

이러한 사회계약에 의하여 국가가 구성된다. 이 국가의 구성에 의하여 “자연적 상태에서 사회 상태로의 추이는 인간이 그의 행동에 있어서 정의가 본능에 대체되어 크게 주목할 변화를 일으키며 이제까지 없던 도덕성이 그의 행동에 나타나게 된다.” 즉 본능, 충동, 욕망 등에 지배되었던 무지, 몽매의 자연 상태에 있던 인간이 국가의 구성에 의하여 정의, 의무, 권리, 이성의 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이성적인 인간으로 된다. 이에 인간은 욕망, 충동, 무지에 낙애(溺愛)하던 노예에서 이탈하여 자기가 제정한 입법을 준수하여 도덕적 생활에 들어가게 된다. 이 점 루소도 밀톤, 칸트의 견해와 같이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은 자기가 세운 율법에 따라 행도하는데 있으며 이러한 도덕적 자유를 가지므로 참된 자율적인 인간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결합에 의하여 ‘도덕적 공동체’, ‘공동아(共同我)’가 구현되어 이 도덕적 공동체 위에 사적 이익을 고려하는 특수이익이 아니고 공동의 이익을 바라는 전체의지가 지배하게 된다. 이 전체의지에 의하여 결합된 국가에 있어서 비로소 인간들이 공동의 충성을 바치며 국가 전체의 공공이익에 단결 협동하게 된다.

이러한 전체의지위에 입각한 국가는 무엇보다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A) 공동이익에 입각한 전체의지에 따라 국가의 권력이 행사되어야 한다. “사회의 결합을 형성하는 것은 이러한 특수이익 안에 공통(共通)되는 것이 있는데 있다. 만약 모든 이익 안에 일치되는 것이 없는 데에는 어떠한 사회라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사회는 오로지 이러한 공동이익 위에 통치되어야 한다.”고 그는 생각한다. 특수이익에 결합된 국가는 영속성(永續性)이 없고 다만 우연적으로 존립할 뿐이다. 적어도 견고하고 영속적인 국가는 반드시 공동이익에 입각한 도덕적인 통합이 있어야 한다.

(B) 국가의 전체의지의 표현인 법률은 국가성원의 모든 인원의 의지에 의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가성원인 국민 전체가 그들의 전체의지를 여실히 표현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법률은 의지의 보편성과 대상의 보편성이 결합되어야 하며 그들 자신의 의지에 따라 제정한 법률을 그들이 준수하도록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비로소 인간은 타인의 의미 또는 위협에 의하여 예측되는 노예가 되지 않고 자율적인 자유로운 국민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이익과 자율적인 입법의 공통된 결대 위에 수립된 국가만이 국왕의 자의와 일부 특수계급의 사익에 의하지 않는 진정한 민주적인 애국적인 국민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국가에는 “인간의 성질이 변경되어 이제까지 고립 무원하던 개인이 큰 국가 전체의 한 성원이 되어 국가의 생명과 생존의 운명을 몸소 체험하게 된다.” 이와 같이 갱생된 국민은 애국심에 고무 격동되어 국가 전체를 위하여 헌신하는 위대한 애국열정이 겸비하여 진다. “공동의 경쟁에 의하여 자극된 감격에서 애국적인 감격이 날아날 것이다. 이 애국적인 감격심만이 인간을 자기 이상(以上)으로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것 없이는 자유도 공허한 명칭에 불과하며 입법도 몽상에 불과한 것이다.”

현란(絢爛)한 문자도 자유분방하게 이론 전개하는 루소의 사상에는 후세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사상의 제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나 그의 사상 기초는 어디까지든지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존중하는 18세기의 일반적인 사상을 내포하고 있다. “인간생활의 목적은 인간의 행복이다.”, “정치적 단결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의 성원의 존속과 번영에 있다.”고 한 것이 그의 심오(心奧)에서 우러나오는 사상 기초였다. 그러나 그는 록크와 그의 이론적 신봉자인 백과사전파들과 같이 개인의 자유로 안 해방이 사회의 조화로운 발달과 문명의 향상을 초래한다고 안일하게 믿는 경신자(輕信者)가 아니었다. 그는 인간의 도덕적 내면적 양심에 의거하지 않는 개인의 감성적인 일락(逸樂), 욕망의 자유, 분방한 방사(放射)는 도리어 국가 사회에 무질서와 불안을 격화시킴에 불과하다고 통찰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국가 구성에 필수 요건인 개인의 자유는 반드시 높은 도덕적 의의를 가져 자연적 자유는 도덕적 사회적 자유로 수검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도덕적 사회적 자유에 의하여 민중들은 자의(恣意)로운 특수이익을 억제하고 공동이익을 지향하게 되어 공공심이 발달하고 공동체에 헌신하게 된다고 본다. 이와 같이 그가 요청하는 사회는 이성, 자유, 전체의지에 입각하는 공동사회이며 엄숙한 민주주의(an austere Democracy)의 사회이다. 이 전체의지에 의하여 성립된 국가는 한 단체인격이며 ‘공동아’이어서 그 자체 고유한 의지를 가진다. 이 전체의지의 작용이 주권이며 주권은 양도할 수 없으며 동시에 분할할 수 없는 절대적 권력이라 한다. 개인의 진정한 자유를 확보하면서 단일 강력한 주권의 권력에 의하여 이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고자한 것이 그의 이론적 해답이었다.

루소의 이르는 전체의지, 보통의지는 후일 낭만주의가 생각하는 바와 같은 자연의 산물이 아니다. 낭만주의자들은 민족을 민족정신의 유구한 과거에서 유기적으로 생성한 자연의 산물로 보는 것이다. 루소의 그것은 어디까지든지 자유로운 인간의 이성적인 창조로 본다. 루소에는 낭만주의 사상이 다양 다채하게 전개된 자연의 찬미 인간의 자연 선량한 야만인을 성실 순박(淳朴) 위엄의 거울과 같이 예찬(禮讚)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은 독일(獨逸) 빈켈만의 고전예술의 찬미, 괴테의 웰텔의 고뇌, 영국(英國)의 Night thoughts에서 중농학파(重農學派)의 상농(尙農) 사상에 이르는 일련의 시대 사조여서 특히 루소의 다감한 시혼(詩魂)을 일층 더 예민히 감동시켰을 뿐이다. 독일 낭만주의의 주요한 특색인 중세봉건사회에 대한 예찬은 루소에서는 엿볼 수 없다. 루소는 중세사회를 인간의 자유가 없는 예측된 사회이며 “이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정부 위에서 인류가 추락하고 이곳에는 인간의 이름이 치욕이었다.”고 비난하였다. 그는 자유로운 인간을 조국애와 덕(德)의 앙양(昂揚)(amont de la partie elan de la vertu)으로 결합시킨 민주적 애국국가를 건조함으로써 해체 붕괴해 가는 사회가 의거할 도덕적 통합을 주고자 한 것이다. 민중을 진정히 자유롭게 해방시키고자 노력한 그는 억압 박해를 받아 망명(亡命) 유민(流民)의 생애를 하여 어떤 때는 격앙된 우매한 군중의 투석까지 받았으나 항상 인간애에 열렬하였다. 그가 열애한 그의 조국인 주네브공화국에 그는 버림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끌어오르는 조국애를 일평생 지니고 있었다. 일찍이 주네브 정치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루소는 샬멧드의 과수원의 시(詩) 안에는 “조국의 위기에 눈물을 흘리면서 옛날 현명하던 주네브 오나의 사랑하는 조국이며! 어떠한 악마가 그대의 가슴에 이 광란을 일으켰는가.”고 조국의 부패상을 비판하고 재흥(再興)을 열망한다. 다음의 시는 수일(秀逸)하지 못하나 그의 정치 이상을 엿볼 수 있다고 하겠다.

모든 사람이 알리라.
내 비록 약하고 가엾은 시민이매
세상에 이름 없으나
거룩한 주권자의 한 성원이다.
영웅의 심정과 성자(聖者)의 덕(德義)에 의하여
고귀한 우월(優越)을 주장해야 하리니
아! 이 천상의 값진 선물인 자유는
사악한 마음에는 치명적인 재앙이라.
그러나 우리는 이 올바른 권리를 지나치게 자만하지 않으리.
가장 선량한 사법관과 가장 총명한 법을
동시에 우리 자신에 쥐어 줄 날을 알기 위하여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격률(格率)을 배우리라.
나 너에게 묻노니 강력한 국가가 그들이 빛나는 운명을
쉽사리 끝마침을 보았는가?

우주에 가득찬 모든 공허한 화사(華奢)는 그들의 쇠사슬을 숨기는
얇팍한 빛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만이 가지는 가치로써 그들은 속박을 만들고

승리자 되어 비천한 노예가 되고 마나니 우리는 뉘우치지 않고 올바른 겸허에 살지라.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성벽 안에서는 자유롭다.

우리는 존대(尊大)한 오만도 영화로운 작위도 그리고 부정한 권력도 모른다.

여론에 뿌리박은 총명한 사법관만이 우리들의 분쟁을 판결하여 우리의 법을 지키게
한다.

그의 민족주의에 관한 견해는 코르시카와 폴란드를 위하여 편성한 헌법초안에 더욱 더 명확히 표시되어 있다. 코르시카 도(島)는 루소의 이상사회(理想社會)에 가장 적합한 조건을 구비한 한 도국(島國)이었다. 그는 「민약론(民約論)」에서 한 민족이 입법에 적합한 조건 (A) 민족이 노쇠해서 관습 편견에 사로잡혀 개선되기 어려운 민족이 아니고 항상 민족 청년의 기백으로 진취 진전하는 민족이라야 하며 (B) 한 민족이 너무 광범하여 사회적 결합이 어려운 국가 또는 너무나 왜소한 국가이어서 방위 유지할 수 없는 정도로 아니 자위에 적당한 국가이라야 한다. (C) 토지의 생산력이 민족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영토와 인구 간에 적응한 관련이 있는 민족이라야 한다. 이와 같은 조건을 구비한 국가가 그의 이상국가(理想國家)이었는데 루소에게는 코르시카 도가 종래의 관습과 편견에 예속되지 않고 외국의 침략에 억압될 염려가 없으며 자연적인 방위력을 가지고 생산력은 풍부하여 자족 자급할 수 있는 충족한 국가로 보았다. 그리하여 그는 코르시카 도의 헌법의 초안을 그의 이상사회 이론을 적용시킬 좋은 기회로 보았다. 코르시카 도인(島人)은 다음과 같이 맹세를 부르도록 하여야 한다. “거룩하신 하느님의 이름과 말씀에 의하여 나는 신성하고 불변한 맹세로서 신체, 재산, 의지, 또는 나의 힘을 코르시카 국가에 단결한다. 국가에 모든 재산과 나 및 나에 의존하는 모든 것이 소속된다. 나는 국가를 위하여 살며 죽으며 그의 법을 준수하며 법에 일치되는 모든 주장과 합법적인 재판관에 순종할 것을 맹세한다. 하느님은 우리의 생활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정신을 수호하신다. 자유, 정의, 코르시카 공화국 만세, 아멘.” 그는 코르시카가 타국민의 원조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자유로우며 부유와 빈곤에 치우치지 않는 자급자족의 국가가 되려면 농업을 위주로 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한 국가가 독립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농업에 있다. 상업은 부를 만드는 것이나 농업은 자유를 확보한다고 생각하는 때문이다. 그리고 농민은 좋은 군대가 되어 그들의 자유를 옹호하고자 하므로 국가가 타국의 침략에 압도되지 않으며 독력(獨力)으로써 다른 국가에 저항하는 힘을 갖게 되며 국가의 독립과 자유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하였다. 개농개병(皆農皆兵)의 원칙에 의하여 모든 국민은 같은 권리나 의무를 향유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상호간에 자유의 원칙에 입각하지 않고 어떠한 귀족적 특권 신분의 차별 등이 있으면 국가 내에 부분 사회가 성립하게 되어 국가 자체의 힘

이 멸살(滅殺)된다. 그러므로 국민 각원(各員)의 자유가 필요하며 각기(各己)의 자유는 각 인간에 평등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평등이 필요한 것이니 모든 국민에게 자유와 평등을 향유하고 같은 권리와 의무 관계를 가져야 한다. 그리하여 평화와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국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루소가 코르시카 도에는 이상과 같은 구상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다음에 다루고자 한 폴란드의 문제는 그의 광범한 국토, 기존 귀족의 전제적인 특권 행사, 인접한 러시아, 프로시아, 오지리(奧地利)의 야욕 앞에 분할될 위험을 받으면서 잔유(殘虐)하고 있는 이 국가의 재생재건의 대책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다. 1772년 당시 폴란드 백작의 요청에 의하여 「파란(波蘭)[폴란드]의 정부 및 그의 개선안(Considérations sur le gouvernement de Pologne et sur sa réformation projetée en Avril 1772)」의 논문은 그의 정치론의 최후의 것인 동시에 민족주의 이론에 많은 흥미가 있다.

폴란드 민족이 훌륭한 민족으로 갱생하려면 고대에 있어서 모세가 창랑과 예속의 상태에 있던 유태(猶太)민족을 자유로운 민족으로 갱생 주조하였으리 리쿰카 스팔타 민족을, 누마가 로마 민족을 주조한 역사적 교훈을 배워야 한다. 이러한 위대한 민족 창조자의 정신이 민족적 제도를 만들어 한 민족을 애국주의에 불타는 민족으로 갱생 주조하는 것이다. 이 민족적 제도는 국민을 조국에 결합시키는 결대를 만들고 그들만이 민족적으로 고유하게 소유하고 있는 특수한 관습 종교적 의례(儀禮)를 갖게 한다. “민족적 제도는 인민이 자기 자신 형성하는 것이어서 다른 인민이 형성하지 못하는 한 인민의 천품(天賦) 성격 취미 관습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근절할 수 없는 관습에 입각된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고무하고 다른 인민 안에서는 혐오감을 주는 것이나 그의 조국 안에서는 환희의 품 안에 심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구라파의 제 국가는 민족 고유의 제도를 무시하는 경향을 갖고 있으나 폴란드는 이러한 과오의 도정(道程)을 밟지 않고 민족 특성을 살리는 민족적 제도를 채용하여야 한다. 폴란드는 이러한 민족적 제도에 의하여 민족에 애국주의를 고취시키게 되면 어떠한 강력한 국가라도 억압 예속시킬 수 없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예속 밑에 있었으나 이제 자유롭게 남아 있다. 이 위대한 실례(實例)는 당신들에게 어떻게 인접 국가의 강력과 야심에 도전할 수 있는가를 표시한다. 당신들은 당신들을 삼키려는 것을 제어할 줄 모른다. 적어도 당신들을 소화시키지 못하도록 하여라. 시민의 덕의(德義), 애국적 열절, 민족적 제도가 그들의 정신에 주는 독특한 형태 이것만을 항상 수호하도록 하면 어떠한 군대라도 강요하지 못하는 것이다. 당신들이 이와 같이 한다면 폴란드는 러시아인으로 되지 않을 것이며 나는 러시아가 폴란드를 정복하지 못한다고 대답한다.” 그는 민족적 제도에 의하여 의연(毅然)히 외국의 침해를 막고 조국을 수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다음의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즉 폴란드가 과거의 위대한 시대에 가졌던 거룩한 민족적 유업(遺業)을 계승하도록 일반 국민에게 주지시키며 기념비를 건립하여 민심을 작흥(作興)시켜야 한다. 그리고 민족정신을 양양 고취하도록

십년마다 주기적으로 민족성전(民族聖典)을 개최하여 조국을 위하여 수난한 선열 공훈 있는 자를 찬양하며 그들의 유가족에 영예로운 특권을 주도록 하라. 그러나 이 민족성전, 민족제(民族祭)에 러시아의 조롱(嘲弄), 증오를 도발시킬 운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이와 아울러 민족적 관습을 부활시키며 타 국가의 관습을 쓸데없이 모방하지 말 것이며 민족적 유흥(遊興)을 장려(獎勵)하여 애국심을 환기시키도록 권고한다.

무엇보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유아 시(時)부터 애국주의를 주입 조장시키도록 하는 교육 문제이었다. “인간에 민족적 형태를 주도록 하며 그들이 애호, 열정, 필연에 의하여 애국적이 되도록 그렇게 그들의 의견, 취미를 지도하는 것은 교육이다. 안혈(眼穴)이 열리는 유아가 조국을 보도록 하며 죽을 때까지 그것 이외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야 한다. 모든 진정한 공화국인(人)은 어머니의 젖을 빠는 동시에 조국에 대한 사랑 즉 법률과 자유에 대한 사랑을 받게 한다. 유아 시부터 조국애를 배양시키기 위하여 10세에 모든 국가 생산물을 알게 하며 12세 시에는 모든 지방 도로 도시를, 15세 시에는 역사, 16세 될 때에 모든 법률을 습득 주지시켜야 한다. 그리고 교육 방법은 종래의 전통적 방법을 포기하여야 한다. 종래에는 가톨릭교회의 신부 또는 외국인인 폴란드의 교육을 독점하였으나 이러한 외국인과 교회의 신부를 교육 기관에서 배제하고 폴란드인에 의하여 오로지 교육시켜야 한다. 그리고 교육은 의무적으로 하여 무료로 하든지 그것이 불가능하면 급비(給費) 제도에 의하여 빈곤한 자제에도 교육에 문호를 개방하도록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신분 부귀의 차별 없이 민족적이며 세속적인 교육을 시키며, 자연과학 체육의 교육에 중점을 주어 건강한 신체와 도의심(道義心)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형식적인 교육만으로는 불충분한 것이니 민족적 경기 체육제(體育祭)를 만들어 민족정기를 양양하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체육제는 “피상적(皮相的)인 인간의 안목에는 무용한 제도로 보일 것이나 열애의 습관과 무쌍의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다.” 성년 교육도 항상 공공의 경기 축제 연극 등에 의하여 민족 고유한 성격을 육성시켜 조국애를 고취시켜야 할지다.” 이와 같이 루소가 열거한 제안 중에 중요한 점은 ① 외국인이 폴란드의 국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외국인의 국왕은 반드시 외국 풍습을 초래하여 민족 고유한 성격을 말살시킬 위험성이 있는 때문이다. ② 국민군(國民軍)을 국민개병(國民皆兵)의 원칙에 따라 창설하도록 제안한다. 국민개병제도는 국가적으로 경비가 절약될 뿐 아니라 모든 자유 시민이 군역(軍役)에 봉공(奉公)하는 것을 의무로 생각할 뿐 아니라 영예로 생각하게 된다. “모든 폴란드 국왕의 확책과 동시에 인국(人國)의 그것에 대항하여 그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전사가 되리라.” 군대는 외국의 침략자에 대하여 조국을 방위하는 것보다 일층 더 중요한 임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여 자유국가가 되도록 하는 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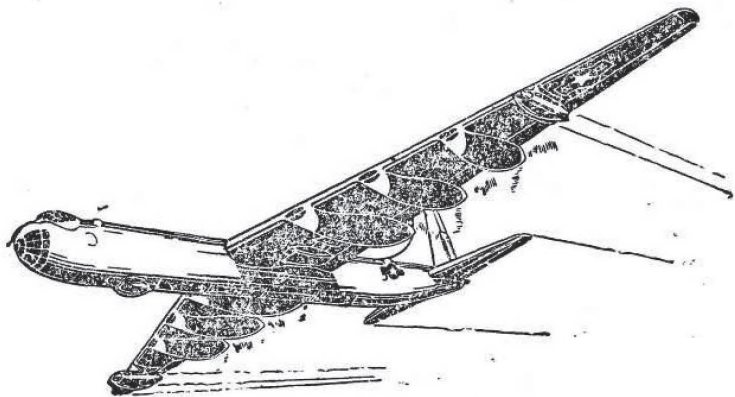
루소가 폴란드 민족에게 권고한 민족정신을 작흥(作興)시키는 방법인 민족적 습관의 부활, 민족제, 민족교육, 국민개병 등의 방안은 세기의 민족주의 발전에 지대한 암시와 지향(指向)을 주었다 하겠다. ‘이성(理性)의 자기 신뢰’를 기치(旗幟)로 한 계몽사상의 지적 분위기에서 민족주의 사상이 활발히 전개된 것은 참으로 루소의 천재적인

섬광에서 비로소 출현되었다. 할 수 있다. 루소의 민족주의는 그 후 불란서 혁명 시에 현실적으로 결실, 실시하게 되었으며 후진 민족을 계몽, 격려시킨 이론적 무고(武庫)였다. 그는 인간의 자유와 평등의 이론으로 인간을 해방시키는 이론인 동시에 애국주의를 고무시키는 이론의 제공자이었다. “덕에 의하여 고무된 조국애와 자유에 대한 사랑은 불가분리이다.”하고 “정의와 진리 이것이 인간의 제1의무이다. 인도(人道)와 조국 이것이 제1애정이다. 이 질서를 변경시키는 특별한 방안의 모든 실험은 유죄이다.”

이와 같이 철쇄(鐵鎖)에 얽어 매인 인간을 압제와 특권이 없는 자유와 평등의 사회로 인간 해방을 하려는 그의 주장은 동시에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의 예측 질곡(桎梏)을 탈각(脫却)하여 각 민족이 민족 자결을 하여 인류 전 민족이 자유와 평등을 다 같이 향유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일관한다. 그리하여 개인의 자유와 조국에 인도와 조국 세계주의와 민족주의가 이양(異樣)히 교직(交織) 융합하여 각 민족을 자랑할 과거의 문화재(文化財)를 계승 발전시키며 민족 고유한 활동을 하면서 인류 진보의 공동 목표를 향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하여야 된다고 믿는다. 인민주권과 민족자결의 원칙에 의하여 국내 국제적으로 자유 평등을 실현하면서 각 민족이 상호 경쟁 협동하여 인류 사회의 자유 무의(無疑)한한 차륜(車輪)이 세계 평화와 인류 진보에 향하여 아름답게 전진한다고 믿는 인도주의적 민족주의는 루소에 원형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113면(面)에서)

단순한 자연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적(神的)인 것으로 체험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괴테의 자연철학적인 문학은 이러한 운동의 대표적인 고전(古典)이 되어 있는 터이다. 그러나 현대에 오면서 일어난 아메리카의 IRVING BABITT 등이 제창한 HEW HUMANISM의 문제라든가 또는 독일(獨逸)의 WERNER JAEGER 등의 휴머니즘이라는 것들은 그 모두가 주지적(主知的)인 방법의 태무(殆無)가 특징인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현재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왜 그러나 하면 휴머니즘 자체는 방법에 선행하는 동기이고 현대 그것은 방법 그것의 형성인 까닭이다. 그러나 이 안티 휴머니즘한 방법의 형성은 가실 새로운 휴머니즘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었음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우리가 만약에 이와 같이 생활 수단에 선행한 휴머니즘을 현재 지성에 의하여 여과(濾過)시켰다면 필연적으로 우리들의 감정은 추발되고 당위적 가능성으로서의 새로운 안티 휴머니즘은 주지적인 방법의 한정에 의하여 행동적 현실을 발견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행동적 현실은 휴머니즘의 정치적 표현으로서의 데모크라시의 세계적인 진출로 말미암아 그와 마주서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현대적인 개념 위에 선 현대인에 있어서 그 행동의 풍습 속에 딜레마를 되풀이 할 이유가 없게 된다는 말이다. 다만 현대 사회의 분화(分化) 방식에 순응한 기계인간 그것조차도 도구(道具)의 기능으로서 역사에 이용되고 있는 양상은 궤율규가 이미 보여준 바가 있다. (끝)



최초(最初)의 보고(報告)

제트 원자폭격기(原子爆撃機)의 출동(出動)

푸란씨 V 드럭

☆ 전재(全載)

훈련에 훈련을 거듭한 이 원자폭격기의 승원(乘員)이야말로 현대 군대의 정예부대이다. 지금처럼 평화 시의 전투원에 물심양면의 부담이 많을 때는 없다. 그들은 군대라는 것이 출현한 이래 지금까지 유례없는 새 생활을 보내고 있다. 평화를 즐기고 있는 민중들 틈에 살면서 그들은 항상 전시(戰時) 태세 위에서 있는 것이다. 하루 24시간 1년이면 365일 잠깐도 경계 태세를 풀지 않고 대기하고 있으며 백악관으로부터의 명령 일하(命令一下)에 당장 출동하여 침략국이 미국을 해치기 전에 적에 대하여 보복적 공격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 29세이다. 그러나 그들의 눈은 청년의 눈이 아니다.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파괴 병기를 취급하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장시간에 걸쳐 지상 12킬로라는 고공에서 뼈살을 깎는 듯한 노고를 거듭하기 때문에 젊은 몸이지만 벌써 흰 머리 털을 볼 수 있으며 정신적으로 피곤해 버린 자를 그들 중에서는 흔히 찾을 수 있다. 윈스턴 처칠 경(卿)은 한때 이 같은 군사력이야말로 제3차 전쟁의 발발을 막아 온 한 개의 힘이라고 말한 바 있지만 처칠 경은 국민대중이 베개를 높이하고 잘 수 있는 그늘에는 이러한 숨은 공로자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원자폭격기의 승원은 모두 추려낸 출중의 정예뿐이다. 제가꿈 자기의 탑승기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전쟁이 시작된 경우에 공격을 가하여야 할 목표까지도 벌써 다 정해있어 그 적지(敵地)의 목표에 달하는 비행 연습을 싫도록 되풀이 하고 있다. 그래서 승원에는 교체원이란 도저히 없다. 그들은 지구의 끝—어떤 사람은 극동 또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로 그리고 구라파, 남북 양극 혹은 적도 등등—까지 몇 번이고 원자폭격 연습을 결행(決行)하여 항상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태세로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뿐만이 아니다. 이런 장거리 비행의 틈틈이 그들은 매일 같이 기지를 떠나 일단 해상으로 나가 거기에서 되돌아 와서 전쟁의 경우에 공격을 할 적의 목표에 비스

한 장소로서 예정해 둔 미국의 거리를 폭격하는 연습까지도 하고 있다. 국민들이 고요히 꿈나라를 더듬고 있을 때에 그들은 조용히 잠들은 밤하늘을 비행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비상한 고공을 날고 있으므로 기영(機影)도 안 보이고 폭음도 들리지 않는다. 이런 비행은 실전과 같은 조건 밑에 행해지는 것이다. 다만 다른 것은 서로의 사격이 없는 것과 비행기의 폭탄에(爆彈)에 들어 있는 것이 연습용의 모의폭탄이라는 두 가지 뿐이다.

이 글은 이러한 실전과 같은 상태 밑에 행해지는 전형적인 장거리 폭격행(爆撃行)을 자세히 보고한 것이다. 이와 같은 보고가 발표된 것은 이것이 처음이지만 이제부터 소개하는 폭격비행에 참가하는 비행기는 전략항공대(戰略航空隊)가 자랑하는 최신의 작전기(作戦機) B-47 후퇴익(後退翼)을 가지고 그 출력 5만 마력 북미 대륙을 불과 3시간 46분으로 횡단한 세계에서 최고속의 제트폭격기이다. 전략항공대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폭격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B-47은 오히려 미래에 속하는 폭격기로서 그 위력 때문에 전쟁의 발발을 막는 데에 최대의 희망이 지워져 있는 것이다. 이것은 또 그 승무원에 있어서는 제일 귀찮은 폭격기이다. 그 크기는 제일 대형의 여객기만 하지만 그 내부는 연료와 전자 장치 등으로 꽉 차 있으므로 승원 세 사람밖에 탈 수 없다. 타기만 하면 그만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도 쉴 수도 없으면 다른 대형 비행기에서 15명의 승원이 하던 일을 세 사람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각 낮 열두 시다. 빨강게 전등이 켜 있고 지도를 펴놓은 한 방에서 지금 막 1대의 원자폭격기의 승원이 마치 서커스의 위험한 줄타기의 곡예(曲藝)를 보는 관중과 같은 긴장한 태도로 참모장교의 지시를 듣고 있다. 모두 오랜 세월에 걸친 특수훈련으로 연마된 우수한 탑승원뿐이다. 일단 유사시에 적에 대하여 최고의 반격을 할 사람들이다.

참모장교의 지시는 마치 실전과 같은 조건 하에 행해지므로 외부에서 이것을 들었다면 전쟁의 예감으로 소름이 끼칠 정도일 것이다. 도시가 날라 버리는 것도 아니고 대량 살육이 행해지는 것도 아니지만 참모장교가 거침이 없이 적 섬멸작전의 자세한 모양을 지시하는 것을 듣고 있으면 어딘가 모르게 참말 전쟁인지도 모르겠다 하는 착각에 사로잡혀서 몸부림을 금할 수 없게 된다. 기어코 전쟁이 일어났는지도 모른다. 다른 것을 보고 있을 때와 달리 외부 사람도 처음으로 이 사람들이 그 어깨에 걸머진 무서운 만큼 중대한 책임을 몸소 느끼게 된다.

높이 걸려 있는 흑판 위에 폭격 목표의 확대 사진인 2미터 반(半) 평방의 큰 사진이 걸려 있다. 산(山)에 둘러싸인 중도시(中都市)이다.

“제군이 실전의 경우에 공격하는 적이 목표와 잘 닮았다는 점에 주의하여 주기 바란다.”라고 참모장교는 말한다. 그의 손에 쥔 지휘봉은 또 구형(矩形)의 지붕이 복닥거리는 곳을 가리킨다.

“이것이 비행기공장……여기가 목표이다. 이번에는 레이더에 이것들이 어떤 모양으로 들어오는가를 보자.”

또 하나의 사진을 여러 사람 앞에 내 놓는다. 까만 형질 위에 말라붙은 썩은 빵 조각을 사진에 찍은 듯한 것이지만 실제로 폭격기가 목표에 가까웠을 때는 그 목표는 이와 같은 모양으로 레이더 위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 지시는 실로 전후(前後) 3시간이나 걸렸다. 이 폭격계획은 20명의 전문가가 하룻밤 걸려서 작성한 것이다. 폭격행에 소요 되는 가솔린의 양은 비행기의 연료 탑재 능력의 2배 이상에 달한다. 그래서 계획에 따라 비행 중 전후 두 번에 걸쳐 도중에 대기하고 있는 급유기(給油機)에서 연료의 공중 보급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게다가 제1회의 급유는 야간에 하기로 되어 있다.

기어이 승원이 비행장에 대기하고 있는 탑승기가 있는 곳으로 갈 때가 왔다. 비행기는 벌써 이날 이른 아침부터 정비에 종사하는 지상 근무원의 노력에 의하여 만반의 비행 준비를 완료하고 있다. 기장에게 하나의 명세표를 제시하는 데 이것은 창고의 재고품 목록을 연상케 할 정도로 비행기의 각종 비품이 600여나 열거해 있다. 비행기의 출발 전에 이번에는 승원 자신이 일일이 최후에 점검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조금이라도 허수룩게 여길 수 없이 주의를 필요로 하는 일이지만 여기에 꼭 두 시간이 걸린다. 교회에서의 송찬(頌讚)에 비슷한 낭독이 시작된다.—전(前) 차륜 좋아 주(主) 차륜 좋다. 이렇게 점검을 하는 작은 사람들 위에 거대한 비행기가 우뚝 서있다. 이 무시무시한 파괴 병기는 화살 같은 유선형(流線型)의 몸에서 희미한 빛을 방사하며 몇 톤씩 되는 비밀 비품을 잔뜩 안고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다.

이륙은 오후 6시 정각이다. 시간은 벌써 5시간 반이다. 승원은 인제야 비행기를 탈 때가 되었다. 기장은 32세의 중령으로 제2차 대전의 역전(歷戰)의 용사이다. 부조종사는 29세의 소령이며 역시 역전의 용사. 또 항공사—두 조종사는 그들 비행기 위에서의 제일 중요한 인물로 생각하지만 이 사람 역시 소령으로 연령은 27세, 이 셋이 항공대에 들어 온 후의 연수를 합산하면 27년, 가슴에 붙인 전투훈장은 전부 열 줄이나 되어 셋이 힘을 합하면 공과대학도 세울만한 과학지식도 가지고 있다.

지금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 이 세 사람의 모양은 깊은 바다로 들어가려는 잠수부와 우주비행을 떠나려는 모험가와의 혼혈이라는 격이다.—얼굴 쪽에 글라스를 단 강철제의 철모를 쓰고 몸에 꼭 맞는 기압조절복(氣壓調節服)을 걸치고 비상대(非常袋)와 낙하산을 걸머지고 여러 가지 관(管)과 전선(電線)이 전신의 중환에 열기설기 걸려 있다.

5시 50분—세 명의 승원은 비행기 밑에 서서 긴 열을 짓고 그들을 전송하는 참모장교와 비행대의 장교 혹은 비행기의 출발 준비를 하여 준 정비원과도 잠시 인사를 한다. 이 세 명이 쥐고 있는 파괴력은 제2차 대전 당시 ‘하늘의 요새’라고 하던 B-17 1천기(機), 그 탑승원 11,000명이 발휘하는 파괴력에 비등하다.

5시 52분—세 사람은 사다리를 올라가 기체(機體)에 들어간다. 천개(天蓋) 밑에 작은 빈자리가 있어 여기에 정부조종사가 앉는 강철제의 자리가 앞뒤에 두 개 있다. 항공사는 좁은 통로로 기수(機首)까지 가니 여기에 기계가 많이 놓여 있는 창이 없는 골방이 있다. 비행 중 그는 이 골방에서 혼자 들어 앉아 머리가 어질어질 하는 복잡한 계산을 하는 것이다.

세 사람은 각각의 좌석에 꼭 몸을 붙들어 매어 산소와 공기 혹은 전기가 통하는 관(管)과 선을 몸과 연락(連絡)한다. 도어가 꼭 닫히고 이것으로 외계와는 완전한 절연(絶緣)된다. 여섯 개의 엔진을 왕왕 울리며 비행기는 곧 출발점을 향해 움직인다. 귀중

한 연료는 1리터도 낭비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기지의 사령탑에 통고가 전달되어 활주로에 다른 비행기는 가까이 하지 않는다.

5시 58분—비행기는 활주로의 출발 지점에서 브레이크¹⁾를 밟는다. 곧 총계 5만 마력 엔진의 이 요란한 소리를 낸다. 전개(全開)의 테스트이다. 배기가스의 온도는 800도나 되며 백열화한 터빈²⁾은 1분간에 7,000속도로 회전한다. 기지 전체가 명동(鳴動)하는 것 같다.

5시 59분—조종사는 1분 1초의 어김도 없이 예정 시간 정각에 비행기를 출발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복잡한 전(全) 비행계획은 연료의 소비도 5,000킬로의 저쪽 상공에서 행해지는 급유기와와 상면(相面)도 모두가 정확한 시간 위에 조직되어 있는 것이다.

제트기는 인제는 활주 준비의 완료함을 신호한다.

조종석은 갑자기 바이올린³⁾의 실과 같이 긴장된다. 이 같이 중량 있는 비행기의 경우에 약간의 출력의 오차로 이륙 시 대참사를 일으키기 쉽다. 조종사는 움직이기 시작하려는 비행기의 브레이크를 꼭 쥐고 있다가 6시 정각에 놓아 준다.

금속제(金屬製)의 대(大)괴물은 뒤로 여섯 줄의 연기를 뿜으면서 콘크리트의 활주로를 미끄러진다.

“부조종사로부터 조종사에게 최고 거부(拒否) 스피드 125노트.”(거부 스피드라는 것은 되돌아 설 수 없는 속도로 이 속도에 달하면 벌써 부레기는 밟을 수는 없다. 비행기는 이렇게 되면 반드시 이륙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렇지 않으면 충돌의 참사를 면치 못한다). “125노트에 가깝다. 조금 더 125.” 비행기는 아직 무거운 듯이 활주로를 가고 있다.

“부조종사로부터 조종사에게 이륙속도 145……현재의 속도 130……140……150……” 조종사는 이를 세계 악문다. 제트폭격기의 이륙에는 최후의 수초간(數秒間)에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필요로 한다. 조금이라도 빨리 이륙시키면 비행기는 실속(失速) 상태에 빠져 추락해 버린다. 반대로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당장 활주로를 지나가기 쉽다. 어떤 때라도 비행기는 불명여기가 되어 승원 탈출의 틈은 전연 없다.

123호 기는 겨우 활주로를 떠난다. 활주 차륜이 기체 속에 들어간다. 정부조종사는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눈이 부실 듯한 복잡한 기계를 척척 조절한다.

비행속도는 시속 500킬로……차차 상승할 때다.

11,000미터까지 상승하여 비행기는 수평비행으로 옮긴다. 센 바람을 받아 스피드는 시속 960킬로나 된다. 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는다.—속도가 너무 빠르므로 엔진의 요란한 울림도 모두 뒤로 흘러버리는 것이다. 굉장한 속도로 날고 있다는 기분은 전연 없다. 진동도 전연 없다. 밖의 기온은 지금 영하 50도나 된다.

하늘은 맑게 개어 생물의 그림자는 하나도 없고 일대(一帶)가 깊은 암자색(暗紫色)이다. 무서울 정도의 고독감이 점점 가슴에 다가온다. 막막히 대지를 뒤덮고 있는 구름마저 밑에 깔리어 여기서는 그저 희미한 안개쯤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성

1) 원문은 브레이크

2) 원문의 ‘터빈’은 ‘터빈’으로 보여짐

3) 원문의 ‘바이올링’은 ‘바이올린’으로 보여짐.

층권(成層圈)이다. 생명 없는 무서운 허공 안을 센 바람만이 불고 있다. 이것이 근대 항공의 세계이다. 이것이야말로 인류가 가장 새로 개척한 변경(邊境)이며 여기에 몸을 내놓으면 30초 이내로 죽음이 닥쳐온다.

세 명의 승원은 비행 중 계산척(計算尺)과 부지런히 싸우고 있다. 이 일의 권위자들은 이 비행체적으로 왕복의 전(全) 항정(航程)에 걸쳐 고도, 코스 및 속도가 자세히 정해 있음은 물론이고 폭풍우도 생각하며 더욱이 새 연료를 싣고 대기할 급유기의 위치도 그 상세한 경위도(經緯度)가 지시하고 있으며 아방의 레이더와 전투기대(戰鬪機隊)가 퍼놓은 최후의 경계망을 통과할 때의 극비(極秘)의 암호도 미리 정해 있다. 항공사는 빠르게도 레이더를 보고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대지(大地)에서 구름을 뚫고 반사하여 오는 전자(電子)의 힘으로 비행기의 정확한 속도를 측정하고 있다. 한쪽 정부조종사들은 가장 세밀한 엔진의 상태와 연료의 소비량 등을 검사한다. 전도(前途)에는 18,000킬로의 항정이 가로 놓여 있어 어떤 작은 일이라도 허수룩게 하다가는 그것이 오히려 대참사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 우수한 세 명의 승원은 과거 몇 해 동안 행동을 같이하고 있었으므로 대개 하나의 두뇌처럼 활동할 수 있다. 서로 몸을 가까이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동일한 지식으로 밀접히 결합되어 있으므로 기내의 전성관(傳聲管)이 마치 그들의 두뇌를 연결하는 산 신경 같은 역할을 한다. 세 사람은 마이크를 통하여 서로의 호흡을 들을 수도 있다. 기장 곁에는 주신포등이 달려 있어 산소의 보급에 이상이 생기면 곧 경보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승원 중 조금이라도 말에 변조가 보이면 곧 원인을 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 회화(會話) 사이에 약간이라도 호흡이 세다든가 분명치 못한 말귀가 있으면 그것은 하이포기샤 즉 급속한 죽음을 당하는 산소 결핍의 최초의 징후이기 때문이다.

승원은 지금 목전에 놓여 있는 난관에 한층 긴장한다. 과거의 경험으로라도 어려움이 닥쳐옴을 알 수 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닥쳐왔다. 돌연 요란한 진동이 맹렬히 기(機) 전체를 뒤흔든다. 기내의 비품이 춤을 추며 전등이 꺼졌다 켜졌다 한다. 세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부르짖는다.

“지옥사정목(地獄四丁目)이다.”

지옥사정목이라고 함은 비상한 고도를 빠른 속도로 가는 비행기가 조우(遭遇)하는 이상한 현상이다. 여기에 오기까지 B-47은 탑재한 하물(荷物)이 암만해도 무거워서 최고속도를 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연료를 상당히 소비하여서 비행기도 약간 가벼워졌으며 그 결과 스피드로 증가하여 기체가 맹렬히 동요하게 되었다. 가는 저 무서운 ‘소리의 벽’ 즉 비행기의 속도가 조금이라도 음향의 속도에 달하면 곧 쇠망치로 두들기는 듯한 충격을 받는 저 보이지 않는 벽 가까이까지 도달한 것이다.

조종사는 곧 엔진을 조절한다. 속도는 시속 975킬로에서 945킬로 정도로 떨어진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서 같은 위험한 문제를 당한다.—비행기가 실속(失速) 상태에 빠져 조종의 자유를 잃으려는 위험이다. 조종사는 때를 놓치지 않고 속도를 952킬로로 돌린다. 이것이 겨우 안전을 의미하는 중간의 속도이다. 이 차이는 종이 장갑이 얇다. 조금이라도 속력이 빨라지면 당장 충격이 가하여져 기체가 부서져 버릴지도 모른다.

다. 또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비행기는 벌써 조종이 불가능한 한 개의 금속덩어리로 화(化)해 버릴 것이다.

이 밸런스를 유지하려면 이때에 엔진의 출력을 극히 교묘히 조절하지 않으면 안 되며 참으로 손에 땀을 질 정도로 긴급한 때다. 잠시 후 연료가 소비되어 기체가 가벼워지면 겨우 무사히 ‘지옥사정목’을 통과한 셈이다.

기체의 내부는 다시 조용해져 무언의 상태가 지배하지만 이 정숙을 깨트림은 단지 산소를 빨아들이는 소리와 전성관(傳聲管)을 통하는 짧은 회화뿐이다. 그리고 피로의 첫 단계가 승원에게 다가온다. 그들이 행동 개시를 한지 벌써 일곱 시간이나 된다. 그러나 대부분은 비행 전의 준비였다. 세 사람이 몸에 꼭 붙여 육체를 얹매고 신경을 짊어버리려는 장구(裝具)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때를 따라 그 고통은 차차 더 심해가며 마지막에는 이 폭격행(爆撃行)을 위협하는 크나큰 위험을 느끼게 된다.

간단히 생각만 하더라도 승원의 몸에 걸치고 있는 장구 등은 15시간에 걸쳐 1분간에 16킬로의 속도로 원자폭격기를 날린다는 대사업(大事業)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15시간 내에 다음과 같은 장구를 몸에 지니고 장철 좌석에 동여매어 있을 것을 상상하여 능히 그 고통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 전면(前面)이 유리로 된 강철장(鋼鐵裝)의 주(胄), 고도(高度) 12,000미터나 될 때 처음에 할 것은 ‘산소 흡입 개시’이다. 그리고 이 ‘머리를 싸는 주’는 충분히 산소를 보급하는 보급기에 연결된다. 이 주가 없이는 비행할 수 없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한 번 이 주는 써버리면 귀도 쓸 수 없고 눈도 비빌 수 없고 코도 풀 수 없다.

※ 몸의 여러 군데가 꼭 끼어 행동의 자유를 뺏은 고무와 나일론 셔츠 이것은 폭발할 듯한 힘으로 체내의 공기가 외부로 새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물론 기내에서는 기압 조절이 되어 있지만 그 조절 장치가 고장이 나든지 혹은 총탄으로 기체에 구멍이 나든가 하면 기(機)의 내부에 압축되어 있는 공기는 폭발할 듯한 맹렬한 힘으로 외부로 나간다. 그러나 인체 내부의 공기는 그 같이 속히 외부로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절연 셔츠를 입고 있지 않으면 눈알은 튀어나오고 귀의 고막이 뚫어져 피부는 피를 뿜고 내장은 보통 상태의 9배로 부풀어 사람이 한창 붉이는 중에 파열해 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셔츠는 관(管)으로 압착 공기의 용기와 연결되어 있어 여기에서 공기가 셔츠와 철모의 내부에 흘러가 인체가 외부의 상태에 조절할 여유를 준다. 그러나 보통 이 셔츠는 인체의 모든 부분과 닿으므로 기분이 대단히 좋지 않다.

※ 비상대(非常袋) 이것은 엉덩이에 꼭 동여매놓은 것이므로 몸을 움직이지 않고 그 위에 앉아 있으면 된다. 그 안에는 식량과 지도, 낚시 바늘, 도끼, 접을 수 있는 염통, 그 밖에 필요한 물품 일체를 넣어 두어 이것만 있으면 사람이 없는 산중에 불시착을 하더라도 잠시는 살 수 있고 또 불행히 적지에 착륙하여도 탈출할 수가 있을 것이다.

※ 마지막으로 낙하산이 있다. 이것은 비행기에서 조난하였을 때 보통 승원이 제일 크게 믿는 구명기(救命器)가 되어 주지만 이 폭격기는 그렇지도 않다. 사실 지금껏 B-47에서의 탈출에 성공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기내 좁은 곳에 가뜰씩 쏘여 있는 각종

비품, 몸을 구부려도 지나 갈 수 없을 만큼 좁은 통로, 매끈매끈한 총탄 같은 모양을 한 기체에 부딪치는 굉장한 공기의 흐름, 이런 것들이 낙하산에 의한 탈출을 거의 불가능케 한다(이 점은 근래는 개량될 것이다. 승원을 튀어 나오게 하는 장치들 하게 되어 있으므로 인체는 비행기에서 탄환처럼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승원이 가령 비행기에서 탈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의 앞에는 새로운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고도 12,000미터의 비행기에서 뛰어 내렸다면 그 최초의 스피드는 시속 450킬로이다. 이 스피드로 낙하산의 끈을 당겼다고 하면 낙하산의 열리는 충격이 요란하여 인체의 뼈라는 뼈는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그러나 지상에 내려오기까지는 28분이 걸리지만 산소가 없기 때문에 사람은 처음의 1분쯤으로 죽어 버린다. 그래서 이런 고도에서 생명을 보존하며 강하하기 위해서는 최초의 8킬로쯤은 낙하산을 열지 말고 내려오다가 고도 4,500미터쯤 와서 공기가 짙어진 후 천천히 낙하산을 열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승원은 이러한 장구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비행 중 그야말로 간단(簡斷) 없는 노성(怒聲)을 지르고 있다. 그러나 이 고통도 처음의 수시간(數時間)은 어떻게 참을 수가 있지만 그 후는 마치 소문에 들던 중국(中國)의 물을 붓는 고문(拷問)처럼 한 방울 한 방울 참을 수 없는 것으로 되어 간다.

오후 11시이다. 기지를 떠난 지 다섯 시간 벌써 5,000킬로를 돌파했다. 전면의 다이아루가 커졌다 커졌다하며 보통보다 크게 보이는 별이 조종석 위의 천개(天蓋)를 통하여 말을 걸어오는 듯하다. 기내의 회화가 좀 긴장하여 온다. 예정했던 적의 국경이 가까워 온 것이며 이쯤에서 급유기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다.

좀 더 전방 그리고 7,500미터쯤 하방에 급유기가 이것 역시 적의 국경의 방향을 향하여 날아 올 것이다. 공중에는 가솔린 급유소라고 밤눈에도 명확한 내온싸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정된 목표물이란 하나도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대지가 저 밑에 있으며 상공에는 별이 반짝일 뿐이다. 폭격기도 급유기도 시시각각으로 그 위치를 바꾸어 연료의 미터는 확실히 최소한도의 보존량으로 움직인다. 마치 팔뚝시계 장조공(裝造工)이 한 알의 작은 보석을 끼울 때와 같은 태도로 항공사는 '정해 있는 명령 장소'를 산출하려고 한다. 나는 11시 10분 정각에 여기에 도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급유기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내가 날고 있는 코스는 확실히 참모장교의 지시한 코스이다 라고는 하지만 이 세밀한 계획도 그 무대는 현실에는 100만 입방(立方)킬로나 퍼져 있어 건잡을 수 없는 대공(大空)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이 정확한 계산을 다른 무슨 요소가 들어서 틀리게 할런지도 모른다. 두 비행기는 각각 레이더로 상대방을 찾고 있다.

11시 15분의 예정된 시간과 1분 1초의 어김도 없이 B-47의 항공사의 레이더판(板) 위에 하나의 흑점이 나타났다. 그것은 처음에는 희미한 점이었으나 1초마다 확실하여 진다. 항공사는 무전기의 다이얼을 돌려 짧은 암호 사인을 보낸다. 한쪽 곧 반응이 있다. 연락이 간 것이다.

"항공사로부터 조종사에게 급유기는 약 160킬로 전방, 좌 5도를 비행 중. 고도 4,500미터, 속도 500킬로로 추정."

"요해(了解). 요해."

조종사는 기수를 천천히 하방으로 돌린다. B-47은 급유기보다 시속 500킬로 가까이 속히 날고 있다. 30킬로의 거리에 다가와 양기(兩機)는 서로 상대방을 알 수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저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을 배경으로 한 점의 빛이 움직인다는데 지나지 않는다. B-47의 조종사는 엔진의 출력을 억눌러 더욱 스피드를 줄이기 위하여 하익(下翼)과 착륙 차륜까지 내리고 급유기의 배후로 기어간다.

"기장으로부터 전 승원에, 레이더의 스위치를 전부 절단(切斷). 1분 이내에 급유기와 접촉하라." 조그마한 스파크의 위험까지도 막기 위함이다.

급유기 쪽에서는 급유계(給油係)가 기미(機尾)의 밧드에 가죽 끈으로 몸을 동여매고 앞드려 창(板)유리를 통하여 다가오는 폭격기의 동체를 뚫어질 듯이 보고 있다. 작은 급유조종간을 꼭 잡고 있지만 이 조종간을 움직여 긴 급유관을 폭격기의 콧등에 늘리는 것이다. 급유관에는 작은 날개가 달려 있어 그는 이 날개의 도움을 받아 급유관을 전후좌우로 움직일 수가 있다. 색(色)전등이 희미하게 급유관의 끝을 비추고 있다.

B-47이 1미터 또 1미터 접근하여 온다. 급유기와 폭격기가 공기의 대파(大波)를 타고 좌로 우로 크게 흔들린다. 폭격기의 코끝 수(數)미터 앞에서 급유관의 끝이 몹시 흔들린다. 급유계가 바쁘게 활동하는 모양. 급유관은 폭격기의 끝머리와 연결된다. 자동급유장치가 곧 센 압력으로 연료를 보내기 시작한다.

이렇게 긴장된 5분간이 지나면 급유 작업에서의 난관이 온다. 급유기는 급유를 계속하며 있는 힘을 다하여 날고 있으나 B-47에 있어서는 그것이 거의 실속 상태에 빠지는 듯한 속도이다. 그 위에 1톤 또 1톤 가솔린이 그 연료 탱크를 재워감에 따라 폭격기는 까딱하면 추락할 듯하다. 양기(兩機)의 무전기를 통하여 손 빠른 타합이 있어 두 비행기는 스피드를 내기 위하여 급강하를 개시했다. 급유관으로 연결된 양기는 암흑의 세계를 향하여 굉장한 속력으로 간다. 폭격기의 기수와 급유기의 기미와의 간격은 불과 2미터에 지나지 않는다. 이 굉장한 급강하 비행의 사이에 폭격기는 좌우로 1미터 이상 요동함을 허락지 않는다. 그 이상 흔들리면 당장 급유관이 빠지고 만다. 그러나 잠시 후 급유 작업은 끝난다. 폭격기의 연료 탱크에 가득 차고 급유관은 빼어져 B-47은 급유기 밑을 뚫고 전방으로 향한다. 그 굉장한 속도에 비하면 급유기는 정지한 듯하다. 무전으로 "안녕히"의 인사도 못한다. 국경이 가까워 무용(無用)의 회화가 적에게 방수(傍受)될 염려가 다분히 있기 때문이다.

조종사는 비행기를 자동조종장치에 맡기고 천천히 상승한다. 이제부터 10분간은 고도가 낮으므로 특별히 산소의 보급을 받지 않고 능률히 대가를 호흡할 수가 있다.

"기장으로부터 승원에게, 석식."

승원은 각기 순번으로 철주(鐵胃)를 벗고 기분 좋게 얼굴을 어루만지면서 저녁 식사를 한다. 모두 목이 말랐다. 이러한 비행에는 공기가 희박한 곳에 오래 있으므로 체내의 수분이 결핍하여 체중이 최소한도 2킬로는 주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우유를 모두들 좋아한다.

식후 급히 담배를 피우고 그리고 철주를 쓰면 기(機)는 1,200미터의 고도로 다시 상

승한다. 식사를 하기 위하여 몸을 움직여서 숨이 차지만 승원은 또 민속(敏速)한 두뇌 활동으로 들어간다. 국경이 눈앞에 다다랐다.

이쯤에서 제일 바쁘기 시작한 것은 항공사이다. 그의 작업장은 기체의 끝머리에 있다. 작업장 안에는 머리 위에서 작은 빛이 스며들어올 뿐 출발에서 귀착(歸着)할 때까지 그는 전연 태양을 볼 수가 없다. 그의 방은 1센터⁴⁾의 틈도 없이 마루 위까지 가득히 극비의 기계가 놓여 있다. 가격으로 따지면 50만 불이나 될 것이다.

그의 앞에는 전(全) 비행기의 심장부—구름과 안개를 뚫고 대지의 모양을 숨김없이 보고해주는 레이더의 기계가 있다. 그 옆에 있는 것이 복잡한 투폭조준기(投爆照準器)로 비행기를 목표 위에 유도하여 폭탄가(爆彈架)의 밑을 열어 폭탄 투하의 시간을 1초의 몇 분지(分之二) 1이라는 데까지 세밀히 산출하고 나중에 폭탄을 투하한다는 굉장한 기계이다. 왼쪽에는 폭탄 투하를 조작하는 수많은 스위치가 있다. 오른쪽에는 작은 판(板) 위에 ‘원자력위원회(原子力委員會)’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비밀병기 중의 비밀병기가 있다.

이 기계로 꼭 찬 작은 방은 전혀 무음의 세계로 단지 대지와 접촉을 유지하는 레이더의 안테나를 세우는 소리가 들려 올 뿐이다. 기계가 준비한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외선의 흐름 속에 희미하게 보인다. 항공사는 지금이야 레이더의 스크린을 가로 움직이는 밝은 여러 점을 주시하고 있다. 기묘한 점의 배열(配列)에 지나지 않지만 그의 눈에는 확실히 하천과 호수와 도시로 보이며 이것이 목표로 향하여 진항(進航)하는 도표(道標)로 되는 것이다. 이러한 영상이 스크린 위의 십자 선을 건너가는 것을 보고 항공사는 비행기의 정확한 대(對) 속도를 산출하며 역풍의 강도를 측정해서 거기에서 코스의 변화를 조종사에게 전한다.

“항공사로부터 조종사에게, 지금 막 국경을 통과, 목표까지는 830킬로, 적과의 공격 준비를 부탁함.”

항공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지, 누구야”의 신호가 폭격기에게도 온다. 이것은 국경선에 벌어져 있는 적의 자동적인 방공(防空)전자장치에서의 신호로 이 비행기가 만일 적에게 있어서의 우군기(友軍機)라면 기내의 까만 함의 하나가 이것 역시 자동적으로 회신을 보낼 것으로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적기(敵機)이니까 까만 함은 이러한 반응을 안 한다. 지상에서는 당장 전(全) 방공기구(防空機構)가 활동을 개시한다. 빨간 신호등이 반짝이기 시작한다. 방위전투기부대가 침입기(侵入機)를 포착 격추할 전투태세로 들어간다.

“항공사로부터 조종사에게, 우(右)로 20도 코스를 변경.”

“요해(了解). 요해.”

지금이야말로 이 폭격기와 지상의 방공진(防空陣)과의 사이에는 한 도시의 운명을 건 기묘한 싸움이 시작되었다. 원자폭격기는 적의 레이더를 혼란케 하는 전자장치를 가지고 있다. 적의 지상레이더망은 폭격기가 날아가는 코스를 탐지하여 여기에 제트

4) 원문의 ‘센치’는 ‘센터’

전투기를 유도하여 침입폭격기를 포착 격추시키려고 하나 여기에 대하여 폭격기의 항공사는 적의 레이더망을 비웃으며 적의 전투기를 엉뚱한 곳으로 보내려고 한다. 폭격기의 날아가는 어디에선가 적의 제트기가 이 폭격기를 맞췄 쏘려고 거의 수직에 가까운 급상승을 틀림없이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쌍방이 모두 맹렬한 스피드의 비행기 뿐이므로 바늘 끝만 한 오차라도 그것은 실로 1,000킬로쯤의 거리를 의미하게 된다.

“항공사로부터 조종사에게, 좌로 40도 5미터 상승.”

싸움은 아직도 계속된다. 장기(將棋)의 영터리 승부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이 장기의 말은 뒤로 긴 불꼬리를 끌면서 음속으로 밤하늘을 순시(瞬時)에 날아버리는 비행기이다. 방공이론(防空理論)이 기상(機上)의 공론(空論)으로 그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상에서는 침입한 폭격기는 한 대로 무사히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전투 상태 하에서는 침입기 10기 중 1기를 포착 격추하면 극상(極上)이다.

항공사는 지금이야말로 대(大)차륜으로 시시각각으로 달라지는 코스를 더듬고 있다. 스톱 위치를 손에 들고 지구자구 코스의 분초를 정확히 재어 비행기가 항상 본(本) 코스로 돌아오도록 세밀한 주의를 한다. 실제의 전쟁인 때에는 이 비행기의 좌우를 수대(數台)의 야군 폭격기가 안항(雁行)하게 될 것이다. 이들 폭격기는 적의 레이더 탐지망을 뚫고 영격(迎擊)하는 적 전투기군(戰鬪機群)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제일 중요한 때가 다가왔다. 참모장교의 지시로는 목표 도시까지 약 130킬로의 곳에 있는 한 거리가 ‘폭격 준비 개시 지점’으로서 선발되어 있다. 지점에 다다랐을 때 항공사는 목표까지의 최후의 항정을 계산하여 그 숫자에 따라 폭격조준기를 장치한다. 그의 적은 책상 위에 스카치테이프로 붙인 좀 보기에 흉한 몇 장의 사진이 있다. 그는 부드러운 빛을 내는 전등을 켜 이것을 레이더 가까이로 가져갔다.

레이더에는 설 새 없이 전자(電子)의 광선이 흐르고 있다. 전자가 지상에 부딪치면 이것은 마치 공과 같이 튀어나 텔레비전의 원형 스크린을 생각케 하는 레이더의 스크린 위에 반영한다. 스크린에 나타나는 광체(光體)의 세기는 전자가 부딪치는 물건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육지와 물, 강철과 벽돌, 도로와 철도의 레루 등등 모두 다른 광체를 반사한다. 센 광체를 내는 물체는 스크린 위에 희미한 소위 눈(雪)에 둘러싸인 적은 상(像)을 그려낸다.

그러나 오늘밤의 폭격 준비 개시 지점도 목표 자체도 귀찮은 것들이다. 첫째, 항공사는 한 번도 이 두 거리를 본 일이 없다. 스크린 위에는 건잡을 수 없는 흑점이 나타난다. 마치 사력(砂礫)을 많이 먹은 닭에게 X선을 찍은 것 같다.

스크린 위에 흑점의 작은 무리가 헤엄치듯 나타난다. 가까워짐에 따라 이들 흑점은 한 개의 형태를 나타낸다. 항공사는 이 영상과 예측도(豫測圖)를 번갈아 보고 있다.

“항공사로부터 조종사에게, 폭격 준비 개시 지점 발견. 타기(舵器)는 그대로. 우(右)로 8도……그대로. 좌로 한 번……줄소.”

이 짧은 거리는 스크린의 십자선의 수직선에 따라 차차 중앙으로 내려온다. 항공사는 스톱 스위치를 눌렀다. 동시에 그의 손가락은 폭격조준기의 복잡한 스위치 위를 더듬어서 고도라든가 바람의 강약 기타 조준기가 필요로 하는 숫자를 마련해 준다. 그

의 손은 또 '원자력위원회'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 기계에도 닿는다. 이 사이에 그의 두 눈은 레이더의 스크린에 가 있을 뿐이다.

비행기로 9,000부터 미터 하방에 킬로의 부피로 구름이 대지를 뒤덮는다.

그러나 레이더의 전자는 빛과 같은 속도로 이러한 방해물을 쉽게 지나간다. 푸른빛이 나는 하얀 영상이 레이더의 상부로 희미하게 나타난다. 모양이 맞지 않는 큰 원을 옆에서 모는 것 같다. 항공사는 레이더를 조절하여 그 영상을 선명히 하며 마음을 진정시켜 예측도와 비교한다. 겨우 수초(數秒)로 이때까지의 수고가 수포로 화(化)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제일 중요한 때이다.

“항공사로부터 조종사에게, 목표를 발견, 이제부터 내가 비행기를 조종한다. 제2조종간으로 바꿔다우.”

“요해(了解). 요해. 제2조종간으로 체인지 완료.”

제2조종간이라 함은 항공사의 책상 위에 붙어 있는 작은 핸들로 이것이 비행기를 마음대로 움직이는 자동전자장치에 붙어 있다. 항공사는 재빨리 자동조종장치에 스위치를 넣는다. 뒤이어 폭격조준기를 자동조종장치에 접속시킨다. 그리고 점점 가까워 오는 목표의 중심에 조준기의 십자 선을 맞추고 기록기(記錄機)라는 장치에도 스위치를 넣는다.

인제부터 앞으로는 가령 어떤 돌풍이 불던 에어포켓으로 흔들리면 폭격조준기가 비행기를 유도하여 준다. 조종사들은 다만 앉아 있기만 하면 된다. 조준기가 뒷일은 전부 해주기 때문이다.

맥진(襲進)하는 비행기 앞에 목표의 도시가 차차 크게 나타난다. 항공사는 폭탄이 작렬하게 되어 있는 바로 밑의 지점, 즉 건주는 장소를 찾아내 제2조종간의 핸들을 쥐고 약간 조절을 한다. 조준기의 십자 선이 그 지점에서 딱 멎는다. 잠시 동안 움직임이 없다. 잠시 후 그는 최후의 핸들을 움직여서 모든 것을 일점(一點)에 집중시킨다. 기어 이 폭격 자세가 잡혔다. 그것이 끝나고 그는 레이더를 묵시한다. 이제부터의 일을 정리해 주는 것은 이 레이더 장치다.

인제는 됐다.

이렇게 된 이상 맥진하는 비행기가 12,000미터의 고공에서 돌연 꺼지지 않는 한 지구상의 여하한 힘이라 할지라도 목표의 도시를 구할 수는 없다.

1분간에 16킬로 1초간 270미터라는 속도로 가는 맥진을 계속한다. 여전히 세계는 조용하며 끊임없이 계산을 해가는 폭격조준기의 고요한 고동(鼓動)이 전해를 뿐이다. 시한(時限)시계가 때를 따라 움직인다. 120초……100초……목표가 괴멸(壞滅)할 때까지 60초……30초……조준기가 폭탄가(爆彈架)의 도어를 여는 진동이 승원에게도 알려진다.…… 10초, 9초, 8, 7초, 6초, 5초, 4, 3초, 2초……

작은 빨간 전등에 불이 켜졌다.

폭탄 낙하

만약에 이것이 실지 전쟁이었더라면 조종사는 곧 기수를 획 반대 방향으로 돌릴 것이다. 그리고 예정된 몇 초 후에는 그의 좌석은 뜻하지 않은 섬광으로 환해 질 것이다.

뒤이어 대충격의 물결이 기역을 떼버릴 듯이 흔들 것이다. 투하한 것이 만약 수소폭탄이라면 승원은 살아서 탈출하기는 어려울지 모른다. 그러면 지구 저쪽 전략항공대 본부에서는 적국(敵國)의 800평방 킬로에 걸친 지역을 섬멸된 곳으로서 지도상에서 말살해 버린다.

이 연습비행에서는 빨간 작은 전등이 “폭탄 투하”를 고(告)하였을 때 폭격조준기가 투하한 것은 하나의 무전신호에 지나지 않는다. 이 신호는 목표 지구에 있는 공군의 무전기사(無電技師)에 의하여 방수(傍受)된다. 무전기사는 이것이 실제의 폭탄이었을 때 대체 어디서 폭발하였는가를 정확히 산출하여 이것을 당장 날아가는 중에 있는 비행기와 항공대의 작전실(作戰室)에 타전한다.

투탄(投彈)의 정확 여부, 항공사 기술 여하 혹은 조종사의 연료 절약, 급유기와와의 연락이 어떠하였던가 하는 것 등으로 폭격비행의 성공, 불성공(不成功)이 판정되어 성공인 때는 그 공훈을 널리 찬양하여 즉석에서 진급이 된다. 반대로 실패한 경우에는 예정되었던 진급이 취소되던지 더욱 심하면 1계급 강등되던지 감봉(減俸)의 쓴 맛을 보는 일도 있다.

승원은 지금에야 암흑과 이상한 천후(天候)와 싸우며 약 1,600킬로 저쪽에서 기다리고 있을 급유기와 정확한 시간에 만나기만 한다. 폭격기의 연료는 얼마 남지 않아 급유를 받지 않고는 도저히 기지에 갈 수 없다. 그래서 항공사로서는 암만해도 급유기를 찾아야만 한다. 동틀 무렵 항공사는 1분 1초의 어김없이 급유기를 발견했다. 재차 전번과 같은 곡예비행 급유관으로 손과 손을 잡은 채의 급강하. 작별의 인사도 없는 조용한 작별, 그리고 커피와 식사라는 순서다. 그리고 속력을 더하여 연료를 절약코자 다시 성층권(成層圈)으로 올라간다.

긴장이 풀리면 승원은 전신을 웅매고 있는 장구의 고통을 참을 수 없어 벗어버리고 싶은 유혹에 사로잡힌다. 그러나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 이 비행계획에는 어떠한 과실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 거대한 기계의 어떠한 부분의 조그만 변동도 소홀히 알 수 없다.

—기지에 다다랐을 때 훌륭한 착륙을 할 리가 없다. 그러나 비행기는 꼭 활주로의 말단에서 수(數)미터의 곳에서 지상에 접촉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이 제트기는 스피드를 줄이고자 프로펠러를 역회전시키지도 못하므로 착륙 후도 맹렬한 힘으로 언제까지나 활주를 계속하기 때문이다. 조종사는 조종판 위에 있는 핸들을 힘껏 당긴다. 그러면 기미 쪽에서 큰 낙하산이 확 열리고 겨우 비행기가 선다. 이로써 폭격행이 끝난 것이다.—

그러나 승원에게 있어서는 ‘질문(質問)’이라는 귀찮은 일이 남아 있다. 성층권이란 새 세계에 대해서 전문가는 보통 사람이 상상치도 못할 가지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폭격연습에서의 성공과 실패는 그것이 머릿속에 남아 있는 동안에 질문하며 확실케 하여 두는 것이다. (끝)

오는 것에

- ◆ 명예(名譽)와 전통(傳統)을 계승(繼承)하라 <단장(團長) 취임사(就任辭)>
- ◆ 유토피아 강릉기지(江陵基地) <기지(基地)의 시설(施設)>
- ◆ MUSTANG의 어머니 <정비기(整備記)>

명예(名譽)와 전통(傳統)을 계승(繼承)하라

<취임사(就任辭)>



단장(團長) 공군대령(空軍大領) 장지량(張志良)

금일 명예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전투비행단(戰鬪飛行團)을 건설하신 김영환(金英煥) 준장께서 유서(由緒) 깊은 옛 본가(本家) 훈련비행단으로 가시게 됨에 따라 천학비재(淺學非才) 불초(不肖) 소관(小官)이 제2의 대(代)를 계승함에 있어 소감의 일단(一端)을 피력

하고자 한다.

회고하건대 7명의 우리 선구자로부터 발족한 우리 공군은 김포(金浦)에 오두막살이를 벌린 이후 가는 곳마다 개척과 감투(敢鬪)로서 오늘날에 이른 것이다. 금일 총참모장 각하를 가까이 모시고 상호 이취임(離就任)하게 된 것은 나로 하여금 스스로 상호가 과거에 피땀 흘린 경로를 더듬게 한다.

특히 6.25 동란 이래 우리 공군의 7선구들이 병마충충(兵馬忽忽)은 간(間)에 단 하나의 전투부대를 육성함에 있는 힘을 다하여 왔던 것은 오로지 금일 우리 전투비행단에 있어서 역연(歷然)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서슴지 않고 표명하는 바이며 우리가 숭배하고 따르는 전(前) 단장을 중심으로 오직 애국애족(愛國愛族)의 그대로 실천에서 싸워왔던 것이다.

인간적 소위(所爲)요 가정적인 단결이었던 소위로 금일의 단장의 이임은 우리 수천 장병으로 하여금 어이 쓸쓸히 여기지 않겠는가마는 전제(前提) 총참모장 각하의 말씀대로 우리 국민의 요구하는 바이요 우리 공군이 요구하는 바이니 이 영광스러운 일이 또한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단장께서는 진두지휘로써 우리 공군의 작전을 성공케 하였고 뿐만 아니라 전력 배양의 선봉이 되셔서 오늘날 우리가 자부하는 공군다운 공군을 육성하셨고 사천시대(泗川時代) 이래 작전상 주권획득에 실력과 감투정신으로 공명정대 항상 굴함을 모르고 오직 진취 혁신 건설만을 영도하셨다. 우리 수천 장병이 열정과 희망을 가지고 일

대비(對備)해서

- ◆ 마음의 유대(紐帶) <조종사(操縱士)와 정비사(整備士)>
- ◆ 답답한 이야기 <조종사(操縱士)와 기상장교(氣象將校)>
- ◆ 강릉(江陵)의 사적(史蹟) <기지(基地)의 고적(古蹟)과 사적(史蹟)>

제〇〇전투비행단

치단결의 통솔 하 전(全) UN 공군에 비견할만한 신념을 품게 된 것은 우리 자신들이 자부하는 바이며 특히 본관(本官)이 6.25 이후 금일에 이르기까지 오직 그 탁월한 통솔과 지능 하에서 자라난 것을 영광으로 여기며 한결같이 작전과 전투에 살아 온 것이었으나 이 제 증책을 혼자서 걸머지고 보니 마치 부모의 슬하에서 떨어지는 독립 분가(分家)의 심정을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연(然)이나 건설의 토대가 튼튼한 이 전투비행단은 우리 공군의 선배들이 손꼽아 육성하는 곳이요. 특히 박(朴) 소장(少將), 이(李) 준장(准將)을 비롯하여 수많은 우리 동지 전우가 순국 애족하신 유훈을 남긴 명예와 전통을 대대로 계승한 곳이니 우리는 이를 더욱 빛내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제관제사(諸官諸士)들! 본관이 지향하는바 이 명예와 전통을 계승하고 죽어도 식지 않는 충성심으로 전투의 승리를 위하여 앞으로 전진하자!

(4286년 12월 21일)

내일(來日)의 힘을 돋우어 주는 문화(文化)와 오락시설(娛樂施設)

<유토피아 강릉기지(江陵基地)>

공군대위(空軍大尉) 김응한(金應漢)

머리말

강릉이 일변지(一邊地)이매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서울이나 대구(大邱) 등지에서 상상하는 서글픈 그러한 시골과는 다르며 집신을 신고 터벅터벅 혹은 당나귀에 방울을 달아 그덕그덕 드나드는 그 옛날의 강릉도 아니다. 연달아 운행되는 버스가 강릉 교통의 동맥을 이루고 비행기론 불과 서울, 대구 50분간이다. 기상(機上)에서 부감(俯瞰)되는 대관령(大關嶺), 울창한 숲, 한 줄기의 활주로, 동해의 끝없는 창파(蒼波), 이 밖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일변지 이 강릉에 우리 공군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시설을 자랑하는 제〇〇전투비행단이 있으며 또한 아늑하고 화기에 싸인 유토피아인 줄이야 이곳에 한 번 살아보지 않은 이로서는 아마 상상도 못할 것이다.

우렁찬 굉음소리에 날이 새고 날이 저무는 이 기지에는 항상 젊은 피의 약동이 있

는 것이다. 용약 대지를 차고 하늘로 하늘로 솟아올라가는 거기에는 창공을 정복하는 자의 기풍이 있고, 38선 저쪽에 또 압록강 너머에서 호시탐탐하는 적색 침략의 세력을 무찌르는 정의의 힘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들 용사는 언제나 외유(外柔)하고 내강(內剛)하며 화목과 의의(義道)를 사랑하는 화랑의 후예들이다. 그러면 우리들의 기지 생활을 살펴보기로 하자.

오늘은 마침 우천(雨天)으로 오후 영내 휴무이다. 불꽃이 펑펑 튀고 눈에서 불이 나는 활기 있는 근무에는 휴무 이상의 기쁜 소식이 없다. 그들은 각기 극장으로 오락장으로 혹은 주보(酒保)로 환성을 울리며 모여든다.

이러한 오락 시설은 모두가 영내에 있다.

쌈국이 웃어주는 눈치 빠른 아가씨

음악실(音樂室)

간판도 멋지게 붙어 있는 음악실에는 귀에 익은 멜로디가 흘러나온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음악에 도취한 군상(群像)들이 폭신평신했던 소파에 파묻혀 앞에 놓인 커피가 식어가는 줄도 모르고 듣고 있다.

안내판에는 차이콥스키 Violin Concerto Dminor 라고 쓰여 있다.

빈자리를 찾아 소파에 엉덩이를 안치시키고 담배를 꺼내 물었다. “앗차, 라이터를 안 가지고 왔구나.”하고 혀를 치자 눈앞에 성냥이 내밀어 진다. 성냥을 내민 손이 백옥 같이 희기에 쳐다보니 눈치 빠른 아가씨가 쌈국이 웃어 보이며 “커피”하고 손가락 하나를 내세운다. 그러곤 말없이 애교를 띤 뺨에 우물을 판다.

남이 먹는 사과나 내가 먹는 사과나……

도서실(圖書室)

잠시 후 곡이 마쳤다. 커피도 마셨다. 나는 음악실과 마주 붙은 도서실로 들어갔다. 여기에는 모두들 책 읽기에 여념이 없다. 옆방의 음악소리가 가늘게 새어들고 카운터의 계원조차 책 읽기에 바쁘다. 서붕(書棚)에는 동서고금의 양서(良書)가 열을 지어 있고 문학, 예술, 철학, 경제, 문화, 종교, 병서, 역사 등 각 방면의 서적들이 정렬되어 있다.

심각한 표정을 한 사람, 성미가 급하여 페이지를 넘기기에 바쁜 사람 모두들 해면에 물 붓듯이 지식을 흡수하고 있다. 나는 비치되어 있는 노트에 서명을 하고 책을 꺼내본다. 제목인 즉 수양록(修養錄). 무심코 헤친 면에는 “남이 먹는 사과나 자기가 먹는 사과나 맛이 다 같다는 것을 알아라.” 또 “Violin의 현(絃)을 꼭 줄라매었을 때 비로소 미묘하게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고.

말보다는 기술이 낮은 것 같애……

당구장(撞球場)

다음 콘서트으로 가본다. 당구장, 탁구장, 탁탁하는 소리. 옷통을 벗어젖히고 토인(土人)이 창을 든 듯이 겨누는 사람, 대(臺) 위에 앉으려

총을 쏘는 듯 하는 사람, 환성이 올라가고 폭소가 나고 떠들썩하다. 커피내기 game인 듯 신들이 났으나 말보다는 기술이 낮은 것 같다.

단장(團長)님도 ‘봉급(俸給)타기’ 행렬(行列)에

기지은행(基地銀行)

오락실을 나와서 기지은행에 가본다. 휴무인데도 불구하고 업무를 보고 있으며 근무에 바빠서 봉급을 아직 수령치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지불을 계속하고 있다 한다. 문을 들어서니 과연 콘서트나마 은행처럼 카운터가 있고 창구가 있으며 말쑥한 사병들이 조용한 가운데 주판소리만을 울린다. 상아색으로 단장한 내부는 대단히 부드러운 기분을 자아내고 천정에 매달린 목비(木碑)는 말없이 일이 진행되게끔 되어 있다.



해면에 물 붓듯이 지식을 흡수하고 있다. (도서실)

전비단(戰飛團)의 급여는 일체 개인 지급이며 봉급 카드에 의거하여 본인이 수령하기로 되어 있다. 봉급날이면 단장님도 카드를 들고 열을 지어 자기의 차례를 기다리는 모양은 타 단대(團隊)에서는 구경할래야 할 수 없는 광경이며 그 보다는 기천(幾千)몇 천의 장병을 개인 상대하고 있는 기지은행의 사무능력은 참으로 가경(可驚)할 노릇이다.

은행장실을 두드리니 만면에 웃음을 띤 은행장의 얼굴이 나를 맞아준다. “웃으며 일하자.”라는 것이 기지은행의 표어이다. 미국 사무실 같은 산뜻한 감을 주는 실내의 테이블 이에는 굵은 가지에 어수룩하게 핀 매화가 향기를 풍기고 있다. 개인 지급이란 타 단체에서는 상상조차 못하나 우리 단(團) 만큼은 모든 장병이 규칙에 대한 관념이 강한 까닭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의 말도 그럴 상 싶다.

접시 장단에 노랫가락, 유행가(流行歌)

주보(酒保)

소요의 수속을 마친 후 창구에서 현찰을 받은 사병들이 의론 끝에 주보로 가자고 몰려 나간다. 나도 그 뒤를 따라 주보로 갔다. 웃음소리, 환성, 고기 굽는 냄새, 담배 연기가 새어나는 그 가운데를 술잔이 왔다 갔다 하고 구각(口角)에 침을 튀기며 의론이 벌어지는가 하면 빈대떡 접시가 뒤집히고 두들기는 접시 장단에 노랫가락, 유행가가 흘러나온다. 종로(鐘路) 뒷골목 목노집에 다름이 없는 여기는 사병들로 하여금 마음껏 허리띠를 풀고 즐길 수 있는 낙원인 것이다. 막걸리 1승(升) 80원, 각종 안주 40원 균일이니 값싼 맛에 취별⁵⁾만한 봉급을 다 털어 먹는다.

5) 원문의 ‘취부리’는 ‘취별’

건전(健全)한 오락(娛樂)은 내일(來日)의 전력(戰力)을 가져온다

극장(劇場)

이번은 극장으로 나가 볼까. 극장에서는 이미 영화가 시작되었고 갑자기 어둠속으로 들어간 나의 눈은 잠시 어리둥절하다. 시내에서는 볼 수 없는 최근의 것이 매일 상영된다. 만장(滿場)에는 관객들의 머리만이 정연하게 보이며 기침소리 하나 안 난다.

영화가 끝나자, 사람들은 몰밀 듯이 극장에서 청으로 쏟아져 나왔다. 나도 그들 사이에 끼어서 발걸음을 옮기며 머릿속에는 곧장 이렇게 생각했다. '도시에도 못지않은 이러한 문화와 오락의 시설이 있음으로서 이곳 장병은 한결같이 권태를 느끼지 않고 새로운 기분으로 전투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그런데 이러한 혜택의 그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듯이 ○○전투비행단의 좋은 환경을 모르고 지내온 나 자신이 둔하였다는 것을 느꼈다. 바라다보니 병풍같이 둘러싼 대관령의 연봉(連峰)에는 백설이 휘날리고 먼데서 싸여드는 저녁노을이 더욱 아름다웠다.

Mustang의 어머니

<정비기(整備記)>

공군소위(空軍少尉) 이정보(李禎甫)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사진(砂塵)을 올리며 폭음 우렁차게 대지를 박차는 무스탕! 날개에는 로켓 폭탄 기총의 중무장을 갖추고 적진 깊이 찾아가던 무스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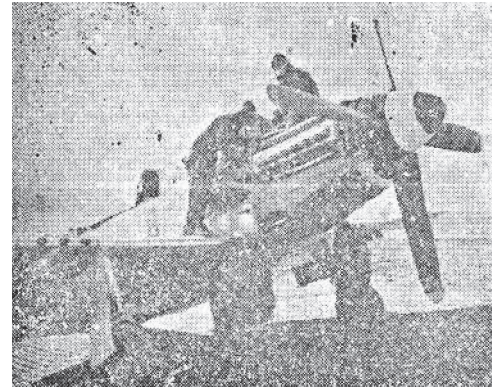
비록 오늘에 있어서는 공중 완충선(緩衝線)에 제한을 받고 있으나 또다시 내일에 대비하는 맹훈련은 계속되고 있으며 그 뒤에서 숨은 용사들은 오늘도 묵묵히 애기 정비에 여념이 없다.

3개성상의 동란중 우리 공군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여 유엔군과 어깨를 가지런히 하고 무난히 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우리의 실력을 여실히 발휘하여 작으나마 강력한 공군으로 육성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물론 수뇌부의 치밀한 계획 밑에서 용감하고 우수한 파일럿은 물론 애기를 자기 자식과 같이 사랑하며 한 대라도 더 많이 애써가며 출격시킨 정비사의 땀과 눈물이 숨어있다는 것을 자랑할 수 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하여 애기를 출격시켰으며 어떠한 심정을 가지고 싸우고 있을 것인가.

일기불순하고 불비한 시설의 일반기지에서는 은빛도 산뜻한 그 무스탕도 한번 출격에서 돌아오면 온몸이 흙투성이가 된다. 마치 어린애가 흙장난을 해서 온몸에 흙투성이를 하고 돌아오듯이—그러면 어머니는 그를 깨끗이 씻어주어야 하겠지—그리하여야만 애기의 상처를 찾을 수 있고 또한 그의 모습은 더 한층 날카롭게 보이게 되는 것이다.

어린애 장난도 하도 심하면 인자로운 어머니도 가끔 짜증을 내듯이 묵묵히 일만 하고 있는 그들도 때로는 짜증을 낸다. 그러면서도 항상 깨끗이 해주는 것이 그들의 본



능이다.

그들은 항상 자기 비행기에 대하여 걱정한다. 한기가 심한 동절이면 사람도 감기가 들기 쉽다. 더욱이나 허허벌판에서 밤을 새우고 있는 비행기인데 어찌 마음 놓고 잠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고로 마스크도 잘 해주고 이불도 잘 덮어주는 것이다. 그러나 보통 40노트, 50노트라는 강풍경고가 있기 때문에 아닌 밤중에라도 자식의 동향을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

온누리는 아직도 고요히 잠들고 동해의 물결 소리만 '쳐얼썹' '쳐얼썹'

들리어오고 하늘에는 별만 반짝이고 있는 새벽 어머니는 고히 잠들고 있는 자식을 깨워가지고 희미한 전지불에 의지하면서 출격 준비를 한다. 우선 마스크, 이불을 벗기고 복장검사, 군장검사로부터 시작한다. 컴컴한 새벽이라 이 검사는 더욱 면밀(綿密)을 요한다. 단추 하나라도 떨어져 있으면 아니 된다. 엄밀한 외부 검사를 끝마친 다음 건강진단을 하게 된다.

엔진은 비행기의 심장이다. 그 심장의 고동여하가 그날의 여정을 좌우한다. 이 심장의 고동(鼓動) 타진(打診)에 있어서 이때 어머니는 단지 어머니뿐 아니라 의사로서 그의 눈, 귀, 코 전 신경을 집중하여 체온, 혈압, 맥박, 폐활량 등 그 지침에 주시하면서 모든 면에 걸쳐 주도(周到)한 타진을 하여 이상이 조금도 없어야만 비로소 출진시킬 수 있다.

그리하여 자기 자식의 영예의 출진을 목송(目送)한다. 무거운 짐을 지니고 있으나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충분한 준비운동을 하고난 그는 전력을 다하여 활주로 상을 질주한다. 자식의 출진을 환송하는 어머니의 얼굴은 긴장되어 손에 땀을 쥐고 그를 응시하고 있다.

땀다! 한 대! 두 대!.....

연달아 대지를 박차고 떠오르니 편대도 깨끗이 북으로 달려간다. 아슬아슬한 자식의 출진을 응시(凝視)하고 있던 어머니 얼굴에는 비로소 미소가 떠오르며 자식의 전도를 축원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식을 적진에 보내놓은 어머니의 심정—어린 애기를 우물가에 세워놓은 듯한 불안과 조바심—편대는 이미 BOMB LINE을 넘고 보이지 않으나 한없이 북쪽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 만일 신병으로 인하여 적진에 도달치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면 그들은 그것을 가장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니고 무난히 포화 속을 뚫고 돌아오는 그들의 폭음도 우렁차다. 편대에서 떨어져 한 대 한 대 착륙하기 시작한다. 모두 무사히 돌아왔으니 그들의 얼굴에는 환희가 가득 차 양수를 높이 들어 자식을 자기 자리에 받아들이고자 흔드는 그

숨씨는 제각기 다 다른 자가 유형이다. 각기 자기 자리에 받아들이는 다음에는 자식의 땀을 씻어주며 수고를 위로하며 엄밀한 외부검사부터 시작한다.

때로는 큰 탄흔을 입고 간신히 돌아오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면 곧 야전 병원에서 응급 봉합수술을 하고 정도에 따라서는 후방 본원에 이송하는 수도 있다.

아직 돌아올 시간은 안 되었는데 돌연 한 대만 나타났다. CRASH STATION에서는 FIRE TRUCK을 활주로 가까이 대기시키고 있다.

그들의 머릿속에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판단—“아! 또 무슨 사고가 난 모양이다” — 모두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의아의 눈초리를 가지고 착륙할 때까지 활주로를 응시하고 있다.

무사히 착륙은 하였으나 그의 숨은 도중에서 끊어지고 말았다. FIRE TRUCK은 달려와 그의 호스를 들고 막 퍼부었다. 다행히 불은 안 났다. 모두 달려간다. 가솔린 파이프에 피탄(被彈)이다. 가솔린 게이지는 영(零)을 지시하고 있었다.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

“좀 더 멀었더라면” ……

불행 중 다행, 아니 행운아다. 모두 감탄하였다. 이와 같은 사고는 대사고다. 대환자다. 장기간의 입원을 요할 것이며 대수술을 요한다.

“일복이 터졌구나.”

어느 누구 입에서 새나오는 말이다.

운동이 격심하면 격심할수록 피로와 ENERGY 소모는 심해지며 노쇠하여 갈수록 잔병이 많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정기적인 신체검사가 필요한 것이며 이 검사는 면밀(綿密) 주도(周到)하여야 하며 적당주의(適當主義)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뜻하지 않았던 잡병(雜病)에 걸리면 재빨리 그 병원(病原)을 탐지하여 치료를 가하여야만 차기출격에 참가시킬 수 있는 것이다.

신속한 고장탐구, 이것이 전투 준비의 사명이다.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그들은 밤이 드는 것도 모르고 온방장지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병든 자식을 옆에다 놓고 잠을 이룰 수 없는 어머니의 심정—날 수 없는 애기를 두고 어찌 잠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다행히 엔진 소리는 유창(流暢)하고 웅장하다. 충천(冲天)의 별만이 그들을 위로해주는 듯이 반짝일 뿐 주위는 고요하다. 그들은 그대로 보급자리에 쓰러져 달콤한 꿈나라로 들어간다.

무스탕의 어머니는 단지 사랑만 가지고 그의 자식을 양육할 수는 없다. 자식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술도 필요할 뿐 아니라 그것이 단과적(單科的)이어서는 아니 되고 종합적이며 만능이어야 하고 능숙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훌륭한 어머니의 자격이 있는 것이다.

사랑하던 자식을 잃었을 때의 어머니의 심정…… 잔디밭에 누워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그들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간신히 들려오기 시작한 폭음! 가물가물 나타나기 시작하는 편대군(編隊群)! 모두 일어서서 그쪽을 바라본다. 오늘은 예정시간보다 귀환시간이 꽤 늦었다.

“앗! 석 대다!” “한 대는!”

하늘이 뚫어지도록 찾아보았으나 역시 석 대다. 그들의 마음은 초조와 불안에 싸인 다.

“몇 호 기인가!” 모두 착륙하기만 기다리고 있다.

“앗! ○○호가 없다.” 그는 일번기의 엔진이 서기도 전에 달려들어 “○○호기는……!” 떨리는 그의 목소리는 끝을 맺지 못한다.

“자폭……!” 떨리는 편대장의 목소리 주위는 조용해지며 침울(沈鬱)한 공기가 흐른다. 그는 얼빠진 사람 모양으로 멍하니 먼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 그는 어제도 밤늦게 까지 오늘의 출격을 위하여 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도 무심하지 확실히 자폭이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아 행여나 하고 황혼은 다가오지만 그의 발에는 천 편의 쇠뭉치로 얹힌 듯이 좀처럼 그 자리를 움직이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렇그렇하여지며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더니 남모르게 흐느껴 운다. 온갖 정열을 다하여 길러온 자식에 대한 설움과 그와 운명을 같이한 이십 대의 꽃다운 청춘이 가없어 애틋한 마음을 억제할 수가 없어 흘리는 눈물 …… 한창 피어오르는 꽃송이!

물 …… 한창 피어오르는 꽃송이!

조국의 수호신으로 화신하여 구름과 더불어 사라진 꽃송이!

어떠한 귀금속으로도 바꿀 수 없는 알곳은 것이 사람의 운명이란 말인가.

자식과 같이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이와 같은 애틋한 애정감과 실망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불찰과 태만으로서 결코 사고를 내지 않는다는 신념을 가지고 항상 면밀 주도하게 자식의 몸을 돌보아주며 자신을 가지고 출전시키지만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는 항상 불안과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다.

X X X

오직 그들은 조국통일을 염두에 두고 묵묵히 싸워왔는데 38의 마선(魔線)도 역을 한데다가 또 하나 공중완충선이 생겼으니 이 어찌 원통할 일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는 이 마선을 기어코 돌파하고야 말 것이다.

휴전기간을 통해 우리의 실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맹훈련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눈물겨운 애로가 많다. 산간벽촌의 빈한한 농가에서는 자식이 병들어도 약을 살 돈이 없고 병원이 멀고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중태에 빠져가는 자식을 구하고자 백방(百方) 수단을 다하며 애만 태우고 있을 것이다.

시대는 제트에서 로켓으로 변천하고 있는데 그들은 아직도 벽촌의 시골 어머니 노릇을 하고 있으리니 기막힐 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의 환경을 개척하려고 도시의 신문명을 흡수하려고 맹렬히 공부하고 있으며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새어머니가 되어 새 자식을 맞이할 때 당황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니 그들의 희망을 달성시키는 것보다도 우선 조국의 하늘을 수호하기 위하여 새로운 양자를 모셔드리는 것이 시급한 문제다.

그들은 이 일이 성취되기를 고대하면서 애기를 자기 몸 이상으로 아끼고 있다.

제○○비행단

마음의 유대(紐帶)

<조종사(操縱士)와 정비사(整備士)>

공군소위(空軍少尉) 백상기(白相基)

비행기란 것처럼 아프다고 즐겁다고 육감처럼 정밀하면서도 자기의 감정을 표현치 못하는 기계이기에 그같이 위력을 가진 듯하면서도 일방 미련하기도 해서 지상에 있는 모든 기계와는 달라 먹일 것을 주지 않거나 아픈 곳을 고쳐주지 않거나 하면 아무 탈이 없다가도 일단 하늘에 뜨면 갑자기 신경질을 부려 자멸 자폭하는 위험하고도 무서운 기계입니다. 하절에는 Coolant over, 차량 빵구 등 동절에는 icing engine trone engine 각 기관의 동결 등 수많은 질병이 찾아듭니다. 이러한 질병들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찾아들어 아무 흔적도 내어 보이지를 않고 다만 비극의 연출을 손꼽고 있는 듯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한 개 rebet까지도 비행기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인간의 힘으로서 만든 하기 어려운 까다롭고도 힘든 임무를 맡는 정비사들의 노고야말로 그 어느 것에 비할 바 없을 것입니다.

신경과 반응을 함께 가진 인간을 다루고 고치는 의사의 노고와 심고(心苦)도 크다 할진대 하물며 무신경 무반응의 무기물(無機物)을 다루고 고치는 정비사에 있어서야.

공군의 전(全) 임무가 하늘의 제패에 있고 하늘의 제패는 오직 비행기로서만이 달성할 수 있는 오늘날에 있어 비행기를 정비하는 그들의 임무의 중대성야말로 극지(極至)에 이루는 것이라 하겠습니까. 물론 보급, 행정 기타 일반 업무도 그 어느 하나 경하 다 하지 못하겠으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루라도 비행기를 하늘에 띄울 수 없다면 우리 공군의 존재가치는 상실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실로 그들이 가지는 임무의 중대성은 지대한 것이라 하겠으며 그들에게 충분한 활력을 주어 온갖 힘을 경주해서 이같이 중대한 임무를 완전히 수행하게 할 때 발전과 향상의 수레바퀴는 박력을 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중대한 임무를 능히 수행할 수 있는 인적의 소유자이기에 나는 정비사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음과 동시에 그들에 대해서 실로 감탄의 념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거짓 없는 인간성을 가졌으며 사랑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은 물론 무기물인 기계에 대해서까지도 무한한 사랑을 가졌으니 마치 어머니가 귀여운 아기에게 주는듯한 사랑, 그들이 과(果)하는 의무와 책임은 그러한 모성애와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도 심술쟁이, 울기쟁이, 트집쟁이의 어린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들 정비사들은 그러한 사랑을 우리 조종사에게도 베풀어줍니다. 나는 이러한 사랑가운데에서 일찍이 찾아보지 못하던 참된 인간성을 찾아보았고 전우애, 동료애, 인류애를 엿볼 수가 있었으니 엄동설한 눈보라치는 쌀쌀한 아침에도 일찍이 선잠을 재촉해 깨워 오늘의 임무를 수행할 얘기 정비에 많은 고초를 느끼면서도 이러한 고초를 이해하는 등 마는 등 염치 좋게 올라타려는 조종사에 대해 ‘굿모닝’ 하는 그들의 기분 좋고 상쾌한 아침 인사, 뒤쫓아 올라와 Band helmet 기타 점검을 해주면서 “오늘의 target는 어디입니까?” 하고 자못 그의 애기와 조종사가 오늘의 임무를 마치고 무사히 돌아와 주었으면 하는 염원으로 묻는다. 이것은 그들의 본심에

서 우리나라는 말이다. “잘 다녀오십시오.” 하는 그들의 마음속으로부터의 인사와 함께 Start engine taxing out 점차로 멀어져가는 얘기를 홀로 서서 마음 졸여 바라보는 그들의 심정은 마치 어린애를 내보내는 부모의 초조와 불안 그러면서도 일종의 환희를 느끼는 그런 심정과도 같으리라. 이윽고 얘기가 우렁찬 폭음으로 고요한 아침 공기를 박차고 이륙을 하여 join up을 한 후 4기 편대를 지어 원한에 맺힌 북으로 기수를 돌려 일로(一路) 복진할 때 그들은 또다시 기원하리라. 이러한 그들의 심정을 우리 조종사만이 이해할 것이다. 이제나저제나 하면서 시간을 초(秒) 쏘아 기다린 끝에 마침내 기세도 드높이 기지(基地) 상공에 나타났을 때 그들의 기쁨, 무한한 것이다. 얘기가 착륙을 하고 Parking area로 돌아와 Stop engine을 할 때 장(壯)하다는 뜻이 얘기를 어루만지면서 뛰어 올라와 “수고하셨습니다. 비행기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하는 말은 그들의 기쁨 그것이며 나 역시 북받쳐 오르는 희열을 느끼며 한두 번이 아니었다. 비록 이 비행기의 어느 곳이 조금 나쁘다 해서 당돌하게 “이 비행기의 어디 어디가 나쁘다.”라고 지적할 수 없는 조종사의 심정 역시 정비사가 아니면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심정을 아는 까닭에 오히려 종래의 역량을 배가(倍加)해서 정비의 철저를 기하려는 그들의 심정이야말로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미덕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서로 이해하고 마음과 마음이 상통하고 기맥(氣脈)과 기맥이 상접(相接)함으로써 전투비행단의 사명은 완수되는 것이며 이것이 곧 단결의 정신적 요인이 되어 왔던 것이다.

답답한 이야기

<조종사(操縱士)와 예보자(豫報者)>

공군대위(空軍大尉) 김영일(金英一)

시시각각으로 변모되는 전황(戰況)에 따라서 이 대위의 출격(出擊) 수(數)는 급(急) 커브로 붙어 갔다. 공교롭게도 매일같이 따라다니는 악천후에는 골치를 싸벌 지경이다. 기상 Briefing이 끝나자 변동 없는 조건을 불평하는 이(李) 대위는 화가 나는 김에 기상장교를 공격해 댄다

“도대체 하늘이 어떻게 됐소. 최(崔) 대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며칠을 두고 이 모양이니” 그러고 보니 딱하고 탐탐한 것은 공격받는 기상장교의 입장이다. 그러나 Pilot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최 대위는 결코 같이 화를 내지는 않았다.

“때가 장마기라 할 수 없구려. 어디까지나 기상을 예측할 뿐이지 기상을 내 맘대로 운전할 수야 있소.”

Briefing실을 나온 이 대위는 최 대위를 따라 바쁘게 기상실로 들어갔다.

“예보 최 대위, 이것 참 야단났구려. 나머지 30회만 채우면 100회인데 이래서야 내 결혼식 날까지 도저히 기마가 없구려. 또 출격 불가능이라고 하니 사람 간이 타서 살겠소.”

자기가 예측하던 기록돌파일이 벌써 한 일주일이나 연기되고 보니 이미 날까지 받은 총각의 마음은 초조하기 짝이 없었다. 더구나 일선(一線) 상황은 긴박한데다가 일

주일 이상이나 공중지원을 못하고 보니 초조한 것은 이 대위뿐이 아니었다.

“글쎄 여보 인력으로 되지 않는 것을 그렇게 불평만하고 있으면 해결이 되나요. 이 력저력 장마기도 며칠 남지 않은 모양이니 좀 더 기다리기로 합시다. 장마선만 지나가 면 두고 보시오. 이 대위 하루에 4, 5회 출격은 문제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몸이 감당 못할걸요. 그렇다고 그때 가서 불평일랑 마시오. 자—헛된 고심(苦心) 고만 하고 돌아가 폭 쉬도록 하시오. 앞날을 위해서 제일 상책입니다. 근근(近近) 좋은 소식 이 있겠지요.”

못마땅한 듯이 두서너 번 혀를 차면서 나가버렸다.

대관령 허리에서는 벗어날 줄을 모르는 비구름 속에 이만하면 곱팡이가 필 지경이 었다. 원치 않는 휴식은 도리어 신경을 건드릴 뿐이고 지루한 시간을 보내기에 병마져 날 것 같았다. 덕택(德澤)으로 기상실의 전화는 밤낮 며칠을 두고 설 새 없이 대담에 분주하였다. 아무리 천기도(天氣圖)를 보고 상층도(上層圖)를 분석해 보드래도 뾰족한 희망은 좀처럼 나타날 것 같지 않았다.

제기탈 남의 속 작작 태우지 그래 이래서야 해먹을 수가 있나. 천심이 통하지 않는 다는 듯이 최 대위는 이렇게 원망하고선 예보대(豫報臺)를 힘껏 후려갈겼다. 이렇게 한 주일 나머지를 공중만 쳐다보며 짜증 속에서 지내고 말았다.

그러나 자연은 무심하지 않았다. 잊어버리다시피 한 엔진 시동소리는 전 기지를 진 동시키면서 터져 나온다. 부드러운 안개를 타고 오는 태양 빛은 더한층 유난히 아름답 게 느껴졌다. 기지는 활기를 찾아 또다시 거대하게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기상실을 찾아온 이 대위는 의기양양한 기세였다.

“Good morning capt. 최” “일찍부터 얼마나 수고하시요. 이만하면 만점이지요. 땀 어-땀어-. 오늘 다섯 번은 문제가 없어. 오래간만에 굴렸던 폭탄 노다지를 디리 퍼붓 고 와야지, 그런데 최 대위 장마는 인제 걱정 없지요.”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 모습 은 얼마나 그동안 비행에 굶주렸던가를 가르치고 남음이 있었다.

“십 년 묵었던 종차가 터진 것 같구려 아닌 게 아니라 온몸이 마를 지경이었지요. 당 신 비행기 좌석에 곱팡이나 피지 않았는지 잘 보시오. 근 열흘이나 계속되었으니 그대 로 있겠소. 나도 언제는 오래간만에 우화(雨靴) 신세를 면했나봅니다. 잘하면 식(式)날 까지 돌파하겠구려. 신나는 바람에 너무 무리는 마시오. 아마 앞으로는 심심치 않을 정도로 될 터이니까 안심하고 계시요.”

“OK 잘 알았소. 저녁에 또 봅시다. 최 대위 수고하시요.”

천지를 뒤집는 소리와 함께 장도(長途)에 오르는 1기 1기, 마침내 편대를 짓고선 북 쪽을 향하여 대관령을 넘어간다. 언제나 명량한 이 대위의 콧노래가 아득히 들려오는 것 같았다. 기지는 또다시 조용한 공기 속에 놓여진다. 천기도 작성이다. 예보 발표다. Briefing이다 하는 통에 식사도 할 새 없이 쫓아다니던 최 대위는 이력저력 9시가 되 는 것을 보고 겨우 자기 자리에 앉았다.

“요놈의 기상을 내 마음대로만 움직일 수 있다면 기상쟁이도 할 만한 데. 그렇게만 된다면 그야말로 멋이 있는데.”

인력으로 대자연의 모든 흥계를 탐지하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100회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나 그의 안전과 성공을 돕는 지성(至誠) 나 다 같이 승리만을 위해 싸우는 비행단의 정신임에 틀림없다.

강릉(江陵)의 사적(史蹟)

공군대위(空軍大尉) 심장섭(沈樟燮)

태백산(太白山)의 산맥이 남으로 천리를 내려와 설공령(薛空嶺), 철령(鐵嶺)이 되고 또 남으로 천리를 뻗어 내려서 금강산(金剛山), 오대산(五臺山), 태백산(太白山)이 되어 삼천리를 연당도록 연(連)하매 고대 동인(東人)이 이것을 대간룡(大幹龍)이라 하는데 무릇 이 대간룡의 동(東)에 있는 강릉은 서로 태백산을 등지고 동은 창해에 임하며 북 은 옥저(沃沮)의 땅으로부터 이룩되어 있는 곳이다. 그 장엄한 준령이 태백산맥을 대질 러 놓은 듯.

동해의 창파노도(滄波怒濤)를 굽어보면서 서(西)에 웅립(雄立)한 험산 대관령을 차 로서 넘느라면 영(嶺)의 경관에 종일도록 지루한 여로(旅路)의 피로도 기진(氣盡)함도 삼시간에 씻은 듯 정신의 상쾌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해발 880미터의 영상(嶺上)에서 한눈에 그림 같이 조감(鳥瞰)되는 무변(無邊) 창파! 동해의 구도가 첫눈에 띄거니와 우리 같은 경포호수(鏡浦湖水)가 저녁 석양에 반사되 어 반짝이는 양상이란 마치 그림에서나 전설에서 들곤 하던 신선경지가 아니런가 의 아 한다. 거기서부터 남으로 무변(無邊) 확대해 전개되어 있는 우리 제○○전투비행단 과의 한 가운데 터 잡아 점재(點在)해 있는 도시가 바로 눈 아래 보이는 강릉이다.

속력을 한 것 주려 깎아 세운 듯한 영 중복(中腹)을 굽이굽이 돌아 다니느라면 계절 은 만추(晩秋)를 지난 무렵이려만 눈보라 휘둘러 쌓여서 그렇지 않아도 천만 위태로운 터에 왼쪽은 까마득한 단애(斷崖)요 오른쪽은 천심심곡(千尋深谷)이라, 가뜰이나 산적 된 눈사태 위를 미끄러내리는 차중(車中)에 실은 몸이라 열핏 땀을 내다보기조차 조마 조마스럽기 그지없다.

긴장된 마음으로 구십구곡(曲)(굽이)이라고 전하여 오는 영을 넘어서 평탄지에 이르 려ت을 때 비로소 긴장기가 이완되어 휘유—살았다 하는 안도감마저 나온다. 영록(嶺麓) 작은 마을이 면소재지 성산(城山)이란 고장이고 거기서부터 약 8km 지점 동(東)에 강 룡시가(江陵市街)가 나타난다.

영상(嶺上)에서 조부(鳥俯)된 바와는 달리 기온도 가을 기분이고 시가 동남방에 남 대천(南大川)이 유유히 흘러 동해로 들어가고 냇가 변에 우뚝 남산(南山)이 동그란히 솟아서 시가지를 건너다보고 있는 듯하다.

일찍이 송도(松都)의 기생(妓生)이 강릉을 다녀가서 왈(曰), “울고 갔다 울고 오는 곳”이라 전하였다 한다. 영마루에서 보던 감과 마찬가지로 영을 넘는 사람은 누구나 한숨짓지 않을 리 없는 터이니 양쪽에 즐비하게 대치르듯이 웅기중기 솟아 있는 준봉 (峻峰). 어찌다 저런 곳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 하다가도 영을 내려서 강릉에 찾아든 사람치고 누구나 할 것 없이 깊이 정들고 떠날 때에는 다시금 석별의 설움에 눈물 흘

려 끝일 줄 모른다 함은 오로지 강릉이란 곳이 유독 지리적으로 아늑해서만도 아니요, 풍토미(風土味)가 순난(順暖)하고 청신하며 사람 사람의 인정이 풍유(豐柔)한 탓만도 아니리라. 허기야 이조(李朝)시대 정송강(鄭松江)도 “아! 중용(從容)한지! 이곳의 기상(關達)한지, 저 대양의 경관(景觀)! 이보다 더 좋은 경개(景觀)를 갖추어 가진 곳이 이밖에 또 있으랴—”라고 했지만 과연 명량한 고장이란 인상뿐 아니라 옛적부터의 자취라도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

여년(餘年) 전(前)까지도 있었다고 하는 월화정(月花亭)이 지금은 그 흔적만이 남아도 찾을 길이 아득하니 남천(南川)변에 연화봉(蓮花峰)이 있어 옛날 신라(新羅)시대 연화부인 박씨(朴氏)가 양어(養魚)를 목적으로 연못을 만들고 정자를 지어서 양어타가 어떤 날 남군님의 감정에 못 견디어서 연못 속 고기로 하여금 편지를 전했다고 해서 부인의 이름자인 ‘화(花)’자와 남군의 이름자 김무월랑(金無月郎)의 ‘월(月)’자를 따서 월화정이라 하였던 곳이 지난 병자년(丙子年) 대홍수에 정자가 떠내려가고 정자 있던 터와 바위도 간 곳이 없다고 한다.

강릉시에서 동북방으로 근 십리를 가면 이조의 유명한 유학자(儒學者) 율곡(栗谷) 이이(李珥) 선생님이 탄(誕)하신 오죽헌(烏竹軒)을 우선 찾아온다. 좌우 사방이 논밭으로 둘러 있는 가운데 오솔길을 몇 굽이 꼬부라지면 기와에 청태(靑苔) 끼어 고색(古色)이 창연(愴然)한 오죽헌이 보인다. 계상(階上)에는 이미 조멸(凋滅)한 몇 그루의 오죽창취(烏竹蒼翠)가 있을 뿐 울창된 후림(後林) 노송(老松)도 거년래(去年來)의 수많은 병화(兵火)의 겁운(劫運)을 입어 벌재(伐材)되어 비었음을 목격한 자 다 같이 애석히 여겨 단장지감(斷腸之感)을 불금(不禁)한다.

문실(門室)에 들어서면 선생님의 자당(慈堂) 사임당(師任堂)의 친필과 유연(遺硯)이 상금(尙今)껏 보장(保藏)되어 있고 헌벽(軒壁)에는 수암(遂岩) 권(權) 선생의 친(親) 액서(額書)와 정상국(鄭相國) 선생의 기문(記文)과 김삼연(金三淵) 선생의 시문(詩文)이 남아 있어 당시의 문예 및 사조를 규실(窺悉)할 수 있음이 다행이다.

몽룡실(夢龍室)은 여태⁶⁾ 꼭히 문이 닫혀 있어 사임당이 하룻밤 꿈에 흑룡(黑龍)이 침실에 들어서 마침내 율곡 선생을 잉태(孕胎)하셨다고 해서 내실을 몽룡실이라 했으며 지금도 예대로 문이 닫혀 있어 삭연(索然)할 뿐이다. 무죽(無竹)한 반사(反砂)에 주위에 빛나무만이 몇 주 있어 봄이 되면 경색(景色)을 도와주곤 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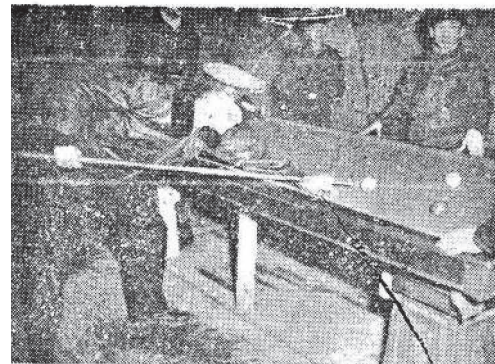
순력(巡歷)을 마치고 차로 달리며 동쪽으로 약 5분간을 가면 관동팔경(關東八景)의 하나인 경포호(鏡浦湖) 및 누각이 눈에 띈다.

이조(李朝) 선조(宣祖) 때 강원도(江原道) 관찰사로 있던 정송강이가 관동팔경을 차례로 돌아 낙산사(洛山寺)를 지나서 현산(峴山)에 되어 있는 축적(蹠蹠)을 연(軟)하게 늘리어 밟으며 우개지륜(羽蓋芝輪)에 몸을 싣고 흔들리며 경포로 내려갔다고 하였는데 오늘의 방문객이 우개지륜에 몸을 싣지 못함이 서운타고나 할까?

하나 그 진경(眞景)만을 음미하면 고작이겠으나 그러지 못한 여장(旅裝)이 한이라고나 할까?

여장을 털고 누각에 올라서면 멀리 한눈에 전망되는 경치! 누상(樓上)의 액자와 같

6) 원문의 ‘여지껏’은 ‘여태’의 오타.



상(上) 말보다는 기술(技術)이 낮은 것 같애(당구장(撞球場))
하(下) 접시장단에 노랫가락 유행가(流行歌)(주보(酒保))

이 과연 ‘제1강상(第一江上)’임에는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을 것이다. 이 액자는 당시의 유명한 중국의 문필가 두 사람의 수서(手書) 친□라 전할 뿐 이렇다 함은 미상(未詳)이다.

송강(松江)이 경포를 적어서

“십리 빙환(氷丸)을 다리고 고쳐다려 장송(長松)을 한속에 싫거장 퍼져새 물결도 자도 잘 자 모래를 헤리로다.”

일대(一代)의 많은 작가 중에서 군계일학(群鷄一鶴)의 위대하고 능숙한 송강마저 한(限)것 요 것밖에 표현치 못했는가 원망스럽다. 경포의 일명(一名)을 군자호(君子湖)라고도 하는데 그 호수가 말고 깨끗하기가 거울 같고 불심 불천(不深不淺)하여 겨우 허리 어깨에 찰 정도라 한다. 호수 주위가 30리에 연(連)한다하나 지금은 매몰된 탓인지 불과 15리가 될락말락하며 울울(鬱鬱)히 무성(茂盛)된 송림은 전혀 폐허(廢墟)되어 버림이 서운타 할 것이다.

고려(高麗) 때(연대 미상) 지금 있는 방해정(放海亭) 북록(北麓)에

건립한 것을 이조 초엽(初葉)에(거금(距今) 460년) 한글(韓潑) 강릉부사(江陵府使)가 재임 시 지금의 누각으로 이진(移建)하였다고 한다.

경포를 찾는 이는 누구나 기억에 남아 있는 경보팔경의 시구(詩句)가 있으니

초당취연(草堂炊煙) 당현낙조(堂峴落照) 죽도청풍(竹島淸風) 강문어화(江門漁火)

오암관어(烏岩觀魚) 한산모종(寒山暮鍾) 증산귀운(甞山歸雲) 원포귀범(遠浦歸帆)⁷⁾

이는 한문의 시구라기보다 일찍부터 방객(訪客)의 머릿속에 들어있어 노래나 이야기의 한토막이 아니며 우리 눈에 판 박혀질 줄 모르는 경포호 풍경 그것이라고 해도 그만 이겠다. 누상에서 망경(望景)한 풍경이니 호수 건너편 송림 속에 초당이 잠겨 있고 동으로 강문활(江門滑村)이 편재(偏在)하여 있어 범선의 흰 돛이 파도 볼속에 잠겼다 떴다 함도 이채롭다. 동해 연변(沿邊)에 외톨로 용립(聳立)한 죽도와 바다 가운데

7) 문과 다름.

솟아 있는 오얏이 모두가 그림을 봄과 마찬가지로. 내 지금 서있는 곳에 단원(檀園)을 불러다 세운들 천하의 명화 신선도가 그려질 것을! 고인(古人)은 가고 아니 옴이 서럽고 애달프다.

한송정 달 밝은 밤에 경초대 물결잔제
유심한 갈매기는 오락가락 하건마는
어떻다 우리 왕손(王孫)은 가고 아니 오는구나

이 가사가 바다에 떠서 강남인(江南人)들이 이 가사를 보고 궁금턴 중 고려 광종(光宗) 시 장진산(張晉山)이 강남에 봉사갔을 때 한시로 번역하여
월백한송야(月白寒松夜) 파안잔경포추(波安鏡浦秋)
애명래우거(哀鳴來又去) 유신일사구(有信一沙鷗)⁸⁾

그 이름 더욱 강남에 떨치었다 한다.

정월 보름과 8월 한가위가 되면 달맞이 객으로 누대(樓臺)는 물론 호변(湖邊)이 입추(立錐)의 여지가 없다 한다. 만월이 동해바다 속에도 잠기고 호수에도 잠기고 참으로 승경(勝景)이라 아니할 수 없다. 호변에서나 호수 건너에서나 밖에서 바라보는 것보다 경포대에서 팔경 사방을 바라보는 거기에 누대의 참가치가 있다 한다.

송강의 관동별곡의 일구(一句)를 풀어 보면

“고주(孤舟) 해람(解纜)하여 정자 위에 올라가니 강문교를 넘어서자마자 그 곁이 바랴요. 대양이 여기서 파도치는구나! 아! 중용한저! 이곳 경포의 기상, 활달한지고 저 대양의 경관! 이보다 더 좋은 경계를 갖추어 가진 곳이 이밖에 또 있으랴. 짐짓 홍장(紅粧)의 옛 이야기는 야단스럽다 할 것이다.

강릉 대도호부(大都護府)는 풍속이 매우 순박하고 절효(節孝)에 뛰어 난 이를 표창하는 정문(旌門)이 동리마다 나열하여 있으니 요순(堯舜) 때 사람들이 아마 이제도 살아 있다 할 것이다.”

경포대에서 동으로 얼마 안가서 방해정 정자를 구경할 수 있다. 지금자리에 이전하기 전에 경포대가 바로 이 방해정 북쪽에 있었던 것을 전기(前記)하였거니와 이 방해정은 이조 철종(哲宗) 시 이봉구(李鳳九) 군수가 창건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 방해정 일화에는 관동별곡의 『경포』 가사(歌辭)에도 있듯이 홍장 고사(故事)가 전하여지고 있다.

바로 정자 동쪽에 홍장암(紅粧岩)이란 큰 바위가 있는데 옛 국초(國初) 때 박충숙신(朴忠肅信)(설봉인(雪峰人) 이판)이 강릉 미인 홍장이란 기생과 놀던 곳이다. 그때 박충숙신은 순찰사로 강릉에 왔다가 홍장과와 정이 깊어 몽매불당(夢寐不忘)이 지내다가 얼마 후 다른 곳 순찰로 떠나게 되었다. 후에 다시 만날 것을 언약하고 석별한 얼마 후 다시 강릉에 돌아와 보니 홍장은 간 곳이 없고 소식마저 묘연하여 궁금턴 중 때의 강릉부사 조(趙)란 이가 있어 역시 풍류남아로 그 순찰사와는 꼭 친한 터이라 그 순찰사가 홍장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조롱키 위하여 거짓 꾸며 이미 죽었

(50면(面)으로 계속)

8) 원문과 다름.



이루어져야 할 태평양방공체제(太平洋防空體制)

김기점(金基漸)

광대한 지역과 무진장의 지하 물질 자원과 수역의 인구를 가진 자유중국(自由中國)이 악랄한 공산정권의 침략을 받아 조그마한 타이완(臺灣)섬에서 본토 진격의 숙기(熟機)를 노리고 있으며 동아(東亞)의 방공제(防空堤)인 대한(大韓)의 북(北)은 공산정권이 수립되어 독재 소련(蘇聯)의 지령 아래 자유 한국을 침략하려 했고 다시금 중공 개입을 보게 되었고 현재는 휴전 상태에 놓여 있으나 언제 다시 전쟁이 재개될지 모르는 대공(對共) 전쟁을 앞두고 있으며 일본(日本)은 소련 침략에 대비하여 미국을 위시한 자유민주진영의 제방(諸邦)과 전후 강화조약을 체결하고 재군비를 갖추기 시작하여 대공 병참(兵站)의 요새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으며 불령(佛嶺) 인도지나(印度支那)에 있어서는 공산 적화(赤化)의 침략이 시작되어 8개 성상(星霜)이 지나도록 가열한 전투가 계속되고 있고 필리핀, 마래(馬來)에 있어서도 공산 위협에 시달리고 인도네시아, 버마, 인도(印度) 등은 자유민주진영과 공산독재진영 간에서 소위 중립적인 입장을 갖추고 있다고는 하나 그 정책의 애매함으로서 자유진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음이 사실이다.

이와 같이 태평양 연안 제국(諸國)은 직접 간접으로 공산 독재세력의 침략 내지 위협을 받고 공산진영의 평화 아닌 공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심지어 공산진영은 아세아 유대(紐帶)를 이루고자 소위 평화회의를 개최하여 소련과 중공 간에는 15년간의 우호원조조약(友好援助條約)을 맺었으며 북한 괴뢰정원과 중공 간에는 경제 문화에 관한 원조조약을 맺은 나머지 소련은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측에 대하여 적화의 전주곡인 다각(多角)의 추파를 던지고 있다. 또 중공, 인도가 중심이 되어 버마, 인도네시아, 북한 괴뢰 등 아세아 5개국 간에 동맹조약 체결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하여지고 있으나 이러한 공산 독재세력의 위협에 대비하여 태평양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자유 민주 제방들도 공동반공방위체의 유대가 논의된 것도 오래되었다. 즉 이를 위하여 한국의 이(李) 대통령, 필리핀의 퀴리노 전 대통령 및 자유중국의 장제스(蔣介石) 총통이 각각 이 결성의 필요성을 역창(力倡)한 바 있었고 이에 따른 기간(其間)의 국교는 더욱이 활발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이로써 반공방위공동체 결성에 관한 예비 교섭은 자못 팔목할만한 전개를 보이는 한편 아세아 반공민족회의에서 다소의 의견 차이는 있었으나 모두가 절대적인 찬의(贊意)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 등 자유 우방으로서 불원간(不遠間) 개최될 것으로 더욱이 필리핀 대통령으로 당선된 막사이사이 씨(氏)가 공산당에 대한 태도나 일본에 대한 정책이 부동(不動)함으로서 태국(泰國)과 함께 이 선구적 역할을 하리라고 믿어지며 동남아 반공(反共) 국가의 공동체 결성이 실현단계에 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반공집단방위체를 결성하는데 있어서는 북대서양동맹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반공자유진영의 선진지도국가로서 후진약소국가에 경제적 또는 군사적 원조를 하고 있는 미국이 중심 세력이 되어야 할진대 지금까지는 적극적인 열의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즉 한국, 중국, 불인(佛印)인도지나, 버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와 같은 과거 일본 및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식민 또는 반식민지의 처지에 있던 동남아 국가들로서 비록 자본주의 국가의 기반(羈絆)은 벗어났을지나 경제적으로는 다소간 종속 관계에 있으며 정치적으로는 명실상부(名實相符)한 독립국가의 체제(體制)를 갖추지 못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민족해방운동이 은연히 계속되어 있으며 이러한 틈을 타서 공산주의운동이 발을 붙이고 만연(蔓延)되는 것이다.

소련은 세계 적화를 꿈꾸는 공산세력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미국의 이들 국가에 대한 원조를 미 제국주의의 침략정책이라고 험구(險口) 역선전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미국은 앞서 이 지역의 국가들이 자진하여 국부 지역적인 반공방위 공동체의 축진을 권하여 왔으며 아직 자기 방위의 실력 부족 혹은 미비한 그리고 국가 내부에 공산 위협을 받고 있는 국가들과 상호 방위협정을 체결하여 태평양 전역에 대한 방공 책임을 단독 지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애치슨 미 전 국무장관은 누차에 걸쳐서 결속이 약하고 군사적 방위 기구의 부담이 무거운 것으로 미루어 태평양 전역에 대한 공동방위체의 결성은 시기상조라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자유진영에 대한 공산주의의 위협, 침략에 대비하여 만단을 배제하고 일본과 강화조약을 체결하고 재무장을 허용할 것을 결심하고 동시에 일본 재흥(再興)에 대하여 위구(危懼)와 불안을 가지는 제국 사이에 안전보장조약을 체결하였다. 즉 대일(對日) 강화조약 체결 직전에 미비(美比)[미국과 필리핀] 상호안전보장조약과 미국, 호주, 뉴질랜드 간의 태평양 3국 안전보장조약을 체결한 것이며 체결의 동기는 일본의 군국주의의 재대두(再擡頭)를 우려하여 이에 대비키 위하여 출발된 것이나 다시 공산세력의 침략 위협에 대비해서 남태평양 방위체제를 강화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또 대일 강화조약 체결과 동시에 미일 안전보장조약을 체결하여 능히 미국은 일본을 군사 병참기지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투르먼 미국 전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 대일(對日) 강화회의에서

“일본이 태평양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적당한 안전보장협정에는 가능한 한 속히 참가하는 것은 극히 중요한 일이며, 태평양에 있어서의 지역적 방위를 위한 협정 하나 하나가 장래에 창설될지 모르는 일본의 방위군이 태평양 지역의 다른 나라를 방위군과 연결될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하여 태평양 지역 방위공동체의 결성을 예상하였던 것이다. 그 후 미국은 한국 휴전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한국으로 하여금 이것을 수락케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과 사이에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 전문(前文)을 들어보건대

“한미 양국은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평화 기구를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고 당사국 중의 어느 일국(一國)이 태평양 지역에서 고립하고 있다는 그릇된 인상을 잠재적 침략자에게 주지 않게 하기 위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세에 대하여 방위하고자 하

는 양국의 결의를 공공연히 정식으로 표명할 것을 희망하고 또 태평양 지역에 광범하고 효과적인 안전 보장체가 발전될 때까지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강화한다.”라고 써여져 있으며 한미 상화방위조약이 장차 발표될 태평양 지역 안전보장체가 결성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그 과도기적인 조치로서 한미 양국 간의 태평양 지역의 공동방위체의 체결에 대한 미국의 견해를 말할 수 있다.

다음에 이(李) 대통령의 역사적인 타이완 방문으로서 한중 방위군사동맹을 체결하는 단계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아세아 반공전선(反共戰線)의 양 거두의 공동성명에서는 충분히 국제공산주의의 위협과 침략에 대항하여 자유 민주제국(諸國)과 국민에게 반공통일전선을 조직 결성할 것을 말하고 있으며 태평양 지역의 반공방위공동체 조직을 역창 강조하였다.

이러한 경위로서 태평양반공동맹의 조직 결성 기운(機運)은 성숙하였으나 실제 체결 면에 있어서 약간의 난관이 가로놓여 있는 듯한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겠다. 즉 체결국의 범위, 상호 방위의 내용, 회의소집의 주도국, 또 하나는 각 국가의 특수사정의 고려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며 북대서양동맹 같이 미국이 체결국의 하나가 될 것인가 또는 권외(圈外)에서 물심양면의 원조를 공여(供與)할 것인가, 영불(英佛)이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또 주로 한국전선에 출병하고 있는 태평양 지역의 국가를 성원으로 할 것이냐.

더구나 인도, 인도네시아, 버마, 일본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한국 휴전의 정치회의의 귀추와 중공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한국 문제와 불령(佛領) 인도(지나)의 휴전 문제 등으로 미루어보아 어떻게 변전하느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또 내막에 있어서도 정신적인 반공 통일유대체를 조직하여 세계 적화를 꿈꾸는 공산주의의 위협에 대한 긴밀한 정보 교환을 하고 사전 협의 정도로 하느냐, 미비(美比)[미국 필리핀] 앤저스⁹⁾, 미일, 한미 조약 등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느냐 혹은 필리핀, 말레이시아와 같이 자국 내에서 공산위협을 받고 있는 국가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새로이 당선된 막사이사이 필리핀 대통령이 태평양동남반공회의를 소집함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인가. 이에 인도의 네루 수상이 태평양반공회의에 방해할 하지 않을 것인가. 공산진영이 이에 대항하여 어떠한 움직임을 할 것인가가 또한 커다란 문제의 하나가 될 것이다.

만약에 태평양 지역과 동남아에 있어서 반공방위공동체가 반공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관계 각국의 이해는 일치된다할지라도 내부에 있어서는 그리고 순조로운 것만이 아니고 의견의 불일치, 또한 각국의 사정이 각각 상이하므로 미국이 이를 강력히 추진하지 않는 이상 결실을 보기에는 매우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소련의 국제공산 적화의 팽창 정책과 침략에 대비하여 자유민주진영의 구성원인 반공국가들은 인류의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상호부조(相互扶助) 방위공동체 조직 결성에 적극 박차를 가함으로써 그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이며 또 그러함으로써 자유진영이 승리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9) ANZUS

제공권(制空權) 2차대전사(二次大戰史)

☆ 노르망디 상륙작전(上陸作戰)에 있어서의
연합공군(聯合空軍)이 수행(遂行)한 역할(役割)

1944년 6월 2대(大) 공업국가의 강력한 무기들이 영국(英國) 본토에 집결되어 있었다. 역사상 가장 강대한 군사력으로 영국은 히틀러와 그의 군대를 없애기 위한 병력 무기 장비의 강대한 집결소로 변해 버렸다.

독일(獨逸)은 구라파 요새를 자랑하고 있었다. 영국에서는 이 요새를 돌파하기 위한 군대가 모든 무기를 갖추고 만단 준비 진격명령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영국에 있는 공군비행사들은 독일군을 공격할 수 있는 거리 내로 우리 지상군을 진격시키기 위한 전투를 이미 시작하고 있었다. “히틀러 공군을 쳐부셔라!”하는 공군의 진격명령은 수개월 전에 이미 내려졌던 것이다.

영국 들뜬에서 또 영국 해역에서 지상군 및 해군의 대증강이 진행되고 있는 사이에는 구라파를 해방시키기 위한 공중전은 불란서(佛蘭西) 및 독일 상공에서 전개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 공중전은 누가 구라파의 하늘을 제어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전개되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치열한 전쟁 경험을 통하여 연합국은 하늘을 제어하는 자는 지상 전투에 승리를 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만약에 우리 공군이 북불(北佛) 상륙작전 단행일 이전의 공중전에서와 같은 독일 공군에 대하여 막대한 희생을 강요할 수 있었더라면 지상군의 진격을 결코 개시될 수 없었을 것이다.

금세기의 가장 유능한 군사전략가의 한 사람인 윈스턴 처칠은 영국 해협을 건너서 진격할 시기가 박두하였을 때 영국 내에서 사태를 관찰하여 그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였다.

하여튼 제공권의 확보는 군사력의 최고 표현이다.

그는 만사를 잘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영국군이 화란(和蘭), 불란서에서 참패하여 재조직 재무장하여 권토중래(捲土重來)할 것을 기하고 소함선(小艦船)을 타고 본국으로 돌아오던 단켈크의 암흑의 날을 살아 왔던 것이다. 단켈크에서 영국은 재화(災禍)를 승리로 전환시켰던 것이다. 그들은 질서 정연하게 해안선에 집결하며 출발할 수 있을 때까지 대기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단켈크의 후퇴 작전은 영국 공군이 제공권을 확보함으로써 비로소 성공하였던 것이다.

그때까지 거의 무적이었던 루프트와페기(機)는 단켈크 상공 공중전에서 패배하고 영국 스리트파이어호(號), 하리켈호들은 후퇴하는 전우들을 공중으로부터 보호하였던 것이다.

노르망디 해안 상륙작전이 점차 성숙해감에 따라 제공권의 확보는 불가피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하늘을 제어하는데 간건(幹鍵)이 되는 것은 전투기다. 성능이 우수하고 폭탄, 로켓탄, 기관총, 포를 운반할 수 있는 전투기는 불안한 상륙군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공군이 적시에 그들을 막아내지 않으면 독일 전투기는 해안에 상륙하려는 우리 군대를 강타하고 상륙용 함선들을 폭격하고 아군이 상륙하여 참호 속에 들어가기 전에 이를 혼란에 빠뜨리어 아군 상륙작전을 대실패로 돌아가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상륙을 단행하기 전 몇 달 동안 우리 공군은 적의 전투기를 상륙 지점으로부터 멀리 몰아내는 데 전력을 다했다. 상륙 일자가 날로 가까워 오에 따라 아군기는 해안선 일대에서 불란서 내부에 있는 독일군의 비행장을 별집을 소제하듯이 하나하나 폭격해 갔던 것이다.

아군 전투기들은 적의 비행장을 폭격하지 않을 때는 적 국토 내로 대량 출격하여 어느 편이 제공권을 가질 수 있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투는 대로 도전을 했다. 이들 전술 사명은 전략 사명에 있는 대형폭격기들의 활약으로 보충을 받았다. 왜냐하면 B-17, B-24 등 대형폭격기들은 적 본토를 공격하는 한편 적의 전투기도 격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도 제공권 확보를 위하여 활약하였다.

연합국 지상군 총사령관 아이젠하워 장군은 상륙 일자를 결정할 책임이 있었다. 장군은 상륙 일자를 결정하기 전에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했다. 이들 요소 중에서 가장 큰 것이 공군의 힘이었다. 이제 제공권 무제는 실질로 완전한 것이었다. 그는 진격을 명령했다. 전쟁의 바뀌는 돌기 시작하여 요새 구라파의 침입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전쟁계획은 훌륭했다. 연합국 전술공군은 수개월에 걸쳐서 독일군이 공중으로부터 아 상륙군을 공격하는 능력을 파괴한 후 이제는 상륙할 해안을 강타하였다. 전투기들은 일제히 출격하여 영국 해안을 건너가는 대수송선대(大輸送船隊)를 엄호하고 입체 상륙작전을 엄호하였다. 사실 독일 공군의 저항은 없었으며 아군 폭격기들은 적의 도로, 교량, 철도, 군사집결지 등을 공격했다.

한편 연합국의 병력과 장비는 해안으로 쏟아졌으며 요새 구라파의 일우(一隅)에서의 우리의 군사력은 날로 증강해졌다. 아군이 해안 교두보를 구축한 후 2주일이 지나서 독일군 일선 사령관이었던 폰 클루게 대장(大將)은 심각하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적(연합국)의 공군력은 무서울 정도로 우세하며 우리의 거의 모든 활동을 질식시키고 있다. 동시에 적의 일거일동은 주밀한 계획과 준비 하에 수행되고 있으며 일일이 공군력의 보호 하에 수행되고 있다. 우리의 물적 인적 손해는 비상한 것이다.....”

후일 이 역사상 가장 중대한 상륙작전을 회고하여 아이젠하워 장군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공군력의 준비가 없었더라면 이론적으로 보아서 그러한 모험은 기도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르망디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제공권은 모든 전쟁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요

소이다. 왜냐하면 공중으로부터 적의 방해를 받지 않고서 지상군이 작전을 할 수 없다면 지상군의 활동이 완전히 성공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적이 완전히 제공권을 장악하게 되면 적 공군은 적극적으로 아군의 보급로, 증원부대, 통신로를 절단하고 아군을 적의 공중공격에 폭로하고 지상군의 임무 수행 능력을 약화함으로써 지상군사령관의 작전을 방해할 수도 있고 또 완전히 실패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이외에도 지상군 사령관은 적 공군의 위협에 대비하여 그의 군대 이동을 위장해야 하고, 또 그의 장비와 보급을 분산시켜야 하며, 엄밀한 등화관제(燈火管制)를 실시해야 하는 동시에 24시 방공시설에 인원을 배치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강력한 적기(敵機)의 내습은 그의 군대의 사기를 손상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 공군은 첫째로 싸워서 제공권을 확보해야 한다. 이 제공권은 주로 두 가지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방법은 동시에 행해지는 것이다.

첫째로는 적의 항공무기 생산능력을 파괴하는 것인데 이것은 전투 지역 또 작전사령부 구역 외에서 행해지는 공중전이다.

장거리 전략폭격기들은 적의 심장부로 깊숙이 침투하여 기계 엔진들이 만들어지고 구조가 행하여지는 적 공장을 탐색하여 이를 파괴한다. 이들 폭격기들은 또한 부분품장구들을 공장으로 수송하는 철도 기타 수송기관을 공격한다. 그들은 또한 적의 원료공급지를 공격하고 적으로 하여금 비행기 제조에 필요한 원료를 입수하지 못하게 한다.

보통 중폭격기에는 장거리 전투기의 호위를 받는다. 이들 전투기는 될 수 있는 한 많은 숫자의 폭격기가 적 목표지에 도달하는 것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도전하는 적의 전투기와 교전하여 아군의 제공권 확보의 도움이 되는 것이다.

불란서와 독일 상공에서 전개된 공중전에서는 독일 전투기들은 연합군 전투기에 도전해 오지 않을 때가 많았다. 독일 전투기들은 독일군의 전쟁 수행 능력에 막대한 희생을 주고 있던 대형전략폭격기에 대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감추어 두고 있었던 것이다. 독일 전투기들은 숨은 비행장에서 이륙하여 폭격기에 도전했다. 그러면 그 폭격기들을 호위하고 있던 아군 전투기들이 그들과 교전하여 그들을 파괴할 기회가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전투기들은 줄어 들어가는 독일 전투기의 생명을 더욱 더 깊이 잘라 들어갔으며 동시에 효과적으로 폭격기를 보호할 수 있었다.

적의 비행기 생산능력을 말살하고 적의 본토에서 적의 전투기와 교전함으로써 제공권을 확보하는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전술공군의 기능의 일부라고는 할 수 없다. 이 사명에 사용되는 중폭격기는 전략공군의 기능에 속한다. 그러나 중폭격기의 이러한 임무는 전술공군의 임무와 상부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합동적인 노력은 제공권 보장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외지(外誌)에서
끝

구식(舊式)이 된 MIG

미(美), 영(英), 소(蘇)의 제트엔진의 성능(性能)과 그 생산(生産)

지구(地球) 상공 지배권의 경쟁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 위대한 변혁의 서광이 보이게 되었다.

소련(蘇聯)의 MIG가 구식 제트기 중에서 가장 신속히 행동할 수 있다고 유명하였으나 미국의 제트기 생산은 점점 세계 군사항공기 간에 있어서 그 자취를 나타내기 시작하였으며 직접적인 제트기의 지배권에 있어서도 그의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최근의 전투에 있어서의 미국의 제트기와 소련제 MIG의 격파의 비율은 1대 13인 것이며 이것은 소련 제트기의 손실이 미국의 그것에 비교할 바가 아닌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기록은 미국의 최근 대폭적인 항공기 생산계획을 수립하기 전의 것이다.

금일에 있어서의 공군력의 경쟁이란 그 제트기관(機關)의 진보에 그의 대부분이 의존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의 미국의 진보란 현재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히 지연될 것이며 이 지연 문제는 2차 대전 중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고려되었으나 결국 파스톤기관의 발전과 대량 생산의 필요성에 기인하였던 것이다.

전후에도 정부에서의 경제명령으로 인하여 제트기관의 연구 내지 발전은 중단되었으며 기술자들도 속수무책이었던 것이다.

그간 영국은 상당한 제트기관의 발전을 보였으며 소련에 매도(賣渡)까지 하였다. 즉 현재 소련이 사용하고 있는 MIG도 영국에서 설계한 로트 로이스텐기관을 변경하였던 것이며 이 종류의 기관이란 원심적(遠心的) 비상(飛翔)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종류의 제트기관의 힘을 최고 약 7,000 내지 8,000파운드의 추진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미국과 영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의 힘과 동일한 기준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투에 있어서 미국의 제트기가 우세하다는 것은 사실이며 특히 무가. 장치, 조종사들이 우수한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1만 파운드의 추진력을 가진 신(新) 제트기관이 생산되고 있으며 이것은 축상(軸上) 비상 원리에 의한 J-57이며 전시 독일에서 발전되었던 형태와 흡사한 것이다. 그리고 원심적 비상보다 더 직접적인 비상을 하게 장비되어 있는 것이며 그 외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제트기관에 비하여 20퍼센트 내지 30퍼센트의 연료가 절약되는 동시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이다.

이 J-57 기관은 F-101 제트전투기, 그리고 B-52 장거리 폭격기 기타 초기에 생산된 제트기에 막대한 속력을 가할 수 있는 것이며 전기 F-10-B-52기 등은 이 신 J-57 기관을 장비할 수 있게 설계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동일 량의 연료로서 훨씬 더 장거리 비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로써 지금까지 제한된 비행 범위가 훨씬 더 넓게 된 것이다.

그 정확한 속도는 비밀이지만 이 미국의 신(新) 제트기관이 현재 생산되고 있는 모든 제트기관 중에서 가장 강력한 동시에 상당한 숫자의 기관이 생산되었으며 미국의

제(諸)비행기가 이 신 설계의 동력 장치를 사용할 수 있게 되자 공장에서는 1개월에 약 백대의 증가 생산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설계가 사용되고 있는 동안 또 새로운 형태의 발전을 보게 되었으며 이것 이곳 J-75이다. 이것은 15,000파운드의 추진력을 가졌으며 J-57보다 약 50퍼센트나 더 강력한 것이다. 즉 이것은 한국 전투에 참전하였던 소련의 MIG의 2배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소련은 2차 대전 지부터 명백히 영국의 냉전의 기관에 입각하여 연구를 하여 왔던 것이다. 그들의 이 원심적 비상형의 기관에 전념하여 온 결과 그의 힘의 제한과 다량의 연료 소비와 속력의 제한 그리고 고도의 제한을 발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그 원심적 비상형기관을 현재에 비유해서 연구하여 왔더라면 도리어 소련이 더 우수하지 않을까를 미국의 기술자들은 의심한 바였다. 제트기관의 발전 속도는 상당히 지연된 감이 있다. 즉 1변환기에 약 5개년이 걸리는 것이다.

◇ 제1기는 제트기 주기(週期)는 1941년에서 1946년까지의 최구형(最舊型) 제트기 시대이며 독일에서 2,000파운드 이하의 추진력을 가진 비행기 발전 시대이다.

그리고 이 주기 말에 독일이 2,000 내지 3,000파운드, 영국이 포르 토이스라는 4,000 내지 5,000파운드의 추진력을 가진 기관에까지 발전하였으며 미국도 몇 회사의 제한된 실험으로서 영국과 동등한 발전을 하게 되었다.

◇ 제2기는 1947년에서 1952년간이며 그 힘은 전기(前記)의 그것보다 약 2배로 되었다. 영국은 그들의 이론을 개선하여 후방 연소의 원칙을 사용하여 7,200파운드의 추진력까지 발전을 하였으며 그간 소련은 독일 기관에 입각하여 연구하여 왔으나 영국제를 매입하게 되자 그것을 포기하여 버렸다. 이 종류의 것도 역시 전기의 영국제와 같이 7,000 내지 8,000의 추진력을 가진 것이며 미국은 이 쌍방의 실험을 하였다.

즉 영국의 새이바형(型)의 기관은 완전 인수하여 그 자신의 기체에 장비하여 본 결과 최대의 발전인 경우에 이것이 독일의 기관에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동시에 이로써 10,000파운드의 추진력을 가진 J-57을 생산하게 되었다.

◇ 제3기는 금년 초부터이다. 즉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닥쳐올 5개년이며 현재까지 발전하여 온 항공기의 엔진 사용의 신(新) 경로에서 시작되는 것이며 즉 현재 발전이 시작된 실험적인 형태에 놓인 기본 엔진의 신 노선인 것이다. 여기에 있어서 미국은 이미 15,000파운드의 추진력을 소유한 기관을 발명하였던 것이다.

여하간 미국은 그 질에 있어서는 최신예의 군용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며 6발(發) 중형(中型) 폭격기는 최고조의 생산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면 영국은 사실상 역시 4발 원형(原型)을 실험 중이며 소련은 사실상 제트폭격기의 생간은 없는 것이다.

미국은 B-52의 다량 생산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륙 지방 폭격을 위하여 이미 실험을 마쳐서 전장에는 장거리 폭격의 사명을 띠게 될 것이며 그 외의 나라들은 아직 이 항공기에 대하여 상기 나라들과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한다. 소련은 여전히 MIG 형의 제트기를 전념 연구하고 있으나 한국에서 보이고 있는 것은 판역(判然)히 미국의 것과

는 비교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미국의 제트기의 생산력이 증가되는 중 소련은 제공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B-36의 대형폭격기 편대(編隊)에 힘을 쓰고 있으나 이것은 현 단계에 있어서 그렇게 문제가 되지를 않은 것이다. 그리고 제트기관의 직업화에 있어서는 현재 영국이 과연 우세한 것이다. 영국의 제트수송기는 이미 수차에 걸쳐서 정식 시간표에 따라 장거리비행을 하고 있으며 이 장거리 비행기는 대서양을 8시간 만에 왕복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아직 정식적인 직업용 제트기의 생산은 하지 못하였으나 결국에 있어서는 이 직업적 제트항공기에 있어서도 미국이 우세할 것만은 사실이다.

미국에 있어서의 가장 유명한 제트 권위자의 1인이며 현 연합항공병단의 책임자인 프레스리크 B 랜드세타 씨(氏)는 이렇게 언명하고 있다.

즉 동력 장치가 현재 요구되고 있는 직업항공기의 대치에 있어서 원형 개화(開化)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여기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공업적인 연구가 10,000파운드의 추진력을 가진 것을 발명하였으며 그와 동시에 제트다빈이 그 연료 소비율에 있어서 숙명적인 약점이 있던 것을 현재에 있어서는 전(前)의 어떠한 것보다도 연료 소비율의 저하를 보이게 되었던 것이다. 급일에 와서는 추진력 그리고 연료 경제 양면에 있어서 미국은 영국을 포함한 현재까지 알려지고 있는 어느 경쟁자보다 우수한 것이며 그 외 이 미국의 동력 장치한 생산과 그리고 증폭격기나 전투기 등 군용으로 효과적인 사용을 할 수 있게 지금부터 약 5개년간은 모든 예정이 수립되어 있는 것이다.

현재 이렇게 월등이 우세한 미국의 발동 장치의 광범위한 발전과 그 사용은 불원간(不遠間) 직업적인 항공수송에도 적용이 될 것이며 항공계의 세계적 영도자인 미국은 2차 대전 중에도 설계 생산은 계속하여 왔으며 현재 고도의 제트 경쟁 시대에 있어서도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이다.

현재 생산되고 있는 제트 동력 장치의 기본적인 것으로서 소련에서 가장 유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모든 비행기는 불원간에 구식이 될 것이며 그 속도에 있어서 폐물이 되고 말 것이다.

(월드 리포트 지(誌)에서)

자유격언(自由格言) //////////////////////////////////////

☆ 부득이라는 말은 압제자의 말버릇이다. (밀톤)

☆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파토리크 헨리)

☆ 사상은 자유 (셰익스피어)

☆ 자유의 최대의 악적은 방종 (불(佛) 이언(俚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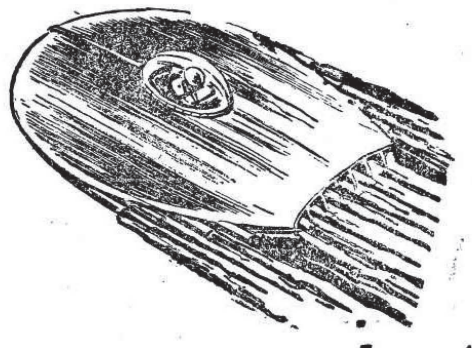
☆ 자유를 억제할 수 없는 사람은 자유인이라 할 수 없다. (퓨타고라스)

☆ 자유는 권력의 남용으로 해서 잃어 질 뿐만 아니라 자유의 남용으로 해서도 또 잃어진
다. (조세후 아니손)

☆ 왕자(王者)는 정책 때문에 폭군이 되고 인민은 주의(主義) 때문에 난민(亂民)이 된다.

//////////////////// 조상원(趙相元) 편(編) 처세철언(處世哲言)에서

★ 삽화(插畵)는 군사기밀상 공개되지 않는 신예기 상상화(畵)



제트기(機) 다음에 올 것

앤셀 E 탈버트

비행(飛行)접시의 꿈은 실현(實現)되려나?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인간이 초음속 비행을 이룬 것은 최근의 일에 속하나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1936년에 영국의 항공기사 WF 힐튼이 항공기에 있어서 2만 마력 엔진의 필요성을 지적한 이래의 일이다.

그러면 다음에 올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은 의당히 오래전부터 토의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소위 로켓이 실용적 단계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제트 로켓 반반의 시대를 가질 것이다. 이하는 필자가 「뉴욕 헤랄드 트리뷴」지(紙)에 기고한 논문의 초록이다.

★ 신예기(新銳機)의 대두(擡頭)

주요 강대국 간에 있어서 당연한 문제는 누가 먼저 신예기—2분 이내에 5만 피트를 상승할 수 있는 전투기, 달리 표현하면 제트와 로켓 두 가지 장치를 구비하며 소위 수직상승(垂直上昇)을 할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드는가 하는 점이다. 이 신예기의 특징은 빠르다는 필연적 조건 외에 활주로를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앞으로의 작전에 있어서 이동성을 띤 갑판(甲板)과 지구의 거리를 단축할 수 있는 극지(極地)의 이용은 불가피한 초점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함선과 극지에서 좋은 활주로를 기대한다는 것은 조선(造船) 기술상으로 보나 노동력의 유지 면으로 보나 기대하기 곤란한 일이다.

그러면서 신예기가 절실히 요구되는 까닭은 개전과 동시에 쌍방의 본토를 공습하기 위하여 고공으로 비래해 올 폭격 세력의 존재이다. 적기가 출동했다는 정보를 접한 후 이를 요격하기 위하여 동원되는 전투기는 이것을 멀리 국외에서 맞이할 만한 속력을 가져야 하거나 무엇보다도 단시간에 적기와 동등한 고공에 상승할 능력을 구비하여야 한다. 단적으로 말해서 기지에서 수직상승한 다음 적기의 진로를 향하여 수평전진(水平前進)을 하는 그러한 신예기의 제작이 요구되는 것이다.

★ 신예기(新銳機)의 전망(展望)

이 신예기에 관한 영국의 진척 상태를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우우메라 로켓 시험기의 최근 시험을 통하여 본다면 그들은 소위 삼각익기(三角翼機)(주(註) 패어레이 항공회사의 설계품)로서 수직 내지 준(準)수직 이륙에 성공했다고 한다. 그 결과 “전투기가 수직 자세를 취할 것 없이 또 처음부터 고속력을 가지 않고도 거의 수직 방향으로 이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실증되었다. 그날 이 시험기는 마치 2차 대전 때의 독일제 무인(無人) 로켓 V-2처럼 늦은 속력으로 몸을 일으킨 다음 이륙보조장치를 박차자 속력이 가해지는 동시에 갑자기 상승 각도를 올렸던 것이다.

한편 토론토시(市) 부근에 있는 AV토 항공기회사의 캐나다 공장의 성과는 한층 더한 것이었다. 여기서 사용된 시험기는 제트엔진을 장치했고 직경 40피트에 달하는 마치 말다갈이나 또는 한쪽이 떨어져 나간 원반(原盤)같은 형태로서 소위 비행접시를 연상케 하는 것이었다. 획기적인 이 모델은 제트기를 발명한 프랭크 윌트 경(卿)의 보조자로서 널리 알려진 영국의 청년 항공기사 존 프로스트가 설계한 것이다. 이 비행기(이하 비행접시라고 가칭한다)는 앞서 말한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에서 지상에 놓여 있던 이륙보조장치를 자기 자신이 지니고 있다.

현재 이곳 애브로 캐나다회사에서는 영미가(英美加)[영국, 미국, 캐나다] 3국의 기술진이 모여서 비행접시의 엔진 문제에 관하여 연구를 계속 중에 있다. 이러한 사실이 1차 대전 이래 이 회전식 피스톤 엔진에 대하여 작별을 고하는 것이며 동시에 비행기가 시속 1,500마일 시대에 이르는 첫걸음이기도 한다.

비행접시의 조종사는 동근 기체(機體)의 중앙부에 설치된 기압실(氣壓室)에 위치할 것이며 고도에 따라 이동하는 운전석이 상승 상태와 비행 상태를 통하여 그의 운전을 가능케 할 것이며 로켓으로부터 제트엔진에의 전환(轉換)을 용이케 한 것이다.

이상이 소위 신예기에 관하여 현재까지의 알려진 영국의 형편이며 미국의 그곳에 관하여는 아직껏 이와 같은 시험기의 존부(存否)도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미 공군 내지 해군 항공대가 이러한 비행기의 혁명을 앞두고 ‘줄고’ 있지 않을 것만은 사실이다. 사실 이 신예기와 미국과의 인연은 일찍이 존지 F 마이어스 박사의 연구와 더불어 시작된다. 박사가 소위 ‘수직상승 비행기’에 관하여 이론을 발표한 것은 제트나 포켓이 논의되기 전의 옛날이었고 왕년(往年)의 연구가 부분적으로 신예기 발달에 공헌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수직상승기(機)와 독일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2차 대전 말기에 연합공군의 공습으로 말미암아 독일의 전산업이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되자 설 새 없이 내습하는 폭격기를 요격할 필요성에 쫓긴 독일이 빗뚱 뉘터라고 물려진 비행기를 제작한 실적이 있다. 이것이 최초로 시험된 것은 1945년의 초두, 소위 히틀러의 제3제국이 무너져갈 무렵이었다. 이것은 거의 수직 상태로 된 길이 80피트에 달하는 이륙보조장치를 이용한 것이었고 수직상승 과정에 있어서는 조종사를 필요치 않은 자동운전장치가 되어 있었고 이륙을 위한 네 개의 보조 로켓과 고공에 이른 다음에 소용될 하인켈 젠밋하식(式) 로켓 모터 한 개가 장치되어 1분간에 3만 6천 피트를 상승할 수 있었으리라고

전해졌다. 이 획기적인 대(對) 폭격기 신무기는 불행이도 시험 순간에 화재를 일으켜 기체와 동시에 수석 테스트 파일럿을 상실해 버렸고 제2의 모델이 완성되기 전에 히틀러의 멸망이 왔던 것이다.

이 귀중한 설계에서 몇 시험 성적은 종전과 동시에 소련의 수중에 들어갔으리라고 믿어지며 따라서 이것을 토대로 한 소련의 신예기 연구는 일단의 진척을 보았으리라고 믿어지는 까닭이 있다. 소련의 한국동란에 사용한 MIG-15는 쿠루트 탱크가 설계한 독일 전투기였다 대전 직후 영국의 노동당 정부에 의하여 소련에 매도(賣渡)된 제트엔진을 장치한 것이며 미국의 B-29와 B-36에 대비할 목적으로 대량 생산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소련은 미국의 새로운 B-47 및 속출하는 제트폭격기에 대비하여 독일에서 획득한 자료를 근거삼아 무제의 신예기의 연구에 힘쓰고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 “제트기의 다음에 올 것”에 관한 필자의 논평을 끝마침에 있어서 위에서 말한 신예기의 설계 및 대량 생산 경쟁에서 우월하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앞날의 전쟁에 있어서 국토와 산업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사이언스 다이제스트 지(誌)에서)

(38면(面)에서 계속)

다 속인 후 다시 상봉케 하였다 한다.

그 후 순찰사는 서울에 와서 강릉부사에게 다음의 시를 보냈다 한다.

소년지절안관동(少年持節按關東) 경포청유인몽중(鏡浦淸遊人夢中)

대하난주사우범(臺下蘭舟思又泛) 각협홍장소쇠옹(却嫌紅粧笑衰翁)이라고.¹⁰⁾

방해정을 돌아서 홍장암을 지나서니 석양은 이미 서산마루에 걸려 그들을 누이게 되었다.

그 외에 해운정(海雲亭), 보현사(普賢寺), 법왕사(法王寺) 등 찾는 발길을 멈추어 다 음날 기회로 미루었다. (끝)

10) 원문과 차이 있음.

★ 두 개(個)의 특집(特集)

제〇〇훈련단과 제10전비단(戰飛團)이 그것이다. 이 특집란은 모두가 각기 장병들이 직접 집필한 것으로서 뜻이 새로운 것이며 환영하는 바이다. 독자는 이 page 속에서 약진하는 우리 공군의 모습의 일면을 발견할 것이며 장병들의 건전한 조국애와 약동하는 전의(戰意), 깊은 전우애에 접하게 될 것이다.

특히 이 특집을 꾸미는데 있어서 전폭적인 협력을 기울려주신 관계 각 정훈관에 깊이 사의를 표하는 바이며 지면(紙面) 관계로 그 전부를 게재(掲載)치 못한은 심(甚)히 유감이나 기회 있는 대로 호(號)를 거듭하여 소개할 예정이다. (편집자(編集子))

고(故) 우리나라 최초(最初)의 비행가(飛行家)

안창남(安昌男) 씨(氏)의 분묘(墳墓)

유문수(柳文樹)

북지나(北支那) 황허(黃河)의 상류에 위치하는 산시성(山西省)은 동양문화의 발상지이기도 하지만 역사적인 유적도 많은 곳이다. 요풍순우(堯風舜雨), 인정(仁政)과 선정(善政)을 상징하는 요순제(堯舜帝)의 도읍지 린펀(臨汾)도 여기 산시성 남단에 있다. 우리가 이 사실(史實)을 인정한다면 린펀이야말로 5천 년 전의 도지(都地)요, 동양 정치사에 있어서 최초 최고(最古)의 정치적 수도인 것이다. 또 그 절조(節操)를 후세에 남겨 한식(寒食)의 명일(名日)을 제정케 한 춘추시대 진(晉)의 개자추(介子推)가 난 곳이라는 개휴성(介休城)도 산시성에 있다. 그이 모자가 분사(焚死)하였다는 이곽산(耳霍山)도 개휴역에서 바라 볼 수가 있다. 또 삼국지에서 유명한 「덕(德)의 장군(將軍)」 관우(關羽)도 린펀에서 가까운 하이쎄(解縣)에서 낳다고 하며 하이쎄에는 웅대한 관우장묘(關羽將廟)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동양사에서 가장 큰 지보(地歩)를 차지하고 있는 장안(長安)(시안(西安))이나 뤼양(洛陽)도 린펀과 하이쎄 등지에서 멀지 않다.

타이위안(太原)은 산시성의 수도다. 소위 지나사변(支那事變) 직전까지 군웅(群雄)이 할 겨하여 중국 지방 군벌의 하나 염석산(閻錫山) 산시군(軍)의 본거지이다. 제1차 세계대전 때의 나루단을 방불케 한 격전이 지나사변 때 낭자관(娘子關)에서 벌어졌는데 이 낭자관은 산시성의 관문이요 당시 대구(大邱)의 80연대가 전멸을 당한 난공불락(難攻不落)의 군사 요충지로서 타이위안에서 가깝다. 이 타이위안성 동남방 교회 약 2킬로 지점에 고색(古色)이 깃들여진 조그마한 묘(廟)가 중국 특유의 아름답게 가다듬은 발들이 사방으로 지평선에 잠기는 그 가운데 서 있으니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하늘의 개척자요, 불세출(不世出)의 비행가인 안창남 씨의 분묘인 것이다.

필자는 고인(故人)의 태생이나 위인(爲人)이나 또는 그의 행적에 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다만 우리나라 초유의 비행사로서 너무나 유명했던 그의 명성과 그를 노래하는 다음과 같은 민요를 기억하고 있을 뿐이다.

대구성 내 안창남이 반 공중에 놓고

자전차 선수 엄복동이

두 수레 위에서 노네.

지금도 30이 넘는 사람이라면 이 민요를 모르는 이 없을 것이다. 이렇듯 유명했던 안창남 씨는 1921년(당(當) 22세)에 표연(豹然) 한국에서 그 형체를 감추고 말았던 것이다. 그 당시 세간에는 여러 가지 풍설이 떠돌았다. 왓(曰) 왜놈들이 씨의 천재적 비행기술을 구구(懼懼)하여 암살하려는 간계를 세우자 이를 찰지(察知)한 씨가 중국으로 비밀 비행함을 왜기(倭機)가 미행하여 황해(黃海) 상공에서 추락시켰다 운운(云云). 또는 5분 이내로 추락할 비밀 장치의 신작기(新作機) 시험비행을 명령하며 이 간계를 미리 알고 있었던 씨는 손가락으로 어떤 부속품을 대용삼아 무사히 중국으로 건너갔다 운운.

이제 필자는 중국대륙의 오지 산시성 수도 타이위안성의 일각에 그의 분묘가 있다는 것과 당시의 중국인 사이에 떠도는 에피소드와 필자가 타이위안에 주류(駐留)하는 동안에

분묘를 위요(圍繞)하여 일어난 몇 가지의 사실을 소개할 뿐이다.

★ 비장(飛將) 안창남지묘(安昌男之墓)

분묘(墳墓)의 규모와 비문 등은 다음과 같다. 부지 약 2백 50평. 둘레를 돌담으로 싸고 한 가운데 기와(瓦)로 이은 사당(祠堂) 안에 비석이 3기(基). 사당의 정상(頂上)에는 불후(不朽)를 각자(刻字)한 길이 약 6척(尺), 폭 2척의 액(額)이 걸려 있다. 각자에는 당초에 금(金)칠을 했던 흔적이 보인다.

주비(主碑)의 높이 약 2미터, 폭 약 0.7미터, 한 가운데 영원불멸(永遠不滅), 창남행적(昌男行績)이라는 주제와 그 좌측 하(下)에 조선 경성(京城) 출신이라고 작은 글자로 새겨 있다. 이 주비 바로 앞에 염석산(閔錫山) 장관(長官)으로부터 수여된 상장비(賞狀碑)가 세워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옮겨 쓰면 다음과 같다.

국민혁명군(國民革命軍) 제3집단군(第3集團軍) 총사령(總司令) 염위(閔偉)

발급(發給) 집조사조부(執照事照符) 항공학교(航空學校) 특급교관(特級敎官) 안창남(安昌男)

열심교수(熱心敎授) 저유공적(著有功績) 합급(合給) 특등명예장장(特等名譽獎章)

특별집조(特發執照) 이자증명(以資證明)

무자(務字) 자호(紫號)

이 상장은 현재 타이위안에 거주하고 있는 씨의 실제(實弟) 안창민(安昌敏) 씨가 보존하고 있으며 창민 씨의 말에 의하면 그 시 염(閔) 장관으로부터 위로금으로 2만원이 수여되었다 하며 분묘 설비(設費)에 3만원이 용(用)하였다 하니 당시로서는 거액인 것이다. 당지의 중국인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염 장관은 씨를 지극히 중애(重愛)하였으며 또 그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였다 한다. 이를 증좌함인지 불후의 액자에는 「염석산 서(書)」라 기입되어 염 씨의 친필을 증명하고 있다(당시 염석산 씨는 산시성 정부주석, 산시군총사령관, 1951년 국민정부 행정장관). 그리고 그 당시 안창남 씨는 중국혁명군 제3군단 항공 소장(少將)이었다.

사당 후면에 좌우로 두 개의 무덤이 나란히 있다. 부인과 자(姉) 씨의 무덤이다. 주위의 풍경을 소개하면 서북간(西北間)으로 멀리 그 옛날의 역사를 상상케 하는 웅장한 타이위안 성벽이 지하선에 아롱거리고 동쪽으로 정태선(正太線)의 철로가 양류(楊柳)의 사이로 숨어든다. 거기서 일단 눈을 발밑으로 옮겨오면 분묘 입구에 우뚝 서 있는 비장 안창남지묘의 묘표(墓標) 비석이 시야에 크게 나타난다.

★ 원한(怨恨)의 분묘지점(墳墓地點)

분묘의 지점에 관해서는 중국 인간에서는 이러한 에피소드가 있다.

씨의 기술과 공훈이 크고 염 장관으로부터의 신망이 나날이 커져가므로 군 간부 중의 두 사람, 왕(王)과 진(陳)은 그전부터 씨에 대하여 질투를 품고 있던 차 마침 염 장관으로부터 금 5만원으로 항공기 조달의 명을 받아 3인이 텐진(天津)을 갔었는데 왕과 진은 공모하여 조달금 중 각각 1만원을 횡령하고 3만원으로 성능이 좋지 못한 고기(古機)를 구입하여 염 장관에게 무고(誣告)하는 동시에 시험비행 시 그를 전사(戰死)하려 하였으며 이를 피할

방도를 발견치 못한 씨는 왕, 진을 유인 승기시켜 타이위안성을 3회 선회한 다음 성의 모 지점에 추락하여 3인이 함께 죽었으므로 추락한 그 지점에 씨의 분묘를 건립하였다고……운운.

★ 분묘참배사건(墳墓參拜事件)

방향은 약간 다르지만 지나사변에서 전사(戰死)한 일군(日軍)의 충령탑(忠靈塔)이 성외(城外)에 있었다. 소위 그들이 칭하는 조칙봉재일(大詔奉載日)이라 하여 매월 8일에는 거류민단(居留民團)의 산하 단체가 분령탑(墳靈塔)에 집합하여 일기(日旗)를 게양하고 청소를 하는 등의 행사가 있었다. 당시 한인(韓人)들은 협려회(協勵會)라 칭하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그 회지(會旨)는 한인(韓人)으로 하여금 황민화(皇民化)하려는 단체였다. 처음 우리들(재류(在留) 타이위안 한인 유지(有志))이 안창남 씨의 탑묘(塔廟)를 참방(參榜)하였을 때 묘 내는 심히 황폐되어 있었다. 돌담은 허물어졌고 비속은 넘어진 것도 있었으며 「장(將) 안창남지묘」 표(標)는 우거진 잡초 속에 누워 있는 지경이었다. 분묘가 건립된 이후로는 아무도 손질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일군이 타이위안을 점령하여 몇몇 한인이 타이위안에 입주하게 되었으나 당초에는 분묘에 대하여 표면적인 관심을 가질 수도 없는 처지였으므로 일군 충령탑이 건립될 때까지는 사실상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엔젠가 일군 충령탑에서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몇몇 한인 남녀가 고인의 분묘를 참배하였다.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그다음부터는 분묘를 참배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져 갔다. 한 번은 협려회의 몇몇 간부의 모의로서 협려회 간부 전원이 정식으로 분묘를 차배하게 되었다. 7, 8인의 여성도 참가하였다. 우리들은 우거진 풀을 뽑고 넘어진 비속을 세우고 하였다. 이로써 민단 측에서 모종의 말썽이 생겼으며 민단 측과 협려회에는 암암이 불온(不穩)한 공기가 양성되었다. 특히 협려회 부인부(婦人部)는 소위 조칙봉재일마다 비공식으로 분묘를 청소하였는데 민단 측과 일본영사관 당국은 내면으로는 매우 불만을 가지고 일면, 색안경으로 협려회 간부진을 감시하였으나 그러나 금지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어 그 기틀을 엿보고 있던 차 한 번은 이른 아침 일군 충령탑의 행사에 앞서 분묘를 먼저 참배하고 청소한 일이 생겼다. 일본영사관 경찰서는 이것을 이유 삼아 협려회 간부 전원을 호출하게 되었다.

“군들은 안창남 묘를 충령탑에 앞서 참배함으로써 신성한 황군(皇軍)의 전사자를 모욕하였다. 당국은 군들을 엄벌에 처할 것이다.”

“우리들은 모두가 어디까지나 개개인의 자유의사로 참배한 것이며 결코 단체적인 행동은 아니었다. 고로 해서 충령탑을 모욕하는 하등의 이유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고 간부들은 반박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던 것이다.

“충령탑을 참배하면서 안창남 묘를 참배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이 오히려 고인에 대한 모욕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들은 약간의 언쟁 끝에 다음과 같은 선고를 받고 물러 나왔다.

“금후 충령탑 참배에 앞서 안창남 묘를 참배하는 자는 퇴거(退去) 처분함.”

이 자리에 필자와 친지(親知)한 일(日) 헌병군조(憲兵軍曹)가 있었는데 그는 비공식으로 이렇게 말하였던 것이다.

(83면(面)으로 계속)

육익보(育翼譜)

- ◆ 단장(團長)과의 ‘6분간(分間) 대담(對談)’
 - ◆ 일면훈련(一面訓練), 일면건설(一面建設) <기지(基地)의 이모저모>
 - ◆ 은익(銀翼)의 노래 <훈련(訓練)의 하루>
 - ◆ 항공(航空)과 의무(醫務) <제○○의무전대(醫務戰隊) 안내(案內)>
 - ◆ 기지계외(基地界隈)의 풍속(風俗) <프로>
- (무순(無順))

제○○○훈련비행단

인터뷰—

단장(團長)과의 '6분간(分間) 대담(對談)'

답: 제○○훈련비행단장 김영환(金英煥) 준장

문: 정훈감실 이영일(李英一)

3개 성상(星霜) 이상이나 사천(四川)기지의 공군 제1훈련비행단을 기르며, 많은 전투 조종사를 배출시킨 장덕창(張德昌) 소장 각하의 후임으로 동해까지 전투 비행단장으로 있던 김영환 준장이 이번에 취임하였다. 「코메트」지(誌)에 특집할 기사를 취재할 목적으로 사천을 간 필자는 단장실에 그를 찾아보았다. 내의를 얘기했을 때 그는 자기가 할 얘기가 아무것도 없을 뿐더러 신문이나 잡지에 소개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기실(其實) 작년 모질(暮節)서부터 새해 들어 신문통신잡지들의 전소(詮素)의 눈초리가 예리(銳利)하고 시끄럽게 부어졌기 때문에 개인적인 성격과 아울러서 발언에 대해서 세심해질 수밖에 없는 김영환 준장을 잘 알고 있었다.

침묵하고 싶은 것이다. 중대한 것이 몰전에 닥쳐올 때 으레 있는 일이다.

그 침묵을 깨트리려고 6분간의 대답이 그의 방에서 교환되었다. 함축 있는 얘기가 재미있다고 생각되었다. 이하는 그 대담기(對談記)다.

◆ 솔선수범(率先示範)의 통솔방침(統率方針)

기자: 이곳으로 온 감상이 어떻습니까?

김 준장: 산돼지 집 굴에서 전에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왔을 뿐이다.

기자: 대개 일반사회에서도 그러구 신문기자나 통신원들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올봄에는 한국공군이 분사식 전투기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요, 그런데 단장님의 견해는 어떨습니까.

김 준장 그것은 난 모르겠는데. 나한테 통솔방침이 무엇인가 물어보지, 그래.

기자: 질문의 주객이 바뀌겠습니다. 정말, 각 근무처, 사무실에서도 얼핏 보고 느꼈는



김영환(金英煥) 주장

데, 여기서는 요망사항이니 통솔방침이니 직속상관 관등성
명을 쓴 것이 하나도 붙어있지를 않군요.

김 준장: 그것은 첫째 경제적이에요. 그런 것으로 돈이 상당히 들게 됩니다.

기자: 어떤 통솔방침을 가지고 있습니까.

김 준장: 나의 통솔방침은 나 자신이 실천하고 있는 것뿐이다.

기자: 그 말씀은

김 준장: 내걸어 놓은 통솔방침은 없지.

기자: 전비(戰飛)에 계실 땐 어땠습니까.

김 준장: 거기서도 없었어. 따로 통솔방침이라는 것이 없고

그저 실천해 왔을 뿐이야.

기자: 그렇다면 결국 통솔방침을 실천하시는 것 즉 실천으로 시범한다는 것 그것밖에 없군요.

김준장: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통솔방침을 내가 말할 자격이 없었어.

기자: 그리고 전비에 계시다가 이곳에 오니까 가령 군기나 일반적인 규율 같은데 무슨 차이를 느낀 것이 없습니까.

김 준장: 한 가지 말할 것이 있는데 전비는 제○○훈련비행단에서 갈려 나간 분기(分岐)이다. 전비의 전통은 제○○훈련비행단의 전통은 전비의 전통이요. 하등의 분리되어 있는 부대가 아니며 정시면, 전투면에 있어서도 조금도 다른 게 없다.

기자: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정신문제라던가 또는 그밖에 무슨 요망할 얘기가 없습니까.

김 준장: 하여튼 내가 비행단 장병에게 요망하는 것은 돈이 없고, 어렵고, 배가 고프더라도 우리가 극복하고 우리 공군이 지향하는 목표, 그 목표를 향해 매진한다는 것뿐이다. 그리고, 우리 초대단장이 수립해 놓은 명예로운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것뿐이다.

◇ 미국(美國)에 널리 알려진 총참모장(總參謀長) 각하(閣下)

기자: 지난 겨울 충창모장 각하께서 미국에 시찰 여행을 하였을 때 김 준장님은 주로 작전 면에 관련되는 면을 보고, 박충훈(朴忠勳) 중령님은 그밖에 일반적인 면을 보았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김 준장: 그렇다.

기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귀국한 뒤의 감상이 ……

김 준장: 미국에 가서 두 가지 면을 보고 왔어. 하나는 미국의 요로(要路), 정부에서 우리 한국공군을 원조하겠다는 의도가 농후하다는 것, 둘째는 우리 총참모장각하가 혁명투사로서 미국에 널리 알려지고 있다는 일면을 확실히 보았어.

기자: 예, 박 중령님 얘기도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단장님이 미국의 모든
기지들을 시찰한 뒤에 얻으신 인상을 말씀하시면.

김 준장: 우리 공군 장병의 봉급을 미국 사람만큼만 준다면 좋겠다는 것. 그렇게만 된

다면 그 외의 일을 미국공군에 지지 않을 것이다. 애국한다던가 제반의 기술을 이상 더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해.

◇ 1개월(個月)에 제트기(機) 초출격(初出擊) 가능(可能)!

기자: 그렇다면 이것은 가상(假想)하고의 얘기입니다. 현재 휴전중이 아니고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트기가 올 봄 안으로 들어온다면, 한국공군은 며칠 이 내에 적 상공에 초출격을 할 수 있을까요.

김 준장: 에 …… 비행기를 갖다놓고 계산해요. 그 비행기를 갖다 놓은 날을 ×일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비행기를 갖다 놓은 ×일부터서 30일 이내에 출격할 수 있지.

기자: 만 1개월이군요.

김 준장: 만 1개월이면 출격할 수 있어요. 그 외에 정비, 통신, 모든 기타 부분을 우리가 맡아서 할 수 있을 때까지는 8개월이 걸린다고 생각해.

기자: 8개월 ……

김 준장: 약 8개월. 비행 관계는 1개월이면 탄탄 말이지. 그러나 정비 기타 관계는 약간 달라, 우리가 완전히 미국사람의 기술 원조를 받지 않고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18개월 걸린단 말이지. 단 그것은 내 추측으로서 ……

◇ 언제나 대기태세(待機態勢)

기자: 그리고 외지(外誌) 같은 텔 보면 유엔군 조종사의 조종 기술보다 공산 측의 조종사의 기술이 떨어진다. 그래서 대개 공중전에서 공산측이 패배를 하는데, 그 기술이 떨어지는 원인이 기술문제 외에도 전의(戰意)가 모자라는데 원인(原因)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준장: 공산 측 조종사의 기술은 유엔 측보다 물론 떨어져, 그리고 전투의식(戰鬪意識)에 있어서는 내 생각으로는 5분(分) 5분으로 생각해. 다만 비행기의 성능 여하가 결국 미래의 전투를 결정할 것.

기자: 일반적인 관측으로서는 현금(現今)의 정세가 무장평화(武裝平和)의 상태로 있지 않고 열전(熱戰)으로 변하리라고 하는데,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까.

김 준장: 다만 국가통일을 위해서는 전쟁이 하루바삐 있는 것이 유리해요. 그리고 정치나 외교적인 면에 있어서는 내가 말할 수 없어.

기자: 북한괴뢰의 공군력이 7개 사단에 달한다는 정보를 확인하니까.

김 준장: 그렇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행단에 초대단장이 수립해 놓은 명예로운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고 언제 어느 때라도 그 사태에 대처할 것이다.

일면훈련(一面訓練) 일면건설(一面建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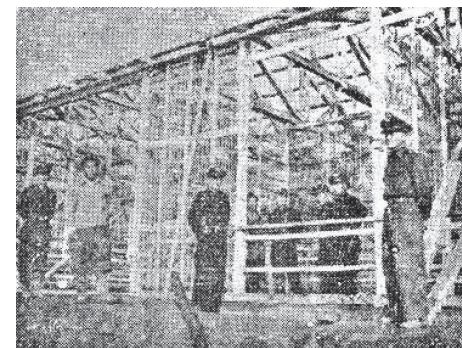
〈기지(基地)의 이모저모〉

공군소위(空軍少尉) 김찬구(金燦九)

우리 제○○훈련비행단이 제○○전투비행단에 간단없는 전투력을 지원함으로써

사명을 완수하려는 반도최남단의 훈련기지는 보다 높은 우리 공군의 목표를 지향하여 급속도로 새로운 그 무엇을 달성하려는 의욕에 충만되어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한사람의 조종사를, 아니 보다 많은 조종사를 양성하는데 기지 내의 모든 기능과 역량이 경주(傾注)되고 있는 것이다. '애국애족의 이념을 견지하고 가까운 장래에 실현될 공군증강의 도약대를 건설할 역군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최후의 일기(一機), 최후 한사람의 조종사가 남을 때까지 분투하라'는 단장의 연두사가 곧 전 장병의 신념이 되어 있는 기지는 애기의 시동소리와 함께 날이 밝고 폭음소리가 그치고 해가 지는 것이다.

간소한 아침형의 정문을 들어서면 기지 보안의 중책(重責)을 띠고 기지 내외는 두말 할 것 없이 기지를 중심으로 한 각지에까지 손을 뻗쳐 군기확립 및 경비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헌병대대가 우선 눈에 띈다. 대대장이하 중대장은 물론 전 대원이 해야 할 일을 그날그날 처리하는 데는 연일같이 계속되는 야근도 오히려 부족할 만큼 다사(多事)한 것이다. 우리는 헌병대대가 무엇을 하고 또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제쳐놓고 당장 안전(眼前)에 전개되는 경비(警備), 이에 따르는 방첩 또는 군기확립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될 때 그들의 노고도 또한 추측되는 바이다. 모다풀을 우측에 끼고 쪽 뺨은 길을 올라가면 바로 우측에 제반(諸般) 곤란과 애로(隘路)를 극복하면서 오늘날 우리 비행단의 경이적 비약을 거듭하고 있는 역사의 이면에 그 기여한바 업적과 영광을 자랑하고 있는 기지전대본부(基地戰隊本部)가 있다. 기지 전반의 지원을 담당하는 이 전대는 예하 수 개 대대를 거느리고 일익(日益) 발전하는 기지의 확장은 두말 할 것 없이 전반적인 지원부대로서의 책임을 완수하고 있다. 최근에 와서는 주로 조종학생들에 대한 학술교육을 위한 대강당의 준공을 보게 되었고 단(團)사령부의 신축공사가 준공 예정기한을 향해 육박(肉迫)하고 있으며 의무전대병실도 준공되어 환자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이다. 특기해야 할 것은 예하 급양(給養)대대의 설비이다. 한 알의 쌀, 한 까치의 장작이 조국수호의 전력이 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거니와 매일같이 소비되어 가는 연료는 이 강토의 녹화와 군 전력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서 지난해 8월 중순부터 과학적이고 효과적 취사시설을 함으로서 연료 및 인적자원을 절약하여 군 작전 수행에 기여(寄與)코저 증기식(蒸氣式) 취사설비계획에 착수한 이래 전대장 지휘 하에 부전대장 직접 진두에 나서 교통부를 비롯해 항공수리창(航空修理廠)의 절대적인 조력을 얻어 6개월간의 불면불휴(不眠不休)의 결과 보일러의 국내제작을 완료하는 동시 동 시설공사는 준공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지난 1월 15일에는 부단장을 비롯한 각 전대장 사령부 참모 및 관계자가 모여 준공식이 거행되었는데 동 석상에서 부단장은 그간의 공로를 극구 찬양한바 있었으며 동일 하오에는 항공수리창 소속 김일완(金日完), 이승하(李承夏) 양(兩) 대위의 공로도 표창한 바 있었던



것이다. 이곳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단사령부가 있는데 새로운 단장을 받들어 각 참모들은 이 기지의 수뇌(首腦)로서 지휘관이 의도하는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타 사무실 출입에도 그러하지만 간소하게 차린 단장실 출입 시에도 경례가 불필요하다. 불필요하느니 보다도 차라리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판 부대에서 오는 손님들은 놀랄는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지휘관의 명에 의해서 없어진 것이다. 허식(虛飾)을 두려워하며 말보다도 실천을 따르려는 단장 의도(意圖)에는 도에 넘치도록 긴장하여 실내에서 몇 번씩 반복되는 경례는 불필요하다는 의도라 사료된다. 허나 이 실과 부단장실에서는 지휘관이 뜻하는바 소기의 목적을 거두는 데 일반참모가 작전을 꾀하는 것이며 개인참모가 수시로 지휘관을 보좌하며 지시 명령이 발(發)하여지는 것이다. 이곳 사령부를 지나면 우리 안전(眼前)에는 큰 강줄기같이 뻗은 활주로를 감안(瞰眼)할 수 있고 우측 언덕 위에 의무전대의 건물을 볼 수 있다. 외과, 내과, 치과, 이비인후과를 비롯하여 병실 등 제반설비를 갖추고 전대장 이하 군의관 및 간호원이 항시 환자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대기 중에 있는 군의관들 사이에는 각자의 전문적인 분야의 연구에도 충실을 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공군의 항공의학연구는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1월 25일에는 전 공군의 항공군의관이 이곳 사천기지 내에 모여 제4차 공군의학구술좌담회를 개최한바 있었거니와 건전한 인적전력 유지에 부단히 분투하고 있는 것이다. 진료소를 돌아 뒤로 올라가면 이근석(李根哲) 준장의 동상을 배례(拜禮)할 수 있다. 이 기지를 보호하며 후배 보라매를 가호(加護)하시며 무언의 격려를 해주시는 고인의 동상은 무한히 뻗은 활주로 끝 선율포(船律浦)의 물결을 응시(凝視)하며 외래인은 물론이요 전 장병의 추모를 받고 있다. 경건한 마음으로 발길을 돌려 앞을 내려다보면 기지 내 대부분의 것을 볼 수 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벗을 새도 없이 일 년 열두 달 애기(愛機)에 매달려 정비에 여념이 없는 정비사들이 오늘도 자기의 맡은바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유도로(誘導路)에 연(連)하여 있는 각 격납고 각 공장에는 하루의 비행에 무사고를 기원하면서 조종사의 생명을 자기의 생명보다도 오히려 더 귀중히 여기는 정비사들이 온갖 정력을 비행기를 띄우는데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아침 7시 기지 근방 영외거주 장병들이 파스한 이불을 박차고 기상할 때 벌써 기지 내에서는 채 밝지 못한 어둠을 타고, 애기의 시동소리가 요란히 울려온다. 그럴 때마다 그 시동소리와 함께 숨은 전사의 모습을 연상하며 오늘하루의 무사고를 비는 동시에 잠시 동안 무엇인지 모르게 연결되는 전우애에 잠기도록 하게 한다. 정비의 완벽 속에 최후의 지향목표로 하는 비행훈련은 개시되는 것이다. '모든 것을 비행에' 하나도 비행, 둘도 비행, 셋도 비행단의 최고 목표인 것이다. 비행 전대장 강호륜(姜鎬倫) 대령을 비롯해서 우리 공군에서 최초로 백회 출격 기록을 수립한 부전대장 김두만(金斗萬) 중령의 통솔하에 모두 적지공격 100회 이상의 출격기록을 가진 역전의 용사들이 교관이 되어 상하 혼연일체 오직 비행술의 습득과 전술에 일로邁進(一路邁進)하고 있다. 작년 9월 개편과 동시에 교재 하나 없이 그뿐 아니라 지상교육에 필요한 자재 하나 없이 학술과라는 명칭을 띠고 조종학생들의 지상교육, 기초교육을 담당하게 된 동과(同科)는 부족한 병력과 부족한 자료로서 작년 12월부터 교육을 개시하여 문자그대로의 불철주

야 피땀을 흘려 현금(現今)에 이르러 과히 지장이 없을 자재 및 교재를 갖추게 된 것이다. 16명의 교관이 강 과장 이하 일심동체가 되어 학술과의 기반을 닦는데, 아니 조종의 지상학술교육의 토대를 닦는데 사생활의 대부분까지도 희생하며 오늘날 L형으로부터 T형, P형에 이르기까지 기체로부터 엔진, 계기를 위시하여 우선 지상교육에서 충분히 공중조작에 대한 기초 및 예비지식을 습득하여 실지훈련에 지장이 없도록 공지(空地)교육의 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허나 욕망 체감의 법칙이 어느 정도까지 진리를 말하고 있는지는 모르나 이 학술과 책임자의 말을 들으면 아직도 만족하고 있지 못하다. 보다 더 고도의 새로운 구상 아래 의도하는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하도 많은 난제를 돌파해야 할 것이라 하며 이에는 관계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여사(如斯)한 지상교육의 기초위에 해(該) 비행전대의 교육대는 제1비행과로부터 제2, 제3 각급비행과가 기지 지휘소 안에 자리 잡고 있어 각각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오전훈련이 개시되면 대지공격에 굴지의 맹장교관들은 하늘의 제패자(制霸者)를 꿈꾸며 겨레와 더불어 조국하늘에 살고 조국의 하늘에서 죽으려는 마음에 홍조(紅潮)된 보라매를 옆에 끼고 애기로 달리는 것이다. 우렁찬 폭음소리와 함께 1번 기 2번 기 계속해서 3번 기 4번 기가 이륙하여 구름 넘어 남쪽 바다 상공에 아름다운 편대를 지었을 때 교관은 물론 뒤를 따르는 피교육자의 마음엔 티끌만한 잡념도 없이 오직 '나의 기술을 따르라' '하나도 빠짐없이 체득하겠나이다.' 말없이 맺어지는 엄숙한 순간 푸른 하늘엔 영혼과 영혼이 연결되어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것이다. 사회에는 하도 많은 형태의 교육자와 피교육자도 많을 것이나 자기의 생명을 내걸지 않으면 교육자가 될 수 없고 생명의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피교육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오직 우리 조종사들의 공중교관들뿐이며 조종학생을 제외하고는 또 어데 있으랴. 지상을 뜨면 교관도 학생도 우선 생명을 하늘에 내맡기고 이 엄숙한 사실 속에서 기술은 전도(傳道)되고 습득되나니 이에는 하나의 허식도 잡념도 있을 리 없는 것이다. 생과사를 같이하는 영혼의 부딪침뿐이다. 우리는 지난날 이러한 성스런 교육 속에 희생이 된 선배들을 몇 번이고 보았다. 이러한 훈련이 계속되어 우리의 조국창공의 방어도 더욱더욱 굳어지나니 명량하게 웃음을 주고받으며 각 비행과에 다음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교관 피교육자를 볼 때마다 그들의 무궁한 건강과 안전을 빌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대체로 피상적인 면을 말함으로써 이 글을 맺으려고 하나 4년 전 제주도의 기지로부터 이곳 사천(泗川)기지로 이동했을 때의 서글썩던 당(當) 기지가 지난날 이 기지의 자매기지로써 전진(前進)기지 전투비행단을 분만하였고 원통했던 6.25 당시의 분노를 적지 공격에 몰아 1백회 적지출격 기록을 위시하여 수많은 100회 출격용사를 낳는데 본가의 역할을 했던 당기지는 너무나 정이적인 발전을 했던 것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 공군의 지향하는 최고 목표가 언제까지나 피안(彼岸)의 그것만으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전(眼前)에 박두한 감을 느끼면서 어서 바빠 그곳에 접근하려는 의욕에 고달픈 것과 부족한 것이 있어도 이를 인내하면서 전 장병은 최후의 일과까지 분투하리라는 결의를 굳게 하고 있음을 전하는 바이다.

은익(銀翼)의 노래

〈훈련(訓練)의 하루〉¹¹⁾

CCY

어둠이 땅을 덮고 있는 병사(兵舍)에서는 고요한 꿈길에 한 없이 달려간다.

달은 중천에서 빛을 잃어버리고 동녘하늘에는 큰 별 하나가 몹시 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다. 마치 죽어가는 마지막 숨을 힘껏 내쉬는 생명의 찬란한 광경을 상기시키는 운명의 찰나 속에 어둠과 고요함만이 가득 차 있을 뿐이다.

시계의 바늘이 직선을 가리킬 때 “기상”하는 소리와 함께 이불을 차고 일어나면 조인(鳥人)의 집에서는 이렇게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다. 1월 달이라 하더라도 영하 3도를 내리지 않는 조국의 남단인 이곳에서는 춥다기보다는 오히려 상쾌한 기분 속에 일조(日朝) 점호 행사가 실시된다.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며 소리 높이 부르는 애국가 소리는 해 돋는 아침 하늘에 사라지고 사방팔방으로 고개 숙여서 고향을 그리면 어머니의 얼굴이 아득한 하늘가에 손짓하며 나를 부르는 듯하였다. 끝없는 하늘을 달릴 수 있다는 즐거움과 끝없는 하늘이 우리들의 일터라고 생각하니 자주 느낄 수 있는 벅찬 가슴을 오늘도 느끼게 된다. 벌써 정비사들이 시동하는 엔진 소리는 밝아 오는 아침 천지를 진동시키다.

하늘이 있는 곳에 우리는 있고 하늘과 더불어 살 수 있다는 우리들의 영원한 삶은 솟아오른 아침의 태양처럼 불타오른다. 하늘에 사는 사람 하늘처럼 맑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도 매일 하고 있는 청소 시간에서 길러졌고 씩씩한 젊은이의 기백과 도량은 불타오른 태양의 햇살을 받아서였다.

식사를 끝마치면 곧 우리들은 조종복을 갈아입고 pist로 나간다. 나란히 날개 펴고 있는 은익은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이고 동체에 새겨져 있는 태극은 우리의 심장처럼 너무나 뚜렷하였다.

정비에 열중하고 있는 정비사들의 노고는 무한히 고맙기도 하다. 학과가 시작되기 전에 점검을 마치고 개인 장구는 준비되었다. Float와 낙하산을 매고 애기(愛機)에 몸을 실으면 오늘의 학과는 전투편대 연습이다. 힘껏 쥐어진 조종간에 온몸의 피는 쏟아져 흐른다.

“Hello. Tower. This is Rok 127. Radio check. How do you read over.”

“Ready for take off over.”

출격 준비 완료를 알리면서 Tower에서 가리켜주는 방향을 따라 활주로를 건너차고 하늘로 솟구치는 1번 기, 우렁찬 폭음소리와 함께 하늘로 따라 솟는 2번 기, 3번 기, 4번 기.

우리들의 전투기는 아득히 구름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1,000파운드나 되는 중량을 가지고 시속 340리(哩)를 달릴 수 있다는 신기한 마음은 자신도 모르게 힘 있게 쥐



훈련에 사용될 T-6에 연료 보급을 하고 있다

여지는 조종간이었다. 더욱이 세기의 문명을 자랑하고 과학의 세계에서 자라났다. 하더라도 의지할 곳 없는 하늘에서는 다만 믿을 것은 유일한 생명인 조종간이기도 했다.

산과 들과 바다가 한눈에 보인다. 산비탈에 웅기증기 모여 사는 초가집들, 어기찬 싸움에 겨누던 산골짜기와 들판, 그리고 숲들……

웅장한 자연은 해 돋는 아침에 고요히 숨 쉬고 있을 뿐

이다. 아무리 보아도 첩첩히 쌓여져 있는 산과 골짜기뿐이고 모여 살던 마을에는 불타 버린 황토만이 남기고 있는 집 자리에 흰 옷을 입고 개미마냥 움직이는 것이 나의 형제요, 햇빛은 황토 땅이 나의 조국이였다. 이렇게 산만이 서있는 햇빛은 땅덩어리에서 살고 있는 무리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가련하기도 했다.

왜 이러한 산 속에서 살게 되었는가?

아우성치며 살고 있는 무리들이 싫어졌고 눈 아래 보이는 햇빛은 땅덩어리가 보기 싫어 더 높은 하늘로 조종간을 당기기도 하였다. 그러나 나 자신이 이 속에서 아우성치며 살고 있는 사람들 속의 한 사람이요. 산만이 서 있는 골짜기가 나의 고향이라 생각하니 햇빛은 땅덩어리에 달려가서 안기고도 싶었다.

내가 자라던 이곳에서만 나의 유쾌한 추억을 더듬어 볼 수 있었고 이곳에서만 말할 수 있는 말과 글이 나의 의지요, 나의 표현이었기에 이곳에서만 마음껏 먹을 수도 있었다. 그러기에 타국이 공격하여 우리를 범해(犯害)하려 할 때는 방어하여야 할 곳이 바로 이 땅덩어리였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연을 사랑하여야 하였고 사랑하여야 할 것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았다. 나의 조상이 고이 잠들고 있고 아비와 어머니가 살아왔고 누이와 동생이 살고 있는 이 땅, 그리고 나의 아들이, 손자들이 길이 살아야 할 땅이기

에 우리에게는 가져야 만이 되는 조국이였다. 교관기(教官機)를 따라 선회 급강하가 시작된다. 양(兩)발로 Rudder를 차고 한 손에 laver 또 한 손에 조종간을 쥐고 있는 온몸에서는 Type가 이착륙 연습에 한참이고 공중 조작 맹훈련을 하고 있는 T-Type가 보일 뿐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는다. 태고(太古) 이전에 원시 생명들부터 오늘날까지 하늘을 날고자는 동경과 포부였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늘을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다는 이 순간이 무엇보다 황홀하기도 하였다.

비상하던 날개의 고도를 숙이고 착륙하려는 활주로는 다음에 탑승하려 기다리

11) 원문은 하로

는 붉고 흰 헬멧을 쓴 전우들이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이 믿음직하기도 하다. 애기에서 내리면 온몸에서 흘린 땀을 씻고 때로는 커피 한 잔을 들어 고단한 몸을 푸는 것도 조인들의 생활에서는 가장 상쾌한 맛을 하나이기도 하다.

비행훈련이 끝나면 교관께서 하시는 주의는 나로 하여금 천성의 조인이 못될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과 초조한 마음을 가지게 하지만 우리들의 앞날에는 푸른 하늘이 부르고 우리들의 가슴속에서는 무게뭉게 피어오르는 구름처럼 청춘의 자량이 숨어 있었다.

병사(兵舍) 앞에 쓰여 있는 ‘불요불굴’의 정신이 바로 이것인 듯하다.

점심 식사가 끝나면 요사이 몹시 재미(滋味) 붙이고 있는 배구로서 즐기게 된다. 하늘로 올라가면 누구보다도 용감하고 씩씩한 전우들이 이 시간만은 외식도 과장도 없이 천진난만한 어린이 모습으로 변하여 진다.

오전에 학과 수업을 받은 반은 오후 비행훈련이 시작되고 우리들은 강당에서 학과가 시작된다. 보통 하루에 3시간 혹은 4시간의 수업은 항법(航法), 조종학, 전술학, 기상(氣象), 통신, 전기(電氣), 비행기에 관하는 일체의 공부를 하게 된다.

이러한 교육이 오늘 사용되던 교육이요 내일에 응용되는 현실의 학과이기에 들고 보고 만지는 삶의 교육이기도 하다. 대부분이 영화에서 얻어지는 지식인 까닭에 우리에게는 생명이 흐르고 있는 산 양식(糧食)뿐이다.

하루의 학과를 마치면 황혼이 다가오는 연지 빛 하늘이 더욱 아름답게 보였다. 이 름도 알지 못하는 수백 마리의 새 떼가 남쪽 하늘에 날아간다.

연지 빛 하늘은 더욱더욱 아름답게 물들이고 요란한 폭음소리도 들리지 않는 하늘만은 쳐다볼 뿐이다. 차차 하늘의 아름다운 빛은 사라지고 고요한 어둠이 땅을 내려 덮을 때까지 물끄러미 하늘만을 쳐다보고 있었다.

이 특집란(特集欄) 다음으로 계속



항공(航空)과 의무(醫務)

제○○의무전대(醫務戰隊) 안내(案内)

공군대령(空軍大領) 박천규(朴天圭)

1. 연혁

6.25 전에는 김포에 공군병원이 있고 비행단은 여의도에 있어 의무담당자로 현재 제○○전투비행단 의무전대장인 계원철 중령이 김포에서 매일같이 통근트럭으로 다니고 있었다. 치과담당은 현재 우리 전대의 치과과장인 최인구 소령이 마찬가지로 김포관사에서 통근하고 있었다.

6.25 이후에는 진해 비행장에 비행단이 다시 모였을 때에 소관이 역시 공군병원에서 파견되어 진료를 담당하고 있었다. 약 한달후 현재 공군병원 분원장으로 계시는 신승우 대령이 소관과 교대하였고 수복 이후에는 현재 217의무대대에 근무하시는 김재운 소령이 교대되었다가 평양으로 진출하였을 때에는 현재 공군병원 내과과장인 이봉균 소령이 책임자로 전속되었다.

비행단이 제주도로 다시 이동하자 의무책임자도 같이 제주도로 따라갔다.

소관이 비행단으로 전속된 것은 4284년 3월 31일이라고 기억한다. 바로 그날 대구에서는 T6로 지금은 고인인 멸공공사 이세영 소령의 조종으로 제주도에 왔다.

소관이 전속되어 비행단이 개편되며 의무대대로 이름이 바뀌어졌다. 비로소 군대다운 이름을 얻어 처음으로 의무대대의 간판을 걸었다.

동년 6월 사천으로 비행단이 이동함에 따라 의무대대도 현재 주둔하고 있는 사천으로 따라왔다.

당시의 장비로는 치과 유닛, 카비네, 기공 도구들은 비교적 나은 편이었으며 X-ray가 두 대, 수술대가 두 대 등은 좋은 편이었으나 그밖에는 간단한 치료도구 밖에 없었다. 충수염, 헤로니아 등의 수술은 독립병원에 의뢰하는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제주도에서는 청진기조차도 없이 개인사물을 쓰고 있었던 것이다.

제주도에서 특기할 사실은 처음으로 간호원을 모집하였다는 것이다. 문관으로 채용하여 사천에 이동시에도 두 사람이 따라와 현재도 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다.

사천에서 다시 개편되어 의무전대로 되었었다.

그때의 이름은 제201의무전대이었다. 제○○전투비행단 때이다.

다음 제○○전투비행단이 생기며 사천에는 제○○훈련비행단으로 되고 201의무전대는 제○○의무전대로 이름이 바뀌어졌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이전한 뒤 당시 여의도에서 돌아온 101전대의 의무대와 통합하였으며 그 뒤에 4285년 3월에 경찰전대와 합편할 때에 그의 의무대와도 통합하였다.

이리하여 제○○의무전대는 비행단이 걸어난 아니 한국공군이 걸어난 대한민국의 운명과 같이 한가지로 험난한 형극의 길을 걸어오면서도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 왔

던 것이다.

2. 현황

제○○의무전대는 4과로 나누어 있으며 행정과에는 행정, 보급, 경리, 문서, 등록 등의 모든 행정적 문서의 일을 맡아보고 있으며 예방의학과는 검식, 소독, 방역, 기지위생, 환경위생 등의 광의의 보건을 맡아보고 있다.

항공의학과는 특수한 존재로 공중근무자의 체력관리와 보건위생과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다.

진료과는 다시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안과, 치과, 방사선과, 병리시험실, 병실과 등으로 나누어 환자치료에 임하고 있다.

장비는 제주도 시대에 비하여 비약적 발전을 보여 UAL35상 병원을 인정받아 현재 모든 기구가 도입되는 도중에 있으며 ambulance가 2대, jeep차 2대, X-ray가 2대, 간접촬영기 1대, 태양등 1대, 적외선등 2대, 초단파치료기 1대, 외과수술기구의 완비, 치과 유닛, 카비네, 기공실의 충실, 병실 건물의 신축 등은 실로 의무전대의 자랑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약 두어 달만 지나면 현재 공사 중인 진료과가 낙성될 것이며 그리되면 정면 남향이고 고요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진료에 정진하게 될 것이니 명실 함께(명실상부하게) 공군에서 가지는 의무 진영에서는 제일이 될 것이라고 믿어진다.

외래환자 수는 일일 평균 150명가량이며 원칙적으로 오전에만 일반 진료를 하고 오후에는 수술과 특수 환자만을 취급한다. 입원환자는 평균 20~30명가량이며 비행 사고시의 중환을 제외하고는 별로 위중한 환자는 없다.

매일 오후 1시에는 군의관 전원 집합하여 한 시간의 영어공부(교재는 Newsweek)를 하는데 교관은 군의관 중에 제일 실력 있는 이가 담당한다. 오후 2시부터는 사병의 교육을 실시한다.

일주일 1회의 소독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1시에 시행한다. 때때로 방역에 관한 강연을 각 전대별로 시행하며 항공군의관은 항공의학을 공중근무자에게 강의한다.

매일 음료수의 수원지의 소독약을 넣으며 매주 1회의 내부반소독, 변소, 우물 도랑 등에 소독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외에 전염병이 돌거나 그밖에 필요가 생기는 때에는 수시로 소독을 시행한다.



건강관리 신체검사를 1년에 1회, 예방 주사를 1년에 두 번, 그리고 여러 가지 방역 주사를 가끔 실시한다.

전 대장은 단장의 개인참모로 wing surgeon을 겸하고 있으므로 단 전체에 관한 모든 위생시설 급양대책 보건문제 등을 항상 조언하고 있다.

III. 사명

전 제○○훈련비행단 장병의 건강관리가 그 목적의 하나요 신병모집 시의 우수한 공군을 선발하는 것이 그 목적의 둘이요 장병의 체력을 증진 향상시켜 사기를 돕고 병력증대에 일조가 되게 하는 것이 그 셋일 것이다.

환경 위생과 방역이 중요한 업무에 하나임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아직도 우리나라 사정이 이에 진력할 단계에까지 도달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나 자신 실제 업무를 수행하여 볼 때에 이 환경위생이나 방역이 한두 사람의 힘으로만 되는 일이 아니요 사회의 전반적 문화수준과 상관성이 깊다는 것을 느끼지만은 우리의 현재 처지에서도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협심하면 얼마만한 정도의 성과는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우리는 현재 상태로는 진료에만 급급하는 감이 없지 않는 데 이것은 발본색원적이지 아니라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체력의 증진향상이다. 처음부터 환경위생을 잘하고 체력을 증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여 질병의 침입을 막을 일이지 환경위생을 잘못하고 체력의 증진향상을 도모하지 아니하다가 일단 병마가 침범하면 '오레오마이싱' '태라마이싱' '비타민' '다이아진' 등을 찾아보았댔자 만시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의무대원으로서의 체력의 증진향상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적당한 운동과 휴식영양의 보충 주택의 개선 요리법의 개선 파복의 적정(適正) 목록, 이발, 오락, 유희 등의 평상시의 보건위생에 유의하도록 교육하며 지도하고 감시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 내부반, 취사장, 변소, 직장, 이발소, 목욕탕, 구락부, 운동장 등의 모든 면에 있어서의 건강이 미치는 영향을 검토 연구하여 그 개선에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제○○훈련비행단은 조종사를 교육 훈련하는 것이 주목적이니 만큼 제○○의무전대는 그 목적에 부합하는 조종사의 건강관리와 체력 향상에 힘써야 할 것은 물론이다. 여기에 항공군의관의 사명이 더욱 중요하게 되는 것이다. 다른 의무대에서보다도 비행단의무대에서는 그 주목적이 조종사와 그 후보생의 건강관리와 그 증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항공의학과와 사명이 중대하다는 것은 다시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조종사의 조종교육은 물론 그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음식 기거를 같이 하며 한 사람한 사람씩의 성격을 파악하여 지도하고 고쳐주고 권고하고 감시하여 우리 공군의 기둥이 되고 동시에 대한민국의 초석이 되는 공중근무자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감시하여야 하는 것이 항공군의관이다. 비행기 탑승의 가부를 결정하는 중책을 맡은 항공군의관이야말로 그 책임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국가민족의 백년대계를 논하는 오늘날 아니, 위급존망(危急存亡)의 때를 당한 오늘날 제○○의무전대 그중에서도 항공군의관의 임무는 무겁고도 큰 것이다.

기지계의(基地界隈)의 풍속(風俗)

〈르포〉

이서림(李舒林)

계첩(繫牒)¹²⁾ 된 생활에서 해방된다는 기분으로 여행하는 것이 통상이다. 기실 그런 기분으로 강릉(江陵), 사천(泗川)의 기행을 떠났다. 강릉에는 서울비행장에서 사흘을 허용한 채 기어이 못 갔다. 연일의 돌풍, 강우, 구름 때문에 취항이 캔슬¹³⁾된 것이다. 그것은 실망과 안도를 함께 느끼게 했다. 바로 몇 달 전에 K 소령(少領)이 이런 기후를 모험하다가 행방불명이 된 채 죽은 것을 인정되었기 때문에 모험비행은 경원(敬遠)하는 터였고, 모처럼의 동해안 기행이 캔슬된 데 대해서는 실망을 금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의당 동해안으로 항로를 잡아야 할 기수(機首)가 남향해 버렸다.

<1> 침묵(沈默)하는 사천기지(泗川基地)

사천엔 육로로 갔다. 마산(馬山)까지 버스로 갔는데 그날은 진주(晉州)로 가는 차편이 떨어져서 마산병원에 있는 김준(金準) 대위와 같이 일박했다. 그는 실속이 있는 항응을 베풀겠노라고 단골 음식점에 나를 데리고¹⁴⁾ 갔다. 그것은 하꼬방 음식점이었다. 연가(廉價)고 실속 있고 정말 그의 말대로 그랬다. 만둣국도 맛을 잊을 수 없고 특별히 마련한 불고기도 도회(都會)의 걸치레만 반지르르한 것 보다는 훨씬 식욕 있게 먹었다.

정말 값싸고 실속 있다고 내가 김(金) 대위에게 말했더니

“사실은 돈이 없어 그러네.”

했다. 둘은 속이 후련하게 웃어댔다.

역시 단골 다방이라는 데서 「인디언의 연가(戀歌)」를 들었다. 육성 솔로보다도 콘트라베이스의 저력 있는 소리가 좋다고 하였다. 동감이었다.

다음날 진주 경유로 사천에 들어갔다.

기지 정문에 있는 낯익은 ‘공군사천기지’의 간판을 지나서 제○○훈련비행단 정훈관을 찾아 들어갔다. 기술학교는 김해(金海)로 이동하고 기술학교가 천막부락을 이루었던 터전에는 학교교장이 쓰던 생철 건물만 외롭게 서 있었다.

사천기지에 들어선 제1인상은 이것이다.

사천기지는 노동자처럼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 인상은 두 가지 면에서 생겼다. 하나는 당(黨) 훈련비행단 단장 김영환(金英煥) 준장을 비롯한 모든 참모들의 언행에서였고 또 하나는 분위기에서였다. 비행장의 시설을 확장 증강하기에 골몰하고 있다. 작전처장 윤응렬(尹應烈) 중령은 기지를 확장하고 시설을 강화하는데 어떤 기본방침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하는 필자의 물음에

“우리는 그저 상부에서 내려오는 포리시에 의해서 금년도의 비행단의 처해 있는 단

12) 글자가 잘 안보이나 계첩으로 자유의 구속을 당하여 가만히 집에 들어앉아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추정.

13) cancel

14) 원문의 ‘데불고’는 ‘데리고’의 방언.

계를 말없이 실천하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는 ‘말없이’라는 데서 힘을 주어 말했다. 이 ‘말없이’라는 어구는 앞서 단장실에서 김영환 중장과의 인터뷰에서도 몇 번이나 나왔다. 항간(巷間)의 주시의 표적이 되어 있는 제트 타이프 도입과 그 교육 문제 같은데 대해서는 함구무언이다. “몰라.”, “알아도 말할 수 없습니다.” 조종사의 도미(渡美) 유학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말은 안 한다. 작년 10월 이후로 공군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그것은 그때까지의 공군으로부터 공군 본래의 ‘공군’으로의 발전 단계인 것이다. 지난 번 미 공군 총참모장 트와이닝 대장(大將)의 초청으로 된 최(崔) 공군 총참모장 각하의 도미 시찰 여행은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 여행으로 미 정부와 공군 당국의 대(對) 한국 공군 원조의 적극성이 확인된 것이었다. 지금은 말하고 자랑할 때가 아니다. 무슨 중대한 것이 장차 부딪쳐 올 것만 느낄 수 있는 그 무거운 호흡, 그 조심성 있고 힘겨운 침묵, 그것이 사천기지 도처에 들어차 있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남단의 정적을 깨트리는 공사의 흥겨운 소리뿐이다.

말없이 정말로 땀을 흘리면서 노동하는 일꾼과 일터였다. 여기서 ‘미래의 공군’이 태동하고 있다. 침묵의 의미는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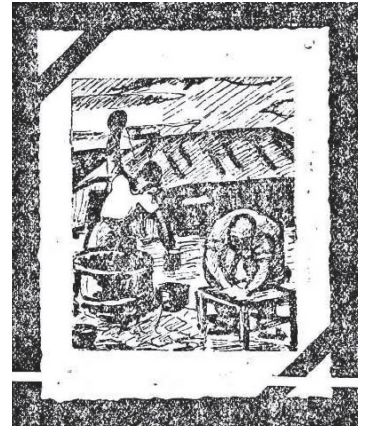
<2> 색다른 점(點)

사천기지의 각 사무처, 영내 병사(兵舍), PST 같은 데를 돌아 다녀 봤을 때 선뜻 느낀 것은 본부나 각 예하 부대에 가보면 으레 있는 것이지만 총참모장 각하 통솔 방침, 부대장 요망 사항, 직속상관 관등성명 또 무슨 요시규강(要是規綱) 같은 게 벽이 하얗도록 붙어있는데 그런 것이 통 없다. 다만 곳에 따라서 그 일의 성질상 필요한 것만이 붙어 있다. 예를 들면 PST에 가면 훈련생들의 교육계획표, 성과표가 붙어 있을 뿐이다. 단장 김영환 준장은 부하 통솔 방침도 내걸지 않았다. 그것도 이색의 예다. 흔히 소대장, 중대장, 전대장(戰隊長)이 되면 의례히 장황한 요망사항이 붙고, 내무반 근무처 할 것 없이 의무적으로 붙여야 하고, 그것은 또 싫건 좋건 암송해야 된다.

“나의 통솔 방침은 나 자신이 실천하고 있는 것뿐이다.”

라고 김영환 준장은 얘기하고

“그런데 솔직하게 말해서 통솔 방침을 내가 내 걸만한 자격이 없었어……” 하였다. 강릉에서도 그는 통솔 방침이 없었다고 하였다. 그런 김영환 준장이 강릉과 사천의 양(兩) 비행단의 전통을 세워가고 있으며 그것은 전(全) 공군에 강력하게 영향하고 있다. 사병만에 한해서 암송이 되어야 하는 요망사항으로 부대 전통의 확립을 기하는 것은 곤란하다. 지휘관 자신이 실행한다. 위선 전 참모가 이에 따른다. 비행단은 심심하였다. 그는 또 취임하면서 전 장병에게 부대 운영의 공식 정부재정 이외의 재정의 사



(기지(基地) 스케치)

용에 대해서 분명히 공표했다고 들었다. 그는 말한다.

“우리들에게도 미군만한 보급만 준다면 그 밖의 일은 문제가 안 된다. 내가 비행단 장병에게 요망하고 싶은 것은 돈이 없고 어렵고 배가 고프더라도 우리가 극복하고 우리 공군이 지향하는 목표, 그 목표를 향해 매진한다는 것 그것뿐이다.”

군인정신이 어느 정도 강렬한가 하는 것은 위선 군인 개개인의 언어와 행위에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런 점에서도 비행단은 색다른 활기를 띄우고 있었다.

<3> PST 대담(對談)

여름에는 PST를 천막으로 만들어 놓고 야외에서 숨이 콕콕 막히는 혹서(酷暑)를 견디며 맹훈련을 하는데 겨울에는 베이스 오퍼레이션에 연달아 붙은 건물이 PST가 되어 있었다. 정훈관 박호춘(朴鎬春) 소위와 같이 그 PST를 찾았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비행복을 입은 채 의자에 앉아 있는 강호윤(姜鎬倫) 대령을 뵈었다. 그를 불러 ‘비행단의 호랑이’라고 사람들은 말했다.

그는 전봉희(田鳳熙) 중령을 부르고 우리를 비행장이 잘 전망되는 PST 2층으로 데리고 갔다. 소파에 앉아서 필자는 물어 보았다.

“지난 여름에 왔을 때보다도 딱 한적해진 것 같은데 연습이 좀 뜸해졌나요?”

“천만에!”

그는 내말을 부정하고 나서 정한(精悍)해 보이는 몸을 소파에서 일으키며

“현재 여기에는 지난여름에 비해서 ○배에 달하는 F형 비행기가 있어요. 지금 보기엔 비행장이 텅 빈 것 같지만 사실은 그때보다 많이 뜨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 했다.

“그럼 이착륙 정도의 비행이 아니구만요.”

“마지막 과정에 들어가고 있지요.”

그는 현재 제○○훈련비행단 훈련비행전대장(戰隊長)으로 있다.

“강(姜) 대령님, 제가 듣기엔 미국에 유학가신다고 들었는데요.”

“그것이 연기가 돼서 여기서 다시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그때 훈련비행부전장(副戰長) 전봉희 중령이 올라 왔다. 서로 인사를 교환하고 다시 얘기가 계속됐다. 단정하고 알맞은 체구를 가진 전봉희 중령은 이렇게 얘기했다.

“휴전 전까지는 이것 저것 돌볼 새 없이 싸우는데 만 전력을 부었습니다만 이번(휴전)을 계기로 우리는 종래보다도 모든 면에 있어 질적인 면에 힘을 두고 있습니다. 양보다 질이지요.”

지금 훈련도 그런 방침으로 하고 있다고 하였다. 강 대령은 더 엄숙한 얘기를 하였다.

“여태까지는 전투에 바빴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를 돌볼 여가가 없었으며 더구나 조종사들은 언제나 자기희생을 홍모(鴻毛)와 같이 여기는 애국자들이었지요. 그런데 일단 휴전이 되면 긴장이 풀리고 시간에 여유가 생겨서 자기를 반성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검토하게 되지요. 이럴 때 대중들은 흔히 딜레마에 빠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언제 무슨 일이 생겨도 거뜰히 싸울 준비가 돼 있습니다.”

“조종사들은 무엇보다 제일로 사생관(死生觀)을 분명히 합니다.”



(기지(基地) 스케치)

전(田) 중령이 옆에서 말을 이었다. 강 대령의 표정은 무슨 억제할 수 없는 것이 넘치고 있었다. 얘기는 계속 되었다.

“이 사생관이 확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조종사는 싸울 수 없지요. 위선 나는 군인이다. 군인 중에서도 조종사다. 언제든지 이렇게 해서 일단 잘못이 있을 땐 애기(愛機)와 더불어 신명을 내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모두 훈련을 받지만 이것은 그 사람의 소양을 살려주는 것이지 결코 조종사로서의 완성은 아니지요. 그 완성은 그 조종사 자신의 사생관이 결정하기 때문에……적공(敵空)에서 고도를 낮추는 것 하나, 폭탄을 명중시키는 능률! 이 전□와 기량(技倆)의 일치 이것이 완전한 에어맨십인 것이요.”

그는 작전을 지휘하고 있을 때처럼 손으로 비행기의 지상에 대한 각도며 지상 목표물의 위치를 훑

내 내며 어구(語句)마다 힘을 주어가면 얘기한다. 눈빛이 번뜩 거렸다. 나는 긴장을 느꼈다. 그들은 정훈장교를 겸하고 있는 것이었다. 누구보다도 후배 파일럿의 정신적인 함양에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교육도 하고 있다.

<4> 단탁(丹卓)의 방담(放談)

“그렇지만 역시 조종사도 사생활의 면에는 딱 쉽지¹⁵⁾ 않은 것이 있겠지요.” 필자는 강 대령의 얘기가 잠깐 끊어졌을 때 물었다. 강 대령은 내 물음에 침중하게 입을 열었다.

“조종사의 성격이 강한 양면(陽面)뿐이나 하면 그렇지 않지요. 강한 양면의 뒤에는 그만큼 강한 음면(陰面)이 있지요. 조종사도 똑같은 사람인데 어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정(性情)이 없겠소. 다만 있어도 귀찮은 까닭에 안하는 것뿐이지. 그러나 한 번 조종간을 잡고 하늘에 뜨면 모든 잡념이 다 없어지지.”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이 캄파라지라고 했다. 조종사가 되어서 조종사로서 완성되었다는 것은 동시에 그러한 하나의 인간형이 이룩된다는 말이라 생각되었다.

그러기에 적진 상공에서 몇 초 뒤의 생명의 안위를 불문에 부(附)해 놓고 혼연히 솟구치고 처박으며 갈기고 싸울 수 있는 것일 게다.

“조종사는 누구나 사생관을 많이 얘기합니다.” 전 중령의 얘기가 수궁되었다. 모든 번독번쇄(煩瀆煩鎖)한 세사(世事)를 이렇게 초연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이것은 털끝만한 과장도 없는 인간상의 세계였다. 사람이 처세하는 데는 천충만충일 것 이지만 모두 그 길마다 이런 달관(達觀)의 세계가 있을 것이었다. 나는 그들의 말에 들직¹⁶⁾하고 소탈한 것이 배어 있음을 알았다.

15) 원문의 ‘쉽지않다’는 ‘쉽지 않다’로 봄.

16) 원문의 ‘들질’을 ‘들직’으로 봄.

한참 이렇게 얘기들이 바뀌고 시간이 지났을 때 강 대령은

“커피 시간 안됐나 아직?”

하고 데스크에 앉아 무엇을 쓰며 정리하고 있는 박희곤(朴喜坤) 대위에게 물었다.

“시간 됐습니다.”애심 충심

박(朴) 대위는 대답했다. 우리는 PST 옆방인 커피실에 갔다. 오일 난로를 중심으로 강 대령, 전 중령, 필자, 박 소위는 책탁(冊卓)에 제각기 자리 잡고 앉았다. 거기서는 아주 재미있는 얘기판이 벌어졌다.

영화감상은 오락이라기보다는 교양에 더 가깝다고 말하는 그들은 정말 풍부한 화제와 식견을 가지고 있었다. 요 근래 한국에서 상영된 필름은 모두 화제에 올랐다. 올랐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미국의 남북전쟁을 취급한 명작 「바람과 같이 가다」는 책으로 읽었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전쟁은 그것이 끝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바라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현상을 가지고 온다.”는 작의(作意)가 논의되었고 그 밖에 불란서 영화로 「갈펜」, 「팔므의 승원(僧院)」, 미국 영화로 「애수(哀愁)」, 「종착역(終着驛)」이며 영국 영화로 「헨리 5세」, 「레벡카」, 이태리 영화 「자전차(自轉車) 도적(盜賊)」 같은 것은 물론이고 전후 경향의 특색을 나타내는 「마농 레스코」(불(佛))도 얘기했다. 그러나 특히 그들이 흥미의 중심이 된 것은 전쟁영화였다. 더욱 재미있게 얘기된 것은 국내 영화로 「성벽(城壁)을 뚫고」에 대한 얘기였다. 이 영화에서 마지막 장면에 괴뢰군으로 나오는 적을 그가 총탄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사살해 버리는데 대해서 열변이 마구 나왔다.

“거기서 사살해선 못쎄. 상대방은 총알이 다 떨어졌다. 대항할 모든 기력을 잃었다. 그때 이편에서 자 오나라 하고 총을 버리고 관용의 가슴을 벌려야 되는 거야. 그런 경우엔 민족의 피가 비록 적이라고 할지라도 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거든. 물론 원작에는 용서하게 되어 있었지만 검열 당국에서 아니다! 썩라! 죽여야 된다! 해서 그게 그렇게 되었지.” 더욱 놀라운 말은 이러했다.

“이번에 포로석방이 있었는데 그때 순간적으로 느낀 것이 이 점이였다. 그 영화에서 적을 죽이지 않고 용서했다면 이번엔 얼마나 효과가 있었겠는가 하고……물론 그때는 그렇게 했어야 되었지만…….”

이것은 전혀 전문적인 비판이다. 그리고 일본의 항공영화 얘기가 하나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셰리프¹⁷⁾ 한 마디, 액션 하나에 대해서 분석하고 진위를 따지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얘기 한 토막은 그들 자신의 엄숙한 생활에 든든한 기저(基底)가 되어 있는 것이었다. 조국애 민족애 그리고 순군을 두려워 않는 장부의 정신이 넘쳐 있었다.

몇 시간이 어느새 지나갔다.

<5> 기지계의(基地界隈)의 풍속(風俗)

사천은 어떤 집단 이주민을 연상시킬 만치 공군 일색이다. 상가가 거의 그렇게 영위되어 있었고 거의 대부분의 세대(世帶)가 공군가족이었다. 지난 번 사천에 갔을 때 일

17) 원문의 '셰리프'를 '셰리프'로 봄.

이다. P 소위 집에서 이틀을 묵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마쳤을 때 그는 조반(朝飯)을 먹으러 가자고 했다. 나는 따라 나섰다. 그는 나를 시장 골목으로 끌고 갔다.

“여보 어딜 가요?”

“지정 식당에.”

“무슨 식당이기에 이런데루.”

“글쎄 잠자코 따라 오쇼.”

길을 꼬불꼬불 한참 들어가서 그는 어떤 노점에 당도했다.

“아즈머니 왔어요. 손님 한 사람 왔습니다.” P 소위는 그렇게 소리쳤다. 보니까 노점에는 나이 50세가량의 여인이 식사를 짓고 있었다.

“특별히 좀 잘해주슈.” 나는 재미있게 물끄러미 쳐다봤다. 시장 조점은 한 집만이 아니었다. 옆으로도 여러 집 있었고 뒷길에도 반대(飯臺)를 줄지어¹⁸⁾ 내 밀고 있었다. 모두 공군이였다. 독신자들의 식당이였다. 먹고 가고 새로 또 들어오고 분주한 식당거리였다. 좀 보기 드문 풍경이 났다. 그 식당은 낮에는 목조집도 되고 대포집도 되었다.

“저참 그렇듯 한 식당이군요.”

“하하하, 따라지들 소굴이지요.” P 소위는 거침없이 웃었다. 그렇다면 따라지 식당 일개다. 따라서 식당에는 누구나 친근해 질 수 있는 법이 있었고 활달한 향연(饗宴)이 있는 곳이었다.”

<6> 동기정(同期情)

군대에서 무엇이 좋다고 해도 동기생만큼 좋은 것이 없다. 더구나 초년병 때부터의 동기생 간의 정애(情愛)란 대단한 것이다. 사천에 ‘은하(銀河)’라고 하는 다방이 하나 있다. 나는 그 집에 ‘커피’맛을 잊을 수 없다. 맛이 좋아서가 아니라 기막힌 무미(無味)에서다. 밤에 나는 그 다방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집에서 마시던 송능과 어느 편이 더 좋던가 부질없이 비교하며 공보관 K 소위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방의 문이 열렸다. 시선을 보냈다(K 소위인가 했다). 그것은 딴 사람들이다. 반가운 친구들이었다. 전형일(田亨一) 중위, 이창곤(李昌坤) 중위, 이학선(李學善) 중위의 세 사람이다. 모두 백회 출격의 맹자들이다. 모두 초년병 때의 동기생들이다. 법석대고 들어오던 그들은 나를 보고 달려들었다.

“어제 왔나.”, “언제 왔나.”, “왜 왔나.” 거의 동시에 묻는다. 모두 조종복에 후라이자켓을 입고 있었다. 오래간만이라고 해서 그들은 나를 끌고 밖으로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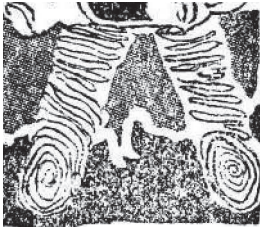
“어디로 날 유인해 가는 거냐!”

무조건 따라오라는 그들은 검검한 밤길을 두루 걸어서 어떤 술집으로 끌고 들어갔다. 술집의 여자도 몇이 들어왔다. 내가 어처구니 없어하는데 벌써 술상이 벌어졌다. 그들 주머니가 빈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전(田) 중위는

“대구(大邱)나 서울이면 몰라도……” 사천은

(77면(面)으로 계속)

17) 원문의 '주른히'를 '줄지어'로 봄



전쟁(戰爭)과 기상(氣象)과 항공(航空)

송태용(宋泰鏞)

기상(氣象)은 옛날부터 전쟁(戰爭)에 이용(利用)하였다

전쟁의 승패는 반드시 군의 실력에 의존하여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기상적 조건에도 좌우됨을 알 수 있다. 고대의 전적(戰跡)을 검토하여 보면 계절과 천기의 변동에 따르는 하나의 기상요소로서 풍향의 변동을 이용하여 선박에 화목(火木)을 적재하고 불 질러서 방치하여 적선에 인화를 일으켜 대승을 한 예가 있다. 즉 중국의 오(吳), 위(魏) 두 나라의 전쟁에 있어서 이러한 것은 유명한 소각토벌전(燒却討伐戰)인데 오나라의 주유가 양자강 방면의 기상을 잘 알고 있어, 동계절중 항상 일정한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고, 위 나라 조조의 대군이 있는 방향을 향하여 바람이 불 것을 예기하고 그날이 올 것을 참고 참았다가 얼마 후 곧 역풍(逆風)이 불기 시작할 시기를 택하여 화선(火船)을 내버려 둠으로써 위나라의 대군을 실은 많은 배를 소각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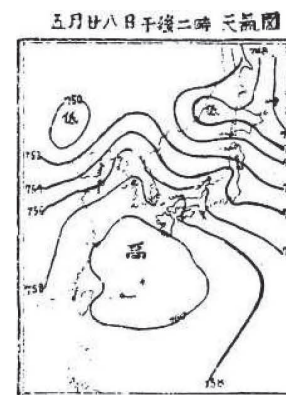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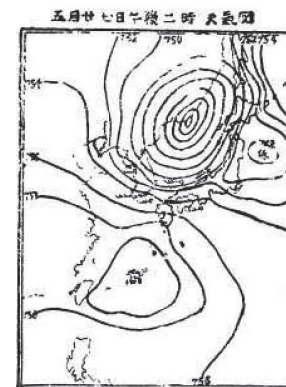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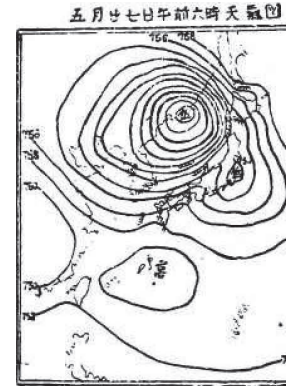
1558년에 스페인의 무적함대가 영국에 박두하는 도중, 돌연한 폭풍우의 발생으로 인하여 복멸(覆滅)한 것은 영국함대의 공적보다도 그 당시의 기상조건이 유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 영국이 2차 대전에서 단케르크의 대(大)패전 후 본국으로 도피하는 데에도 악천후를 이용하고 있었다. 하물며 근대 과학병기의 발달과 육해공의 합동 입체적인 근대전에 있어서, 기상이란 것은 단순히 기상상의 제 장해를 피하기 위하여서만 예측할 것이 아니고, 기상을 이용하여 아방의 전쟁을 유리하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음에 과거의 전쟁에 있어서 몇 가지의 근본적인 법칙과 기상상태를 이해함으로써 기상도 전력의 하나임을 알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모든 전략, 작전에 있어서 지휘적 입장에 있는 분들도 천기도(天氣圖)쯤은 볼 줄 알아야 하고,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낄 것으로 믿는다.

저기압(低氣壓) 통과전후(通過前後)를 이용(利用)한 해전(海戰)

해전에 있어서 승패의 결정은 태반이 순시(瞬時)에 결정되고 조우전 3, 4시간 내에 국가의 흥패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조우전의 시기 선택 여하가 승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다. 이에 따라서 쌍방노력의 우열에 의하여 청운(雨), 바람의 강약, 파도의 고저, 저기압의 내습(來襲) 전(前)과 통과 후 등등의 제(諸) 기상조건을 합리적으로 최대한 이용하게 된다. 이에 관한 한 예로써 일로해전(日露海戰)[일본 러시아 해전](당시 5월 27일 오전 6시 천기도 참조)

당시 대마해협 부근의 기상상태에 관한 예보를 일본 중앙기상대에서 발표한 것이, 바로 '천기 맑고, 파도 높다'의 한 마디로 보도되었다. 전(前) 26일 아침 요동 반도 부근에 있던 242MM의 저기압은 동 내지 동북동으로 진행하여 일본해 방면으로 진행하고, 일본 규슈(九州)부근 해에 있었던 748MM의 저기압은 규슈 남부 근해를 동진하여 口도(灘)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26일 아침에 요동반도는 물론 한국, 일본(중서부)에 걸쳐 강우가 있었



고, 저기압이 다시 동진함에 따라 강우 구역은 동으로 이동하여 27일 아침에는 북해도 지방에 강우가 있었고, 한국 및 일본(중서부)은 천기 회복하여 쾌청으로 되었다. 일본해의 저기압의 통성(通性)으로서 저기압 통과 후 천기는 좋으나, 풍력이 급강(急強)하고 편서풍이 분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27일 오후 2시 8분에 일본함대 주력을 발해만 방면에서 남향하여 평연(靄然) 맹렬한 포화가 서로 집중하였다.

러시아함대는 장기간 항해의 피로로 함속(艦速)이 감소된 데다 더욱 파도가 높아서 상당히 고통(苦痛)된 난항(難航)에서 열세한 일본함대에 패배를 당하였다.

날이 밝아 28일 아침에는 우세한 저기압도 점차로 중국 해협부근에 가고, 해상은 차츰 파도가 잔잔하여, 천기 좋고 시야도 넓어서, 패잔함(敗殘艦)을 수색하는데도 절호의 천기여서 가일층의 효과를 얻었다.

이 일로해전(日露海戰)에서 일본(日本)이 승리(勝利)한 기상적(氣象的) 요소(要素)는 무엇인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요약하면 일본함대로는 불가피한 일대 접전을 하여야 할 어찌할 수 없는 형편에서, 천기 맑고 시계가 넓어서 적함대의 불시의 공격을 받을 염려가 없는 천기였다는 이점, 또 만리(萬里)의 장항(長航)에 피로한 러시아함대로서는 천기는 좋았으나 파도가 높아서 난항을 면치 못하였다는 불리한 점이다.

이 '천기 맑고, 파도 높다'의 발표는 바로 저기압이 통과한 직후였다.

만약 여기에서 26일에 회전(會戰)이 있었다라면 우중(雨中)에서 시계(視界)가 나빠서 일본함대로서 대접전의 기회를 얻기에 곤란하였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러시아함대가 북방 이동의 기회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또 만약 26일에 회전이 있었다라면 천기 좋고 풍세도 평온하여져서 러시아함대도 상당한 사기를 얻어서 오히려 일본함대가 패배를 당하였을지도 모른다.

일본(日本) 근해(近海)의 천기특징(天氣特徵)은 해전(海戰)과 어떤 관계(關係)가 있을까?

본시 일본 근해의 저기압의 특징은 구주(歐洲)의 저기압과는 많이 다르다. 즉 한후계(寒候季)에 있어서 저기압의 전면(前面)에 있어서는 비교적 바람 약하고 천기 나쁘고, 후면

에서는 일기는 좋으나 편서풍이 강하다. 따라서 한후계에 있어서 피아군의 우열에 따라서, 아방이 우세하면 저기압이 통과한 후면의 좋은 천기와 시야 넓은 때를 택하여 당당히 정면공격을 할 것이며 열세한 때는 시야가 좁은 강우 구역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기습작전을 하여야 할 것이다.

한파(寒波)의 내습(來襲)은 육전(陸戰)에 어떠한 영향(影響)을 주는가?

만주사변 당시에 일군(日軍)이 '지지 하루' 공격전에 있어서 당시 내습한 맹렬한 한파로 인하여 다수의 일군에 동상자를 내게 된, 그 당시의 기상상황을 알아보면 사변 개시 이래 온난한 기온이 계속되어 11월 초순경의 신경(新京)은 평년에 비하여 7도나 높았고 대체로 북만주(北滿洲)에 있어서 동계 기온으로서는 예외로 높아서 방한장구도 불필요한 정도였다고 한다.

당시 내습한 한파는 만주의 흑한기에 비하여 그렇게 저온은 아니었으나, 기온이 급격(急激) 강하(降下)하여 영하 16, 17도로 되고 흥안령(興安嶺)에서 불어오는 삭풍(朔風)이 질풍(疾風), 강풍(強風)으로 되어 불어오기 때문에 생리적으로 대단한 충격을 받게 되었다.

당시의 기상 상황을 11월 초순 이래 이동성 고기압이 대륙으로부터 일본 방면에 점차로 진출하여 만주는 온난(溫暖)한 일기(日氣)가 계속되었다. 14일, 15일 석경(夕頃) '지지하루' 부근에 저기압이 양성(釀成)되어 16일에 이르러서는 남만주 일대에는 남풍이 강하였고, 저녁때에는 하얼빈으로부터 봉천(奉天)의 동방으로 통하여 톈진(天津) 남방까지 달하는 불연속선(不連續線)이 동쪽으로 이동함과 동시에 발달하여, 18일 아침 중심은 750MM의 저기압으로 되어 간궁(間宮)해협에 도달하고, 불연속선은 남서로 퍼지고 일본 마쓰에(松江)까지 도달하고 있었다. 당일의 천기도를 보아서도 아는 바와 같이 저기압 배후의 고기압은 17일 아침 이래 몽고(蒙古) 방면에 도달하여 한파를 초래케 하여, 18일에는 778MM의 상의 우세한 고기압으로 발달되어, 풍향, 풍속의 변화와 함께 기온 강하로서 저온과 삭풍은 익일(翌日)까지 연속하여 전투에 많은 장애가 있었다.

불연속선(不連續線)은 한파(寒波)와 어떤 관계(關係)가 있는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불연속선을 수반한 저기압이 일본해를 거쳐서 그 시도(示度)가 깊어지는 한편 몽고 방면에 대두한 고기압이 반사적으로 발달할 때에는 기온이 급강하하여 소위 한파로 되어 내습하게 되게 되므로, 불의의 한파 내습에 대하여 항상 마음의 준비와 방비대책을 하지 않으면 전략에 많은 지장이 있을 것이므로, 동계 만주나 아국에 있어서 여사(如斯)한 기온 변화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항공(航空)과 기상(氣象)

비행기는 공중을 날고 있으므로 기상의 영향 특히 구름의 영향을 받는 것이 크다.

한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담천(曇天)이 되어 있어, 조금도 구름의 빈틈이 없다고 할 때에는 과연 그 사이가 비행에 가능할 것인가를 알아야 할 것이다. 저공

제일로는 구름의 밑으로 비행하여 갈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런 때는 구름 밑이 낮지 않아야 하고, 운하(雲下)가 우무(雨霧)로 인하여 잘 보이지 않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도중 산 같은 것이 있어 운저(雲底)와 산이 접근하여, 진로가 막히지 않아야 할 것이다. 제2로는 구름을 뚫고 나아가는 때에 소위 운상(雲上) 비행을 할 경우에 있어서는 목적지 부근에서 운하로 나갈 수 있나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러한 점을 알지 못하고는 상당한 위험을 느끼게 된다.

구름을 뚫고 나가는 때에는 보통 큰 방해되는 것이 없는가, 또는 운상에서 운하로 뚫고 나갈 때에는 산 같은 장애물의 유무를 잘 알아야 할 것이다. 특히 적란운(積亂雲) 같은 구조를 가진 구름 속으로 불시에 들어가게 되면 심한 상승기류와 하강기류 등으로 인하여 기체는 낙엽처럼 동요되어 조종의 자유를 잃게 되고 혹은 어느 틈에 유리창에 빗방울이 부닥쳐서 보양계 동결(凍結)하여 좌우를 볼 수 없는, 대단히 위험한 경우에 봉착하게 되고, 일층 더 곤란한 경우를 말하면 운층과 운층을 향해서 소위 운간 비행을 할 때에는 전진 방향의 기상상태를 알지 못하면 점차 상하운(上下雲) 간(間)이 좁아져서 나중에는 밀착하였을 시에 다시 상승하느냐 또는 운하로 나가는가 하는 새로운 난국에 봉착하게 된다.

이렇게 복잡한 여러 가지로 곤란한 조건을 급일에는 항공기상통보가 발달해서 이 같은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게 되어 있다.

풍운(風雲)은 항공전(航空戰)에 어떠한 영향(影響)을 가져올까?

구름은 위에 말한 바와 같이 항공에 있어서, 다각도로 장애가 있으므로, 원거리 목표를 폭격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항공부대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큰 방해물이 된다.

특히 남방의 스콜운(雲) 같이 대단히 높은 구름이 전방에 병풍(屏風)같이 퍼져 있을 때는 참으로 곤란하다.

그러나 일편 구름에 따라서는 출동 중의 비행기를 지상으로부터 은폐하여주는 결과로 되어 적에 발견되지 않아 유리한 적도 생각할 수 있다.

더욱이나 열세한 항공기는 공중전에 있어서 운중(雲中)에 숨는 때가 많다.

태평양전쟁 시에 마레[말레이시아] 부근 항공전에서 이러한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의 폭격같이 상당히 높은 고도에서 폭탄을 투하할 때에는 구름이 있는 것이 장애물의 하나로 된다.

고도 폭격 시는 일정한 높이로부터 아래에 구름이 없는 것을 예지하지 못하면 출동이 불가능하게 된다. 물론 레이더장치를 이용하면 가능할 것이나 시각(視覺)폭격에 비하여 좋은 성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위에 말한 것과는 좀 다르게 낙하산 부대 같이 비교적 낮은 높이로부터 군대가 뛰어내릴 때는, 어느 정도의 구름이 있어 그 구름 속에 숨어서 비행기로 옮겨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상공에서는 폭탄도 바람의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최근의 폭격같이 8,000M 정도의 고도에서 폭탄을 낙하시킬 때 지면에 다다를 때까지는 기류의 영향을 상당히 받아 목표물에 명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상층풍의 방향과 속력을 대체로 안 다음에야 정확히 명중을 기할 수가 있다.

국지적(局地的) 기상(氣象)도 전투(戰鬪)에 이용(利用)되나?

지상 포격에는 바람이 그다지 치명적인 것은 아니다. 만약 연막을 친다든가, 화염방사기를 사용할 때에는, 그 당시의 바람의 진행 방향을 반드시 예지한 후에 그러한 것들을 이

용하여야 한다. 제1차대전시에 프랑스군이 감행한 독가스 공격은 기상예측의 판단이 틀려서 독일군 진지로 향해 방류한 독가스가 도중에서 역류하여, 프랑스군이 의외의 희생자를 더 많이 내게 된 사실도 있다.

독소전(獨蘇戰)과 기상학자(氣象學者)의 활동(活動)

제2차 세계대전에 있어, 유리한 독일군의 전격전(電擊戰)은 대체로 천기 좋은 날을 이용하였고 소련군의 동장군(冬將軍)의 이용은 엄한습래(嚴寒襲來)의 정확한 시기판단의 이용이었다.

이 전쟁에서 주목할 만한 2인의 인물이 바로 독일의 월바드 스팅크 박사와 소련의 페도로프 박사이다.

스팽크 박사는 대포나 비행기를 가지고 전투한 것이 아니고 그는 독일 참모부에서 청우계(晴雨計)를 가지고 중책을 다하고 있었다. 물론 전(前) 대전(大戰)에서도 기상학이 작전에 참가하였으나, 제2차 대전만큼은 발달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스팅크 박사의 난점은 소련으로부터 기상정보를 조금도 입수 못한 점이다. 다만 과거의 통계에 의하여 소련의 평균기온을 이용하였을 따름이다.

스팽크 박사의 그 당시 성공한 일례로서 '독전함대가 부레스트항을 떠나 언제쯤 가례해협을 통과하여야 하는가? 하는 어려운 질문에 대하여 3월 13일로 정하여 대답한 것이 스팅크 박사였다. 그날 오전 11시에 함대가 가례에 가까워질 무렵에 북으로부터 강우가 있어 시계가 좁게 되어 영국의 목전(目前)을 유유히 통과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노르웨이로부터 해안에 걸친 기상관측소로부터의 보고에 의한 귀중한 과학적인 성과라 하겠다.

한편 독일에 대하여 소련은 페도로프 박사가 스탈린의 고문으로 있었으며, 동시에 북극 탐험가로서 유명한 제2차 대전 전에는 북빙양(北氷洋)을 조사하여 베링그까지의 연안항로를 만든 학자이다.

1942년 12월 모스크바가 군사적으로 벌써 절망시(絶望視)될 때 스탈린에게 적도(赤都) 모스크바 방위를 결정짓게 한 것도 바로 페도로프 박사라고 하는 말도 있다. 그가 독일의 스팅크 박사보다 유리한 경우에 있게 된 것은 시베리아로부터 기상통보를 입수할 수 있었던 점이다.

구주(歐洲)의 기후는 아세아에 지배된다고 말하고 그는 그것에 의하여 동기(冬期)가 기형적으로 조속히 와서 맹렬한 한기가 수반할 것을 예측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이 구주대전(歐洲大戰)에 있어서 기상학이 음양으로 이용된 것을 알 수 있다.

미국(美國)의 기상확충(氣象擴充)

제2차 대전 전에 미국의 한 기상학자가 말하기를 '만약 가장의 적국이 미 국경에 향하여 육해공의 한 방면 혹은 세 방면을 동시에 내습할 시에는 적군이 본토에 상륙하기 전에 분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작전을 완전히 발휘하는 데는 기상전문가의 정확한 기상통보에 의하여 대륙의 일단(一端)으로부터 타단(他端)에 공군의 신속한 이동이 최대 조건이다. 이렇게 하여 한편 공로(空路)가 농무(濃霧)로 인하여 장애가 될 때에는 타 공로를 즉시 대용할 수가 있으며 착륙지의 기상상태에 대하여서 예지(豫知)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보아

서도 미국은 벌써부터 전신타세의 일부로서 기상을 중요시하며 기상대의 대증축(大増築) 장기(長期) 예보에 대한 특별한 연구를 하고 있다.

제2차 대전 전 미국의 기상관측원은 약 2,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비교적 소수의 인원이었으나 개전 후에는(1943년 7월) 항공기상관측원의 증가발표에 의하면 기설(既設)의 기술자간부양성소를 제외하고도 27교의 대학전문학교를 동원하여 10,000명 이상의 기상장교를 양성하여 그 수를 2년 후에는 현재의 3배로 증가될 것이라는 보도를 보아서도 세계 각국이 전쟁에 기상이라는 과학 면을 얼마나 중요시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기상(氣象)에 대한 우리들의 관심(關心)

우리나라에서도 부단히 연구하여 최대한의 이용가치를 얻음으로써 대전력의 하나로 하여야 할 것이다. 산악과 기습작전을 이용하는 공산군들로 인한 6.25 사변의 담우천(曇雨天)의 천기, 1.4 후퇴의 엄한내습, 7.28 휴전에 따르는 온난기후(溫暖氣候), 당시의 기상상태와 관련시켜 우리에게 얼마나 유리하였을까?

우리는 기상을 전쟁의 각 분야에 충분히 이용하였을까? 기상통계치를 볼 줄 아는가? 간단한 기상예보용어 중의 고기압, 저기압, 불연속선들이 무엇인지 아는가? 천기도를 상식정도로도 볼 줄 아는가? 이러한 모든 숙제는 다음 기회로 미룬다.

(71면(面)에서)

계집이라는 것이다. 노래를 부르고 술잔이 건너가고 받고 하였다. 전(田) 중위는 술잔을 내게 준다. 여자가 술을 부었다.

“난 한 잔도 못해……안 들겠다.”

몇 번 나는 완강히 거절하고 전 중령, 이(李) 중위 또 이 중위와 여자들이 강권하고 하던 끝에 전 중위가 별떡 일어섰다. 웃는 낮이 아니었다.

“안 들겠나!”

“안 드는 게 아니라 못해!”

“정말 안 반겠어!”

“아 글썄……”

“우리들이 일부러 만든 이 자리에서……”

“……”

나는 받았다. 다시는 상종하지 않으리라는 말보다도 거절할 수 없는 뜨거운 것이 가슴에 왔다. 여자들은 흥겹다고 아양을 떨며 노래를 부르고 동기생들은 내 얼굴을 쳐다본다. 나는 좌중을 주욱 한 번 둘러봤다. 아무런 의지할 곳 없이 찢어지는 목소리로 헐벗은 청춘과 삶, 비극을 눈물이나 웃음으로 속여가야 하는 ‘술집 여자’가 애처롭게 어릿거렸고 동기생이 친구가 반갑다고 흡족치 못하나마 지성으로 대접하는 마음씨가 따뜻하게 느껴졌다. 나는 석 잔이나 마셨다. 전례 없는 파격한 일이었다. 나는 술 취하지 않았다. 「성불사(成佛寺)의 밤」을 불렀다. 모두 다 외로웠고 고독한 것은 어쩔 수 없이 허전한 것이기에 더구나 군인들은 동기생들을 아끼고 구정(舊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동기정은 흠 없는 것이었다. 비록 다음엔 어떤 좌석에서라도 술을 금하되 마셔버린 몇 잔의 술은 탓하지 않기로 했다.

친구들은 더욱 법석하고 즐겁게 놀아냈다. 사전은 어쩌면 이국과 같은 생각도 든다.

밤이 침침한 철쭉으로 깊어 갔다.



자유(自由)의 전사(戰士) 반공포로(反共捕虜)의 석방(釋放)

☆ 타임 지(誌)에서

5,000명의 인도군(印度軍)이 중립국 감시위원단의 군대로서 지난 가을 한국에 도착하였을 때 인도의 수상 네루 씨는 인도군의 임무가 다음 세 가지임을 확인하고 거기에 철저할 것을 약속하였다. 즉 그의 임무는

- ① 22,500명의 반공포로와 350명의 친공포로를 120일 동안 최소한의 유혈 희생으로 관리할 것.
- ② 설득 작업을 감독하고 공갈 행위를 방지하며 원하는 사람에게는 본국 송환을 보장할 것.
- ③ 120일 후인 1954년 1월 23일 오전 0시에는 나머지 모든 포로들을 자유의 민간인으로서 석방할 것이었다.

인도의 훈련 받은 군대와 민간인 관리들은 처음 두 가지의 임무를 양심적으로 규율 있게 완수하여 전 자유세계의 존경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네루 수상은 제3의 임무에 대하여 책임회피를 하려고 기도했다.

인도 뉴델리에서 네루 씨가 작성하고 판문점(板門店)의 티마야 장군이 서명한 서한이 유엔 측과 공산 측에 발송되었는데 그 내용은 인도군은 포로들을 최후 기일에 3일 앞서 즉 1월 20일부터 원(元) 억류자 측에 다시 돌려보낼 것이며 쌍방은 한국의 정치회의가 그들 포로의 장래를 결정하거나 쌍방 간의 어떠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무기한으로 철조망 속에 억류해야만 된다고 경고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함으로서 인도는 그의 책임을 회피하고 유엔 측의 반공포로 석방을 비난하려 기도한 것이다. 즉 유엔 측이 여러 차례 언명한 바와 같이 반공포로를 석방하면 그것은 휴전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비난이다. 네루 씨는 일방(一方) 주미 인도대사를 통하여 동 문제를 토의할 유엔 특별총회를 2월에 소집할 것을



제외하고 1월 22일까지 회답하지 않는 국가는 동 제의에 동의하는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말하였으나 당장에 미국, 영국, 불란서의 반대를 받아 기일을 연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유엔군 사령부는 강제 송환에 반대하는 원칙만은 지켜지는 것을 최하한 다행으로 생각하고 티마야 장군이 포로를 인도하는 동시에 그들을 인수하겠다고 회답을 보냈다. 그리고 유엔군 총사령관 존 힐 대장은 “선택 자유의 권리는 침범할 수 없으니” 1월 23일에는 포로들을 석방할 것이라고 □직히 인도에 통고하였다. 힐 대장은 그 속에서 또한 말하기를 네루 씨가 요구한 포로의 계속 억류는 “인권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며 그 원칙을 위하여 유엔군은 오늘까지 싸우고 죽었다.”라고 공박하였다.

세계 소식에 충분히 밝지 못한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는 중립이라야 할 인도가 “유엔 측이 포로를 석방할 권리가 없다.”라는 공산 측의 견해에 완전히 가담한 것 같이 보였다. 인도의 신문들은 네루 씨의 입장을 따라 그들의 논설에서 공산측이 설득 작업의 실패는 주로 유엔 측이 철저히 포로의 사상을 지도하고 협박하였던 까닭이라고 헛된 소리를 했다.

그러면 네루 씨의 입장은 무엇이었던가? 인도의 독립운동 시대에 “자유와 정의가 위협에 빠지게 될 때 우리는 중립하지 않을 것이다.”고 외쳤던 사람은 바로 네루 씨였다. 그 사람이 오늘 날 이러한 책임 회피를 하려는 것은 다름 아니라 현재의 냉전 단계에 있어 그 중간에 개재(介在)하여 냉전의 쌍방이 각기(各其)의 결정적 입장을 정하는 것을 기다려 그 후에야 비로소 자유 인도의 태도를 정하려는 기회주의적 외교정책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위험하기는 하나 자국에 유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 중립국으로서의 임무를 가지게 된 이상 공정한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고 공정한 중립적 입장을 떠나 자국을 위한 정책적 입장에서 사태에 입한다는 것은 중립국의 전통적인 역할을 배반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X X

1954년 2월 25일 8시 45분이었다. 중립국에 의하여 인도되는 반공포로를 인수하려고 판문점에 대기한 미군소대는 우렁차게 장열을 지어 넘어오는 반공포로를 목격했다.

중국인 포로들은 5월을 지어 자랑스럽게 중립지대를 넘어온다. 선두의 두 사람은 장제스(蔣介石) 총통과 중국의 창설자 손문의 초상을 높이 들고 있었으며 밀집한 대열 속에는 홍백청색의 국민정부 중국기, 미국의 성조기, 청백색의 유엔 깃발들이 휘날리고 있었다. 어떤 포로들은 손수 만든 기(旗) 끝에 비루[맥주] 깡통을 높이 달았고 수용소에 있던 농구볼을 가진 사람도 있으며 각기(各己) 가지각색의기이한 물건을 꺼안고 있었다. “반공 동지들이여! 우리는 당신들을 맞으러 나왔습니다.”라는 소리가 확성기를 통하여 나왔을 때 대열로부터는 세세(감사합니다)라는 소리가 유엔 지역에 산 울림을 쳤다. 확성기는 계속하여 “여러분 중용히 오셔서 자유의 몸이 되십시오.”라고 외쳤다.

그날 아침부터 밤까지 14,209명의 중국인 포로가 중립지대의 선을 넘어왔다. 그들은 대열을 떠나 마중 나온 유엔 군인들을 껴안고 즐거워했다. 그들을 공산주의로 돌려보내지 않으려고 싸워 온 “친애하는 유엔의 영예로운 투쟁자들에 감사한다.”는 등 사된 뼈라가 그들 사이에 나누어 졌다. 몸이 쇠약한 한 포로는 그가 거제도 수용소에 있을 때 알게 된 아일랜드의 승(僧)님을 보고 한 없이 반가워했다. 그 승은 그 포로의 이름이 고슈한이라고 말해 준다. 승은 기억을 더듬어 말하기를 “고슈한은 포로들 사이에서는 영웅이다. 거제도에서 1,500명이 들어있는 공산분자 지배 하의 수용소에 들어가서 단신으로 800명의 반공포로를 구출한 자이다.” 한 중년 포로는 젊은 우리 국군 중위를 보고 감격해서 “천(千)날 동안 철조망 속에 있었습니다. 1,000날 동안이 나……”하면서 흐느껴 운다.

행진곡의 북소리 속에서 트럭에 실린 포로들은 서울 쪽으로 향해 갔는데 길가에는 한국의 농촌 사람들이 포로들을 환영하고 있었다. 반공 중국인 포로들은 깃발을 흔들면서 “소련과 공산 적귀(赤鬼)에 대항하자.”고 외쳤다. 그리고 그들은 국민정부 영토인 타이완에 가면 여자들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달콤한 낭만적인 노래를 부르고 “우리들은 해방되었다.”고 다시 한 번 자신 있게 고함치는 것이었다.

일방 판문점에서 40마일 남방 서울의 포탄이 맞은 터가 그냥 남아 있는 교외 정거장에는 약 8,000명의 한국 사람들이 기차편으로 오는 반공동포들을 맞으러 모여들어 있었다.

7,574명의 한국인 반공포로들은 중국인 동지들에 비하면 대부분이 무표정이었다. 군중들이 사과, 과자, 카라멜, 찻물 등을 대접할 때도 그들은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정거장 확성기에서 환영의 곡조가 흘러나오니 그들은 “만세”를 불렀다. 이(李) 대통령의 치사가 녹음 방송되었다. 대통령은 치사에서 반공포로 공산 설득자들에게 항거한 것은 “역사상 가장 큰 이데올로기의 패배(敗北)”를 공산주의자에게 준 것이었다고 칭찬했다. 그러나 화려한 환영의 장식 속에 깊은 슬픔의 빛을 숨길 수가 없었고 환영의 흥분은 곧 꺾여졌다. 즉 늙은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이 플랫폼 흙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아들들의 이름을 적은 종잇조각을 포로들에게 보이는 것이었다. 나이 많은 부모들은 “이 애는 군대에 있었어요.” 하면서 흐느껴 울고 “내 아들을 아느냐”, “우리 아들을 본 적이 있느냐”고 따지는 것이었다. 포로들은 허공을 바라보며 과자를 먹을 뿐 묵묵히 말이 없다. 실망한 부모들은 그 자리를 떠나 슬픔에

잠기면서 판문점에서 오는 다음 열차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서울서 대전(大田), 대전에서부터 대구(大邱), 또 그들을 실은 열차가 어둠을 뚫고 내려가는 연선에도 한국의 동포들은 그들의 반공 애국청년들을 환영하고 있었다.

중국인 반공포로들은 아직도 즐거웠다. 인천(仁川)에는 그들을 타이완으로 운반할 LST가 대기하고 있었다. 거기서 포로들은 그들 중국 고유의 축하 행사를 받았다. 굉장한 춤이 벌어지고 공산주의 설득자를 물리친 위대한 중국인의 승리를 기념하여 옛적의 사자춤을 추었다. 조그마한 아이들을 기다란 장대 꼭대기에다 앉혀 겨누기도¹⁹⁾ 했다. 그들 중국화교들은 좋은 명주 목도리와 조화환(造花環)을 보냈다. 포로들은 늘 어선 아이들에게 이별을 고하고 치맛자락이 휘날리는 어린 소녀들에게는 마지막 눈짓을 보내면서 대기하는 LST로 올랐다. 이튿날 아침부터 시작하여 14,000명이 타이완으로 수송되었다. 그들 중국인 포로들은 모두 본토에 돌아가서 마오쩌둥(毛澤東) 공산군을 격멸할 굳은 결의를 하고 있음이 엿보이었다. 24세의 한 청년은 “우리들은 한 마음 한뜻으로 타이완에 돌아가서 한 몸이 되어 공산주의자들을 격멸할 것이다.”하고 굳은 포부를 표명하였다.

유엔군의 반공포로 석방 절차는 공산주의자들의 아무런 방해 없이 순조로이 점차 진행되어 갔다. 그러나 타이완으로 수송이 시작된 후 2일째 아침 50면의 미군 해병이 타고 있던 보트가 LST에 충돌하여 침몰한 참사가 일어났다. 결과 28명의 가까운 미해병의 생명이 희생되었다.

이들 해병들은 포로들을 타이완까지 무사히 수송할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곧 포로의 자유를 수호하는 데에 희생된 7,000명의 고귀한 유엔군 생명들의 마지막이었을 것이다. 한국전쟁에 희생된 3만 여명의 유엔군 중에 이들 7,000명은 유엔이 공산주의에 되돌아가지 않겠다는 포로들의 자유의사의 권리가 보장될 것을 휴전의 절대 조건으로 내세운 이후에 희생된 것이다. 주말에 유엔군 총사령관 헐 대장은 이 희생에 대하여 응당한 치사를 했다. 즉 그는 말하기를 금번 새로이 석방된 포로들은 세계 도처의 사람들이 공산주의의 압제를 벗어나고 유엔에 의지하여 “자유세계에 안식처”를 구할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이다 라고 했다.

X X

14,000명의 반공 중국포로를 실은 LST가 타이완의 타이핑항(臺平港)에 들어오자 항구 내의 모든 선박들은 기적을 울리고 종을 치고 가지각색의 깃발들이 부두를 비롯하여 항구 전체를 휘덮었다. 수천 명의 군중들이 손 깃대를 들고 타이핑(臺平)에 이르는 길가에 나와서 환영을 했다. 수많은 꽃불이 발사되어 트럭 위의 포도들이 그 연기 속에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타이완 정부 수상은 공산주의 중국의 지배자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의 날이 왔다.”라고 언명하였고 모든 포스터들은 “본토 반격 준비를 촉진시켜라.”고들 말하고 있었다. 한 포로는 너무나 큰 기쁨에 넘쳐 “나의 입으로는 도저히 기쁨을 표현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돌아오는 포로들의 임시수용소 건축에 분주하던 장제스 총통의 아들인 장전귀(蔣鎮國) 장군도 흙투성이의 작업복을 벗고 검은 옷을 입어 부둣가에 나와서 손가는 대

19) 원문의 ‘고누기도’는 ‘겨누기도’의 방언.

로 많은 포로들과 악수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타이완은 당신을 환영합니다. 당신들의 희망을 말하십시오. 우리들은 힘자라는 대로 여러 분의 희망을 만족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하고 격려했다.

이들 포로들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사선을 넘어왔으며 용감하게 자유진영의 양심을 믿고 그들의 자유를 찾으려 싸워왔으며 여기에 이르러 그들의 자유는 거의 확실히 보장된 것이다.

X X

공산주의 베이징(北京) 방송은 “목봉(木棒)과 칼날 또는 비행기의 협박 하에 이루어진 포로의 인도는 불법이며 미국은 그의 죄악 행위에 대하여 한없는 값을 지불해야만 할 것이다.”고 상투적이며 발악적 욕설을 퍼부어 왔다. 그러나 그들은 전쟁을 재개함으로써 그 값을 요구하기는 감히 할 수 없으므로 아무런 가치도 없는 선전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공산주의자들은 처음 그들의 친공포로 즉 347명의 공산군 포로, 325명의 한국인 포로 그리고 21명의 미군 포로와 1명의 영국군 포로를 인수하지 않겠다고 고집했는데 그의 의도는 유엔 측의 반공포로 석방이 ‘휴전협정의 위반’이라는 것을 보여 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보니 그들 친공포로들은 어느 때 있을지도 모르는 정치회의가 그들의 운명을 결정할 때까지는 하는 수 없이 있던 곳에 그냥 추위에 떨면서라도 남아야 하는 것이다. 인도 중립군의 티마야 장군이 재차 공산 측으로 하여금 그들의 포로를 인수하도록 권고 하였으나 공산주의자들은 여전히 거절했다. 거기에서 티마야 장군은 말하기를 “아, 좋습니다. 우리는 그들 친공포로들에게 그들의 인수자들이 그들을 받고 싶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공산주의자들은 당황했다.

1954년 1월 22일 야간에 인도 중립군은 친공포로수용소를 철수하였는데 그 당시 그들 포로들에게는 공산 측이 예비한 1주일간의 식량밖에는 남아 있지 않았다. 인도군이 철수한 다음 공산 측은 부득이 친공포로들을 인수하고 그들 포로를 이용하여 온갖 선전 노릇을 시작했는데 가련한 그들 포로들은 늘어져서 죽게 될 때까지 선전 노릇에 이용당하고 말 것이다.

사진 설명

☆ 중립국위원회의 인도군의 감시로부터 석방되어 유엔군 지역으로 1만 4천 2백 8명의 반공 중국인 포로들의 선봉대가 국민정부 중국기를 높이 들고 넘어오는 광경.

(53면(面)에서)

“당신들의 행동에 잘못은 없다. 당신들이 원한다면 봉제일이 아닌 내일이라도 얼마든지 참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가 이런 말을 한 기억을 필자는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다.

“일본이 그러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이상 일본은 패전하고 말 것이다.”

얘기가 좀 달라지지만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수락한 8월 15일을 약간 앞선 7월 20일경, 필자가 예비 검속(檢束)에서 석방되어 집에 돌아오자 이제 말한 현병군조가 찾아와서 다음과 같은 난(難)질문을 하였다.

“일본이 이길 것이냐? 질 것이냐? 답변을 해라.”

이날일제라 연합군 해군이 오키나와에 상륙하였다는 보도가 신문에 발표된 날이다. 아무리 친밀한 사이라 하지만 그는 정보를 취급하는 노활(老猾)한 일(日) 현병이요, 무슨 필기용구를 손에 들고 있었다.

“글쎄요. 최후의 5분간에 있어서 일본은 이길 것이다.”

필자가 이렇게 답변했을 때 현병은 주먹으로 책상을 크게 치며 이렇게 말하였거든.

“뒹이! 일본이 이겨! 일본이 이겨서 될 손가! 일본은 져야 한다! 일본은 새로 출발해야 한다!”

최용덕장군(崔用德將軍)과 함께

1945년 8월 15일 일군(日軍)이 무조건 항복을 하자 모욕단체 협력회는 해산되고 재산시(在山西)한국자치위원회가 조조(組組)되었다. 재류(在留) 한인들은 안창남 씨의 분묘를 참배하고 경축회, 유흥회(遊興會) 등을 열었다.

1946년 3월 최용덕 장군(당시 광복군 베이징 판무처장(辦務處長), 현 한국공군 총참모장)의 내위안(來原)은 마지하자 성대한 분묘 참배식이 거행되었다. 자치위원회 규찰대(糾察隊)의 사이드카를 전위로 장군 차, 한국독립당 산시지당부(山西之黨部), 선무단(宣撫團), 청년단, 부인회, 한국유동훈련반, 기타 산하 단체의 장엄한 행렬은 일인(日人)은 물론, 중국인까지들 위압(威壓)하였으며 동해물의 애국가는 성벽을 울렸다.

최용덕 장군은 이날 고인의 비석을 등지고 고인과 분묘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다. 또 고인의 실제(實弟)인 안창민 씨도 백(伯)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으나 일일이 기억한바 못됨은 유감이며 같은 날 안창남 분묘가공위원회(墳廟加工委員會)를 조직하였으나 며칠이 못되어 내린 귀국명령으로 성사치 못하였음이 유감이다.

최용덕 장군 환영대회에서 장군은 힘찬 연설을 하셨는데 특히 단결이라는 슬로건이 일관되어 흐르고 있었다. 그때 필자는 광복통신(光復通信)을 (당시 동인(同人)의 한 분인 정찬세(鄭贊世) 형은 현재 공군본부 고급부관실 근무) 편집하고 있었으므로 그날 호(號)의 지상(紙上)에 단결은 우리의 무기라는 표어를 내걸고 또 그와 같은 제목 하에 동연설의 내용을 초약(抄約)하여 게재(掲載)하였던 기억도 새롭다.

여기서 타이완을 상상하면 너무나 아득한 곳이다. 그 아득한 중국대륙의 일변지(一邊地)에 우리의 최초의 하늘의 영웅 안창남 씨의 영혼이 고독하게 홀로 잠들어 있다는 것을 생각함에 스스로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끝)

돌, 성좌(星座), 보리수(菩提樹)

— 릴케에게 드리는 글 —



박목월(朴木月)

제1장 돌

적요(寂寥)는 어쩌면 비와 같은 것이다.

바닷가 해오름에 슬며시 상륙하며는
허막(虛漠)한 광야(曠野)의 하늘로 쓰러지고
젖빛의 으늑한 구름으로 풀려서
이윽고 거리에 부슬부슬 소리 없이 내린다.

여러 갈래 등으로 툭 휘었는 뒷골목의 첫새벽 차고 흰
지붕에.
꿈과 기대(期待)에 어그러진 두 개의 육체(肉體)가 서로 희멸(幻滅)한
속에 헤어질 때.
미워하는 사람끼리 등을 대이고
한 침상위에 자야할 무렵에
벌써 적요(寂寥)는 탁(濁)한 하천(河川)을 이루어
흐르는 것이다.

라이나 마리아 릴케!

오늘밤은 비가 옵니다. 이미 밤은 삼림(森林)속 같이 고요합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는 촛불이 그의 가난한 빛으로 원고지 한 장을 비칠따름, 그럴수록 새하얀 원고지는
고독한 심정이 오히려 밝힌 영혼의 자리같이 정결(淨潔)합니다.

자정이 넘으면 촛불도 그 불꽃 자세를 바로 잡습니다. 한밤의 장엄하고, 침중(沈重)
한 말썽에 다소곳이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나는 이 가을을 들고부터 릴케의 고독한
영혼 안에 눈 뜨는 선율(旋律)…… 당신의 오묘(奧妙)한 시편이 이끄는 대로 어설픈 우
리말로 내 마음에 옮겨놓으면서 깊은 촛불의 정숙한 자세를 바로 내 영혼의 모습이라
믿어 왔습니다.

그 함박눈처럼 소란하며 오히려 은은한 침묵 안에 환히 눈을 뜨고 기다리는 원고지
위에 당신의 그윽한 선율을 따라서 조용히 그러나 애절(哀切)히 느끼우는 당신과 나의
영혼의 합창(合唱)을 안으로 모아 보았습니다.

어린 날의 어느 언덕 위에 햇빛에 쓸리는 수목같이 그것은 환한 모습으로 가늘게
떨며 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라이나 마리아 릴케!

내 마음속에서 이미 갈아 앉은 경주(慶州)의 산천이 새로운 광채를 띠며 솟아났습니
다. 그것은 불같은 향수, 또한 무서운 갈등입니다.

…… 돌을 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당신이 내 귀를 열리게 하여 비로소 들을 수 있는 돌들의 나직한 말씨에 귀를 기우
리면서 하루 종일 박물관 뜰을 서성거립니다.

돌 곁에 앉아서 구름을 봅니다.

구름의 설핏한 눈매 안에서 스스로 나를 굽어보는 내 영혼(靈魂)의 동자를 나는 처
다봅니다. 그런 눈으로 돌을 봅니다.

“돌은 너무나 조용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시구(詩句). 그대로 천년의 세월에 또한 이슬과 비와 바람에 씻기고,
천년의 햇빛에 바래서 돌은 정숙하고, 정결하고, 오히려 청아하고 조용합니다.

이렇게 느긋한 것……

어느 돌에는 불상(佛像)이 아로 새겨 있었습니다. 세월 안에서 소멸(消滅)한 것이 한
결 오롯한 광채(光輝). 그것이 그 큰 암갈색(暗褐色) 강물 건너편에서 환하고 또렷하게
서 있었습니다.

라이나 마리아 릴케!

지금 저는 괴롭습니다. 그러나 다만 돌처럼 돌이 지나는 그 정숙(靜肅)한 것의 교훈
앞에 저는 조용히 섰습니다. 돌은 그곳이 타일러 줍니다. 돌을 보라하고, 실은 그 말썽
은 내가 내 영혼을 보라는 뜻입니다. 나는 종일 섰습니다. 돌을 보는 것이 어쩌서 이처
럼 느긋한 평안을 내게 줍니까.

돌곁에는 어지러운 풍우(風雨)의 씻어간 자취가 역력합니다. 그러나 풍우에 오래 씻
겨 젖을수록 한결 청아한 말썽이 속삭입니다. 어느 돌은 석가여래(釋迦如來)…… 연화
대(蓮花臺) 위에 인자하신 모습이 수긋이 앉았습니다. 바로 평안한 저 앞음새. 끝없이
너그러운 저 어깨 언저리……

나는 석가여래의 은은한 광채(光輝)에서 돌의 빛나는 영혼을 봅니다. 세월이 표백될
수록 한결 생생한 피가 도는 것, 세월이 스쳐갈수록 한결 당당한 아아 당신은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제2장 별전(別箋)

라이나 마리아 릴케!

흘러 가버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겠습니까. 청춘이나, 사랑이나, 그리고 우리
의 생명으로 약속한 언약이 스스로 마련된 운명의 갈림길에서 서로 손을 놓고 마는 것
이.

그것은 흘러버린 탓으로 비로소 생명의 근원에서 광채를 뿜으며, 지난날의 무심한
것이 새롭고 그지없이 깊고 은은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머금고, 이미 내가 닿을 수 없
는 안타까운 언덕 위에서 소생하여 나를 굽어보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 눈물은 또 얼마나 흘러야 합니까. 그 눈물방울마다 그것은 어려서 한결 선연(鮮妍)하고, 한결 광채롭고 한결 장엄하고, 그리고 내안에서 밝게 증명(證明)하면서 또렷이 소생(蘇生)하는 것입니다.

제3장 성좌(星座)

집필에 지치면 바람을 쏘이려 문밖에 나온다. 밤 한시나 두시. 그 무렵의 밤하늘은 신(神)의 동자(童子)같이 정숙한 위엄(威嚴) 안에 은은하다.

어느 날에는 이름도 모르는 새떼가 어지러히 밤하늘을 울고 간다. 그것은 풀밭같이 마음에 깊이 갈랐는 정경(情景)이다. 나는 문턱에 앉아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리며 담배를 피어문다. 비로소 경탄, 놀라운 황홀로 나는 요즈음 밤하늘을 쳐다보며 그곳에서 정숙한 것의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비로소 배우고 깨닫는 것이다.

어느 날은 코피가 툭 터져 흐른다.

심야(深夜). 촛불이 몸을 도사리는 시각에 미간(眉間) 사이로 무엇이 뿌득히 자리를 잡아내려오다가 이윽고 더운 것이 주르르 흘러내린다. 새빨간 정숙! 나는 황홀한 도취로 그것을 바라본다. 내 영혼이 아름다운 율조(律調)를 띄우고, 나의 체내에서 흘러나와 내 영혼과 조용한 대면을 하는 것이다.

실로 내 안에 스스로 정정(淨澄)한 영혼이 눈을 뜨고, 그 황홀한 출혈을 응시하는 것이다.

안면 한가운데 나부시 앉아 소련한 비익(鼻翼).

제4장 보리수(菩提樹)

초록빛 휘황한 인도의 별 하늘이 생장시키는 나무. 보리수가 모시는 석가여래의 하늘……. 그리고 라이나 마리아 릴케의 동자(童子) 안에서 불꽃 심지처럼 밤의 정숙을 빨아서 안으로 환하게 꽃피는 나무.

라이나 마리아 릴케!

보리수는 정숙한 영혼이 밝힌 고독한 밤하늘을 지녔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스스로 황홀하여 환히 눈을 뜨고 고독의 몸체 안에서 충만한 하루 하루를 지냅니다. 새하얀 낮에도 밤을 향하여 손을 뻗치는 나뭇잎들.

보리수는

조용히 타일러 줍니다.

“내 그늘에 오라. 석가가 오듯이 내게 와서 저 별을 보라. 그 별 하나하나에 슬픈 자에게만 깨우쳐 주시는 눈짓이 있느니라.”

나는 보리수를 모릅니다. 다만 나의 고독한 영혼이 어느 샘 안에서 문득 자기의 모습이 비친 것을 발견하듯이 별빛 한 오리 한 오리로 향한 나뭇잎과 그것을 모아서 이른 밤같이 신비로운 어두운 수목을 느낄 뿐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어느 절망의 낭떠러지 앞에서 쓰러질 때, 그것을 가려주는 은은한 그늘을 느낄 따름입니다.

제5장 후기(後記)

위의 네 편 문장은 릴케에게 드리는 나의 독백이다. — 라기보다는, 릴케를 통하여 내 영혼을 다스리고 큰 섭리(攝理)를 이룩하신 분에게 드리는 나의 기도다. 이런 형식으로나마, 나의 불안과 절망이 어렸던²⁰⁾ 어두운 영혼이 한오리 빛을 찾으려 몸부림치는 것은 가락하고 애달픈 일이다. 이 글을 쓰는 동안에 경주에 두 번 다녀왔다. 실로 경주(慶州)의 그 오랜 세월에 씻길수록 한결 청아한 돌의 모습은 누구하고²¹⁾ 평안한 것을 내게 타일러 주는 것이다. 마치 안타까운 심령(心靈)이 흘러서 머물지 않는 세월의 그 큰 강물의 수군수군한²²⁾ 것에 기대고 맡겨 버리는 그런 위로와 위안을 얻는 것이다. 이 위안이야말로 내게는 서럽게 황홀하고 애달프게 평안한 것이었다.

지금 읽어보아도 이 문장은 소년다움게 씩스러운 것이나 시(詩)로 승화(昇華)하기 전의 내 마음에 머문 것이 이런 엉거주춤한 형식으로 이루어졌음은 나대로 소중한 것이라니 싶어서 감히 발표를 해보는 것이다.

20) 원문의 ‘어렸는’을 ‘어렸던’으로 봄.

21) 원문의 ‘누군하고’를 ‘누구하고’로 봄.

22) 원문의 ‘수군한’을 ‘수군수군하는’으로 봄.

무경적도시(無警笛都市)

지상의 극락세계라고 불리는 하와이의 수도인 호놀룰루는 미국 유일의 무경적 도시라는 종일조각이 붙여 있으며 인구 32만에 자동차 수가 약 10만 대나 되고 보니 2, 3인테 대하여 자동차 1대 정도로 갖고 있는 셈이며 가로(街路)는 자동차 홍수를 이루고 있고, 보도(歩道)는 오고가는 사람으로 연달아 있음으로 유난히 혼잡을 이루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조금도 귀(耳)에 거슬릴 정도의 잡음이나 소음은 없다.

전차는 일찍이 그 자취를 감추고 전부 소리 없는 버스만이 달리고 있으며 그리고 점포(店鋪) 두(頭)에는 그리 요란스러운 확성기는 일절 없다. 특매(特賣) 대출(大出)의 경품(景品)이나 복첨(福籤) 같은 인객(引客) 선전은 이곳 하와이 사행(射倂)금지법으로서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잡음도 없거니와 아무리 보아도 왕래하는 자동차의 경적의 “띠—띠—”하고 마침내 싸우려는 듯이 요란스럽게 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이 가리(街里)의 소음을 없애고 있는 커다란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물론 이 가리의 교통정리도 충분히 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의 운전자 자신들도 서로 사양한다는 습관이 되어 있는 고로 별로 경적을 요란스럽게 울릴 필요도 없을 듯도 하다. 이따로 하여 운전자로서 경적 유무의 존재를 잊어버린 사람도 많으며 연 1회 실시되는 자동차 안전주간(교통안전)에는 교통경관으로부터 자동차 점검을 받고 시험 삼아 경적을 울려보고 싶지만 그렇게 하여 도리어 그것이 빈정대는 것이 되어 경관으로부터 꾸지람을 듣는 것이 수두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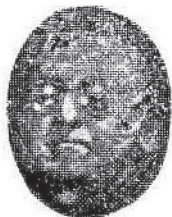


미술(美術)

현대(現代)의 거장(巨匠)

피카소 샤갈 마티스

로버트 C 윌슨 기(記)



현 세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어 있는 3대 화가—피카소, 마티스, 샤갈—는 이상스럽게도 남불(南佛) 리비에라에 있는 우뚝한 언덕위에서 같이 살며 같이 일하고 있다. 세 사람이 모두 노령인데 다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다 같이 말하기를 꺼려하고 있지만 정치에 대한 감수성만은 모두가 강하다. 그 세 사람의 거소(居所)를 찾아 말하자면 예술적인 순례를 하기로 하자!

「전쟁과 평화」를 그리는 피카소

파브로 피카소는 상냥하면서도 키가 작달막한 사람으로 나이가 71세, 그 집은 지중해에서 칸느시(市) 뒤 모서리에 깊숙이 들어간 곳에 있다. 피카소는 문전까지 나왔는데 골텐 쓰봉에다 베레 모(帽)를 쓰고 서츠는 거친 제작복을 입었는데 그 눈초리에는 번쩍이는 광채가 흐르고 있었다.

“미국 사람들은 내 그림을 펴 즐기는 모양이야. 그래서 내 그림 살 돈을 벌겠다고 열심히 것 같아……”

피카소는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다.

피카소는 아직도 공산당원이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않다고 한다. 활동할 필요도 없을 것이 “나는 그저 당에 이름을 빌려주고 있을 뿐이야. 그것만 해도 모두들 만족하고 있으니까.”

피카소의 친구들이 하는 말로는 달리 이 저명한 스페인 출신의 화가는 지금 「전쟁과 평화」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한다.

1950년에는 「한국(韓國)의 살육(殺戮)」이라는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과 때를 같이 하여 “그림도 또한 적에 대한 공방(攻防) 양면(兩面)의 전쟁 도구이다.”하는 성명서를 공표하였다.

피카소는 금년 4월에 로마에 가서 전람회를 열 작정이라 하였는데 미국 입국 수속 따위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피카소는 수년 전에 미국으로부터 여권의 사증을 거부당한 일이 있다. 그리고 1950년에는 또 저 세계평화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영국에 갔었다.

“미국인들이 내게 악감(惡感)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하나 아마 아직까지는 내게 여권을 사증해 줄만한 아량이 없지 않은가 한다. 미국인의 생활양식은 나도 좋아한다.”

이 공산주의자인 화가의 그림이 모스크바의 비평가들에게 혹평을 받는 수가 많다



〈상(上) 피카소〉
〈중(中) 마티스〉
〈하(下) 샤갈〉

는 사실에 대해서 그는 어깨를 주춤해 보이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그림이 거기서 금지되고 있지는 않아. 모스크바 친구들은 아직 내 착상(着想)이 마음에 들지 않을 뿐이야.”

그런데 피카소의 집 근처에 있는 15세기 때의 예배당을 손질하여 ‘평화의 예배당’으로 만든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은 즉 피카소는 그 계획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곤 이렇게 한 마디 덧붙이는 것이었다.

“나는 말이야. 평화란 말을 어디다 갖다 붙여도 기분이 좋아.”

이것으로 회전을 끝마치고 피카소의 아들 포올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집어탔다. 피카소는 매일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인테리 좌파(左派)의 마티스

앙리 마티스는 벌써 83세인데 1941년에 장(腸)수술을 한 뒤 사뭇 몸이 불편하다고 한다. 니스에 있는 아파트 멘트의 큼직한 방에 들어간 즉 옷을 똑바로 차려입고 베드 위에 앉아 있었다.

“이래 뵈두 하루에 한 3, 4시간은 일을 하네.”하고 말을 꺼낸다. 지금은 도자기 일을 착수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원에 장치할 도기의 원형으로 주문한 사람은 미국인의 바이야.

스튜디오의 한쪽 벽에는 적, 청, 황색의 지형(紙型)이란 저 마티스 특유의 어릿어릿할 만큼 단순한 감을 주는 얼굴의 스케치가 잔뜩 걸려 있다. 그리고 베드 바로 위 천정에는 마티스의 가족의 얼굴이 5, 6개 그려져 있다. 낚싯대 끝에다 붓을 잡아매어 가지고 그런 것이라 한다.

“저기에서 저런 걸 그린 것은 조금이라도 적막감을 잊어 볼려구 한 거지.”

불란서에서 마티스는 미조직(未組織) 인테리 좌파의 일원으로 알려져 있고 공산당의 여러 가지 활동에 이름을 빌려주고 있다.

정치에 대해서 물은 즉 마티스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한 번도 공산당원이 되 어본 적은 없네. 정치에 끌려들여간 일도 전혀 있을 리 없구. 이 넓은 세상에는 전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축들이 있는가 하면 평화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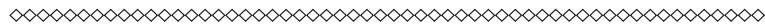
은테두리 안경 속에서 날카롭게 이쪽을 바라다보며 또 덧붙여 말하였다.

“평화가 되었으면 하고 자네도 그렇게 생각하겠지, 응? 나두 평화가 좋아. 난 평화를 탐구하는 사람들의 편이야.”

공산당(共產黨)이라면 질색인 샤갈²³⁾

마르크 샤갈은 마티스와 스튜디오를 공동으로 쓰고 있다. 샤갈은 30년 전에 러시아를 쫓겨 나온 고기장사의 아들. 피카소나 마찬가지로 샤갈도 도기(陶器)의 접시 그림을 많이 그리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 그림이 한 장에 650불이라는 시세에까지 오르 고 있다.

23) 원문의 사가르는 샤갈. Marc Chagall



나이는 65세 그는 반드시 성서(聖書)를 제재(題材)로 삼는다. “미국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모양이야.”하고 근심하고 있다.

제2차 대전 중에는 뉴욕에 가 있었는데 1947년 파리로 돌아왔다.

“내 일은 어디까지나 반공(反共)뿐이야.”

샤갈은 말한다. “될 수만 있다면 미국에 돌아가서 훌륭한 것을 남기고 싶어.”

그런데 샤갈도 역시 여권 사증 문제 때문에 옥신각신한 일이 있다. 샤갈 부인의 말을 들으면 대단한 일은 아니었다고 한다.

그 까닭은 샤갈은 리옹과 마르세유에도 가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미국 영사관에서는 두 번 다 트집을 잡았기 때문이다. 샤갈은 재입국의 사증을 얻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수속을 규칙대로 꾸미지 못했던 것이다.

샤갈은 베니스의 산중(山中)에 살고 있다. 매양 얼굴을 맞대는 사람은 그 지방의 의사와 가톨릭 신부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은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샤갈이 하는 일에 감탄하고 돌아간다 한다.

샤갈은 뉴욕 망명생활에서 돌아왔을 때의 파리의 인상을 몇 장의 캔버스에 연작(連作)으로 그리고 있다.

머지않아 「신약성서(新約聖書)」라는 그림을 완성하리라 하는데 이는 착색(着色) 석판화(石版畫)로서 120장이나 되는 거작(巨作)이다.

“나는 내 작품 가운데서 적어도 절반은 다시 손을 대거나 그렇지 않으면 찢어 없애거나 하고 싶은데 그런 걸 다시 사들이기 위한 돈이 갖고 싶다.”하고 샤갈은 말하였다.

음악(音樂)

세기(世紀)의 악성(樂聖)

토스카니니의 지휘법

밀튼 케이텀스

작년 가을 음악 시즌의 어느 날이다. 카네기 홀에서 NBC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회가 막 열리려는 열 시경이었다. 오케스트라는 이미 전원이 무대에 착석하고 지휘자의 등장을 기다릴 뿐이었다. 악사들이 악기를 조율하는 소리가 스피커에서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지휘자가 등장하십니다.”하는 소리와 함께 삼키우듯이 잠잠해지고 말았다. 물을 끼얹은 듯이 장내가 조용해졌다. 이러한 정숙은 지휘자로서 누구나 희망하는 바다. 어떤 악사는 제때로 자리를 바로 잡았고 또 어떤 악사는 의자를 당겨서 악보에 가깝게 다가 앉았다. 잠시 후에 까만 연주복에다 흰 머리가 들어나는 가름한 얼굴을 한 이날의 지휘자 토스카니니가 빠른 걸음걸이로 무대를 가로 질러 나왔다. 무대 가운데까지 온 그는 지휘대 위에 사뿐 올라서서는 익은 솜씨로 지휘봉을 쳐들고 부라암스하고 입을 열었다. 부라암스의 교향악 서곡이 카네기 홀의 넓은 장내에 울리기 시작한 것이다. 악사들은 제각기 긴장한 표정으로 세계의 위대한 지휘자 알투로 토스카니니가 지휘하는 오케스트라의 일원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예술의 극치에 도달하려는 듯 진지하게 노력하는 빛이 완연하였다. 토스카니니는 제1악장부터 최종 악장까지 조



용하게 지휘하였다. 마치 이 연주를 자기 기억에 영원히 아로새기고자 하는 듯한 그러한 표정이었다.

올해 87세의 고령에 달한 토스카니니는 이날을 기해서 다시 지휘대에 올라서게 되었다. 87세의 노구(老耄)를 이끌고 토스카니니가 다시 지휘봉을 들게 되었다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그의 지휘봉 아래서 일해 본 사람이나 또는 그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토스카니니가 음악에 대한 영원한 정열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음악가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토스카니니

NBC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일원으로 있을 때 나는 호주머니고 비올라 케이싱고 할 것 없이 연주한 악보를 가득이 채워가지고 다녔다. 집에 돌아갈 때는 토스카니니가 주의해준 음절과 연주법에 대한 것을 악보에 메모해 놓곤 하였다. 나는 토스카니니가 연주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하는데 감복하였다.

토스카니니는 연주곡목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세밀히 검토하고 음을 하나하나에 대하여 완전히 투명한 음을 내도록 악사들에게 주의를 해주었다. 악사들은 토스카니니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에서 새로운 계명(啓明)을 얻는 것이었다.

그제나 이제나 토스카니니의 진지한 태도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 그는 예민한 청각을 가진 사람으로 각 악기에 대하여 그 적절한 역할을 어김없게 하기 위하여 그의 악보 해석은 도저히 흉내 낼 수 없으리만큼 투명한 것이었다. 그가 한 줄기 멜로디 뒤에 숨은 음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베푸는 것은 악보 해석에 있어서 하나의 생명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음의 세밀한 부분에 주의를 기우린다고 해서 곡의 전체에 흐르는 음의 흐름에 대해서 등한히 하는 것은 아니다. 토스카니니는 어떠한 작품이든 주옥같이 투명해질 때까지 연습을 계속한다. 이러한 투명성이 그가 타고 난 나전적(羅典的)라틴적인 온화성과 또한 음악 뒤에 숨은 극적인 요소에 대한 이해와 삼위일체가 되어 토스카니니의 연주를 그렇게까지 위대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연주에 있어서는 각 악사들이 자기가 연주할 부분에 대하여 완전히 이를 파악하게 되며 지휘자 자신은 작곡가의 매개자로서가 아니라 그 음악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융합시키고 만다.

나는 토스카니니가 격분할 때가 있다고 하는데 대하여 질문을 받는 수가 많다. 내가 아는 한 이 말은 너무나 과장된 말이다. 어떤 악사가 연주하는 음이 좋지 못할 때 그가 화를 내는 수는 물론 없지 않다. 토스카니니는 자기의 최선을 다하고 그 대신 악사들에게도 같은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토스카니니가 화를 내는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반드시 음악적인 견지에서 오는 것이다. 토스카니니는 마음의 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한 곳에 대해서는 이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청각적인 이미지를 현실적인 악기 즉 오케스트라로서 현출(顯出)시키기 위해서 악보에 적힌 것은 물론 적히지 않은 것까지도 연주에 나타내려고 갖은 궁리를 다한다.

나는 토스카니니가 드뷔시²⁴⁾의 바다(La mer)²⁵⁾를 연습시킬 때의 일을 잊어버릴 수

24) 원문의 드뷔시는 드뷔시. Debussy

25) 원문의 La mes는 La mer



가 없다. 그는 그 교향악 한 곡절에서 점점 소리가 적어져가는 연주효과를 내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는 커다란 실크 흰 손수건을 호주머니에서 집어내더니 높이 집어던지었다. 오케스트라의 악사들은 그 손수건이 훨훨 날라 천 천히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황홀함을 느꼈다. 토스카니니는 만족한 얼굴로 말하였다.

“이걸 보십시오. 바로 이대로만 연주해 주십시오.”

토스카니니는 음악에 대한 둔감을 보고는 참지 못한다. 악사가 지휘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토스카니니는 화를 낸다. 악사가 틀린 일이 있을 지라도 스스로 그 틀렸음을 알고만 있으면 지휘자는 용서한다. 나는 토스카니니의 능란하고 웅변인 지휘봉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위치에 앉아 있을 때 몇 번인가 틀린 일이 있었다. 그러나 즉시로 나는 내가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다음 구절에 가서 나는 틀린 것을 이내 바로 잡았다. 토스카니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토스카니니는 또한 놀랄만한 심리학자다. 그 아래서 일한다는 것은 오묘한 연주법을 배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토스카니니가 아는 것과 하는 행동을 빼놓지 않고 전부 배울 수는 도저히 없다. 그가 하는 지휘법은 그만이 할 수 있는 일이며 그럼으로써 남이 흉내 내지 못할 훌륭한 효과를 내는 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토스카니니가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비결이 몇 가지 있다. 그는 악사들의 신경을 한 손으로 잡아 줄 수 있는 점에 정신을 집중시킨다. 악사들의 마음이 긴장하고 의욕이 집중되었을 때 비로소 그는 실 새 없이 일사천리로 지휘해 나간다. 이러한 준비 아래 들려나오는 연주는 그야말로 생생하고 찬란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다.

종교(宗教)

성서적(聖書的) 인류관(人類觀)

최성근(崔聖根)

사람은 영적 성질을 가지고 그 창조주와 교통하며 협동할 수 있는 존재로 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성서에 인류 기원을 설명하였다. 성서적(聖書的) 인류 역사관은 선지자들에게서 볼 수 있다.

개인이나 단체나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을 반항하므로 개인에게와 사회에게 재난을 가져오게 되었다. 하나님의 의(義)와 사람의 죄악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의 결과다. 선지자들은 측량 줄 비유(譬喻)를 써서 기울어진 담은 만유인력에 의하여 언제나 넘어지게 되는 것처럼 옳지 못한 국민은 망하고야 말 것을 가르쳤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사람이시므로 한 개인이나 민족이 잘못하였어도 회개하면 회복의 길은 열릴 것이라고 예언자들은 확신하였다.

성서적 인류관은 선지자들의 희망에 이미 암시되었으나 신약(新約)에서 더 분명히 말하였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이루어 질 것이다. 이 나라는 땅 위에 올 것이나 보이는 것들은 임시적이므로 그 종극적(終極的) 장소는 지금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일 것이다. 그러면 이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인류의



마지막 운명인가!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아무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계시록에는 상징적 수 14만 4천인(人)이 물에 섞인 유리 같은 바다의 언덕에서 하나님의 찬양하는 노래를 하는데 불경건한 사람들은 고통과 비탄으로 채우고 있다. 14만 4천인은 모디시어스 황제 때 죽은 순교자들이요 고통을 받는 자들은 짐승 숭배자들이다. 실로 선인과 악인의 운명에는 이런 구별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전부 포괄적 구속(救贖)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희망한 듯하다.

그는 두 획기적 인물 아담과 그리스도로 상징화한 것으로 역사를 관찰하였다. 전자는 죄와 사망이요 후자는 순종과 생명이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 전서 15장 22절. 그리고 로마서 11장 32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휼(矜恤)을 베풀려 함이로다.”하였다. CH 파드 교수는 마지막 구절을 해석하기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 같이 모든 사람은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써 영생을 얻게 된 것이다.” 하였다. 에베소서 1장 10절과 골로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되게 하시고 화목케 되게 하시는 것이다. 마지막 목표는 하나님이 만유(萬有) 안에 계시는” 것이다. 고린도 전서 15장 28절.

파드 교수는 말하기를 “이것은 전(全) 역사 과정의 의의(意義)다.”하였다.

독서(讀書)

수양(修養)과 독서(讀書)

조상원(趙相元)

나는 어려서 천지인간(天地人間) 만물지중(萬物之中) 유인최귀(唯人最貴) 이기유오륜(以其有五倫)……을 배웠고 그 다음엔 소위 황국신민(皇國臣民)을 배웠으며 이젠 민주주의를 배우고 있다. 이렇게 나는 봉건시대로부터 전체주의를 거쳐서 이제 다시 자유주의를 배우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신시대에 부합해야 할 표제의 글을 내게 쓰라고 하니 어처구니없는 일 같기도 하나 사람이 사는 도리란 결국 고금이 다름이 없으려니 하고 부과된 표제를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한다.

일본이 패망하고 나는 새 천지를 구경했다. 우리가 쓰고 있던 전체주의적인 모든 탈은 활짝 벗겨지고 조수처럼 도도히 밀고 들어오는 민주자유주의에 부닥쳤다. 그래서 새로운 유영법(游泳法)을 배워야만 이 신조(新潮)를 타고 살게끔 되었으니 여기서 나는 인생관 내지 세계관에 동요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며 따라서 내 수양 용도도 달라져야 할 것이 아니냐고 아직도 모색하고 있는 한 사람이다. 제반 생활양식이 날로 변해갈뿐더러 특히 청년들의 사유와 관물(觀物) 방법이 날로 달라지니 놀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려고 보면 아무리 불혹년(不惑年)이라 하나 때때로 내 사념도 지양(止揚)해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여하튼 수양이란 그 동기에 있어서는 매우 이기적인 것이다. 봉건시대나 전체주의시대나 자유주의시대나 그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목적에 있어선 각 개인의



심적인 만족을 기구(冀求)하자는 데에 있고 혹은 하나의 처세의 술(術)로서 수양한다고 생각한다. 그때 수양 의욕은 우리가 자유를 욕구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리인 것이다. 그 행동 결과에 있어서는 어떤 주상(主上)을 위했거나 전체를 위했거나 일개인을 위했거나 간에 요컨대 자기만족인 것이다. 톨스토이 인생론에 “인생이란 선과 행복에의 동경임에 불외(不外)한 것이다. 이 인간의 선을 향하여 나아가는 노력이 곧 인간의 생활이다.”고 한 것은 지언(至言)이라고 하겠다. 어떤 정치가가 자기 정치의 욕 구현의 수단으로서 그 국민 나아갈 수양 도표(道標)를 세워 놓았다 하더라도 그 개인이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드릴 수 있는 선(善)이 되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결코 맺지 못할 것이다.

소위 일본의 천황□관설에 대하여 천황현신설(天皇現身說)이 있었던 것은 그 호례(好例)라 하겠다.

이러므로 수양은 어디까지나 개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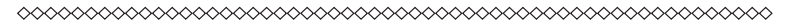
그런데 선이니 수양이니 하는 것은 어떤 종교가가 할 것이지 생존경쟁이 극렬(極烈)한 현대에서는 그런 관념적인 것은 무용하다 또 주장하고 간혹 수양의 필요를 느낀다 해도 그것은 경쟁 생활의 하나의 술(術)로서만 여기는 경향이 오늘의 사람들 심리에 그려있는 것을 나는 발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수양서를 읽기보다 흥미진진한 소설을 읽는 것이 나을 것이고 혹은 그런 비생산적인 소설보다 기능에 대한 서적을 읽는 것도 좋을 것이다.

우리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인지는 모르겠으나 독서에서나 교육에서나 덕육면(德育面)에 있어서 지극히 한산한 것 같이 생각된다. 독서하는 자는 교육을 받은 자요, 교육을 받은 자는 독서를 할 것이니 이래서야 될 것인가. 이것도 양풍(洋風)이라고 하면 그것뿐이겠지만 육식을 주식으로 하는 서양 사람과 채식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와 그 생리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수양과 독서는 불가분이다. 수양은 하나의 행(行)이기 때문이다. 독서만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나 그 계기를 주는 데는 절대적 힘을 가졌다. 어떤 책이건 간에 다량의 독서를 하는 사람을 대하였을 때 그가 품기는 기품은 넉넉히 그 가치를 발견한다. 이조(李朝) 정치가 조정암(趙靜庵) 선생이

“글 배우는 자는 성현(聖賢)되기를 기할 것이다. 이 같이 하여 성현의 역(域)에 도달치 못하더라도 뜻을 이같이 하고 격치성정(格致誠正)에 공을 들이면 차츰 성현의 역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고 말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도 십분 그 경지를 짐작하겠다.

지금 사람들의 심리가 이미 관념적인 수양서를 읽는다는 것을 거부하는 경향에 있으니 그럴 바에는 우리는 왕(往) 시대보다 양적으로 독서를 많이 한다면 어떻까고 생각해보자. 다시 말하면 우리는 ‘수양 있는 사람’이기보다 ‘교양 있는 사람’이 되어본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 두 어의(語義)를 상고(相考)해 보건대 청풍(淸風) 우리말 사전에 “교양은 가르쳐 기르는 것”이라 했고 “수양은 품성을 단련하는 것 또 지덕(知德)을 계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태면 교양은 지적이나 수양에 통하고 수양은 정 의적(情意的)이나 교양에 통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교양이 깊으면 수양이



되고 수양이 되면 교양도 깊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요컨대 수양은 감정 운동이다. 외계에서 오는 감정, 회로애락을 지적인 판단으로서 자기 지향하는 대로 의지력으로서 억제 조종하는 것이니 우리가 많은 독서를 하는 중에 자연 판단능력을 얻을 것이므로 이다.

그러나 아무리 전문서 만을 읽은 사람일지라도 그 안두(案頭)에 일반 수양서를 한 권쯤 두고 조석으로 할 줄씩 읽어주는 사람을 나는 지극 존경하고 또 그는 반드시 고을 이를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거듭하는 그의 시각의 인상과 머리를 통해서 그의 생리로 화(化)하기 때문에.

사진(寫眞)

◇ 걸작전쟁사진(傑作戰爭寫眞) ◇ 이오지마(硫黃島)의 용사(勇士)

계문두(桂文杜)

6명의 미국 해병사가 이오지마(硫黃島)의 스리바치산(摺鉢山) 정상에 성조기를 꽂는 이오지마의 용사라는 이 사진은 미국이 태평양 전쟁에서 얻은 유일한 걸작 전쟁사진으로서 유명하다. 당시 미국 해군은 6만의 해병대로서 26일간의 격전 끝에 이오지마를 점령하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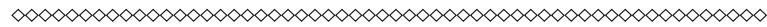
그러면 어째서 이 사진이 활용되었으며 유명해졌는가 하면 그것은 어떤 이름 있는 사진사의 손에서나 또는 촬영자가 명작을 의도해서 렌즈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한 중군기자의 우연한 기회에서 생겨났다는 것이다.

사실 오늘날 우리들은 이 사진을 도처에서 볼 수 있다. 그만큼 이 사진은 보급되어 있으며 세계에 널리 알려진 사진이다.

근착(近着) 외지(外誌)에 이 사진에 관계되는 하나의 흥미 있는 기사가 게재되었는데 여기에 의하면 당시 연승을 거듭하던 미 해군의 ‘섬 빼앗기’ 전선(戰線)에는 이 사진이 보여주는 바와 같은 광경은 그다지 진귀한 장면은 아니었다고 하며 마침 카메라를 소지하였던 한 중군기자가 이 극적 장면을 스냅해서 보내자 미국의 신문들이 일제히 이 사진을 일면에 장식하게 되어 일약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또한 당시 미 해군이 일본 본토에 접근하는 ‘섬 빼앗기’ 작전 중에서 가장 큰 규모와 격전으로서 점령하게 된 이오지마 작전과 결부시켜 사진이 가진



(사진 향해서 좌로부터 둘째가 이라 헤이즈 군)



감명을 한층 더 돋웠다는 이유도 있다. 또 이 사진을 더한층 유명하게 한 것은 사진이 세간의 화제가 되자 루즈벨트 대통령이 6명의 용사 중 생존자 3명을 위험한 일선 근무에서 본토 근무로 전속을 명령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진은 결작 전쟁사진으로서 푸릿자 상을 획득하였고 3명의 용사들은 전의(戰意)를 고양하는 뜻에서 본토 각지를 여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이오지마의 영웅으로서 대환영을 받았던 것은 좋았으나 그 중의 한 사람인 이라 헤이즈 군(君)이 파격적인 민중의 대우에 넘쳐 도리어 전락하게 되었다는 일종의 난센스가 최근 미국 시카고에서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있다.

작년 10월 어느 날 시카고 경찰은 뒷골목에서 이취(泥醉)한 한 청년을 인치(引致)하였다. 이튿날 아침 썬 타임스의 경찰기자가 청년의 이름에 기억이 있다고 해서 조사한 결과 이오지마에 성조기를 세운 용사의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그날의 신문에 크게 보도되었음은 물론 “우리의 용사를 구하자.”는 운동을 지면(紙面)에 전개하자 곧 생활비의 원조, 취직처(就職處) 등이 쇄도하였다는 이야기다.

헤이즈 군은 도처에서 악수와 술과 사인과 무용담의 질문에 질색할 지경에 빠졌다. 또 그가 인디언이라는 데서 색다른 취급도 받았고 또 리파푸릭 영화 존 웨인 주연의 「이오지마의 모래」에도 출연하는 등 그의 인기는 오히려 그를 괴롭히었다. 그는 너무나 지나친 이러한 인기와 환대 속에서 그만 전락하고 말았으나 자기를 이처럼 알아주고 동정하는 세론(世論)에 접하자 “이후부터는 단연 술에 입을 적시지 않겠다.”고 결심을 술회(述懷)하였던 것이다.

외지(外誌)에서

무용(舞踊)

무용발달(舞踊發達)의 50년사(年史)

마가렛 로이드 기(記)

지난 반세기를 통하여 무용계는 다른 예술계나 과학계에 떨어지지 않는 발전을 보 있었다.

연구와 발견, 쇄신과 개혁 등 갖은 전쟁을 통하여 무용은 새로운 발전을 가져오고 또 정리되었다.

2차에 걸친 세계대전이 무용의 발달을 다소 느리게 하기는 했으나 완전히 좌절시키지는 못하였다. 전쟁과 정치혁명의 재난을 입은 러시아 무용가들은 영국이나 미국으로 망명하여 발레연구소를 개설하였다. 1, 2차 대전 사이에 권위자의 이름을 몇 사람만 들더라도 아르헨티나와 아르헨티나, 유디 생커, 매아리, 월맨 등 서반아(西班牙), 인도(印度), 독일(獨逸) 등의 무용가들이 그 먼저 미국의 무용가 이사도라 다칸과루트 에넌트 네니스가 한 것처럼 구라파와 미국으로 공연 여행을 다녔다. 세인트 테니스 양(嬢)도 파트너인 테드 쇼운과 함께 극동 제국(諸國)으로 멀리 순행하였다. 안나 파블로브나와 세르스 디아기레프의 러시아 무용단과 그 소속 무용단 일행은 세계에 더욱 널



리 발레 예술을 보급시켰다. 요즈음에 와선 세드러 왈즈 발레단(團)이 내미(來美)하였고 동시에 미국 발레단은 구라파뿐만 아니라 남미, 캐나다, 기타 멕시코까지 순행하였다. 카테린 단햄과 그 네그로 무용가 일행들도 구라파와 암미 공연 여행을 하였으며 1950년 여름에는 미국 현대무용계를 대표하여 마르타 그라함, 호세 리몬의 2대가(大家)가 구라파를 순행하였다.

복잡한 현대무용계에 있어서 무용문화의 교환(交歡)은 중대한 의의가 있는 것이다. 3세기 전이나 질배없이 곳곳에 살아 있는 발레 예술은 현재에 있어서도 더욱 다양하고 융통성이 있어서 국제간의 이해와 우의를 도모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발레의 역사에는 항상 개혁가의 이름이 따르고 있다. 발레의 기교를 향상시키는 사람, 그 표현성을 양양시키는 사람, 찬란한 곡예성을 발전시키는가 하면 그 표현적 가치에서 새로운 수법을 고안해내어 관중의 심금을 울리기에 집중(執中)하는 사람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무용은 진보하면 할수록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본질의 일관성은 엄존(嚴存)하고 있다.

현대무용은 간접적이거나 단간의 통속성과 끌어오르는 의욕에서 그리고 사람의 몸은 인간 정신의 투명체라는 신념에서 발생한 것이며 이 무용은 메아리 월맨에 의하여 독일 표현주의(expressionism)에 까지 양양되고 미국의 마르타 그라함, 도리스 햄프리, 그리고 찰스 와이드맨의 특색 있는 예술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현대무용을 낳게 하는 데는 또 다른 영향이 있었던 것이다. 즉 꾸준한 노력을 계속하여 온 선구자가 있었으니 그것은 아사드라의 동시대인인 루트 세인트 테니스와 테드 쇼운의 두 사람으로서 미국 문화상 무용을 예술로서 확립시킨 인사들이다. 세인트 테니스는 동양의 신비주의와 타고난 기독교적 신앙으로써 종교적 표현을 연구하였고 테드 쇼운은 여러 가지 무용의 경험한 바를 의욕적으로 탐구하였으며 1915년에는 두 사람이 합작하여 저 유명한 테드 쇼운 무용학교 및 전속(專屬)무용단을 창립함으로써 미국 무용을 개척하였던 것이다.

현대의 3대 무용개혁가 그라함 햄프리 그리고 와이드맨은 모두가 이 획기적인 무용학교에서 수업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무용화를 신지 않고 추는 왜곡된 발레, 묘사적 무용, 그리고 동양적인 인상(印象) 표현, 그리고 음악의 형상화와 스페인 무용을 떠나서 전통적이 아닌 율동 그 자체의 원천을 구명(究明)하기 위하여 무용표현에 대한 개성 있는 새로운 개념을 얻으려 하였다. 그들의 율동은 내포적이기보다는 차라리 묘사적이었다. 그러한 무용에 대해선 특수한 음악이 필요하였다. 작곡가는 그러한 음악을 작곡하는데 난관에 부딪혔다. 사실(寫實)적인 무대 장치는 소용없었고 그 독창적인 장식은 미래의 무대 장식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마르타 그라함은 소박한 정서에서 담백하게 출발하였다. 그의 무용은 동적이고 충격적이며 어딘가 거센 점이 있었다. 모두들 거칠고 모가 나고 어두워서 보기에 거북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점차 인간의 사상을 탐구해서 그것은 날카롭게 표현하는 복잡한 방법을 발견해냈다. 그의 무용에는 인류를 이상화하는 고전 발레의 부드러운 유동성(流動性)이 없는 대신에 사람의 마음에 숨어 있는 식욕과 쉽사리 깨우치지 않는 정열을 뒤흔들어



주는 이상하게 왜곡된 어떤 것을 찾아 볼 수 있었다. 불유쾌한 일이다. 사람이란 그러한 일을 상기하지 좋아하지 않는 법이며 그러한 확실치 않을 일에 개의하려 들지 않는다. 그러나 여하튼 그것은 부득이한 일이었다.

악단이 극장 무용단으로 전신(轉身)하여 1930년 말부터는 대(大)무용극을 상연하게 되자 무용가 및 안무가로서의 마르타 그라함은 관중으로 하여금 웃기거나 동정을 사거나 또 반감을 사거나 낙망(落望)시키거나 자유자재하게 되었다. 저 명량한 희극 「마음의 서커스」(Every Soul is a Circus) 또 그 매혹적인 「세계에 주는 편지」(Letter to the world) 그리고 그 완고한 「지옥입문」(Deaths and Entrances) 끝으로 그 열렬한 「에페라차 산맥의 봄」 등의 관중은 수없이 많았고 널리 호평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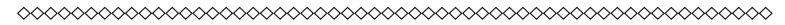
현대무용도 현대문학처럼 사람의 마음을 침침한 동굴을 찾아서 등불을 켜주는 것이다. 도리스 함프리는 그라함과는 또 전혀 달리 몸을 구사하여 어둠보다는 광명을 찾았다. 그는 사회악(社會惡)을 치료하려 하였다. 그라함에 비하면 박력은 마찬가지로 훨씬 둥글고 훨씬 유창하며 또한 서정적인 스타일의 율동으로써 인간성의 기미(機微)와 거기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를 보기 좋게 설명해 주었다. 「인생행로」(Race of life)와 「인류실화」(Story of mankind)는 함프리의 가장 날카로운 희극이다.

그런데 다년간 그라함의 파트너였던 찰스 와이드맨은 현대무용의 광대로선 제1인자가 되어 독자(獨自)의 스타일로서 인간의 약점을 찌른다. 그러나 이 역(亦) 심각한 일면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브라함 링컨의 인물을 묘사한 「분열된 일가」(A House Divided)라는 무용이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또한 「린취 타운」(Lynclitown)이 역증(逆證)하는 바와 같이 사회적 책임감이 없는 것도 아니다. 현대무용의 가장 간요(肝要)한 본질인 율동에 대해서 어떠한 공적을 남겼는가는 최근에 「현대식 교실」이란 무용이 명백히 나타내고 있는 바이다. 여하튼 와이드맨의 보람은 뭐니 뭐니 해도 유머에 있으며 그는 이 유머를 가장 영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오랫동안 함프리 와이드맨 무용단의 단원이었던 멕시코 출신 무용가 호세리몬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소질로서 무용 및 안부법의 스타일을 발전시켰다. 그는 조그만 무용단을 지휘하여 20년래로 내려오는 선구자의 고전적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라이랑슈」(Laalinche)와 「무어인」(人)의 공작무(孔雀舞)의 2대(大) 무용은 그 대표작이다.

오늘날 다수의 젊은 무용가들은 현대무용을 영원히 존속시키기 위하여 무용가로서 자심을 완성시키는 일밖에는 염두에 두지 않고 매일 맹훈련을 하고 있다. 주위의 발레 기술과 민족 무용의 아취(雅趣)를 흡수하여 새로운 수법을 창조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희극음악무용계는 이들에 의해서 날로 충실해 가고 있다. 이러한 탁월한 미국 예술을 미국 무용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는 것은 아마도 그것이 미국의 생활에서 탄생하는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미국 무용이라고 해서 반드시 한 개의 형식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국제적이며 민족을 초월한 것이다. 이를 테면 여러 민족의 문화와 의상을 그대로 보존한 민족무용, 콘서트나 무대에 연출한 민족무용인 것이다.

미국 무용이란 그 나라의 전통과 현 상태를 눈여겨보고 있는, 재빠르고 빈틈없는



미국인들이 아프리카, 서부 인도, 그리고 사보이 등지에서 따온 것이다. 또는 그 무용의 형식을 이해하고 애호하는 사람들이 재현한 고대 헤브라이 민족 그리고 현대 이스라엘인(人)의 무용인 것이다. 그것은 또한 후아라파, 라메리 그리고 그 밖의 여러 미국인들이 발표한 바와 같은 하와이 무용, 스페인 무용 그리고 힌두 무용이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레지날드와 클레이디 호린, 레스터 호튼 기타 여러 사람의 작품에 나타난 바와 같은 아메리카 인디언의 무용이기도 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미국 무용은 발레이기도 하다. 발레는 1933년에 W 드바질 대좌(大佐)가 러시아 발레를 처음으로 미국에서 재현시켰을 때부터 발달하여 온 것이다. 미국 무용은 세계 무용의 축소(縮圖)이다. 흔히 발레라고 선전하는 수가 많지만 이 세계 무용이 그려내는 것이 모두가 발레는 아니다. 발레는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예외 없이 사랑하는 무용형식인 까닭에 그렇게 혼동되는 수가 많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자유로운 팔다리의 구사 또는 맨발 끝으로 서는 것 특히 추구적인 현대무용 정신이 고전무용 예술에 침투하고 있으며 현재 발레는 현대무용처럼 율동으로서 숨은 모티브, 정신적 갈등, 그리고 욕망 등을 표현하여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것이다. 그런데 종래에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오던 견해에 의하면 외면에 나타나는 정서야말로 사람의 마음에 호소하는 힘이 더욱 강하다는 것이다.

영화(映畵)

줄리어스 시저

외지(外誌)에서

줄리어스 시저 해설

사용(沙翁)의 유명한 비극을 충실히 영화화(映畵化)한 조셉 맨키위츠의 감독으로 일류 명우(名優)가 총출연하고 있다.

루이스 칼파니 시저, 제임스 메이슨의 브루터스, 마아론 부란드의 마야크 아도니, 존 길라르의 카시어스, 그리아 가슨의 카리비니아, 테보라카의 포모티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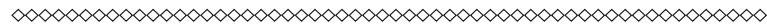
전반은 거의 무대극이 되어 있고 대화와 독백이 연속된다. 그러나 그 힘찬 연기와 명대사가 지리한 감에 빠트리기 쉬운 장면의 무변화를 넘어 관객을 앞으로 앞으로 이끌어 나간다. 특히 시저의 독재를 구구(懼懼)한 브루터스, 카시어스의 일미(一味)가 시저를 자살(刺殺)하고 군중이 안토니의 교묘한 연술(演述)에 끌려가려는 장면까지는 가장 무대극적(舞臺劇的)인 효과를 나타내었다.

6명의 자객에 무참한 칼날을 받아 전신 피투성이가 된 시저가 7인 제의 부루터스의 앞으로 기어간다. 깊은 우정을 가지고 있는 브루터스는 일순 허물어지는 자신의 마음을 격려해서 최후의 일□을 시저의 가슴에 가한다.

“브루터스, 너까지 나를……”

하고 절망적인 한 마디를 남기고 시저는 넘어간다. 여기가 사용의 이름 높은 명무대(名舞臺).

처음의 브루터스와 카시어스의 주고받는 대화에는 의미도 깊지만 맛있는 회화들이



다. 시저의 군주정치가 출현하는 것 같다는 세정(世情)에

“로마는 위인(偉人)을 낳을 힘을 잃었다.”던가 “자기와 같은 인간을 두려워하게 된 세상(世相)”이라는 등은 팬키워즈의 무엇인가를 빈정대는 것 같은 맛도 엿보인다.

(1월 6일 대구(大邱) 미국공보원(美國公報院)에서 시사(試寫)를 보고, Y생(生))

☆ 스토리

줄리어스 시저

때는 기원전 44년 로마거리이다. 바야흐로 줄리어스 시저가 한때의 영웅인 본베이라스 일당을 치고 개선한다고 하며 거리거리는 그의 환영 준비에 바쁘다. 그러나 브루터스를 위시(爲始)한 그의 측근자들 사이에는 도리어 냉랭한 공기가 떠돌기 시작한다. 마구 밀려오는 세력은 시저로 하여금 독재자 혹은 왕으로 맞아들여 공화정체를 자랑하는 로마의 전제군주가 될 우려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본래 성품이 청결한 브루터스는 오로지 로마의 장래를 걱정할 뿐이나 그 중에는 시저의 세력을 질시(嫉視)하여 인망(人望) 있는 브루터스를 내세우려는 패도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 악대를 선두로 한 시저의 행렬은 시민들의 환영 하에 오늘의 류바칼의 제일(祭日)을 축하하는 경기장으로 향하고 있다. 이때 군중 속에서 시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 돌아본 즉 같은 음성으로

“3월 15일을 조심하시오.”한다.

이리하여 시저는 행렬과 같이 경기장으로 사라졌다. 많은 군중도 뒤따라갔다. 인적 없는 경기장 밖에는 브루터스와 그의 의형제인 카시어스만이 남아 있었다.

“경주는 안 보시나요?” 타시어스가 묻자

“나는 별로 취미가 없어서, 나를 상관 말고 가보시오.”

“웬 일로 당신은 요즈음 나에게 그렇게도 냉정하신가요. 무슨 걱정이나 있으신지.”

“원, 나는 좀 생각하는 바가 있어 그만.”

이때 경기장 안에서 갈채와 열광의 소리가 들리자 브루터스는 안색이 달라지며 □□□□□□ 혹시 시저를 왕으로 추대하는 것이나 아닌지?”

“그럼 당신도 시저를 왕으로 하고 싶지 않으시군요.”

“물론. 그러나 내가 시저를 사랑하는 마음은 아직도 변함없으며 또한 그와 로마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원할 수밖에.”

“그렇다면 당신과 시저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는 로마 대공화국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조상들은 이 나라에 왕을 둔다면 도리어 악마를 군림시키는 것이 좋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도 잘 알고 있어. 하나 오늘과 같은 위태로운 시대가 또다시 계속된다면 차라리 나는 무명의 농민이 나올 것 같소.”

이대 경기장에서 카스카가 나오기에 그를 붙잡고 경기장의 동향을 묻는다.

“실은 시저에게 세 번이나 왕관이 씌워졌습니다.”

브루터스는 한 발 다가서며



“그래 시저는?”

“네. 그는 세 번이나 거절했지요. 처음에는 세계, 그러나 두 번 거듭할수록 그 손의 힘이 약해지는 듯 보였습니다만 군중은 그때마다 갈채를 하며 굉장했어요.”

“그럼 왕관을 거절은 했으나 본심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대체 왕관을 바친 자는?”

“안토니입니다.”

이날 밤 브루터스는 잠 못 이룬 채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겨있다. 독재자로부터 왕이 되려는 시저에 대해서는 아무런 원한도 없었으나 선조들이 피땀으로 이룬 시민을 위한 공화정체가 위태로운 것을 생각하면 그냥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이때 시동(侍童)이 한 장의 편지를 가져왔다.

“에, 내일이 며칠인지 알아봐라.”고 하여 밖으로 내보내고 글을 펴보니

“브루터스, 잠에서 깨어나라. 로마를 구하며 선조들의 뜻을 받들라. 유지 일동(一同)”

브루터스의 조상은 한때 다구잉 왕 일족(一族)을 로마에서 쫓아내고 시민을 그의 전제(專制)에서 지켜왔다. 지금 또 로마 시민은 브루터스로 하여금 로마를 구하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도 마음이 밝아진다. 시동이 들어와서

“내일이 3월 15일입니다.”

잠시 후 시동에게 안내되어 카스카를 선두로 카시어스, 데샤쓰 등이 외투로 얼굴을 둘러싸고 들어온다.

“당신을 존경하며 당신께서 로마의 여론대로 태도를 취해주실 것을 원합니다.”

여기서 일동은 합심하여 명일 의사당으로 시저를 이끌어내어 암살할 것을 계획하고 헤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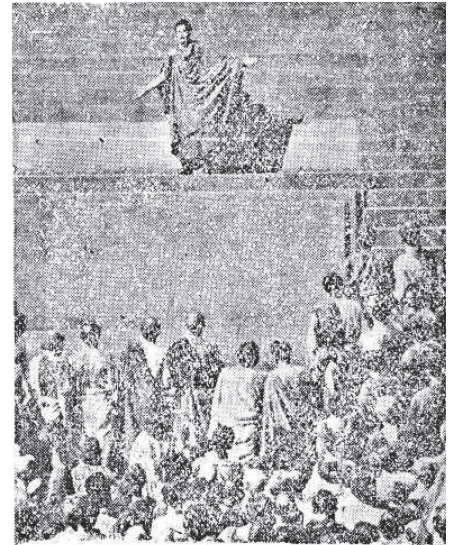
브루터스의 아내 포오티야는 잠을 깨어보니 옆에 있어야 할 남편이 없음으로 잠옷 바람으로 침실에서 뛰어나온다.

“당신은 무슨 일로 침실을 잊고 생각만 하시는지 말씀을 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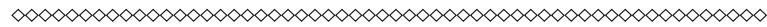
아름다운 얼굴에도 근심이 가득하다.

“아니, 근심이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 무엇 때문에 옷도 안 입으시고 찬 밤바람을 쏘이고, 일심동체가 부부의 맹세가 아니었던가요. 심정을 털어놓고 말씀□□□□ 라고는 하지만 마치 창부와도 같은 여



줄리어스 시저의 한 장면



자입니다.”

브루터스는 아내의 이 호소가 깊이 가슴을 찔렀으나 이 비밀만은 말할 수가 없었다.

시저도 이날 잠 괴로운 하룻밤을 지냈다. 그는 세 번이나 그의 아내 칼푸니아가 잠꼬대로 “사람 살리우, 시저가 죽는다.”고 소리치는데 놀래 깨었다.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신전에 제사를 지내고 신의 뜻을 알아보도록 하며 자기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애를 썼다. 거기에 칼푸니아도 나타나 어젯밤의 괴이한 꿈 이야기와 거리에서 생긴 일들을 고하며 출타(出他)를 만류하였으나 고집이 센 시저는 그대로 의사당으로 나갔다.

믿을 수 없는 것인지 이날 의사당 앞의 석단(石段)에는 이 암살계획을 안 아테미도라쓰가 이를 경고하는 문서를 시저에게 전달코자 기다리고 있었으나 암살당의 방해로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 서면을 받아 읽었더라면 시저가 암살당하지 않았을는지도 모르며 아니 세계의 역사 그 자체에 큰 변화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일행이 의사당으로 들어가자 계획에 따라 시저 곁에 있던 안토니를 밖으로 나가게 하고 먼저 메테라쓰 신바가 추방당한 형의 사면을 시저에게 원하므로 막을 열었다. 물론 시저는 단호히 반대했다. 그러자 브루터스, 카시어스가 모두 이 사면을 원하니

“시저는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일단 정한 일을 사정(私情)과 추종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이 끝나자

“이렇다면 완력(腕力)으로라도”하며 카스카를 선두로 단점으로 시저를 찔렀다.

시저는 상처를 입어 비틀거리며 자기를 찌르려고 하지 않는 브루터스에게 다가오며 구원을 받으려고 하며 참고 있던 브루터스도 그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자

“브루터스, 너까지 나를”하며 시저의 거체(巨體)가 그 자리에 쓰러졌다.

이 소식은 의사당 내외로부터 로마 시내로 퍼졌다. 의사당 앞 광장에는 진상을 알고자 시민들이 구름같이 모여왔다.

이때 안토니의 부하가 브루터스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안토니는 시저의 죽은 것을 알자 집으로 도망했으나 지금 사자를 보내어 면회를 청했다.

“주인은 브루터스 씨(氏)께서 신변의 안전을 보장해 주신다면 와서 시저를 죽인 이유를 알고자 합니다. 주인은 시저도 존경하지만 브루터스 씨도 인품이 높고 덕이 많은 분으로 믿고 있으며 때에 따라서 브루터스 씨에게 충성을 다하고 운명을 같이 할 것을 야기지 않겠다고 합니다.” 브루터스는 안토니의 몸매 해를 끼칠 의사가 없음을 전하여 사자를 돌려보냈다.

마침내 안토니는 조심스럽게 그 자리에 나타나 브루터스 앞에 꿇어앉아서

“제군(諸君)이 시저를 죽인 이유를 설명해 주실 것을 믿으며 저에게 시저의 유해를 광장연단에 내놓고 친구의 한 사람으로서 조사(弔辭)를 하고 매장으로 하게끔 해주십시오.” 브루터스는 이를 승낙하고 이에 앞서 시민들에게 시저를 죽인 이유를 설명코자 의사당 앞에 나타나자 군중은 환호의 소리를 냈다.

“제군, 왜 내가 시저를 찔렀던가 이유를 들어주기 바란다. 만약 제 군중에는 브루터



스를 원망하는 이가 있을지 모르나 시저 개인을 미워써 죽인 것이 아니라 시저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로마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컸다고 답변하고 싶다. 나는 시저가 살므로 제군이 그의 노예가 되는 것 보다는 시저를 죽이므로 자유의 인민으로 될 것을 원합니다. 나의 로마 시민이 친구를 죽인 것으로 나에게 짐을 드는 자가 있다면 어느 때든지 달게 받을 각오입니다.”

브루터스를 찬양하는 소리가 군중 속에서 끓어오른다. 뒤를 이어 안토니가 시저의 유해를 메고 나왔다.

“내가 여기에 나선 것은 죽은 시저를 위한 조사를 드리려는 것이지 그를 칭찬코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브루터스는 야망가라고 하였지요마는 시저는 많은 포로를 로마로 데려와 그 상금을 남김없이 국고에 바쳤으며 한때는 굶주린 자로 눈물을 흘렸으며 여러분이 보신바와 같이 시저는 자기에게 오는 왕관을 세 번이나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브루터스는 공명정대한 분이기에 나는 결코 그를 공격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에게의 시저의 유언서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보여 주게.”하는 소리가 군중 틈에서 나온다.

“시저는 그렇게 무참히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유언에 따라 로마 시민 각 사람에게 75도라구마를 나눠주며 소유지 일체를 양도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군중은 완전히 들고 일어섰다. 각각 시저의 덕을 찬양하며 그를 위한 복수를 맹세했다.

이리하여 브루터스는 안토니에게 패배를 하고 로마를 떠나고 얼마 후 그들은 피릿파이에서 싸우게 된다. 이 전투에서 브루터스는 가시어스와 같이 안토니 군에서 패배를 당하고 두 사람은 자결함으로써 쓸쓸히 피릿파이의 이슬로 사라지는 것이다. (끝)

미국(美國)은 과연(果然) 수폭공격(水爆攻撃)을 저지(阻止)할 수 있을까?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 지(誌)에서

미국은 소련의 수소탄(水素彈) 공격(攻撃)에 대비하여 어느 정도로 방어태세(防禦態勢)를 갖추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 약(弱)한 것은 아니다. 미국의 국방 계획을 일견(一見)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방공태세(防空態勢)는 점차로 강화되고 있고 이에 이미 90개 대대(大隊)의 제트전투기, 113개의 대공포대대(對空砲大隊), 1만 2천의 대공감시소(對空監視所) 및 광범위한 전파탐지망(電波探知網)이 포함되어 있다.

소련 폭격기(爆撃機)에 의한 어떠한 공격이라도 능히 저지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는 멀지 않아 완비(完備)될 것이다.

— ◁ · ▷ —

“미국은 소련의 수소탄 공격에 대비하여 완전한 태세를 갖추고 있는가?” 이것은 현재 미국 정부와 민간에서 논의되고 있는 하나의 커다란 문제이다.

미 합동참모본부 의장 아더 W 태드포드 제독은 미국의 방공태세는 아직 불완전하며 수소탄 공격의 위협에 대비하려면 앞으로 방공체제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명하고 있다.

미국 민간방위 당국에서는 만일 수소탄 공격에 대한 실제적인 방위계획을 수립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국 도시를 완전히 소개(疏開)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도대체 그 실정은 어떠한 것인가? 수개(數個)의 도시를 한꺼번에 소멸시킬 수 있는 그 초폭탄(超爆彈)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은 어느 정도로 면(免)할 수 있는 것일까? 이미 수립된, 그리고 현재 고려되고 있는 방위계획은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다.

현재 수소탄 공격에 대한 방공의 핵심은 유사시에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 있다.

그 방공체제는 미국에 침입하려는 적 폭격기대의 탐지, 요격 및 격추의 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는 점차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전파탐지망, 31만 6천 명의 대공감시원, 90개 대대의 제트요격기, 113개의 대공포대대, 4백 16만 6천 명으로 구성된 민간 방

위키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 방공체제가 유사시에 어떻게 그 기능을 발휘하느냐는 다음 일람표에 설명되어 있다.

어리한 방공체제가 미국의 도시 및 공장 등을 방위하는 것은 적당한 환경 밑에서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다음과 같은 환경에서는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다.

즉, 공격해 오는 폭격기대의 탐지는 아직 완전치 못하며 만일 폭격기들이 현 전파망의 큰 틈을 뚫고 침입하고, 어둠과 악천후(惡天候) 때문에 대공감시원들이 그것을 발견치 못할 경우에 그 탐지는 매우 곤란해 질 것이다.

그리고 그 침입을 탐지했다 할지라도 적 폭격기의 요격은 확실치 않다. 현재 제트기대가 24시간을 통해서 미 전국을 경계하고 있는데 그중 2개 대대가 시카고 지방을 경비하고 있고 명령이 내려면 불과 수분 만에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 그러나 그 90개 대대가운데 야간과 악천후에 있어서의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전천후(全天候)전투기로 장비되어 있는 대대는 아직도 얼마 되지 않는다.

현재의 대공포대대도 적 폭격기들이 중요한 표적에 접근하기 전에 그들을 격추할 수 있다고는 장담할 수 없다. 대부분의 대대는 전파로 조종하고 지극히 정확한 스카이 스위퍼(소천(掃天)) 포로 장비되어 있으나 그 사정(射程)이 한정되어 있고 매우 높이 비행하는 비행기에 대해서는 그 성능이 확실치 않은 것이다.

그러나 소련 폭격기대에 관한 새로운 정보에 따라 현재의 방공체제를 개선할 것을 고려중에 있다. 최근의 정보에 의하면 소련은 현재 B-36형(型)의 고도비행(高度飛行), 제트 프로펠러 겸비의 폭격기와 B-47형의 음속(音速) 제트폭격기를 제조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들은 모두 미국의 어느 지방에라도 수소탄을 운반하여 공격할 수 있는 것이다.

소련은 아 밖에도 거대한 B-29형 폭격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미 계획되고 있는 현재의 미국 방공체제의 개선은 소련의 이러한 발전을 능히 무력화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1년 이내에 현재 계획되고 있는 새로운 장비는 미국 방공의 효과에—적 수소탄폭격기의 탐지와 격파에—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그때까지는 많은 미국 도시와 전략 지역을 경비하고 있는 대공포대대들이 새로운 대공유도탄(對空誘導彈)을 실지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육군의 몇몇 부대들은 이미 그 사용법을 교육받고 있는 것이다.

나이크형(型)의 이러한 유도탄들은 이미 생산되고 있는데 이들은 지상(地上)에서 전파로 유도하는 것으로서 적기(敵機)를 추격하여 적기가 눈에 보이든 또는 어떻게 도망하려고 애쓰든 반드시 백발백중으로 명중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도탄들은 현재 제조되고 있는 것이나 또는 연구 중에 있는 어떠한 폭격기보다도 높이 상승할 수 있는 것이다.

접근하는 수소탄폭격기로부터 미국을 방위하기 위한 요격기도 또한 앞으로

1년 대대 훨씬 효과적이 될 것이다. 미 전국을 경비하고 있는 제트전투기대대의 전부 혹은 그 대대분이 그때까지는 F-86D, F-94C 혹은 F-89 제트기와 같은 전천후전투기로 장비될 것이다.

한편 공격해 오는 폭격기대를 탐지하는 수단도 앞으로 1년 내에는 훨씬 더 효과적이 될 것이다. 앞으로 민간 대공감시원을 50만으로 증가하여 36개 주에 있는 2만 개의 감시소를 24시간제로 운영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것은 미 전국을 통해서 인구가 조밀한 지역에 8마일마다 하나의 감시소가 설치되는 셈이다.

그리고 현재의 전파탐지망의 틈도 그 기간을 통해서 점차로 빈틈없이 메꾸어질 것이다. 여기에 있어서의 목표는 알래스카와 캐나다 방면으로부터의 침입을 포착하기 위한 전파탐지망을 확립하는 동시에 대서양 및 태평양 연안에 전파탐지망을 전개하기 위한 해상 초계함대(哨戒艦隊)를 배치하는 것이다. 언제까지 이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리하여 대공감시원과 전파탐지소로부터의 경고는 미 전국을 통해서 최소한도 한 개는 있는 150개의 방공본부에 전달되어 적 폭격기가 발견된 후 3분 후에는 공습경보에 돌입하고 요격기가 출동하게 된다.

소련의 수소탄 공격에 대한 미국의 방공계획은 이 정도로 확고하다. 완비되면 이 방공체제는 복잡해지고 막대한 경비를 요하게 될 것이지만 이때까지의 어떠한 계획보다도 가장 완전한 것이 될 것이다. 이 체제 하에서는 공격해 오는 적기의 탐지는 용이하고, 한 번 탐지되면 적기의 요격은 더욱 용이하며 미국의 각 도시를 경비하는 유도탄의 사정 내에 들어오는 적 폭격기의 격추는 사실상 100%인 것이다.

더욱이 현재 발명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장치는 계획 중에 있는 미국의 방공을 훨씬 더 강화할 것이다.

최근 영국은 시속 2,000마일의 대공(對空) 로켓탄을 발명하였다고 발표하였는데 이 로켓탄의 전자뇌(電子腦)는 인간 조종의 어떠한 폭격기의 지혜보다도 우수하며 어떠한 비행기보다도 높이 상승하고 민첩하며 전파탐지기에 의해서 반드시 적 폭격기에 명중하는 것이다.

첫째로, 적 폭격기를 발견하는 것도 또한 최근 발표된 새로운 비행전파탐지소의 등장과 더불어 용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전파탐지장치를 가진 고도로 비행하는 정찰기이다. 목적은 지평선 너머에는 도달하지 않는 전파를 고도에서 광대한 지역에 방사(放射)함에 있다. 이 전파탐지비행기의 일부는 초계함과 협조하여 수백 마일에 달하는 미국 해안선에 전파탐지망을 설치하여 전(全) 해안 지역을 방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발명과 계획되고 착수되고 있는 방공체제는 어떠한 소련이 수소탄 공격에도 능히 대항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위라는 것을 시가하고 있다.

한편 보복(報復)을 가할 수 있는 40 내지 50개의 강력한 미 공군 폭격비행단(爆撃飛行團)들은 미국에 대한 소련의 수소탄 공격을 견제하고 있다. B-36, B-47,

B-50 및 약간의 B-29 폭격기로서 구성되어 있는 이 비행단들은 미국 그린란드, 알래스카, 극동(極東), 영국(英國) 유럽대륙 및 북아프리카 등지의 기지에서 24시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이 미국의 방공체제가 완비되면 어느 정도로 그 효과를 발휘할 것인가는 두고 보아야만 알 일이다. 예를 들자면 소련 잠수함에 의한 수소탄 공격은 거의 탐지하거나 방지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다. 장거리 유도탄도 그것을 저지할 수 있을지 분명치 않다. 그러나 기대되고 있는 바와 같이 만일 1,000대의 소련 대형 장거리 폭격기대가 수소탄 공격을 가해 온다면 앞으로 완비될 미국의 방공체제는 능히 이를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 ◁ · ▷ —

수소탄공격에 대한 미국의 방공체제 일람(一覽)

① 적 폭격기의 탐지

미국의 하늘은 국내에 있는 11,800개의 대공감시소, 대서양 및 태평양 연안, 알래스카, 캐나다, 그린란드 지역에 전개되어 있는 전파탐지망과 그리고 해상 초계함에 의해서 감시되고 있다.

② 공격해 오는 적 폭격기의 요격

전 미국을 제트전투기 90개 대대가 24시간 경계하고 있다. 이 전투기대는 F-86D, F-94C 및 F-89 제트전천후기(全天候機)로 장비되어가고 있다.

③ 적 폭격기의 격추

중요한 지역은 전파조종의 스카이스위퍼 포(砲)로 장비된 1,113개의 대공포대대에 의해서 방위되고 있다. 앞으로 1년 내에 그 대부분은 대공유도탄으로 장비될 것이다.

④ 민간방위(民間防衛)

수소탄 공격에 대비하는 대피호 구급처치, 도시의 소개(疏開) 등에 관한 계획은 현재 완성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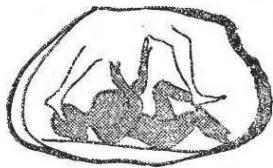
⑤ 반격(反擊)

미국, 그린란드, 알래스카, 오키나와, 영국, 유럽, 북아프리카의 여러 기지에 있는 40개의 보복 폭격비행단은 항상 원자무기로 반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종합(綜合)의 미(美)

새로운 지성(知性)을 대표(代表)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김영수(金英壽)



르네상스가 정치, 철학, 종교, 과학, 문학, 미술 등 문화라고 일컫는 일체의 것을 종합적으로 포함한 혁신적인 사적(史的) 범주에 속한 것은 이미 오늘날에 와서는 누구나 의심하지 않는 바이어니와 그리하여 또 르네상스의 우수

한 지식인들이 완전한 인간 혹은 우주적인 인간이 되기까지 자기의 본직 이외의 일에도 더욱 많은 재능을 보였던 것은 또한 의심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우리들은 그것을 예로 들자면 사학자이며 명문가(名文家)인 마키아벨리에게서 또 철학자이고 과학적인 사유 방법을 세운 부루노에게 성자(聖者)이며 자연 시인인 푸란체스코에게서 과학자이며 문학적 천재를 가진 갈릴레오에게서 시인이자 정치가인 단테에게서 화가이며 건축가, 조각가인 지오토와 미켈란젤로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대의 특성과 개인으로 만능의 재(才)를 가진 자 중에서 우리들 눈에 띄는 것은 예술과 과학의 미묘한 일치이다. 근대에 있어서 서로 이반(離反)할 것 같은 예술과 과학은 이반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같은 창조정신과 미적(美的) 정신으로 통하는 예술과 과학 예술가와 과학자의 일치가 없었더라면 르네상스의 사적 의미는 반감(半減)했을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고금에 예(例)가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니 레오나르도의 거대함은 개인으로서 커다란 것을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르네상스라는 시대의 거대함을 나타내고 있다. 르네상스의 전(全) 정신과 전 창조는 이 거대한 가운데 요약해서 표현되었다고 말해도 과장이 아니다. 먼저 예술가로서는 화가, 건축가, 조각가의 전부를 그는 겸하였으며 학자로서의 그는 비교해부학, 생리학, 식물학지질학, 고물학(古物學), 수학의 제(諸) 영역에 깊이 들어갔고 자연과학자로서의 그는 공학, 역학, 천문학, 기상학까지 손을 뻗쳤고 그 위에다가 과학적 발명으로서 항공기, 병기, 축성(築城), 토목, 수도(水道) 등 그 외 백반(百般)의 계획과 창안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 만능은 실로 경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위에 그가 후세에 남긴 제종(諸種)의 수상록(隨想錄), 노트의 유(類)가 과학적 문장이라고 할 훌륭한 문학 형식을 갖추어 있는 것은 더욱 놀랄 만하다.

레오나르도라고 하는 개인에 나타난 감정과 나란히 하여 지성(知性)의 다성(多性)의 다양성은 르네상스라는 시대의 다양성에 지나지 않는다. 그가 예술 면으로 회화, 건축 조각의 조형 미술로부터 문학에 이르기까지 비상한 천재성을 보인 것은 그 시대의 문화가 정말 이러한 복잡함과 종합성을 가지고 있는 증과이기도 하겠지만 그

는 시대의 문화적 지향을 온몸에 지니고 있는 것이 또한 확실하다.

그러나 그는 예술과 과학을 그저 각각 별개의 존재로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와 르네상스에 있어서의 예술과 과학은 전연 하나인 것이었다. 그의 사색과 기술 실전은 양자의 통일 있는 조화와 종합 가운데서 그렇게도 굉장한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그를 만능선수로 한 근본의 소인(素因)은 사람들이 말하는 “레오나르도의 창조정신과 르네상스의 창조정신” 그것이다.

레오나르도는 전부의 자연형상과 그것으로 환기된 인간의 창조적 본능을 미(美)에서 보고 잡았다. 그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창조의 정신과 본능의 움직임이 있어 처음으로 미가 존재의 의의로 가쳐온 것이다. 예술이라고 하고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은 필경 그에게 있어서는 우주와 맺어진 아름다운 창조정신의 표현 방법의 상위(相違)에 지나지 않는다. 그가 신에 가까운 완전형의 인간인 것은 이러한 우주적 조화의 의미에 있어서이다.

따라서 우리들은 예술로서의 레오나르도와 과학자로서의 레오나르도를 확연(劃然)이 양면으로 나눌 수는 없다. 그의 입장에 있어서는 예술은 항상 과학을 그 기초로 하고 있었다. 과학은 언제나 예술적인 판타지를 따르는 이상세계(理想世界)의 건설과 기획을 그의 목적으로 하였다.

예술과 과학, 과학과 예술의 교착은 그의 작품과 수기(手記)의 곳곳에서 볼 수 있으나 회화에 있어서 원근법, 투시법, 빛과 그림자, 공간, 물질감, 인체의 구조는 그의 기하학, 광학, 화학, 기상학, 토목학, 지질학, 해부학 등의 결과라고 말하는 아직 과학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상적 설계는 그 초인(超人)의 예술적 우수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자면 그의 유화는 소묘가운데 때때로 그려낸 암석은 지질학을, 정세(精細)한 식물 사생(寫生)은 식물학을 인체의 모양과 동작과 해부학과 역학을 풍경의 구도와 명함은 기하학과 광학의 연구를 나타내는데 있어서의 그의 과학적인 설계는 거의 전부 그것이 실전에 옮겨지기 전에 먼저 회화적인 스케치 또는 메모로서 디자인 품으로 그려있다.

아무리 만능의 초인이라 할지라도 그도 또한 인간인 이상 예술과 과학에 관해서 과제를 전부 구체화하고 완성하지는 아니하였다. 그의 수명과 정력에는 스스로 인간으로서의 한도가 있었다. 수(數)는 적지만 비교적 완성한 작품이 있는 회화 경우를 제하고는 다른 예술 부문과 같이 과학 부문에 있어서도 미완성 미정고(未定稿)로 끝마친 시안(試案) 단편(斷片)의 유가 적지 않다. 예를 들자면 미술가로서 그는 회화 이외의 건축조각 등에 천재의 편린(片鱗)을 나타냈으나 구체적으로 작품다운 작품은 만들지 않고 일방 과학자로서 하천 공사, 건축술까지의 비상으로 발전한 항공기, 각종의 병기, 천체 현상의 관찰, 인쇄기 등의 실제적 고안부터 기본적인 학문—동수학(動水學), 광학, 지질, 식물학, 연금술, 음화학, 화석학, 비교해부학과 조형해부학, 생리학, 수학, 기하학, 역학, 철학, 문학에까지 거의 인간이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남김없이 연구하였으나 그 어느 것도 다 완성의 역(域)에 달하지는 않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근대 예술과 근대 화학의 창시자라고 하는 소이(所以)는 그가 그 창조력으로서 초인간적 만능을 발휘한데 있다. 레오나르도가 예술 사상(藝術史上)과 과학사상에 차지한 커다란 지위는 실로 이와 같이 근대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기초적 근원적인 문제를 제시한 역사적 의의에 있다고 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많은 수고(手稿)에 쓴 그의 사고와 경험으로부터 판단하면 그는 초범한 두뇌, 비상한 연구심, 해박한 지식의 소유자인 것을 잘 알 수 있다. 그 「회화론(繪畫論)」 가운데 기록한 조형(造形)과학과 문학사상편 가운데 쓰여 있는 예술관과 자연과학편에 보이는 다기다양(多岐多樣)의 영구는 신인적(神人的)인 레오나르도의 전모를 다 얘기하고도 남음이 없다. 예술과 과학에 관한 문제는 하나도 그의 손에 쥐여지지 않은 것은 없다. 근대 문화의 원소라고 불릴 새로운 감정, 감각, 지성은 그 한 사람을 대표하는 것같이 보인다.

레오나르도의 그러한 풍부한 학식이 끊임없는 그의 독서욕의 결과인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같이 훌륭한 직감력과 창조력을 가진 인간이 물론 타인의 서적으로부터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그의 치열한 호학심(好學心)과 희람(希臘)[그리스] 로마 중세의 선인들의 학문을 경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사실 그는 철학서이고 화학서이고 무엇이든 자기의 연구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서적은 닥치는 대로 다 섭렵하였는가 보다.

그의 일의 기초로 된 자료는 실로 굉장한 수로 올라가 있다. 레오나르도의 역학적 제 연구에 관해서 아이바 하트가 레오나르도의 독서 범위는 극단이라고 해도 좋을 만치 광범하게 걸쳐 풍부하였다. 베트네르는 레오나르도가 알고 있었는데 틀림없는 고대 및 중세의 저술가(著述家)의 저작이 72종류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쓰여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 뒤에 하트는 이 서(書)에 있어서 레오나르도의 수기의 일반적 성격, 기계의 과학, 그 자격, 그 역학과 동력학, 정력학(靜力學), 비행술 등에 관해서 상당히 상세히 기술해 있으나 이 비범한 르네상스인(人)의 독서력은 정말 놀랄만한 것이었다. 여기서 그의 독서 리스트를 자세히 점검할 틈은 없어도 우선 생각난 이름만 하여도 우리들은 아르키메데스, 아낙스克拉스, 아리스토텔레스, 배에콘, 로마스, 아퀴나스, 쿼세노후온, 플라톤, 유쿠레데스, 프로래마이오스, 비루기루스, 데메로루스, 단테, 베도라주카 등등 각층에 걸친 학자, 시인, 철학자의 이름을 열거할 수 있고 이에 그가 해부학, 생리학의 암시와 시사를 받은 까레노스몬테뉴 그 외의 아난켄나, 라아제스 등이라는 아라비아인(人) 의사의 이름을 더하며 그 독서력의 광범하고 씩씩한 것은 실로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다.

하여튼 레오나르도는 인류가 낳은 최대의 천재라고 할 정열의 사람, 예지(叡智)의 사람으로 레오나르도는 고금(古今) 독보(獨步)의 지식인이다. 그는 예술가로 칭하기에는 너무나 기우(氣宇)가 광대(宏大)하며 과학자라는 정신이 너무나 심원한다. 그는

그 어느 것도 겸하여 있으나 그 어느 개념에도 맞지 않는 거대한 존재이다. 그 세계관과 구상은 모든 기성(既成) 관념(觀念)을 초월한 데가 있다. 그의 앞에 있어서는 어떠한 천재일지라도 빛을 잃고 말 것이다.

레오나르도의 전기(傳記)와 예술 과학에 관한 연구서는 각국어(各國語)로 쓰이고 그 자신 하나로서 소(小)도서관을 만들만치 풍요하다. 그 어느 것이 완벽의 서(書)인지 그것은 갑자기 단언하지는 못하지만 레오나르도를 중심으로 한 이태리 르네상스의 제(諸) 문헌을 들추어 본다면 도저히 여기서 일일이 예를 들 수 없을 만치 방대한 양에 달할 것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자기 스스로 말하는 바와 같이 1472년 피렌체와 □자 중간에 있는 몬테아로바노 서측의 빈치라고 하는 한촌(寒村)에서 났다. 거기는 엠보리와 가깝고 산 위에 빈치로부터 아루노강(江)이 보이는 구릉(丘陵)의 여기저기는 수풀 사이에 오래된 보채(堡砦)²⁶⁾와 인간의 백벽(白壁)이 엮보여 춘하추동의 각각 그 계절에 아취(雅趣) 있는 목가적(牧歌的) 풍경을 전개시키는 가장 이태리적인 아름다운 비양이라고 할 수 있다.

가계(家系)는 그다지 알려지지 않으나 아버지의 세루삐에로는 토지 공증인으로서 생모의 카테리나는 농가의 딸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자유연애의 결과로서 레오나르도가 났다고 한다. 어머니는 그를 낳고 부친의 세루삐에로와 헤어져 다른 사람에게로 개가(改嫁)했기 때문에 소위 그는 사생아였던 것이다. 그 후 아버지는 어떤 일인지 네 번이나 처를 바꿨기 때문에 그는 계모와 많은 이모(異母) 제매(弟妹)들과 같이 자랐던 것이다. 따라서 소년, 청년 시절에는—20세까지 그는 생가에 있었다—별다른 가정불화도 없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리 유쾌한 생활을 보내지도 않았다. 아주 평범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1472년경 21, 2세의 젊은 레오나르도는 아버지의 힘으로 피렌체의 공장(工匠) 안도레아 텔 베록키오에 제자로 들어갔다. 바사리가 말한 바에 의하면 그것은 그 자신의 의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아들의 화재(畫才)를 벌써부터 인정하고 있던 부친이 그 친우였던 베록키오에게 그의 장남의 장래를 의뢰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레오나르도가 당시 제1류의 회화, 조각, 공예가였던 만능 미술가 베록키오의 문제(門弟)가 된 것은 그의 후년(後年)의 운명을 결정지운 곳은 기회였었다.

베록키오의 문하(門下)가 된 그는 벌써 상당한 기술을 지니고 있었으며 또 그 동료에는 르렌즈 디 크레디아 비로로 벨지노라고 하는 좋은 친구가 있어서 서로 격려하고 자극하는 일상생활은 참으로 즐거웠던 것이었다고 한다. 그 시대에 어떤 작품이 되고 진작(眞作)이라고 확인되는 것이 오늘 얼마만큼 남아 있는지 거기 관하여는 전기자(傳記者)들의 설이 가자가지여서 어느 것도 충분히 신용이 가지지 않는 것은 유감이다. 가령 다소의 훌륭한 작품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 그의 초기의 작품이라고

26) 원문의保는 堡砦임.

눈

김요섭

네 눈은
언제나 깨끗한 창과 같이 열어놓아라

밤이면 달빛이 쉬어 가게 하라
외로운 별빛도 쉬어 가게 하라

추정되는 것은 극히 적다. 레오나르도의 작품은 얼마 있기는 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극히 드문 유채화나 소묘의 성모도(聖母圖)와 풍경 사생의 스케치가 진필이라고 판단 할만하다. 그의 처녀작품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성모 마리아가 천사의 고지(告知)를 받는 것을 그린 소품 「수태고지(受胎告知)」(파리 루브르 미술관 장(藏))과 그의 의복(衣襲)을 그린 화고(畫稿)가 있을 뿐이다(모래리에 의함). 여기서 비교적 명확히 말 할 수 있는 것은 이때부터 그가 종교화(宗教畫)에 흥미를 가지기 시작한 것과 자연과학의 연구에도 손을 대이기 시작하였다.

연대적으로 보면 그의 제1회 피렌체 체재(滞在)는 제가(諸家) 사이에 온갖 이설(異說)이 있어서 일정하지 않지만 대체로 그것은 전에 말한 1472년 전후부터 81년경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 시기에 그가 회화로서 약간의 소묘 화고와 초기 작품 가운데 진작이라고 보는 미완성의 유화 「동방제박사(東方諸博士)의 신배(神拜)」와 「암굴(岩窟)의 성(聖) 해로니무스」를 그린 것은 확실한 것이다. 그리고 과학 방면에서 천문학, 지리학, 수학, 의학 등의 연구가 빠오로로 토스카네르리 건축과 선박의 구조의 연구가 알레르디 물리학과 천계(天界)에 관해서 학식을 가지고 있는 아지로프프

쉬어 아침이 오리니
새벽마다 맑은 눈물로 씻어두어라

내일의 고은그림과 향기가
열려진 네 눈에 비춰줘야 하겠다

두 눈을 크게 뜨라
네 눈에는 그리운 하늘빛이 언제나 젖어 있어라

르그 외 볼레스크 등과 섞여 화학에 대한 관심을 일층 깊이 한 것이다.

1482년에 레오나르도는 피렌체의 베룩키오의 문을 떠나 밀라로시(市)에 갔었다. 그가 어떤 동기로 거기 갔는지는 여기도 제설이 있어 명료한 것은 모르지만 어떤 전기자(傳記者)는 피렌체의 로렌초 디 메디치가 그를 거기에 연구로 보냈다고 하며, 또 어떤 전기자는 그것이 레오나르도의 자기 추천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하여튼 그 어느 것이든지 그는 이때 제1회의 밀라노 체재(滞在)를 한 것은 확실하다.

밀라노에 간 레오나르도는 미술의 수업이라고 하는 것보다 과학의 연구와 실험을 위해 갔었다고 하는 사람이 많다. 밀라노에 있어 그의 과학적 업적은 그 스스로 성주(城主) 스홀차에 제출한 그 자천(自薦) 조항을 보더라도 명확하며 그는 군용 교량(橋梁), 이동할 수 있는 화포장갑차(火炮裝甲車), 해전(海戰)에 있어 공방용(攻防用)의 병기 등의 전시(戰時) 과학부터 평시의 건축, 수리(水利), 기념비, 스홀차가(家)의 번영을 상징하는 청동의 기마상(騎馬像)까지 여러 가지 종류의 설계를 시험하였다. 이 시대의 생활은 상당히 호화로운 것이었으며 궁정과 사교계를 둘러싼 제례(祭禮)와 대연회(大宴會)의 공기는 젊은 레오나르도를 대단히 기쁘게 하여 미남자였던 그

축도(縮圖)

밤·막다른 골목에 서서

이화(李華)

밤을 등지고 섰다.

척수(脊髓)로

밤이 흘러내린다.

어느 누가 버리고 간

유언장(遺言狀)이 있음직한 검은 배수구(排水溝)

그 옆을 따라

또 하나의 내가 걸어온다.

는 항상 거기서 이러한 연석에서의 지휘자였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는 이 시기에 그저 과학과 향락에만 몰두하여 미술제작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다. 사가(史家) 사이에는 진작인지 아닌지 여러 가지 의문이 있지만 그는 로드비그 스홀차의 총애를 받은 재색겸비(才色兼美)의 부인들 예를 들자면 에미리아가 래라니와 루쿠레치아 크리벨리 혹은 상시의 아름다운 부인을 몇 사람 그린 것도 상상할 수 있다. 예로 이런 의문은 있다고 할지라고 밀라노 시대부터 레오나르도가 초상화에 붓을 옮긴 것도 사실이다. 그 가장 현저한 예를 우리들은 실로 그의 진작(眞作)이며 걸작인 군상(群像) 초상 「최후의 만찬」 가운데서 볼 수 있다.

밀라노에 있어 최대의 예술적 수확은 「최후의 만찬」이었었다. 길이 9m, 높이 4m나 있는 이 대벽화는 수도원 산다마리아데 루레그라체의 식당 안의 정면에 그린 것이며 제작 연대는 약 1498년 완료한 것은 4, 5년 후라고 생각한다. 성전(聖傳)을 주제로 한 이 작품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수의 하도(下圖) 소묘가 시험되었다. 지금도 진필의 소묘가 약간 남아 있다. 기술과 재료는 탈락하기 쉬운 프레스코와 코텐페라 피하여 유채가 사용되어 있다. 최초 그가 쓴 때는 현재의 모양과 달라 아름다운 그림이라 상상된다. 그러나 그 뒤 계속한 전란과 폭행 때문에 많은 손상을 입어 무리

이리로 향한

하이얀 얼굴

나는 불꽃같은 안구(眼球)로 응시한다.

분명히 하이얀 얼굴……

밤을 비웃는 선명한 색채다.

드디어

밤은 나의 눈물을 가린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고동(鼓動)은

초침(秒針)처럼 치기 시작한다.

식은 체온과 함께—

(자화상(自畫像) 중에서)

한 수정 보필(補筆)이 더하였기 때문에 옛날의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졌다. 바리사리가 이 그림에 접한 때쯤 1566년²⁷⁾에는 벌써 색채에 오반(汚斑)이 생겨 킴킴해 졌다고 말한다. 이러한 대결작이 이러한 모양이 된 것은 좋은 평전가(評傳家)의 한 사람 아돌프로오벨크가 탄식(歎息)한 것과 같이 실로 하나의 비극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르오제 벨크가 레오나르도는 이 그림에서 어떤 이상한 일을 감히 하여 그것으로써 밀라노에 있는 그의 경쟁 상대의 모든 창작물보다 초월하려고 생각한 그는 간단하나 확실한 벽화술(壁畫術)에 만족하지 않고 도리어 그렇게 큰 벽화에 있어 처음 유희(油繪)를 응용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당시 벌써 그의 회화상의 이상인 명암의 미묘한 그리고 부드러운 효과 두부(頭部)의 상과 그것들과 배경과의 공조(共調)의 형성에 있는 융합적인 유미(柔味)를 유희로부터 알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이 이상에 도달하고 있는 것을 동 시대의 일치한 감각이 우리들에게 증명하고 따라서 19세기의 최초 10년에 레오나르도의 제자들과 더불어 모방자들이 거기 따라 제작한 다수의 모사(模寫)가 이것을 우리들에게 증명하고 있다. 그리하여 잠시 동안

27) 원문에는 566년으로 되어 있으나 1566년의 오키로 보임.

이 그림은 원래의 화려한 색채를 보지하고 있었던 것 같이 보인다고 말한 것 같이 손상을 받기 이전의 이 대화면은 정말 선명한 데가 있었을 것이다.

이 벽화를 그리고 난 뒤에 레오나르도는 맨드 베네치아에 가서 1501년의 봄에 다시 피렌체에 돌아왔다. 이 여행에서 그는 맨드바 성주 부인 이자베라 데스티의 초상을 소묘로 하여 베네치아에게 종조녀와 교래(交來)가 있었다는 것이 전해지고 있다. 피렌체에 귀성(歸省)한 레오나르도는 고향의 혼란한 정정(政情)을 좋아하지 않았다. 당시의 피렌체는 항시 외적 침입과 내란 정쟁의 항간(巷間)에 그의 마음을 하루도 잠잠하게 하지 못했다. 그가 돌아온 조금 전에 애국의 설교승(說敎僧) 사보나로라가 처형되고(1418년) 미켈란젤로로 그 외의 미술가들은 모두 이 사건에 지극히 상심하였다 한다. 단 하나 그들 위로한 것은 법왕청(法王廳)의 정책가이며 학예(學藝)를 숭상하는 채자레돌자의 명을 받아 군사시설과 공학기술에 몰두하면서 고향의 황폐한 공기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 시기에 그는 농작 증산, 국토계획, 토목 공작(工作), 운하의 개관(開鑿) 등에 참여해 피자의 부근까지 갔었다. 때는 마침 1504년경이며 그는 이러한 사업을 열심히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피렌체의 정정(政廳) 바랏츠 벤티오의 대회의실을 위해 피렌체군(軍)과 밀라노의 군 전쟁을 기록한 벽화 「안가리의 싸움」(이 그림은 미완성이라 많이 많은 화고 이외에는 현존하지 않고 루벤스와 라펠로의 모사로서 상상할 수밖에 없다)을 구상한 것이었다. 때를 같이 한 이 회의실에는 그의 호적수(好敵手)였던 미켈란젤로의 벽화 「카스티아나의 싸움」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52세의 거장 레오나르도와 29세의 소장 예술가 미켈란젤로와는 화려한 정쟁화의 경기를 하는 결과가 되었다.

제2회 피렌체 체재의 이 기간에 혹은 그것보다 이른 시대에 레오나르도는 유화의 대표적 걸작을 일만가 제작하였다. 그것은 즉 누구나 잘 아는 「모나리자」(1503, 4년경), 「암굴(岩窟)의 성모(聖母)」(이것은 파리의 루브르 미술관과 런던의 국민미술관에 있어 전(前)의 것은 1492, 3년경이 되며 후의 작품은 1506, 7년경 그의 제자로서 묘사된 것이다), 「성(聖) 만나」(1501년경의 작품이며 완성한 것은 만년) 등이다. 이들 유화 외에 그는 생애를 통하여 다수의 소묘를 제작하였으나 그의 예술 작품에 관해서 고찰할 경우 그것이 성전이고 성모화이고 초상화이고 전설과 풍경에 관한 작품이고 간에 그의 하도라고 할 소묘가 유화와 같이 훌륭한 독립적 예술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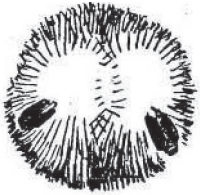
레오나르도는 1506년부터 13년경에 걸쳐 제2회의 밀라노에 체재하였다. 이때 밀라노는 프랑스왕 루이 12세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국왕의 호우(好遇)를 받아 즐겁게 제작을 할 수 있었다. 그는 드디어 궁정 소속의 미술가 겸 기사의 높은 직까지 얻어 전승을 기념하는 기마상(騎馬像)과 개선문의 설계를 시험하고 무장(武將) 샤루르보아즈의 명으로 여러 가지 조영(造營) 공사에 종사하였다. 그 위에 한편으로 1510년부터 밀라노 대사원(大寺院)의 재건에도 참획(參劃)하고 건축기사로써

최고의 능력을 발휘했다. 그러나 이 번망(繁忙)한 일 가운데도 회화에 열심하였으니 그 노력은 굉장한 것이었다. 현재 루브르 미술관에 있는 젊은 세례자 요하네의 반신상과 같은 것이다. 그는 이외에도 다수 사가(史家) 사이에 문제가 되어 있는 납석조각(蠟石彫刻) 「후로로아의 반신상(半身像)」을 제작하였다.

당시 북부 이탈리아는 혼자 밀라노에만 한한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정변과 전란의 땅이었다. 지배자가 변할 때마다 각 도시에는 서로 자기의 세력 다툼을 하였다. 그리고 정변이 있을 때마다 여기 외국의 압력이 가하여 혼란이 혼란을 낳아 평정을 상실하였다. 베네치아와 밀라노도 물론 그 예를 면하지 못하고 복잡한 정치정세 가운데 놓여 있었다. 일시 프랑스의 세력 하에 있던 밀라노시가 프랑스군의 패배로서 지금까지의 정치적 상태를 변경시킨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거기서 레오나르도는 몇 사람의 제자와 가복(家僕)을 데리고 불유쾌한 밀라노를 떠나 로마로 갔었다. 그것은 1513년의 9월 말이다.

로마에 도착한 레오나르도는 벌써 나이 60세를 지난 노인이었다. 그는 여기서 조용한 생활을 보내고 싶었던 만큼 사실 뵈치키노 궁전 내의 거주하게 되어 잠시는 평온하였지만 법왕 레오 10세는 반드시 그를 잘 응접하지는 않았다. 더구나 그의 비호자였던 주리아노 디 메디치가 죽고 나서는 그의 로마 생활은 그저 적요(寂寥)하기만 하였다. 단 하나 로마에서 즐거운 추억은 시스치나 예배당의 천정 벽화를 그리러 온 미켈란젤로와 라페로 건축가의 부라만티와 만났다는 데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특기할 만한 작품도 없고 이 대작가로서 어울리지 않는 만년이기도 했다.

1515년에 레오나르도는 잠시 밀라노에 최후의 체재를 하였다. 그러나 거기 있었던 것은 그리 긴 기간이 아니고 드디어 그는 프랑소아 1세를 따라서 프랑스에 이주하게 되었으니 그것은 1516년 1월의 일이며 그는 사랑하는 제자 프란체스코 멜치와 복비(僕婢) 마추리아나를 데리고 안보아즈 도시에 머물렀다. 루이 11세 시대에 세워진 크루노오 저(邸)는 그가 여생을 보내기 좋은 집이었으며 여기서도 또한 그는 해부학의 소묘와 기계의 창안과 운하의 설계를 노트에 적어 조용한 사색의 생활을 할 수가 있었다. 또 프랑소아 1세도 때때로 이곳을 방문하여 그와 이야기 하는 것을 참으로 즐겨워하였다. 그러나 레오나르도의 건강은 점점 쇠퇴의 징(徵)[징후]을 보이기 시작하여 그때부터 2년이 지난 후 1519년에는 다시 조국 이태리를 보지 못하고 그 빛나는 60여년의 생애를 마감했던 것이다. (끝)



직장(職場)과 행복(幸福)

김규동(金奎東)

○

직장에서 견디기 어려운 창피를 겪거나 일 몫이 너무 커서 도무지 배겨낼 수가 없을 때를 당할 때마다 직장이 없이 1년이고 2년이고 다방(茶房)살이를 해내는 사람들을 부러워도 해보고 직장이 없이도 얼마든지 세상에 살아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한다.

사실 내가 아는 범위의 사람들 가운데서 직장이 없고 또 일정한 수입이 없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직장을 가진 나보다 훨씬 행복스럽고 또 여유를 갖고 있는 것만 같이 생각되는 때가 많다.

시를 쓰는 R은 3년 내내 직장이 없었다. 또한 그림을 하는 R도 일정한 직장이라고는 일찍이 가져본 일이 없다. 그리고 소설가 S도 직업이 없고 영화를 한다는 C도 도대체 직장이란 것이 없다.

이들 가운데서도 소설가 S는 대중소설가도 아니요, 통속작가도 아닌데 그래도 이력저력 살아나가고 있는 것이다.

○

1947년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에 나온 이래 나는 수도 서울에서 4년간 가까운 동안 고등학교 교원 노릇을 하였다. 북에서 나와 그저 어리둥절한 그 당시의 나는 직장을 구할 생각은 거의 없었다. 먼저 월남한 친구들 속에 휩쓸려서 서북청년회(西北青年會) 같은 데도 나가보고 또 우리끼리 모여서 청년애국단체를 하나 조직하고 열렬한 반공(反共) 투쟁을 해볼 생각도 품어 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의 체질은 이러한 정치적인 활동 속에서 오래 견디어 내지를 못하였다. 거의 3개월을 이러한 청년 정치운동의 불길 속에 해매다가 급기야 나는 학교에 직장을 구하고 도피해 버린 것이다.

의식주도 의식주려니와 첫째로 나는 나 자신의 자유로운 성장을 위하여 침착하게 공부를 하고 싶었던 것이다.

K 고교 교장은 나의 선친과 잘 아는 사이였다. 그래서 나의 학교 취직은 무난히 추진되었다.

이리하여 여기서부터 나의 교원생활은 1.4 후퇴까지 4년 동안 계속되었던 것인데 학교에서 내가 맡은 학과는 국어이며 그중에서도 고문(古文)이 주(主)였다.

그런데 처음 학교에 발을 디뎌 놓을 때 나는 교원생활을 하게 되면 조용한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을리니 생각했던 것이었으나 사실상 4년이란 세월을 무엇을 하며 지냈는지 지금 와서 생각하면 허망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오늘 부산(釜山)에서 올라온 아이 입학 때문에 바쁜 시간을 쪼개어 Y 고교엘 갔다. 아이 지원이 고교였고 마침 이 학교에는 소설가 A 씨를 비롯한 몇 분 아는 선생도 있어서 그리고 갔던 것이다.

편입 수속은 고사하고 기부금 문제를 절충하기 위하여 나는 이 학교의 직원실에 또

박 세 시간을 앉아 있어야 했다. 내가 이 교무실에 앉아 있는 동안 이 직장 안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진행되었다.

마침 부산에서 올라온 선생과 재경(在京) 선생을 합쳐서 좌석 정리를 하는 판이었는데 선생들이 각기(各其) 교실에 들어간 사이에 교무 담당자가 책상을 이것저것 바꿔도 놓고 또 좌석순도 더러 변경해 놓게 되었다.

이윽고 종이 나고 선생님네들이 교무실에 돌아왔다.

그런데 선생 중의 젊은 어떤 한 분은 별안간 책상을 주먹으로 치며 호령 호령하는 것이다. 그 이유인 즉 “내가 어째서 이렇게 말석에 앉게 되었단 말ियो. 나는 수부계(受付係)에 취직한 사람도 아니요 급사(給仕)도 아닌데……무슨 일을 이렇게 하느냐 말ियो. 일을 하려거든 좀 더 양심적으로 할 것이지……”

말하자면 그 선생의 좌석이 어찌어찌하다 끝머리 입구 편에 정해진데서 그 불만을 토로하는 풍경이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었다.

나는 슬그머니 지난날의 교원생활이 생각나서 스스로 입맛이 떨어짐을 안 느끼는 것은 아니었으나 이런 풍경 앞에 부닥치는 순간에 나는 학생을 2백만 원이란 거액의 돈을 내고 이 학교에 넣고 싶은 생각이 사라져 버리는 것을 어찌할 길 없었다.

동란이 있는 동안 학교 선생님들의 사상이 얼마나 진보적으로 비약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자기가 앉던 책상이 협소한 실내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서 끝머리에 옮겨졌다고 해서 책상을 치며 흥분하는 소아병을 지니고서야 어찌 20대의 청년을 리드해 나갈 수 있겠는가? 나는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

한편 광장히 신경질로 생긴 교무담당의 선생도 가만있지는 않는다.

“기분이 나쁘면 기분이 나쁜 대로 해보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 교무담당 선생님의 한 마디란 곧 학교를 그만두겠으면 그만 두고 너의 마음대로 하라는 내용이요 동시에 내가 그렇게 까불어 대면 너의 모가지를 잘라버리기 위한 모략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종류의 것이었다.

나는 이러한 광경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부산에서 올라온 아무 멋도 모르는 처남 아이를 향하여 도루 부산 내려가 전에 다니던 학교에 다니는 것이 어떠냐고 은근히 타일러주었다.

“학교는 다 같다. Y 고교 더 나을 것이 무엇이며 Y 고교에 꼭 들어가야겠다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

학력과 경력에 따라 봉급이나 수당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학교라는 곳은 교장, 교감, 교무주임을 제외하고는 책상의 위치에까지 절대적인 계급이나 권위를 부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곳이 아닌 것 같다.

아무 곳이나 자기가 앉게 되었던 자리가 자기 책상이 될 수 있는 법이요 또 누가 그 위치를 못 견디게 탐낸다면 선불리 내어 줄 수도 있는 성질의 것일 터이다.

그것이 어찌 어찌하다 말석에 옮겨졌다고 해서 성을 내고 보기만 해도 민망스러운 행동을 취한다는 것은 암만해도 유치한 일인 것만 같다.

그저 한 번 웃고 말 일을 가지고 이렇게 흥분하는 사람들은 소위 그들이 행복의 개념이란 것을 직장에 있어서의 책상의 위치에 두는지도 모를 일이다.

책상이 될 수만 있으면 교감이나 교무주임의 자리 가까운 곳에 있으면 그만큼 행복

의 단위가 높아가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오늘 Y 고교 교무실에서 자기 책상이 말석으로 옮겨졌다고 흥분하여 마지않던 선생은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참을 수 없는 불행을 느꼈을 게 분명하리라.

직장에서 불쾌한 일을 겪으나 그 무슨 사고를 저질렀을 적에 사람들은 그것에서 불행을 느끼는 것은 보편적으로 있을 수 있는 사실이다.

원래가 행복이란 것이 사소한 일 속에 깃들어 있기 쉬운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

1.4 후퇴 직후 나는 동부전선 제3사단의 중군을 계기로 교원생활을 청산하고 신문계(新聞界)에 발을 들여 놓았다.

이래 3년 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신문사의 한 구석에서 글을 쓰고 또 뉴스를 전하고 통신과 편지를 비롯한 신문지술에 흥미를 붙이면서 나날을 지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1년 동안은 내가 있는 신문사에서 내가 혼자 맡은 일 몫이 너무 벅했다.

아침부터 저녁 아홉 시까지 나는 전적으로 신문을 위하여 뛰어 다녀야했고 어쩌다 노는 날이 있어도 나는 다음날 지면을 채울 구상으로 가벼운 마음이 될 수가 결코 없었다.

내가 신문사에서 이렇게 무거운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 동안 나 자신의 입으로부터는 그리 불만이란 것이 표명되지 않았으나 집사람을 비롯한 여러 친구들 사이에 있어서 여간 불만이 많은 것이 아니었다.

그 불만이란 대체로 이런 것이다. 월급은 똑같은 월급이면서 왜 당신 혼자만 그렇게 바빠야 하느냐? 왜 사(社)의 당국자보고 일 몫을 덜어 달라고 한다거나 사람을 더 쓰라고 말을 하지 않느냐.....등의.

나는 이러한 친구들의 동정이나 집사람의 권고에 한 번도 시원한 대답을 해본 적이 없다.

나는 한 직장에 있어서 사교술과 요령이 너무 없는 사람인지도 모른다.

시인 K는 내가 하루의 일을 마치고 무거운 노동에 지쳐서 다방의 의자에 땀없이 주저앉는 광경을 볼 적마다 은근한 말씨로 “김(金) 형(兄)은 학교에 돌아가서 교편을 잡는 편이 훨씬 편할 거라.”고 충고해 주곤 하였다.

그래도 나는 학교에 갈 생각은 통 해보지 않는 것이다.

이제 도루 학교에 간다는 것은 인생에서 그 무슨 패배라도 당한 사람의 그것인 것만 같이 생각되는 것이며 한 번 활발하게 ‘씨내리즘’의 분야에서 일을 해보리라 던 결의를 꺾어버리는 것이 되는 듯싶어서 다감한 K의 충고를 언제나 부인해 버리곤 하였다.

행복! 아침 여덟 시부터 밤 아홉 시까지 뼈가 노곤해질 지경으로 직장에서 시달리고 나는 손에 닿는 일이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거나 덜 좋다거나 하는 일이 아닐 적에 사람들은 얼마든지 즐겁게 직장을 지켜낼 수가 있는 법인가 싶다.

나는 구태여 사(社)에서 내가 맡은 일 내가 맡은 분야의 일 몫이 나의 구미에 꼭 닿는 일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그래도 직장에서 과히 큰 불행을 느끼지 않는 것은 나의 직장이 나에게 적당한 일과 분위기를 주고 있는 때문이라고 할밖에 없음을 안다.

○

가끔 신문사로 나를 찾아오는 동료나 친지들이 기다란 벤치에 함께 앉아서 이야기

를 시작하자마자 “자리는 어디냐?”고 묻는 일이 있다.

아마도 이들이 이렇게 내가 앉는 자리를 알고 싶어 하는 이유인즉 이 신문사에서 어느 정도의 권위와 지위를 내가 차지하고 있는가를 알고 싶은 때문임에 틀림없는 것 같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도 자리자리만 신경을 날카롭게 해가지고 맞서는 것일까? 행복이란 것이 반드시 높은 자리에만 부여될 수 있고 국한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아마도 일생을 불행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사회적 지위하든지 정치적 권세에 그리 큰 관심을 갖지 않는 요즈음의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불행만을 겪어야 할 것인가?

더욱이 일에 몰려서 피곤을 이겨낼 수 없을 때라든가 또는 불쾌한 일을 겪고 나서 직장이 없이도 엄연히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을 부러워 할 때가 있는 나 같은 사람은 직장으로 말미암아 짙어진 불행이 더 커져가는 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직장이 주는 행복감이나 불행감이란 결국 그 사람의 모열이 결정하는 것이지 그 직장이 결정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닐 터이다. (필자(筆者) 시인(詩人))



화우일기(花雨日記)

박용덕

X월 X일

아직 산골짜기엔 눈이 그대로 덮여있고 채 얼음이 녹지 아니하였건만 그래도 바람은 제법 계절을 따라 가벼워졌으며 날씨도 펄 온화해졌다.

아침 햇빛이 유난히 따스했다. 종일 화창하였다. 하루사이에 갑자기 기후가 변한 것 같다. 봄님께서 오시는 양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다. 해님도 가까이 다가오시는 가보다. 봄님 해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내 가슴속에선 거칠게 출렁거리는 심사(心思)가 성난 파도처럼 비쳐버리고 싶을 정도로 광증(狂症)에 가까운 회오리바람을 일으킨다.

바람아 불어라 실컷 불어라. 불다 불다 마음이 변하거든 꽃바람도 불어보렴. 바람아 불어라. 어서 불어라.

X월 X일

우수가 지난 지 벌써 십여 일이 되었다. 심한 불면증으로 인해서 등잔에 다시 불을 당기고 일어나 앉아 담배를 피워 보았다. 머릿속은 연기로 가득 찼다. 머리가 무겁다. 엄청나게 큰 바위덩어리를 이고 앉았거나 한 것처럼 몸이 무겁다. 몇 번이고 되풀이 해 보았기 때문에 쓸데없는 짓인 줄 알면서 또 불을 끄고 자리에 누워 보았다. 방안은 어둡고 사벽(四壁)의 안팎은 무덤 속 같다. 특효 취면제(催眠劑) ‘빠빠다루’가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생각에 마음이 초조해졌을 때 창밖에서 갑자기 어린애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전신에 소름이 돋고 머리칼이 솟고 땀이 흘러내린 것은 극히 짧은 순간이었다. 귀곡성(鬼哭聲)인가 하였다. 신경이 너무 쇠약해진 탓이었다. 계속적으로 들려오는 이 울음소리가 개구리의 첫울음소리였음을 확인하기까지 숨소리를 죽이고 땀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고요한 밤이었기 때문에 밭에서 우는 개구리 소리가 바로 창밖에서 우는 것처럼 가까이 들렸던 것이다. 어쨌든 어렴풋이 잠들기 시작한 것은 동창(東窓)이 흰하게 밝을 때였다.

개구리의 입이 떨어진다든 경칩 사흘 전의 일이었고 처음으로 들은 봄소식이었다.

X월 X일

양상하게 빼만 남은 것이 쓸쓸하게만 보이던 나뭇가지마다 생기가 돌았다. 산과 언덕과 들판에는 파릇파릇 새순이 싹트기 시작했고 골짜기로 흘러내리는 물소리가 시원스럽다. 하늘은 맑고 푸르다. 새소리도 다정하게 들린다. 삼라만상(森羅萬象)이 모두 재생의 봄을 희망에 가득한 환희의 노래로 합창하는 것 같다.

거리마다 아이들이 뛰놀고 꽃처럼 봄을 단장한 봄의 여인들이 경쾌하게 활보하고 있다. 어디에나 봄이 넘쳐흐르는 것 같다.

이렇게 봄을 바라보면서 봄이 왔음을 인식하는 나에게는 꽃을 찾는 나비의 마음 같은 색다른 봄이 가슴속에 찾아온 것 같다. 그래서 까닭 없이 가슴속이 설레어지고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다. M 형(兄)과 마주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 끝에

“웬일일까?”하고 가슴속이 뛰고 심장이 떨리는 이유를 물었다.

“연애를 해야지, 연애를 하면 곧 이해할 수 있는 일이야.” M 형의 대답은 간단했다. 같이 웃으면서 나는 또 반문했다.

“그런 걸까? 그렇지만 연애엔 기술도 필요하고 자본도 있어야 한다는데?”

M 형은 그까짓 것은 문제시할 것 없다는 듯이

“기술이나 자본보다도 진실성이 제일이야. 무조건 연애를 해봐. 그렇게 주저할 것 없이 애정의 세계로 여행하란 말이야.”라고 말하면서 이 봄에는 놓치지 말고 가정을 갖도록 적극 노력하라는 충고와 동시에 내 외로운 생활을 몹시 염려해 주는 것이다.

X월 X일

오전 11시경이었다. F 다점(茶店)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한 젊은 촌(村) 여인이 머리에 꽃나무가지를 한 아름 이고 찾아

왔다.

“꽃 사세요!”

고운 목소리였다. 봄을 노래하는 음악 같기도 했다. 꽃을 파는 여인이라기보다 봄 소식을 알리기 위하여 집집마다 찾아다니는 봄의 천사였다.

아직 동면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계절을 잊고 앉았던 객들의 표정은 일시에 명랑해 진 듯하였다. 모두 웃는 얼굴들이다.

K 씨는 놀란 사람처럼 벌떡 일어서며 소리를 질렀다.

“뭘? 꽃?”

R 선생이 미소를 띠운 입을 열었다.

“아아! 벌써 봄이라!”

감탄에 마지않는 것이다.

물론 놀랄 것도 없고 감탄할 적도 아닌 평범한 사건이지만 천사가 가고 난 뒤에 무

슨 새로운 진리나 기적적인 사실이라도 발견이나 한 것처럼 꽃과 봄과 여인에 대한 말들이 많았다는 것은 확실히 전쟁과 혼란 속에서 부분적으로 신경이 무감각해 졌고 또한 계절에 따르는 외부적인 자극 같은 것쯤은 벌써 망각해 버렸다는 증좌이기도 하다.

여하간 봄은 봄대로 폐허가 되었건 말았건 전란이야 어찌되었던 염치없이 또 찾아왔다.

오랫동안 생활의 위협을 받으면서 동면이라기보다 고통스럽게 불안하기만 하던 긴 겨울도 지나갔고 빛(光)과 열과 호흡의 파동을 따라 깨지고 부서지고 허물어진 수도 서울에도 완전히 봄은 왔다.

봄이 왔다고 해서 마음이 아늑해 진다든가 생활환경이 윤택해지고 명랑화(明朗化)할 아무런 조건과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오늘 오히려 봄에 대한 감흥보다 동란에 의해서 물심양면으로 붕괴될 대로 붕괴되었고 파산할 대로 파산된 폐허위에서 인간다운 생활미라든가 혹은 국민다운 정신이라든지 인간적인 도의면의 일단(一端)이나마 찾아보려야 찾아 볼 수 없는 사회상 이렇게 악화될 대로 악화된 현실 속에서 질식 상태에 가까운 압박감을 받는 감정이 결코 봄을 봄답게 감수할 수 없는 일일면서 오직 관념상으로 자극되고 감각할 수 있는 봄에 대한 인식만이 그저 막연하게나마 마음을 바쁘게 채찍질 하면서 더욱 초조감을 북돋아 주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부패한 현실 속에서 계절의 변화에 대한 직접적인 감흥보다 환경에 의한 불쾌감을 느끼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외부적인 환경에만 좌우될 게 아니라 불쾌한 것은 불쾌한 것대로 잊어버리고 좀 더 내적 생활의 안정과 미화(美化)를 위해서 진실한 것은 진실한 것대로 추구하며 정신적인 생활미를 호흡할 수도 있는 일이므로 가급적 심리적인 허식을 버리고 봄을 봄이라고 솔직하게 느낄 때 봄은 역시 화려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한 계절임을 수긍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오늘 같이 어지러운 전란 가운데 특히 허물어진 폐허 위에서 또한 불안한 일선 지구 안에 서서 고민과 비애와 절망이라는 것을 일제 불태워 버린 다음 내 뜻과 내 힘으로 내 생활환경을 아름답게 미화시킬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장식하고 설계해 보겠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해 놓고 나니 마음은 끝없이 가벼워지며 이 봄은 더욱 나로 하여금 보다 큰 비약을 약속해주는 것 같고 자연의 섭리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이게 하는 것이다.

X월 X일

오늘이 음으로 3월 3일. 3월이라 삼진날 강남 갔던 제비가 다시 돌아온다는 날이오. 흥부와 놀부에게 각각 선악의 박씨를 몰아다 주던 날도 바로 오늘이다.

벌써 며칠 전부터 농부들은 쟁기를 들고 소를 몰아 밭을 일구었고 오늘도 씨앗들을 뿌리기에 한창 바쁘게 일하는 것을 보고 나도 어서 일을 해야 할 텐데……하고 하루라도 늦은 것을 걱정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시내에 불일이 있어 춘경(春耕)은 내일로 미루고 우선 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

용무가 끝난 후 K 씨와 더불어 간단히 점심을 나누자는 구실로 술집에 들어가 대포 서너 사발 들이켜고 달래나물 무친 것을 안주삼아 입가심을 하고나니 미각을 통해서 맛본 봄의 향기가 전신에서 풍기는 것 같다.

돌아오는 길에 S 다점에 들렀다가 서산(西山)(구본웅(具本雄)) 화백을 만났다.
 “이것 좀 봐.”하고 내놓는 서산의 화문첩(畵文帖)을 받아 들고 한 장씩 넘기다가 세
 마리의 제비가 날고 있는 그림 아래 쓰여 있는 글을 재독(再讀)하면서 외워 보았다.

3월 삼짇날
 제비새끼 날아든다.
 그 빠른 동작
 기민한 지혜
 흥부 놀부를 처단하던 예지로
 지금의 선악도 가려다오.

X월 X일

어제 온 비는 아직 터지지 못한 봉오리와 피지 못한 꽃을 재촉하였다. 살구꽃은 별
 써 한 잎 두 잎 떨어지기 시작하였고 진달래와 개나리(연교(連翹))가 핀지도 벌써 오래
 전 이야기다. 하루 이틀 늦어진 밭일이 걱정되어 새벽부터 밭에 매어달려 일을 하였다.
 밭을 갈아 부치고 거름을 날라다 부으며 뒷산에서 꿩 우는 소리를 듣는다는 건 참으
 로 유쾌한 일이다. 내 생명의 가치와 내 생활의 미가 모두 이 시간 속에 있는 것 같은
 희열을 느꼈고 강렬한 생활 의욕이 온 몸속에서 웅솟음치고 있음을 알았다. 흙냄새와
 거름냄새가 것처럼 향기롭고 흙 한줌 거름 한 방울이 지극히 귀중한 것이라는 참된
 교훈을 오늘 비로소 처음 깨달은 것처럼 가슴은 벅차고 몸은 무거운 짐을 벗어 놓은
 것 같이 날기라도 할 것 같다.

X월 X일

밭일을 마치고 목욕을 한 다음 아침상을 받으면 쓴 것 단 것 없이 모두 꿀맛이다.
 더욱 요새 밥상을 대할 때마다 돌나물김치에 고사리, 취, 원추리, 고비 등 그밖에도
 내가 이름 모를 산채 볶음이 마냥 구미를 돋우며 봄 미나리 살진 맛도 식욕을 당기게
 한다. 그러나 밥보다 죽을 끓이는 날이 많고 죽이라도 멸정게 썰어서 마시는 것이 요
 즈름 내 생활 내용의 일부이다. 이처럼 소식여반(蔬食糲飯)으로 그날그날의 생활을 영
 위하고 있지만 이것이 만일 나 혼자만 유독 생활력이 박약해서 끼니마다 죽을 마시지
 않을 수 없다면 그건 견딜 수 없는 일이겠지만 특별한 선생님들 외에는 제대로 조식을
 백반으로 충족(充腹)한다는 것은 죽 먹기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하긴 동란이 발발한
 이래로 어디나 다 마찬가지 현상이지만 더러 죽이나마 실컷 조차 없어서 자살하는 사
 람이 있는가 하면 배급미를 받아서 팔아먹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모양이다.
 극도로 혼란된 오늘 그 모든 추(醜)하고 어지러운 속에서 모리(謀利)를 도모하고 사
 기횡령 협박을 하며 권력 앞에 아부하지 않을 바엔 차라리 단사표음(單食瓢飮) 하면서
 라도 내 생의 가치와 미를 탐구하며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잊지 못할 사람들

최정희(崔貞熙)

‘잊지 못할 사람’을 쓰라는 편집자의 청탁을 받고 나는 다시 내 어린 것에게 아래와
 같은 말을 물었다. 여기에 ‘다시’라는 말을 쓰는데 이 ‘다시’라는 말을 쓰게 된 경로를 간
 단히 말씀 한다면 실로 나는 내 어린 것에 똑같은 말을 수없이 물어보아온 까닭이다.

“야, 널 자기 집에 데려다 준 그 ‘영동지서 주임’이 어떻게 생겼던?”
 “참 좋아. 그 집 사람들은 다 좋아. 영이 엄마두 좋구 영이두 좋구.”

어린 것은 또 이렇게 대답했다.

아이의 이 대답 역시 수없이 해온 똑같은 말이었다.

“우리 이 분을 어떻게든 찾아내자 응.”

“응, 그래 엄마. 그런데 찾아내야 할 사람이 또 있어.”

“그건 또 누구야?”

“날 영이 아빠 있는 주재소에 데려다 준 학생이야.”

아이 입에서 영이네 이야기와 영이 아빠 즉 「영동지서(永同支署) 주임」 이야기는 줄
 끝 들었으나 이 ‘학생’은 처음 듣는 소리다.

“그 학생이 누군데?”

나는 다급히 물었다.

“나두 몰라. 남학생이야. 피난 가던 학생이지 뭐. 보파릴 지구 혼자 가겠지.”

“그래서?”

“가다가 내가 펄펄 뛰면서 엄마 엄마 부르구 우니까 내 앞에 와서 울지 말구 이야길
 하라구 그래요. 그래서 엄마두 잃어버리고 내가 탔던 차두 내가 내린 사이에 어디로 가
 버렸다고 이야길 했지. 그랬더니 학생이 날더러 저하구 같이 가지구 그래요. 그러다가
 다시 저하구 같이 감 걸어야 할 테니까 고생스럽다고 하면서 주재소루 데려다 줬어요.
 돈두 주면서 울지 말구 있으라구 그래요. 그리구 주재소에 있음 주재소에서 엄말 찾아
 준다고 그래요.”

“몇 살이나 돼 뵈는 학생이던?”

내 말소리는 떨렸다. 눈에는 눈물이 글썽 고였다. 나는 내 아이를 영동지서에 데려
 다 주고 또 돈이랑 주었다는 그 미지의 남학생의 고마움이 벅속 깊이깊이 스며들었던
 것이다.

보통 때 같으면 그럴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러나 내 아이가 엄마를 잃고 탔던 차까지
 잃어버리고 울고 날뛰던 그때는 자기의 자식조차 귀찮아서 버리는 일이 수도룩하던
 바로 1950년 12월 하순이었다.

피난민만 해도 운신할 도리가 없는 위에 후퇴하는 철갑부대로 해서 길은 참 그야말
 로 발 하나 잘 못 밟으면 생명을 잃게 되었다. 길에는 지프차 넘어진 것, 트럭이 쓰러진
 것, 그래서 사체를 보는 일이란 그다지 힘들지 않았다.

내 아이도 그렇게 복잡했던 까닭에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다. 영동지사에서 한창 떨어진 곳에서 혼자 떨어졌던 것이다. 짐을 태산같이 실은 위에 또 사람도 그만큼 올라탔다. 그것도 약삭빠른 사람들이 가운데를 점령하고 나니 나와 내 아이들은 앉을 데가 없었다.

저우 가장자리 쪽에 발만 어떻게 붙었으나 앉을 수도 설 수도 없어 엉거주춤하고 있었다.

이것을 본 아는 군인이 큰 아일랑 앞에 차에 앉히자고 말했다. 나는 고맙다고 하면서 걸을 떠나기 싫어하는 큰 것을 억지로 앞 차에 보내고 내 두루마기 고름으로 작은 것을 동쳐내고 그냥 엉거주춤한 채로 있었다.

하루만 하면 대구(大邱)에 이르리라고 알았다. 그리고 내 큰 아이가 탄 차가 앞에 가면 나와 작은 것이 탄 차는 고스란히 뒤를 따르리라고 알았다.

그러나 앞 차의 뒤를 고스란히 뒤차가 따를 수가 없었고 하루만 하면 대구에 이르리라고 알았는데 트럭 위에서 사흘 밤을 지나고서야 대구에 이르렀던 것이다.

도중에서 트럭이 넘어진 것을 보는 때에도, 지프차가 자빠진 것을 보는 때에도, 사람 시체가 눈에 뜨이는 때에도 나는 내 어린 것의 안부에 애가 바싹바싹 탔다. 더구나 우리가 탄 트럭이 안내하는 헌병에게 쫓겨서 다시 서울 시내를 거쳐 광나루로 빠질 적에 집채만 한 외군(外軍) 트럭에게 치워 넘어진 뒤로부터는 큰 아이에게 가는 불길한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불길한 생각 그대로 대구에 내려서 내 아이와 같이 탔던 사람들에게 큰 아이의 행방을 물었다.

“인제 곧 옵니다.”

인제 곧 온다고 말하는 사람 얼굴에 난처해하는 빛이 떠올랐다.

“어떻게 된 거예요? 똑바루 이야기 해주세요.”

상대방은 점점 더 난처해 하다가

“아이가 도중에서 잃어졌구만요. 그래서 어저께 사람을 잃어진 근방으로 보냈습니다.”

줄곧 불길한 생각을 가지고 있긴 했으나 그래도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누가 알았으랴.

나는 발버둥을 치다시피 하면서

“그걸 잃어버림 어떻게요. 저의 아버지도 없는 걸 잃어버림 어떻게요.”하고 펄펄 울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학생과 ‘충북(忠北) 영동지서 주임’이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이렇게 펄펄 울었으리라. 아니 나는 행방을 모르는 어린 것 때문에 말라 죽었을지도 모른다.

엄마를 부르며 낯선 곳 복잡한 길 위에 혼자 떨어져 울고 헤매는 어린 것을 다 모르는 체 지나가는데 꼭 한 남학생이 피난 보따리를 지고 지나다가 어린 것을 거들떠

„

보았다는 것이다. 그 학생은 어린 것을 제가 가는 데까지 데리고 가려다가 어린 것

이 고생스러운 것을 염려하면서 가던 길을 돌아서 영동지서에 데려다 주었다는 것이다. 영동지서 주임은 그렇게 데려온 어린 것을 자기 집에 갖다 두었다는 것이다.

내가 늘 골몰히 사느라고 아직 이분들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우선 지서 주임의 안부부터라도 알고자 영동지서에 편지를 했으나 웬 일인지 회신이 없다.

어디로 전근한 것이라고 짐작하고 현재 근무하고 있을 주임 앞을 전(前) 주임의 행방을 물었으나 역시 회신이 없다.

큰 것의 이야길 들으면 그때의 영동지서 주임은 무척 어질어 보이고 그의 딸 영이도 귀엽고 착한 아이였다고 한다. 영이의 어머니는 또 부지런하고 깨끗한 분이더라고 한다. 그 집의 장판이 몹시 기워 있기는 하나 윤기가 반들반들 하고 어디나 먼지 하나 없더라는 것이다.

그때 내 큰 것과 동갑이던 아홉 살 난 영이는 어떻게 착하고 어질던지 내 아이가 올면 같이 울고 내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아도 울면서 “꼭꼭 퍼먹어. 꼭꼭 퍼먹어.”하고 말하더라. 영이 아버지인 지서 주임은 내 아이를 봄이 되면 학교에도 넣어주고 고운 옷도 해주겠다고 하더라.

내 아이가 내게로 돌아올 때 그들은 내 아이에게 곶감, 과자, 양말 등을 주어서 보내었다.

진정 잊지 못할 그이들, 진정 보고 싶은 그이들,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학생은 지금 어디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내 백 번 죽어도 못 잊을 사람들이여! 부디 몸 평안히 복되게 사시옵소서. 나는 당신들 만나지는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954년 1월

공상비행(空想飛行)

방기환(方基煥)



서울서 자라기는 했으나 어릴 적 나는 제법 먼 길을 통학했다. 전차도 또 다른 아무 교통기관도 이용하지 않고 도보로 먼 길을 통학한다는 것은 몹시 고달픈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따분한 봄날 오후의 귀로(歸路) 같으면 그 고달픔이 몇 갑절 더 했다. 하학(下學)하자 곧장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축구라든가 정구라든가 탁구라든가 혹은 ‘점부’라든가 하는 운동을 하고 돌아오는 게 보통이라 따분한 기후에 피로와 시장기기가 겹치니 실로 걷기가 [힘]겨웠다. 그래서 얼마 가다가는 상점 쇼윈도를 멋없이 들여다보고 또 얼마 가다가는 가로수 그늘에서 눈뎌 점쟁이가 눈뎌 사람에게 운명을 예고해 주는 광경 같은 것을 물끄러미 구경하곤 했다.

이럴 적에 요란한 폭음이 두상(頭上)을 지나가는 수가 있었다.

“비행기다!”

나는 입 밖에서 내어 소리치며 금세 광채를 뿜 눈으로 하늘을 더듬었다. 탁 트인 하늘에는 잠자리만한 비행기가 소리만 굉장히 지르며 천천히 지나간다.

“저게 저래뵈두 자동차보다 더 빠르대지.”

나는 길을 질주하는 자동차와 비교해보며 누구에게서인지 들은 지식을 상기한다.

고개가 아프도록 뒤를 쫓는 내 시선을 버려두고 비행기는 산 너머로 사라진다.

비행기가 사라져도 내 눈의 광채는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나는 공상하는 것이었다.

나한테도 비행기가 있었으면 그렇지만 저렇게 큰 비행기는 싫어. 언제든지 가져다닐 수 있는 것이[여]야지. 주머니에 넣고 다니든지 모자처럼 쓰고 다니든지 외투처럼 입고 다니다가 단추 하나만 누르면 날개가 나오고 프로펠러가 나오고 해서 날아갈 수 있게.

내가 성장하는 템포보다도 비행기의 성장은 더욱 빨랐다. 잠자리 같은 비행기가 날센 전투기로 그러다가 해방이 되고 6.25 동란이 터지고 한에 따라 “왈 B29 왈 무스탕 무슨 무슨 제트기.....” 그러나 그것들은 내게 별(別) 혜택을 주지 않았다. 어릴 적부터 소원하던 내가 소유할 수 있으리만치 간편한 비행기는 나타나주지 않았던 것이다. 헬리콥터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정도의 차이지 거주장스럽기는 매한가지다. 직장에 갔다가 이 다방으로 거기서 저 친구 집으로 그리고 사택으로 헬리콥터로서야 도저히 날아다닐 수 없다. 그리고 값이 또한 엄두도 못 낼 만치 비싸다.

지난해 기회가 있어서 생후 처음으로 십 분간 연습기를 타본 적이 있었다. 이것을 계기로 내 공상비행기에 필수조건이 또 하나 첨부되었다. 즉 어지럽지 말 것. 이날 나는 단 십 분간 비행에 쾌적(快適)은 고사하고 어지럼증을 참노라고 죽을 고생을 다했던 것이다.

숨은 발명가들에게 당부한다. 머리에 쓰거나 발에 신거나 주머니에 넣거나 어깨에 걸칠 만치 간편하면서도 내 재력으로 능히 살 수 있을 만치 저렴하고(말하자면 양복 한 벌 살만치 저렴한 가격으로) 또 어지럽지 않은 소형비행기를 발명해 주십시오.

국경(國境) 없는 세계(世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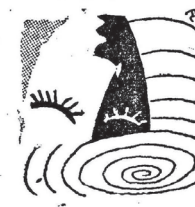
에리노어 루즈벨트 저(著)

오정환(吳正煥) 역(譯)

민주문화사(民主文化社) 간(刊)

현대인(現代人)의 지적(知的) 딜레마

이활(李活)



오늘날의 역사적 의지처럼 개인으로 하여금 그 스스로가 조성한 체계에 도입코자 그것의 악지(惡知)를 총동원해 본 일은 일찍이 역사에 없었던 현상인 것이다. 벌써 개인은 말하자면 너무도 준열(峻烈)한 살롱의 관념에 의거한 운산을 가질 여유조차 없이 이른바 선택의 자유조차 자율적으로 결정할 시간의 부여마저 없이 역사에 투입당하고 마는 것은 너무도 엄청난 경이(驚異)의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여사(如斯)한 사건의 양적 확대에 대한 자각이 행동적 현실을 발견할만한 새로운 지성의 질서를 발견치 못했을 경우 이러한 사태에 오늘의 불안이 번식(繁殖)하는 것이라고 보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대인의 지적 딜레마라는 문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전기(前記)한 역사의 징후(徵候)와는 무관한 문제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되는 원인이 다름 아니다. 지적 딜레마에 떨어지는 인간군(人間群)의 형성이 이미 문화의 문제에서 가치 소멸을 본지가 오랜 문제인 까닭이 그 첫째 이유라고 하겠다. 더욱이나 오늘의 역사 성격의 특징으로서 인간을 분류기 위한 카테고리(카테고리)가 준비되어 있는 이상 궤율규의 말을 빌 것도 없이 지적 딜레마의 미로(迷路)에서 방황하는 지식의 유리(遊離)는 문화의 가치 창조 면에 기여할 수는 없는 것이다. 혹시 광의의 의미에서 선악 쌍방의 봉사할 수 있는 과학의 문제의 해석으로부터 일반적으로 느끼는 비극의 양상 그것을 인류의 지적 딜레마라고 판정해 버리는 자연 발생적인 사고는 문화 일반 이전의 소박한 관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현대사회가 생산하고 있는 규격화된 인간 그것의 문제를 배경으로 고려(考慮)에 넣고 현실과 유리된 지식의 비(非)를 적발하면서 이하 서술하고자 하는 바이다. 아무래도 지적 딜레마라는 출제를 부여한 편집자(編輯子)의 의도가 그러한 현대사회의 주변에 드나드는 규격화된 인간들의 상실된 행동력 그것에 쏠리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는 까닭이다.

(가) 현대인에 대한 개념 규정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두가 현대인이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덮어놓고 그렇다는 대답을 내릴 수는 없는 이유를 갖고 있다. 그것은 현대, 근세, 중세, 고대라는 시대적 구분이 그 시대가 갖고 있는 관념의 특징에 의하여 더 많이 구분되어 있는 때문이다. 그러니까 오늘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그의 머리에 보유하고 있는 관념의 기초가 고대에 속하는 것인 경우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 적어도 현대인이라고 부르는 데는 약간 주저하는 터이다. 그러면 현대인에 대한

개념 규정을 내리기 전에 우선 우리는 현대에 대한 규정을 바로 잡는 것이 현대인의 개념을 얻는 첩경일새 옳다. 더 말할 것도 없이 구라파 문명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상반된 반목(反目)이 빚어내는 힘의 교체에 의하여 늘 발전적인 변천을 거듭해 왔던 것이다. 휴머니즘의 최초의 형성이 고대 그리스에 자리 잡게 되어 그것이 이른바 헤브라이즘의 종교적 압제의 중세로부터 의식적인 휴머니티의 발견을 위한 고전 복귀의 정신으로 표현되었던 르네상스로부터 비롯하는 근대 그것의 개념은 자아의 발견을 그리스, 로마의 고전 복귀 방식에 의하여 자아의 확충을 위한 구심적인 운동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은 당연한 근대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고대인이라고 하는 개념과는 대립한 것이었고 이른바 『고대인과 근대인의 논쟁』에 의하여 비평사상(批評史上) 알려져 있는 것이다. 이 『고대인과 근대인의 논쟁』은 고대인과 근대인이 논쟁했다는 의미는 물론 아니었고 고대인(그리스, 로마의 문학자)과 근대인이 어느 쪽이 과연 우수하나? 하는 문제를 에워싸고 되풀이된 논쟁이었던 것이다. 더 말할 것도 없이 이 논쟁이 시작해 나온 직접적인 연유는 근대인보다 고대인이 우수하고 따라서 근대인은 고대인을 배워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반박에 있었던 것이다. 예를 들면 매담대쉐(1654~1720)가 「일리아드」의 불란서 역(譯)(1711)의 서문에서 불란서 말에는 그리스 말이 갖고 있는 고귀성, 힘, 조화가 없다고 말하고 여기에 대하여 라뭏드(1672~1731)는 「호마」론(論)에서 불란서 말에는 그리스말과 같은 풍려(豐麗), 전아(典雅), 조화가 있음을 주장한 것은 전기(前記)의 논쟁을 대표한 좋은 예라고 하겠다. 좌우간 르네상스의 휴머니즘에서 얻어진 자아의 발견으로부터 자아 곧 우주라고 착각한 로맨티즘의 개성 편중과 자아와 현실을 분리하여 관찰에 의한 인식에의 방법으로서의 리얼리즘의 정신 그것에 이르는 과정은 과학성(科學性)에의 구심 작용을 확대해가는 일련의 의지에 의하여 근대의 개념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근대의 개념에 대한 부정이 YELLOW NINETIES로부터 시작되는 데카당적 문화풍조에 의하여 일어난 다음 이것의 재(再)부정에 의한 긍정의 시기가 말하자면 현대의 개념인 것이다. 19세기 말의 데카당적인 경향은 석탄재와 공장의 굴뚝 연기와 분주한 공업문명의 못 추악면(醜惡面)에 대한 부정을 그 사고의 지주로 삼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근대의 개념이라는 것은 사물 그 자체와 사물이 영겨서 이루는 연관을 바로 보자는데 있었는데 문제는 바로 보기 위한 동기의 형성과 균형되는 행동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여사한 집중의식을 떠받치고 있었던 지주가 무엇이었느냐? 하는 의문 그것은 근대 개념의 열쇠로 표현될 수 있었던 것이다. 르네상스 이후라는 것은 자아의 발견으로부터 일로(一路) 그것의 확대된 휴머니즘에의 길 이었고 근대 개념의 열쇠라는 것도 기실은 이러한 휴머니즘의 주류의 변모였던 것이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휴머니즘 그것이 과학과의 상봉에서 그것에의 긍정을 시인했고 그 후 19세기 말에 이르러 도리어 그것의 부정으로 표현되었던 것이었다. 그리하여 현대가 근대에서 계승하게 되었던 그것을 순종한다면 사실은 과학의 부정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연대적 구분에 탄생하는 창조적인 사고의 비평의식이 마침내 출현하여 고학의 긍정을 리얼리즘 시절과는 달리 입체적인 종합성에 의하

여 긍정케 되었던 것이다. 그러면 어떠한 태도와 사고의 기능에서 그것을 긍정케 되었나? 하면 휴머니틱한 관념으로서가 아니라 기하학적인 관념으로서 자아의 주체성을 형성하고 마치 방사로(放射路)와도 같이 뻗어가는 메카니즘의 구성을 행동 요소로 이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원시인으로서 기계라든가 문명에 반항하는 인간의 관념으로서가 아니라 기계를 만들어 낸 주지(主知)의 인간, 문화라든가 기술의 창조자로서의 인간의 관념의 추구가 사고의 내용으로 응결되어 그것이 하나의 역점(力點)으로서 현실에 임하여 목적의식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 스스로가 현실적인 주체성을 행동 속에 의식하게 되고 동시에 주체의 운동 질량에 대한 검토가 부정의 수술로서의 현실의 병리에 상응한 효과를 수긍케 되는 말하자면 긍정과 부정의 이율배반(二律背反)에서 생성되는 가능의 실천을 창안하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하면 현재 그것에의 개념은 문학, 예술 할 것 없이 인간이 형성한 근대의 개념의 기초였던 휴머니즘보다도 안티 휴머니즘의 방법에 의거하여 필연적으로 대상 자체의 전통보다도 주체의 새로운 실험을 주지의 거미줄을 안내로 실천했던 것이다. 현재사회의 산업조직이 분화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그와 같은 체계는 규격화된 인간의 생산에도 파급되어 마침내 분업의식의 습관은 종합적 인간상의 생성을 방해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른바 신사실파(新寫實派)라든가 그러한 예술이 에펠이 착안한 푸투르의 맹점(盲點)은 기계의 부속품으로 전락하는 인간 형태에 대한 착안인 것이다. 그러나 현대의 개념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체성의 현실적 확립에 의한 안티 휴머니즘의 의식이 행동의 효용(效用)으로 떠받쳐지는 메카니컬 파워에 의지하는 개념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러한 개념을 구비한 주체를 가리켜 현대인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을 행동에 선행시키는 현대인이라는 것은 어떠한 시추에이션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결코 행동을 상실한 지적 딜레마에 자신을 함락시키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필자의 견해가 추출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대인의 개념은 주지(主知)의 주조에 의하여 그 규격이 정해질 것에는 틀림없겠다.

(나) 근대인과 현대인의 공존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가령 시인에 그 예를 든다면 오늘 이 시대 그 장소에 살고 있는 시인의 모두가 현대시를 쓰느냐? 하면 반드시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는 작시술(作詩術)을 19세기 그대로 갖고 있는가 하면 다른 한 사람은 역사적 현실과는 동떨어진 개인의 시추에이션을 심화함으로써 인생이 의미를 파악하리라는 자연주의적인 확신을 갖고 있는 기괴한 현상을 우리는 일상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의 경우라 하더라도 이러한 관례를 초월하는 기적은 거의 없이 근대가 자랑했던 휴머니틱한 관념을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주위의 현대인 아닌 현대인이라 하겠다. 20세기의 30년대에 들어오면서 일어난 이른바 행동주의적 휴머니즘이라는 문학상의 운동은 르네상스 이후 19세기 말엽까지의 근대가 포용한 휴머니즘의 정신에 행

동을 결부시켜서도 그것의 체계를 이룩하지 못했다는 훌륭한 증거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앙드레 마무로 등에 의하여 제창된 행동주의적 휴머니즘의 운동을 결국 한 쪽에 있어서 자아와 세계의 유리(遊離) 또는 자아 그 자체의 분산 상태에 능응(能應) 있는 인간에게 전체성에의 의식을 줌으로서 사회 의식적인 인간을 형성하는 한편 관조적(觀照的)인 근대인(19세기)의 사고방식을 양기(揚棄)시켜 역사적 현실은 움직이는 그러한 환경 속에 실험적인 생의 상태를 조성하자는 데 목적이 있었으나 그러나 철두철미 현대인의 행동은 인텔리전스²⁸⁾의 매개가 안티 휴머니즘의 의미에 촉매(觸媒)되지 않은 한 새로운 휴머니즘—말하자면 스스로 행동을 수반한 휴머니즘의 주지적인 생성은 예기할 수 없는 것이다. 오늘 우리들의 사회에 스스로의 생을 영위하는 인간의 관념을 분류하면 근대적인 관념의 인간형의 발호(跋扈)가 있고 현대의 관념의 전도(轉倒)가 서로 엉키어 교착하는 현상이 범람하는 판이다. 게다가 이러한 시대의 로터리에 선 지식의 과잉은 그것의 규격에 따라 생산한 기계 인간의 형성을 촉진한 독촉장이 되어 이른바 현실 도피 혹은 행동력의 상실에서 오는 모델의 모색에 빠지는 인간형을 조성케 하는 것이다. 만약에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의 일부분의 지식인이 지적 딜레마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현재적인 관념의 인간 타입과 근대적인 인간 타입과의 착종(錯綜)과 그것의 지양 속에 양기되는 보수의 운명을 투시할 수 없는 지식의 파편을 소화하지 못한 근대인의 사고의 한정이 조작하는 노릇 일세 옳다. 있는 그것의 부정으로부터 있어야할 그것에의 긍정을 형성하는 새로운 지성의 구성없이는 현대의 관념을 형성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 그러나하면 현대 그 자체가 방법론의 시대인 까닭이다.

(다) 현대와 정치

우리가 정치를 논할 때 휴머니즘을 떠나서 그것의 시비를 가릴 수는 없는 것이다. 왜? 그러나하면 휴머니즘 그것은 우리들의 생활 감정인 까닭이다. 우리들의 생활 감정으로서의 휴머니즘이 역사성(歷史性)과의 조우에 의하여 다시 그것의 당위성을 획득하게 되는 것인바 이러한 휴머니즘의 새로운 국면을 조성하는 기능이 말하자면 역사적 의식인 것이다. 적어도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정치에의 책임을 느끼게 된다는 말은 순전히 이러한 휴머니즘의 당위성에 대한 현재적 한정에서 결과 되는 하나의 새로운 모델인 것이다. 그러면 역사적 변천을 거듭해온 휴머니즘은 어떠한 복장을 입고 있었든가 살펴보기로 한다. 더 말할 것도 없이 르네상스의 휴머니즘은 중세의 종교적 질곡(桎梏)으로부터 해방되려는 인간 각개의 생활 감정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르네상스의 휴머니즘은 개성을 존중하고 강대한 개인의 형성을 찾기는 했으나 반드시 그것이 개인주의는 아니었다. 그것이 개인주의의 사상으로부터 발전한 것은 도리어 계몽사상의 시기에서 시작된 현상이었다. 르네상스라는 것은 자아

의 재창설을 위한 시대임과 동시에 민족의 해방을 위한 민족 단위의 문화 형성을 이룩한 시대이기도 했다. 이태리의 모든 휴머니스트들은 그들의 모든 문화운동을 만민(蠻民)으로부터의 이태리 국민의 해방으로 이해했다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종교적 질곡으로부터의 해방의식은 이태리 국민의식의 형성으로 확대해 갔다는 것이다. 중세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지상에서의 하느님의 나라에 대한 관념 온갖 민족적 사회적 문화적 차이를 초월한 통일적 가톨릭 교회적인 보편적 문화의 관념이 그것이었다. 르네상스에 있어서의 휴머니즘의 의지적인 현상은 이와 같은 신(神)의 나라에 대한 관념의 몰락과 통일적인 가톨릭 문화를 타파하는데 임하기를 국민적 문화 관념을 갖고 일어섰던 것이다. 그리하여 르네상스 이후의 휴머니즘의 과정은 필연적으로 국민문화의 탄생을 촉진하는 계기와 자작을 주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근대에 있어서의 휴머니즘의 개념은 인간이 찾고 있는 그것이 개인의 자유임과 동시에 그것은 국민의 자유이었고 따라서 휴머니즘의 모델은 단순한 자유주의 개념과는 이질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자유주의의 개념이 자본주의의 발달로 말미암아 합리주의 사상으로서의 계몽사상의 시기를 근대에 삼입했던 것이다. 그러나 인간적인 감정과 정념(情念)을 찾는 휴머니스트가 단순한 합리주의로 전락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 그러나하면 휴머니스트에게는 인간의 추상적인 본질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인간상이 그로 하여금 그것에의 구성작용을 일으켰던 것이다. 추상적인 이성인 인간의 본질로 생각한 것은 계몽사상이었고 17, 8세기의 계몽주의자들의 이러한 오성(悟性)에 반발을 일으킨 것은 독일(獨逸)에 있어서의 제2의 휴머니즘인바 그것은 주로 계몽사상의 기계적 세계관에 대한 반발이기도 했다. 이 독일의 휴머니즘이라는 것은 르네상스의 휴머니즘이 새로운 생의 감정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새로운 생의 감정인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STURM UND DRANG라고 불리는 운동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었다. 이 운동의 내용이라는 것은 신흥 시민 층의 정치의식과 결부된 봉건적 질곡으로부터 인간성을 해방하는 일이었다. 문학에 있어서 뷔란데쓰가 말하다시피 청년독일파의 낭만주의 운동은 이러한 정치의식과의 공통 보편성에서부터 출발했던 것이다. 다시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계몽사상에 있어서의 휴머니티라는 것은 그 가치를 합리성 속에서 추출했던 것이나 그러한 관념은 이성만이 가치 의식의 지주로서 군림케 되는 결과를 조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생(生) 그 자체가 품고 있는 인간의 자연적 특성이라는 것은 단순한 합리적인 개념 만으로서는 붙잡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면 이성이 아닌 어떤 것에 의하여 이 생의 개념은 가치를 얻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STURM UND DRANG 운동에 있어서의 생의 본질에 대한 내면적인 체험이 있는 것이었다. 그들은 말하기를 생과 그 개성적인 표현이 그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은 생 그 자체가 신적(神的) 성질을 갖고 그 근원적인 개성 속에 신적인 계시를 느끼는 태도의 개조로서 생은

(11면(面)으로 계속)

28) 원문의 '인테리센츠'는 '인텔리전스'로 보임.

UN본부(本部) 견학기(見學記)

AM 로젠타알

뉴욕에 또 하나의 명물이 생겼다. UN본부 건물이다. UN의 기구와 본부 건물이 이곳에 생긴 이상 이곳은 전 세계의 중심지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상당한 수의 인원이 이곳에 출입하게 되리라고는 이미 예상한 일이지만 이와 같이 다수의 일반 방문객이 쇄도할 줄은 몰랐다.

1952년 10월 미국 UN협회는 일반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여 UN본부 건물의 북입구(北入口)에 다음과 같은 간판을 붙였다.

안내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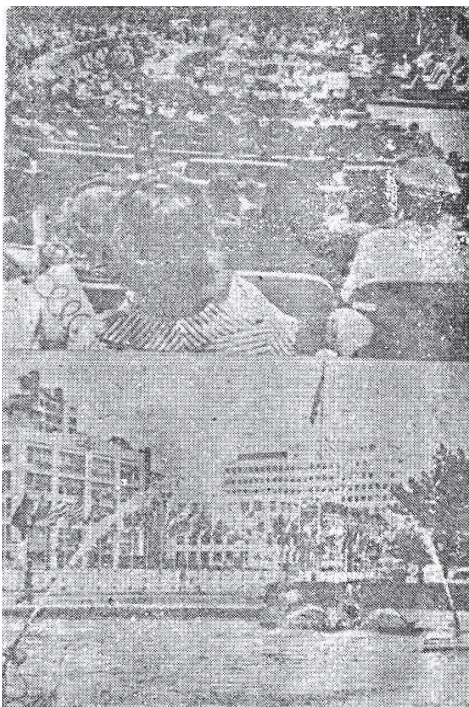
- 성인 1불
- 학생 반액
- 군인 무료

그 후로부터 방문객은 점점 더늘어나서 지나간 반년 동안에 구경꾼이 25만 명에 달했다.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할에 1,400명에 달하고 있다.

이 많은 손님을 안내하고 정리하기 위하여 60명의 여자 안내원이 채용되어 있다. 종래를 1주일에 5일간만 공개하던 것을 요사는 일요일 날도 해야 될 만큼 성황을 이루고 있다.

UN본부를 형성하고 있는 3대 건물을 일순(一巡)하는 데는 약한 시간을 요한다. 그러나 사무총장의 숙소와 대표단의 클럽만은 볼 수 없다.

이곳에 방문객이 많다는 원인 중에는 이곳이 뉴욕시 관광코스에 들어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수많은 미국인 중에는 자기가 기부한 돈이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는가를 보러 오는 사람도 적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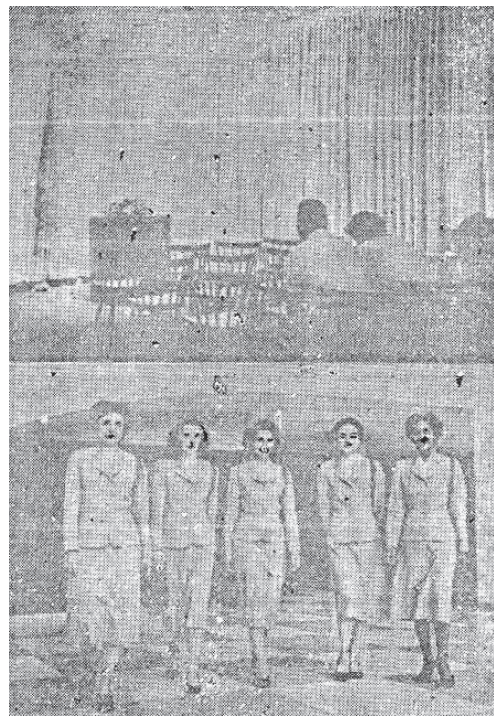
물론 가장 큰 목적은 UN총회 및 각종 이사회의 방청에 있겠지만 한편 길이 15마일에 달하는 양탄자와 총면적 6에이커에 달하는 유리 창문을 보러 오는 사람도 있다.

본부 앞에 있는 「어린이의 분수(噴水)」는 전 미국 국민학교[초등학교] 아동들이 푼돈을 기부해서 만든 것이며 이 분수에 사용된 예쁜 돌(石)들은 로크 도(島)에 사는 부인들이 정성껏 채집해서 보낸 것이라는 의미에서 인기가 높다.

수많은 방을 통하여 가장 인상 깊은 방은 소위 '명상(冥想)의 방'이다. 타원형으로 생긴 방 안에는 의자 몇 개와 커튼과 UN기(旗)가 있을 뿐 지극히 간소한 장치이지만 이 방이 방문객에게 주는 감명은 상상외로 크다.

한 시간 동안에 걸친 구경을 통하여 방문객을 즐겁게 해주는 또 하나의 요소는 아름다운 여자 안내원의 존재이다. 매력 있고 목소리가 아름답고 고등 교육을 받은 이 안내원 가운데는 세계 19개 국어를 하는 여자도 있다.

(뉴욕 타임스 매거진 지(誌)에서)



사진(寫眞) 전면(前面)부터

상(上) 회의 방청객

하(下) 본관 앞에 있는 '어린이 분수(噴水)'

상(上) 1층에 있는 '명상(冥想)의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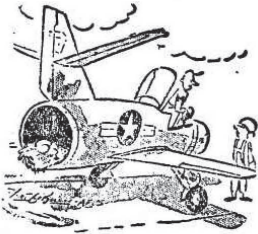
하(下) 방문객을 위한 안내원들

(그중에는 19개 국어를 하는 여자도 있다.)

기수(旗手)

알폰스 도우데 작(作)

오순일(吳純一) 역(譯)



(1)

연대(聯隊)는 철도선으로의 사면(斜面)에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정면 수풀에 밀집해 있는 프로시아군 전체의 표적이 되어 있었다. “엎드려……”라고 상관이 호령해도 아무도 그대로 하려 들지 않는다. 용감한 연대는 선채로 군기(軍旗)의 주위에 모여 있었다. 보리밭 목장들이 가로 놓여 있는 넓은 지평선 속에서 무럭무럭 초연(硝煙)에 싸여 고투하고 있는 이 연대원들은 들에서 갑자기 무서운 선풍에 습격당한 가족들의 떼갈이 보였다. 사면에서 탄환의 비가 퍼붓고 있는 것이었다. 들리는 것이라고는 다만 총화의 폭음, 참호(塹壕) 속에서 밭통 구르는 둔한 소리, 그 다음엔 전장(戰場)의 끝에서 끝까지 마치 팽팽한 악기의 구슬픈 음향처럼 길게 진동해가는 탄환소리, 머리 위에 우뚝 섰던 깃발이 때때로 산탄(霰彈)의 바람에 흔들렸다가는 연기 속에 잠겼다. 그리고 이편의 총소리와 부상자의 신음소리가 놀리어 들어가는 것 같이 침울하게 들린다.

“이봐 기기다……”

한 사관이 붉은 안개 속을 그림자 같이 달려갔는가 하면 군기는 잡아 흔들려 싸움터 높이 휘날렸다.

군기는 스물두 번이나 넘어졌다. 깃대는 스물두 번 빈사자(頻死者)의 손에서 떠나 그의 피가 식기 전에 또 다른 손에 잡혀서 세워졌다. 해질 무렵 연대에 얼마 남지 않은 병사—헬 수 있을 만큼 겨우 몇 명밖에 안 되는 인수—는 조용히 퇴각했다. 군기는 이미 걸레조각처럼 되어 그날 스물세 번째의 기수 올슈 이등상사 손에 잡혀 있었다.

(2)

올슈 이등상사는 기억자 셋을 찬 노병이었다. 자기 이름도 겨우 쓰는 무식한 사람으로서 하사관의 완장을 지키는데 20년이나 걸렸다. 기아(棄兒)로서의 기구한 운명과 병영생활자(兵營生活者)의 솔직함이 좁은 이마와 굵은 잔등에 그대로 나타나 다른 병졸들과 같은 태도를 취하려고 노력할 때에도 그것이 은연중 나타나는 것이었다. 게다가 그는 또 말터듬이었다. 그러나 기수에는 용변이 필요 없는 것이다. 전투가 있는 밤 연대장이 그에게 말했다. “네가 기를 가지고 있지. 그럼 잘 부탁함세.” 어떤 때 비바람과 총화로 이미 다 낡아빠진 그의 군복에다 어떤 술집여자가 소위(少尉)의 금줄을 꿰매 주었다.

이것은 그의 겸양한 생애 중의 유일한 자랑이었다. 곧 이 노병의 허리는 꽃꽂이 퍼졌다. 눈을 내리감고, 구부정하게 걸어 다니던 이 가엾은 사나이는 이때부터 자랑에 넘치는 얼굴로 항상 눈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걸레 같은 군기를 바라보며 그것을 죽

음, 배반, 패배의 그 모든 것을 넘어서 높이높이 똑바로 지키리라고 결심하는 것이었다.

전투하는 날 올슈만큼 행복한 인간은 드물었을 것이다. 그는 깃대를 꼭 가족주머니에 넣어서 두 손으로 지그시 붙잡고 있었다. 말도 아니하고 움직이지도 않았다. 목사 같은 엄숙한 얼굴로 무언가 성신한 물건을 받으려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탄환이 날아오고 있으나 금빛 고운 군기들레에서 경련하고 있는 그의 손가락을 보거나 또 프로시아군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이걸 뺏을 재간이 있거든 뺏어봐라……”하는 태도로 도전(挑戰)에 넘치고 있는 그의 눈을 보거나 거기에는 그의 전 생명 전력이 부여져 있는 것이 확실했다.

아무도 그것을 뺏으려고는 하지 못했다. 「볼니이 그라브루트드」 같은 가장 전상자가 많았던 전투 후에서도 군기는 어디에나 휘날리고 있었다. 찢어지고 구멍이 뚫리고 술들만이 남았지만 그것을 끝까지 들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노(老) 올슈였던 것이다.

(3)

9월이 왔다. 뗏목의 진탕 속에 그 지리한 주둔을 계속한 부대의 대포는 녹이 쓸었고 세계 일류를 자랑하던 군대도 무위(無爲)와 식량과 정보의 결핍에 의하여 사기가 저상되어 열병과 권태로서 총부리 밑에 죽어가는 사람이 속출했다. 지휘자나 병사를 물론하고 이미 신앙을 가진지가 없었다. 홀로 올슈만이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걸레조각 같은 삼색기(三色旗)가 그에게는 모든 거의 생명이었다. 기가 거기 있다고 느껴지는 한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다고 그는 생각하는 것이었다. 불행히도 지금은 전쟁이 없었으므로 연대장은 군기를 뗏목 가까운 자기 거주하는 곳에 가져다 두었다. 그래서 올슈의 마음은 자기의 어린애를 유머에서 맡겨둔 어머니의 마음과도 같았다. 그는 잠시도 기를 잊지 않았다. 그래서 너무 지루하고 심심해서 견딜 수 없을 때면 뗏목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기가 그 자리에 가만히 벽에 기대서 있는 것을 보고는 용기와 정열에 넘쳐 돌아오곤 했다. 그리고는 젖어 얼룩진 철막 밑으로 싸움의 꿈과 전진의 꿈과 또는 프로시아군의 참호 위에서 씩씩하게 펄럭이는 삼색기의 꿈을 함께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었다.

그러나 베제에는 원수의 명령이 이 환상을 깨트려 버렸다. 어느 날 아침 올슈가 눈을 뜨니까 진중(陣中)이 소란하고 병졸들이 여기저기 모여 있었다. 어찌된 셈인지 본격하고 흥분한 노성으로 외치며 모두 한 모양으로 거리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있었다. 마치 죄인이라고 지적하는 것처럼.

“그놈을 죽여라. 총살이다……”라고 외치기도 했다. 장교는 묵묵히 지켜보고만 있었다. 그들은 부하들에게 부끄러운지 머리를 숙이고 길을 피하며 걷고 있었다. 참말 굴욕이었다. 충분히 무장한 장건한 십오만의 병사를 싸우지도 않고 적의 손에 넘기겠다는 원수의 명령서는 군대의 굴욕이 아닐 수 없었다. 그 명령서를 병사들이 지금 막 읽는 것이다.

“그럼 기는?” 하고 올슈는 창백한 얼굴로 물었다.……기는 총기 기타 부대에 남았던 전부와 함께 이미 넘어간 것이었다.……

“젓, 젓……망할 것……” 가엾은 노인은 더듬더듬 중얼거렸다. “내건 절대로 놈들에

게 안줄 테다.” 그렇게 말하고 그는 거리를 향해 달음박질 했다.

(4)

거리도 또한 대단한 소동이었다. 국민병, 시민, 지원병들의 떠드는 소리가 한데 뒤범벅이었다. 대표자들이 떨면서 원수한테로 간다. 올슈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무 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거리를 걸으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내 기를 빼앗다니…… 대체 그럴 수가 있느냐 말이다. 그런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냐 말이다. 원수가 프로시아군에게 물건을 줄려면 번쩍거리는 마차라든가 멕시코에서 가져온 고운 접시라든가 그런 것을 주면 되지, 허나 그건 내꺼야……내 명예야……적들의 손을 대이게 하구 견디느냐 말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정말 그의 결심이 있었던 것이다. 실로 명백한 요지부동의 신념……。 다시 말하면 기를 손에 들고 연대에 돌아와서 깃발아래 모여드는 사람들과 함께 프로시아군 속에 뛰어들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거기 이르렀을 때에는 집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연대장도 분격해 있었기 때문에 아무와도 만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올슈는 되돌아 설 수가 없었다.

그는 마구 떠들고 외치며 파수병을 물리쳤다.

“내 기다. 나는 기가 필요하단 말이다……” 끝내 창이 열렸다.

“올슈냐?”

“네, 연대장님 저는……”

“군기는 모두 병기창에 가있다……거기 가보아 영수증을 줄 테니……”

“영수증? 어떻게는 겁니까?”

“원수의 명령이다……”

“그러나 연대장님……”

“인제 그만뒤요……”거기서 창은 닫혔다.

올슈 노병을 술이 취한 것처럼 비틀거렸다.

“영수증, 영수증……”하고 그는 기계적으로 되풀이 했다. 그리고는 겨우 걷기 시작 했다. 허나 그는 자금 한 가지 일밖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그것은 병기창에 있는 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도루 찾아야 하겠다는 일이었다.

(5)

병기창문은 커다랗게 열려 있었다. 창 내 광장에 열을 지어 대기하고 있는 프로시아의 수송차(輸送車)를 통과시키기 위해서였다. 올슈는 들어가면서 몸서리를 쳤다. 다른 기수들도 모두 거기 와서 5, 60명의 사관들이 비통한 얼굴로 묵묵히 서 있었다. 그리고 빗속에 열을 짓고 있는 우울한 마차, 그 위에 모자도 쓰지 않고 모여선 인간들—그것은 마치 장례식의 행렬 같았다.

한쪽 귀퉁이에 바제에는 군단의 군기 전부가 흙투성인 돌 위에 함부로 쌓여있었다. 찢어졌으나 화려한 비단 금술로 조각된 깃대, 이 영예에 찬 도구가 죄다 땅에 던져져 비와 흙에 젖어 있다. 이처럼 비통한 광경이 다시 있을 수 없었다. 어떤 관리 하나가 그

것을 하나하나 들었다. 그리고 그 소속 연대이름을 부를 때만다 기수가 나아가서 영수증을 받았다. 딱딱하고 무표정한 프로시아의 사관 둘이 군기가 쌓여가는 것을 지켜 보고 있었다.

아아, 성스러운 관영의 비단이며 그대들은 이렇게 찢긴 채 날개를 다친 새처럼 구슬프게 사라지고 만단 말인가? 그대들은 아름다운 것이 더럽혀졌다는 오욕(汚辱)을 안고 사라져 간다. 그러나 그대들은 제각기 프랑스의 한 구렁이씩을 떼 가지고 가버리는 것이다. 오래 진군하는 동안에 받아드린 햇빛은 그대들의 색이 낡은 주름 속에 남아 있다. 탄환 자취에는 깃발 아래서 흩어져간 전우들의 추억도 감추고 있을 테지……

“이봐, 올슈 너야……부르지 않니? 영수증을 받아와……”

그렇다. 영수증에 틀림없었다.

기는 그의 앞에 있었다. 틀림없이 그의 기다. 제일 훌륭하고 제일 찢어졌다……

바라보는 동안에 그는 언젠가 싸움터에서의 심정이 살아났다. 탄환 나는 소리, 발통 부서지는 소리, 그리고 “여봐, 기를 지켜.”하던 연대장의 목소리들이 들려온다. 그런가 하면 스물두 명의 동료가 잇달아 쓰러져가고 스물세 번째에 그가 입자를 잃은 기를 받들어 들리고 달려가던 때의 일들이 머리에 떠오른다. 아아, 그날 그는 이 눈앞에 있는 군기를 지키기로 맹세했던 것이다. 그것이 지금은…….

그것을 생각하면 심장의 피는 죄다 머리로 치밀었다. 취한 것처럼 미친 것처럼 그는 프로시아 관에게 달려들어 사랑하는 군기를 뺏어 두 손에 꼭 붙잡았다. 그리고 똑바로 높이 들며

“여봐 기다……”하고 외치려고 했으나 그 소리는 목구멍 속에서 끊기고 말았다. 그는 깃대가 떨리는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항복한 거리위에 무겁게 내리덮인 피곤한 공기, 주검 그것 같은 공기 속에서 기는 이미 휘날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들의 자량도 이미 살 수가 없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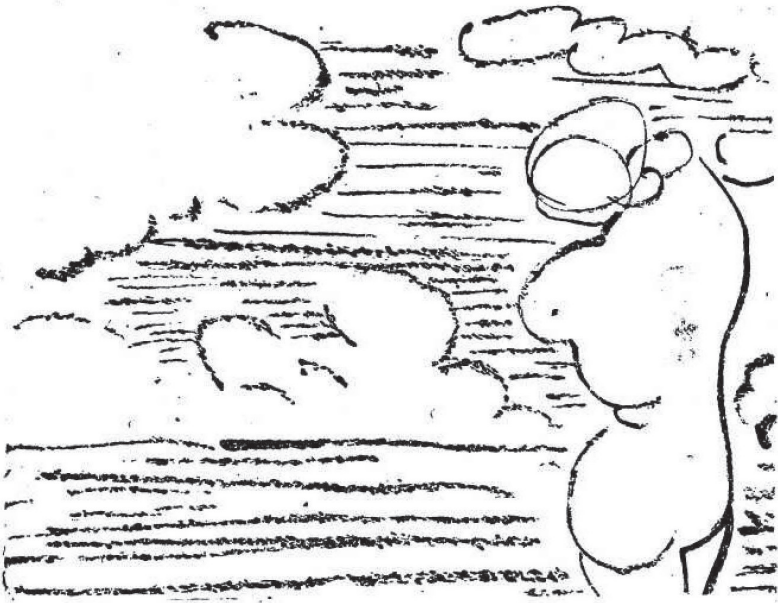
……노 올슈는 폭 거꾸러졌다.

월세계(月世界)의 대륙교(大陸橋)

은빛의 월세계에서 토끼가 떡방아를 찧는다는 것은 옛말이고 오늘에 있어서는 훌륭한 문화도시를 이루고 있을 정도로 일변한 모양인지. 그것의 증거로서는 틀림없이 인공적이라고 생각될 만한 커다란 대륙교랄까 이러한 것이 발견되었다. 즉 그 다리는 전장(全長) 20리, 폭이 3천 피트가량이라고 추정된다 하며 무엇인지 지구상의 철교를 본뜬 것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알맞게 아취(arch)형으로 되어 있으며 그것이 커다란 산과 산 사이에 놓여 있는 장관은 약간 불만한 것이다. 라고 한 것은 영(英) 왕실(王室) 천문학회 회원이며 영(英) 천문학협회 ‘달’연구부장인 H 윌킨즈 박사의 ‘대발견(大發現)’이라는 것이다.

과연 진짜(眞字)인지 가짜(假字)인지?

(외지(外紙)에서)



<단편소설(短篇小說)>

휴가병(休暇兵)

김장수(金長壽)

(1)

오늘 편지를 받았다.

“이 어미는 네가 휴가로 돌아오지 못할 것을 칠성당에 빌고 있다……”

어머니로서 더구나 목숨을 걸어놓고 이제까지 싸우다가 살아남은 아들에게 과연 이렇게 무자비할 수 있을 것일까?

김 중사가 내 옆에서 편지를 읽고 있다가 서로 바꿔보자 했다.

나는 싫다 했다.

실상 김 중사와 나는 좋은 소식이던 나쁜 소식이던 이제까지 바꿔 읽어오고 쌍방의 희비를 동정하고 서러워해온²⁹⁾ 막연한 전우였다.

김 중사는 나의 거절의 이유를 물었다.

죽었으면 죽었지 이 편지만은 보여줄 수 없다 용서하라고 간신히 말을 했다.

29) 원문의 ‘설어해온’은 ‘서러워해온’으로 봄

나의 심정도 모르고 김 중사는 추근추근하게 나의 비밀을 알려했다.

그것이 일종의 공통된 인간심리이므로 딱 잘라 거부했다.

“자넨 이상한 소리만 하네 그려……”

김 중사는 무안(無顔)을 느꼈던지 편지를 접어들고 병사(兵舍)를 향하여 성난 걸음으로 사라졌다.

“……칠성당에 빌고 있다……”

“집이 무너졌고 잘 자리도 마땅치 않고 또한 너를 반겨 맞이할 지전(紙錢)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러한 구절구절은 볼 필요도 없이 나는 뼈아픈 칠성당 운운의 구절을 오랑캐를 미워하는 눈초리 이상으로 쏘아봤다.

편지를 들고 있는 왼손이 자꾸만 떨렸다.

이것은 내가 극도의 흥분에 사로잡혔을 때의 습성이기도 했다.

황혼이 곱게 곱게 군인들의 마음을 덮기 시작했다.

오늘 이러한 편지를 받지 않았더라면 이 시각은 나에게 있어서는 확실히 행복한 시각이었을 것이다. 내일 출발할 수 있는 이주일간의 휴가증이 무슨 보물같이 포켓 속 깊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식사를 하러가세.”하고 노여움을 푼 김 중사가 뛰어와 팔을 붙들고 내가 일어나기를 기다렸다.

그렇게 맛이 있고 알뜰한 야전(野戰) 밥이 통 입술을 적시지 못했다.

“먹어야지 내일 서울 가서 응!?……”

긋속말로 아내를 반갑게 만날 수 있지 않는가 하고 김 중사가 속살거렸다.

“흥!”

나는 콧구멍으로 김 중사의 말을 응수했다.

남들은 각각 내일 도착할 또는 며칠 후에 만날 고향의 그리운 사람들이 환상을 포근히 가슴에 안은 채 자랑을 늘어 놓음으로 해서 무한의 행복에 도취되어 지껄이기에 여념이 없었으나……

나는 모포(毛布)를 뒤집어쓰고 모든 것을 잊기 위해 잠을 신경에 청했으나 그럴수록 정신은 더 말짱하기만 했다.

어머니로써 자식들에 대하여 지극한 애정을 베푼다는 것은 어머니가 어머니 됨으로서의 어머니의 어쩔 수 없는 진지인 듯이 내 어머니도 어제까지는 적어도 외아들인 나에게 남다른 애정을 쏟은 것을 부정을 못하는 바이다.

그러한 어머니가 그러한 어머니가 아니라도 도저히 일선에 있는 자식에게 휴가로 돌아오지 않기를 빌고 있다. 마치 사형을 언도(言渡)하는 법정의 재판장 이상의 냉혹한 말을 어머니로서 할 수 있을 것일까?

과거의 어머니가 그 누구의 어머니들보다도 착하고 어진 어머니였기에 나의 괴로움은 한층 더 골수(骨髓)에 사무쳤다.

국민학교를 나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생의 신분으로서는 지나칠 정도의 호의호식을 한 것도 재산이 있었다는 것과 어머니의 사랑이 많았다는 것에 기인한 것이었다.

6.25의 동란이 터지고 9.28의 승리가 있었을 때 어머니의 힘으로 판 굴속에서 선 들바람을 마음껏 몸에 받을 수 있었다.

이때만 해도 놈들의 의용군에 강제로 끌려나가지 않았던 최대의 힘도 역시 어머니의 거룩한 애정의 힘이었다.

와아들이라 해서 빨리 장가를 보낼 심산을 한 부모들은 고등학교 졸업반에 적을 두었을 때 여자 중학을 마친 경숙(京淑)과 약혼식을 했다.

놈들이 쫓겨 가고 서울이 대한민국의 서울이 되자 나는 경숙과 결혼을 했다.

1.4 후퇴 때 대구에 피난을 했었을 때 군에 입대했다. 훈련을 마치고 일선에 배치되어 그 이듬해 여름 때 휴가로 서울 집에 돌아왔다.

북아현동(北阿峴洞)에 집이 있었기에 다행이었다.

집도 제대로 있었고 가족들도 밀도강(密渡江)을 해서 와 있었다.

부모는 나를 일사안고 기쁨에 울었고 경숙도 어쩔 줄 모르게 좋아했다.

전선을 전전(轉轉)하면서 수십 차의 아슬아슬한 육박전을 감행했지만 이상하게도 다치지 않았고 두 번째의 휴가를 얻어 집에 온 것은 작년 가을이었다.

그때로 어머니와 경숙의 애정은 예나 다름이 없었고 그 후 올 여름까지도 어머니의 편지는 다정스러웠다.

한 가지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봄부터 아내 경숙으로부터의 편지를 한 장도 받지 못했었다.

그러기에 나는 어머니께 경숙이가 이상하지 않는가 하고 편지를 했더니 조금도 이상하지 않고 충실히 가지들을 시중하고 있다는 회답이었다.

뜻하지도 않았던 휴전이 성립될 때까지 경숙에게 다섯 번 이상의 편지를 해도 통 회답이 없었다.

부모들 시중하기에 눈코 뜰 새 없다 해도 편지 한 장쯤 쓸 시간이 있지 않는가 하고 어머니께 불평도 써 보냈고 경숙이한테 항의도 했으나 네 아내는 잘 있으니까 안심하라는 어머니의 한결같은 애정의 회답이었고 경숙으로 부터는 캄캄 무소식이었다.

‘참말로 이상한데……’

경숙에 대한 이러한 기우(杞憂)는 어머니의 편지로써 능히 극복할 수 있었다.

나에게 있어서는 아내의 말보다도 어머니의 말이 절대적이었다.

아내를 의심하고 그 의심을 어머니의 사랑으로써 풀어온 나로 하여금 실로 청천

벽력적인 어머니의 편지 구절이었다.

집이 무너졌다는 말…….

잠자리가 마땅치 않다는 구절…….

너를 반겨 맞이할 지전도…….

이러한 편지 구절이 믿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편지를 받은 후 몇 시간 나의 심경을 지난날 어머니를 사랑하고 믿어 온 그 이상의 마음으로 경숙이가 그리워졌고 어머니의 절대적인 말을 거역해야만 속이 시원해질 것 같았다.

나는 가야만 한다.

서울로…….

아내가 반겨 맞이할 서울로 나는 남들과 같은 마음을 지니고 가야만 한다.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과 아내를 사랑한다는 마음은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한 듯한 나였다.

(2)

신설동(新設洞)에 산다는 김 중사와 또 다른 곳에 갈 몇몇 전우들과 함께 트럭을 탔다.

몸과 마음이 서울로 서울로 달려가는 트럭에서 어머니의 그 편지 구절이 거짓말이 되어 주기를 빌었고 어머니가 그 전의 어머니가 되어 나를 안아주기를 은근한 기대를 안고 쾌속도로 달리는 여섯 개의 바퀴가 더 빨리 돌아가기를 빌었다.

도중 나와 그리고 여러 전우들의 고향으로 달음질치는 마음의 안타까움도 모르고 두 번이나 빵꾸를 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군소리를 운전병께 퍼부었다.

불가항력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트럭이 서울역전에 닿은 것은 가을의 황혼이 스며드는 무렵이었다.

부리나케 전차를 잡아탔다. 북아현동으로 뻗은 고갯길을 걸었다.

집이 막상 가까워지자 나의 마음은 다시 불안하기 시작했다.

내 한 발짝 띄어 놓은 걸음걸이에 어머니가 쓴 그 얼음장 같은 한 단어의 한 자 한 자가 또렷이 나타났음에서였다.

예나 지금이나 조용한 나의 집 대문 앞에 섰다. 가슴이 달아올랐다.

그러한 편지를 만일 받지를 않았더라면 박차고 뛰어 들어가 내가 왔노라고 고향을 쳤을 텐데…….

남의 집 대문 앞에 구걸 온 그러한 사람의 심정파도 같은 나의 가슴 아픈 순간이었다.

누가 물을 푸는지 두레박소리가 사방의 괴괴함을 깨뜨렸다.
 “또 그 짓을…….”
 아버지의 험없는 말이 대문밖에 새어 나왔다.
 “영감은 남의 마음도 모르고……날 그렇게 괴롭히지 말아요. 제발!”
 “괴롭긴 피차일반이야! 그대로 훈철이를 집에 오게 하여 시종 애길 해야 되잖으
 오. 괜히 그런 편지를……”
 “글쎄 영감보다 내가 그 애를 더 보고 싶어요. 좀 날 괴롭히지를 말아 주어요.”
 “칠성당이고 뭐고 그 애를 오지 못하게 비는 것만 고만둬요.”
 아버지의 노성(怒聲)이 터져 나왔다.
 “인지하신 칠성당님, 제발 제발 비나이다. 내 자식 내 아들이 제발 제발……”
 “듣기 싫어!”
 미어지는 듯한 가슴을 안은 채 대문을 열고 들어선 내 발밑에 어머니가 물을 떠놓
 고 밟고 있는 물 사발이 아버지의 손으로 말미암아 산산이 깨어져 흩어졌다.
 “철이!”
 아버지는 달려와 나를 덥석 안았다.
 나는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참고 마구 뛰는 아버지 가슴에 얼굴을 파묻었다가 어
 머님을 봤다.
 어머니는 낯을 잃은 사람같이 한 자리에 우뚝하니 서 있다가 머릿속에 깊이 박힌
 어떤 생각을 단념한 듯이 그 편지 이전의 어머니으로 돌아가 나의 목을 안고 아랫배를
 파동치더니 드디어 울음으로 화했다. 방안에 들어온 세 사람은 서로 눈물만 흘렸다.
 나는 울다가 처(妻)가 어디에 갔느냐고 물었다.
 “응! 너 처 말이지 저……죽……”
 “죽었어! 죽었다.”
 아버지의 말을 가로 막은 어머니의 대답이었다.
 “옳!”
 나는 펄쩍 뛰었다. 정말로 엉덩이를 방바닥에서 뺐다.
 “죽었어! 죽었다.”
 똑 같은 어머니의 대답이었다.
 “그 애가(경숙) 죽은 것은 올 봄이었다.
 그 후 네게 그 소식을 전하려다가 네가 너무 비관할까봐 일부러 속여 왔다.
 휴전이 성립되고 보니 일선에서 휴가를 얻어 돌아오는 군인들을 볼 때마다 가슴
 이 미어지는 듯했고 괜히 알리지 않았다는 후회가 막심한 끝에 그러한 편지를 했다.”
 어머니의 말이 다 끝났을 때 아버지는 무엇을 골똘히 생각하는 듯한 얼굴빛이 역
 력히 내 눈앞에 나타났다.

나는 무엇이랴 내 마음을 형용할 수 없는 비통을 추월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묘지가 어디냐 하고 물었더니 어머니는 어물어물 대답을 회피했다.
 그래서 내가 편지를 해도 회답이 없었구나 하고 모든 것을 알아차렸고 잠시 동안
 이라도 그러한 편지를 받고 어머니의 애정에 대한 부정을 한 내가 어리석었고 한층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에 가슴 아팠다.
 잠자리가 못마땅하고 돈이 없다는 편지 구절도 나를 오지 못하게 한 어머니의 마
 음이었다.
 지금도 돈이 다분히 있는 우리 집이었기에 살아 돌아 온 나를 지나치게 부모들은
 대접했다.
 몇 날이 지났다.
 무너진 듯한 나의 가슴을 채우기 위해 진탕 술을 마셨다.
 나라는 존재를 내 자신이 잊을 수 있을 정도로 폭음을 했고 또한 그러한 순간이
 나를 무한히 즐겁게 했다.
 나의 이러한 행동은 물론 사랑했던 경숙을 잊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
 아름다웠던 경숙이
 다정다감했던 경숙이
 화려함을 희구했던 경숙이
 살아있을 때 눈에 거슬리었던 불미(不美)한 이모저모도 유명(幽明)을 달리한 오늘
 날에 있어서는 그 모든 것이 추억으로 나의 머릿속에 명멸(明滅)했다.
 지난 세월의 괴로운 일, 즐거운 일을 고사하고 사람이 사람임에 추억을 가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의 행복임을 깨달은 나였고 그러한 복된 추억의 공허를 채우
 기 위한 나의 발악적인 음주 행패(行悻)였을지도 몰랐다.
 어떤 날 달 밝은 밤.
 그날은 이상하게도 내 창자가 술을 받아들이지를 않았다.
 의식적으로 더 마셨으나 다시 목구멍을 통해 땅바닥에 쏟아지기만 했다.
 연 수일간 술만 꼬박 마시는 것도 하나의 고행이었고 몸은 극도로 쇠약해졌다.
 북아현동의 기다란 고갯길은 밤 아홉 시만 지나면 인적이 잦지 않았다.
 그날 밤 웬 일이지 몸이 으스스했고 다리가 휘주근했다.
 빨리 떠난 방바닥에 들어 눕기를 원하면서 후미진 길을 조용히 걷는다는 것이
 길을 헛다며 앞으로 곤두박질했다.
 잠시에 정신이 흐리멍덩했고 그 몽롱한 정신을 가다듬고 일어나려고 애를 썼으나
 도무지 땅 바닥에 두 발을 세울 수가 없었다.
 한참 엎디어 있으면 정신이 가셔지겠지 하고 나는 그대로 엎디어 있었다.
 누가 나를 조금만 부축만 해주면 일어 설 수 있을 것 같았다. 찌박찌박 발짝 소리

와 무엇에 놀란 듯한 비명이 내 귀에 들렸다.
 어서 일어나야 하겠는데 하고 노력을 했다.
 누가 나의 등을 가볍게 흔들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낭의 등을 흔들면서 여인은 연거푸 나를 불렀다.
 “미안하시지만 나를 좀…….”
 “옳!? ”
 “부축해 주십시오.”
 그 여인은 조심스럽게 내 오른팔을 손으로 붙들고 일으켜 세우려고 발버둥을 쳤다.
 아리따운 인정(人情)에 힘을 얻었는지 나는 간신히 일어 설 수 있었으나 몸을 지탱하지를 못했다.
 쟁반 같은 달빛이 그 여인이 젊은 얼굴을 비쳤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는 전주(電柱)에 등을 기대고 머뭇거리는 그 여인에게 인사를 했다.
 “…….”
 그 여인은 아무 대답 없이 무엇을 망설이고 있다가 어떠한 결심이라고 한 듯이 입을 열어 놓았다.
 “자……실례지만 경숙의…….”
 “옳!? 경숙이요?”
 정신이 변현해 짐을 느꼈기에 그 여인의 말을 가로 짰다.
 “경숙의 남편이 되시는 박훈철…….”
 “예,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경숙의 친구였어요.”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보니 처음 대하는 얼굴은 아닌 상 싶었다.
 “예, 실례 했습니다.”
 “…….”
 “추태를 보여 드려서…….”
 “천만의 말씀을……근데 경숙의 소식을 들었나요?”
 “소식이라니요, 무슨…….”
 그 여인의 말은 나로 하여금 내 몸을 내 힘으로 지탱할 수 있게 만들었다.
 “모르세요?”
 “모르다니요, 그는 이미 이세상사람이…….”
 “옳!? ”
 이번에는 그 여인이 눈을 희번덕거리면서 반문했다.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은 결국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아니, 죽음이라니요?”
 “선생께서는 아직 모르고 있었나요?”
 “…….”
 그 여인은 내 말을 뜨고 할 말이 많은 듯하면서 가까스로 참고 있는 그러한 표정이었다.
 “몇 십 년을 살수 있다는 인간의 운명은 종말에 가서는 다 경숙과 같이…….”
 “선생님의 지나친 오해입니다.”
 그 여인은 나의 말을 앞질러 이렇게 외치다시피 아무지게 쏘아붙였다.
 “오해라니요?”
 “…….”
 그 여인은 고대를 푹 수그리고 있다가 아무 말 없이 앞장을 서 걷기 시작했다.
 “오해라니요?”
 그의 뒤를 따라 가면서 재차 물었다.
 “그렇게 믿고 계시는 것이 좋겠지요.”
 “그렇게 믿을 수밖에……부모들이 설마 나를 속이기야 하겠습니까?”
 “예——”
 무엇을 꼭 참고 있는 듯 했다.
 “선생께서는 그가 살아있다는 말씀이시나요?”
 “아, 아뇨.”
 당황히 부정하는 그 여인의 태도가 수상했다.
 “전 이 길로 가야 해요. 선생님은 저 길이지요?”
 “예이, 부근이시나요! 참 실례를 많이 했고…….”
 “…….”
 그 여인은 아무 말도 없이 약간 고개를 숙이고 안사를 마치더니 뛰다시피 골목길로 사라졌다.

(3)

이틀 동안 나는 자리에 들어 누웠다. 그 여인의 몇 마디 말이 몹시 나를 괴롭히기는 했으나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김 중사가 찾아 온 날 저녁때부터 나는 툭툭 털고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
 김 중사와 더불어 나올 때 너무 많이 술을 마시지 말라는 주의를 어머니께서 받았다.
 그 여인의 수수께끼 같은 말이 나의 머리를 어지럽혔기에 그날 밤 혀가 잘 돌아가지 않을 만큼 마셨다.

만취해도 집은 용케 찾아올 수 있었다.

안 취했음을 보이기 위해 걸음걸이에 주의를 거듭했으나 팔과 다리는 나의 마음과 어그러졌다.

내 집 대문 앞에 당도했을 때 그 대문 앞에 시커먼 그림자 같은 것이 납작 붙어있는 것이 취안에 들어 났기에 회중전자를 멀찌감치 서서 비쳤다.

아— 어슴푸레한 달빛과도 같은 전지 빛에 들어난 그 시커먼 그림자!

꿈인 상 싶었고 도깨비에 홀린 듯도 했다.

분명 죽었다고 믿은 경숙이었다.

유령은 결코 아니었다.

나의 전지 빛을 피할 셈으로 오른 팔로 얼굴 전체를 가렸다.

술기운이 한꺼번에 뺏소니 쳤다.

“경 경숙이!”

내 말이 떨어지자 내 발은 땀바닥으로 변했고 분명 경숙인 그 여인은 대문 앞으로 황급히 달아나기 시작했다.

“경 경숙이!”

고함을 지르면서 경숙의 뒤를 따랐다.

발이 마음대로 듣지 않았다.

“경숙이!”

나는 미친 듯이 뒤로 따라 가면서 불렀으나 경숙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기만 했고 내 목소리를 듣고 나온 어머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방바닥에 들어 눕게 되었다.

어머님은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왜 거짓말을 이제까지 했습니까? 왜 살아 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나를 속였습니까? 어머님!”

“.....”

“속 시원히 말해 주십시오. 어머님! 이 아들이 불쌍하지를 않습니까?”

어머님은 울음을 그쳤다.

“작년 겨울부터 수상하다 수상하다고 느껴는 왔으나 설마하고 그 애(경숙)를 믿었던 것이 이 어미의 불찰이었다.

어떤 날 밤에 나간 후 영영 소식을 듣지 못했다.

어미는 미친 듯이 그 애를 찾았다.

어떤 무더운 날 드디어 그 애를 발견했으나 그때는 이미.....”

“이미 어떻게 되었.....”

나는 앓은뱅이걸음으로 어머님 앞에 바짝 앉았다.

“그때는 벌써 탄 사람의 여편네가 되어 있었고 임신까지 하고 있었더라.”

그 이상 나는 더 들을 필요가 없었다.

경숙의 친구라는 그 여인의 수수께끼도 풀렸다.

화려하고 다정다감한 어떤 미모의 젊은 여성의 윤락(淪落)의 소사(小史)를 들은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었다.

경숙의 그러한 패륜은 결국에 있어서 윤락의 소사를 자신이 엮은 미모의 여성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을 것이라고 느껴졌다.

분하다든가 질투에 사무친다든가 모름지기 이러한 생각은 들지 않았고 내가 그를 너무나 믿었다는 내 자신의 호인간(好人間)성을 자소(自笑)할 뿐이었다.

나는 그 이튿날도 또 그 다음날도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못했다.

약사발을 입술에서 뱉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의 보약을 먹을 수 있는 부모의 지극한 부성에 모성애에 가슴 속으로 울뿐이었다.

나의 전후불각(戰後不覺)의 대폭음(大暴飲)은 확실히 자살적(自殺的) 행위였다.

그런고로 나는 심한 고열에 신음을 했다.

나는 병석에서 휴가로 돌아와 내가 걸어온 발자취에 대하여 준열한 자아비판을 했다.

유명을 달리 하였을 줄만 알았던 경숙의 지난날의 추억을 잊기 위하여 그 추억을 잊을 수 있으므로 내가 그를 추도하는 줄만 알았던 어리석고 너무나 현실주의자였음을 비로소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지극한 부모의 간호로써 내 몸은 완쾌했다.

그러나 음주는 하지 않았다.

나는 그 누구보다도 자제력과 의지와 그리고 또한 결단력이 굳음을 자타가 인정했다.

엄연히 살아 있는 경숙을 추도할 필요도 없었기에 원래 술을 멀리 하기를 노력한 육군 일등중사 박훈철(朴勳哲)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올 수 있었다.

나는 내가 가야할 일선으로 가야만 했고 또한 그곳으로 도착할 수 있게끔 떠나야만 했다.

아침부터 음산한 날씨가 눈 깜박할 사이에 먹물 같은 구름이 하늘을 덮고 벼락과 번개 속에 비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악몽의 연속이었던 2주일간의 눈물과 괴로움의 총 청산(清算)을 하늘이 나에게 베풀어 주는 것을 느꼈다.

나는 부대를 떠날 때 지시받은 장소인 신설동 로터리에 가서 나를 실어다 줄 부대의 트럭을 기다려야만 했다.

굳이 나오겠다는 부모를 간신히 떼어 놓고 나왔는데 어느새 아버지와 어머님께서 는 비를 함박 맞으면서 내가 도착할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역수같이 퍼붓는 포도(鋪道)에서 김 중사와 그리고 여러 전우들과 반가운 악수를 나누었다.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여 돌아올 우레 속에 서울의 모습을 희비(喜悲)가 교착된 눈 초리로 쏘아봤다.

우리들은 고개를 좌로 돌려 우리들이 차가 오기를 기다렸다.

미군 트럭이 번개같이 달려왔다.

어느새 어디서 뛰어 들어 갔는지 그 육중한 바퀴 속에 사람이 죽어 넘어졌다.

그것은 운전병의 실수는 물론 아니었고 자살을 기도한 고의의 행동이었다.

물 밀리듯이 사람 떼가 그곳에 쓸렸다.

무참하게도 허리로부터 양단(兩斷)되어 숨이 끊어졌다 했다.

웬 일인지 겹겹이 싸인 사람 떼를 헤치고 나는 죽어 넘어졌을 그 양단된 자살자의 참상을 봐야 속이 시원할 것 같은 알곳은 충격이 조수(潮水)처럼 밀려왔다.

나는 사람 떼를 헤치고 자살자의 얼굴을 봤다.

아, 신이여, 어떻게 이러한 짓곳은 장난을 나로 하여금 목격하게 하셨습니까?

양단된 그 자살자는 분명 경숙이었다.

산산이 흩어진 머리카락에 빗방울이 똑똑 떨어졌고 어떤 고역을 마치고 난 그리 한 사람의 안락에 넘쳐 홀은듯한 경숙의 얼굴이었다.

경숙이!

나는 경숙의 반신(半身)을 안았다.

이전에 경숙을 안는 듯이 주저하지 않고 힘껏 안았다.

뜨거운 내 눈물이 경숙의 얼굴 위에 사정없이 떨어졌다. 나는 경숙이의 손아귀에 단단히 쥐여진 종잇조각을 발견했다.

“.....경숙에 있어서는 당신만이 영원한 마음의 남편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사랑할 수는 절대로 없었습니다. 당신이 휴가로 오신 줄을 그때 그날 밤에 알았고 떠나는 날도 대문 밖에서 엿들었습니다.당신의 너그러운 마음에서 절 용서한다고 꼭 한 번만.....”

나와 그리고 여러 전우를 일선으로 인도할 트럭이 왔다 했다. 나는 부모님께 뒷일을 잘 부탁했다. 근심 말고 어서 승차하라는 부모님의 뜻을 알았다.

차는 달렸다 일선으로. (끝)

週 刊
on. 22 Feb. '54

空軍 위 - 클 리

EXERCISES
ENGLISH (53)
SPEAKING STUDY.

☆다브로이트版

第五十七號 (月)

論說

印度軍의不法行動

우리는 인도가 중립을

時事解説

印支戦争과 中共의野望

제안된 것이며, 거론된 것은, 대동정자의 의도, 원조, 여

MESSAGE

CROWNS

conscient

ily do

b on h

life

「王位

繼承」라고

한 사람

the swi

e laid a

면하고, 한

되었다.

「吾國의

호에서, 十字軍의

매일매

이다.

ANY WIFE

COULD LIKE

A NEW

RING

每月曜日 發行

空軍本部政訓監室 發行

第四卷 第二期

150

THE COMET

VOL8

151



코메트

THE COMET

THE COMET

발행처(發行處) 공군본부정훈감실(空軍本部政訓監室)
발행(發行) 겸(兼) 편집인(編集人) 공군중령(空軍中領) 서임수(徐壬壽)
인쇄처(印刷處) 공군고급부관실인쇄소(空軍高級副官室印刷所)
인쇄인(印刷人) 공군소령(空軍少領) 최지수(崔枝洙)

공군종군문인단을 비롯하여 각 신문통신사의 기자, 군인 그 밖의 인사가 집필한 종군
기, 전투실기, 공군전투를 소재로 한 문학작품 등, 군에 관한 종군기록의 집대성!
공군문고 제4집 출간!
날개의 성지(聖地)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